

전략연구

남양주시 청년 실태조사와 정책 방향 연구

이영안 · 이선 · 이윤구 · 장유미

CONTENTS

01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4
02 청년 이해 및 청년정책 사례 분석	7
제1절 청년 이해	7
제2절 청년정책 사례	15
제3절 소결	33
03 남양주시 청년 및 청년정책 현황 분석	37
제1절 남양주시 청년 현황	37
제2절 남양주시 청년정책 현황	49
제3절 소결	68
04 남양주시 청년 실태조사 및 심층면접조사	71
제1절 남양주시 청년 실태조사	71
제2절 남양주시 청년 심층면접조사	170
제3절 소결	179
05 결론	183
제1절 연구요약	183
제2절 정책제언	186
참고문헌	199

연구요약

연구목적

- 남양주시 맞춤형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 파악 및 분석
 - 국가 청년정책이 고용 중심에서 주거, 복지, 문화, 참여 등 삶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적 정책으로 확대되는 흐름 속에서 남양주시 청년들의 고용, 주거, 생활 여건 등 다양한 영역의 문제양상을 정확하게 파악
- 청년정책 인식개선 및 지역 특성을 반영한 중장기 정책 제언
 - 청년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실제 이용 경험을 분석하여 정책 접근성을 향상하고, 남양주시 청년들의 정책 참여 의향과 요구를 파악하여 향후 청년 참여 중심의 정책 추진 방안 모색

주요 내용 및 결과

- 남양주시 청년정책 및 정책환경 분석
 - 남양주시는 일자리, 주거, 복지, 문화, 참여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금성 지원사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이에 따라 청년의 역량 개발과 자립 지원을 위한 성장지원형 정책 확대 필요성이 확인됨
- 남양주시 청년 실태조사 결과
 - 청년들은 취업과 소득 불안정, 주거비 부담,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주요 어려움으로 인식
 - 또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정신건강 문제, 사회적 고립 경험에 증가하고 있어 경제·사회·심리적 지원의 필요성이 확인됨
- 청년 정책수요 및 심층면접(FGI) 결과
 - 청년들은 양질의 일자리 지원, 실질적인 주거지원, 청년공간 확대, 정신건강 지원 강화, 정책 정보 접근성 개선 등을 우선적으로 요구함
 - 특히 정책 정보 부족으로 인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확인되어 정책 전달체계 개선의 필요성 도출

정책제언

- 지역 특화 산업 연계형 청년 일자리 및 미래산업 인재 양성 강화
 - 남양주시 전략산업과 미래산업 수요를 반영한 취업지원 플랫폼 구축, 직무역량 강화 교육,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창업지원 확대 등을 통해 청년의 취업 경쟁력 향상 및 지역 정착 기반 강화
- 주거 점유형태 다변화에 대응하는 청년 주거 안전망 구축 및 지원
 - 역세권 중심 청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청년 월세 지원 강화, 전세사기 예방 지원체계 구축, 주택금융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청년의 주거 안정성과 경제적 부담 완화 도모
- 생활권별 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청년 복합문화인프라 구축
 - 권역별 청년 거점공간 조성, 청년 수요를 반영한 문화·여가 프로그램 운영, 문화 소외지역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지역 간 청년정책 체감도와 문화 접근성 격차 완화
- 청년정책 접근성 강화 및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 청년정책 통합플랫폼 구축, 청년 친화적 정책 홍보 강화, 청년지원센터 기능 확대 등을 통해 정책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고 청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 청년 참여 기반 정책 거버넌스 강화
 - 청년정책협의체 활성화, 청년참여예산제 확대, 생활권별 의견수렴 체계 구축, 청년 정책평가 참여 제도화 등을 통해 청년이 정책 수혜자를 넘어 정책 결정과 평가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사회적 고립 및 정신건강 지원체계 고도화
 - 청년마음건강센터 기능 강화,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확대, 고립·은둔 청년 발굴 및 지원체계 구축 등을 통해 청년 정신건강 증진과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주제어: 남양주시, 청년, 실태조사, 정책 방향

01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 청년은 사회 진입과 경제적 자립을 준비하는 생애주기 단계에 있는 집단으로, 국가 및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중요한 인적자원으로 인식되고 있음
- 우리나라 청년정책은 정책목표와 제도적 기반의 변화에 따라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음
 - 청년정책 제1기는 2004년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제정 이후부터 2014년까지로, 청년 실업 해소와 고용 촉진을 중심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이 추진된 시기임
 - 제2기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로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청년기본조례 제정과 함께 다양한 청년정책이 실험적으로 추진된 시기임
 - 제3기는 2020년 「청년기본법」 제정 및 시행 이후 2026년 현재까지로, 청년의 권리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종합적인 청년정책이 추진되는 시기임
- 우리나라 청년정책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청년 실업 문제 대응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함
 - 노무현정부 시기 청년 실업 해소와 고용 촉진을 목표로 중앙정부 단위의 청년정책이 추진되었으며, 2004년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제정 이후 청년실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고용정보 제공 인프라 확충, 직업능력개발, 근로장려금(EITC)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함
 - 이후 2009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정을 통해 금융위기 대응과 청년 고용 확대를 목표로 직업능력개발 체계 구축, 산학 연계, 해외 취·창업 지원, 고졸자 취업 지원 등의 정책이 추진됨

- 2013년 이후에도 청년 고용 촉진을 중심으로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를 설치하여 취·창업 활성화 정책이 추진됨
-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지속된 경기 침체와 고용 불안정으로 인해 청년 고용 중심 정책은 청년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한계를 보였음
 - 청년 일자리 문제가 장기화되면서 청년문제는 취·창업 문제를 넘어 주거 불안, 부채 증가, 사회적 고립 등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문제로 확대됨
 - 이러한 문제는 청년 삶의 질 저하와 사회 진입 지연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 (최지연 외, 2022)
- 이러한 정책환경의 변화 속에서 청년정책은 기존의 고용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청년 삶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적 정책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특히 2015년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기본조례가 확산되었으며, 2025년 기준 전국 23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기본조례가 제정됨
 - 이는 청년문제를 단순한 실업 문제로 접근하기보다는 주거 불안, 교육비 부담, 취업 준비 비용 증가, 불안정 노동, 사회적 고립 등 복합적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함
-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청년정책은 지역 청년의 정착과 지역 활력 제고 측면에서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음
 -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는 청년문제를 사회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청년의 현실을 반영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여건과 정책 역량에 따라 청년정책의 범위와 내용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역 간 정책 격차가 나타나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 이러한 흐름 속에서 청년 당사자를 중심으로 청년정책의 법적 기반 마련 요구가 제기되었으며, 2020년 「청년기본법」 제정 및 시행을 통해 국가 차원의 청년정책 추진 기반이 마련됨
 -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권리 보장과 정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체계적인 청년정책 추진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음
- 남양주시 또한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2017년 12월 제정)를 기반으로 청년정책 추진을 모색하고 있으나, 지역 청년의 생활 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할 수 있는 체계적인 자료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임
 - 특히 남양주 청년의 고용, 주거, 생활 여건 등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나는 문제 양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정책 수립이 필요한 상황임
 - 지역 청년의 현실과 정책 수요를 반영한 '남양주형 청년정책' 수립과 정책 발굴을 위해서는 청년

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요구됨(권오균, 2024)

- 따라서 본 연구는 남양주시 청년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생활 실태, 정책 인식 및 정책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청년 실태조사를 수행하고자 함
 - 이를 통해 남양주시 청년의 삶의 조건과 문제를 다층적으로 이해하고 향후 청년정책 방향과 정책 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 나아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남양주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함

2 연구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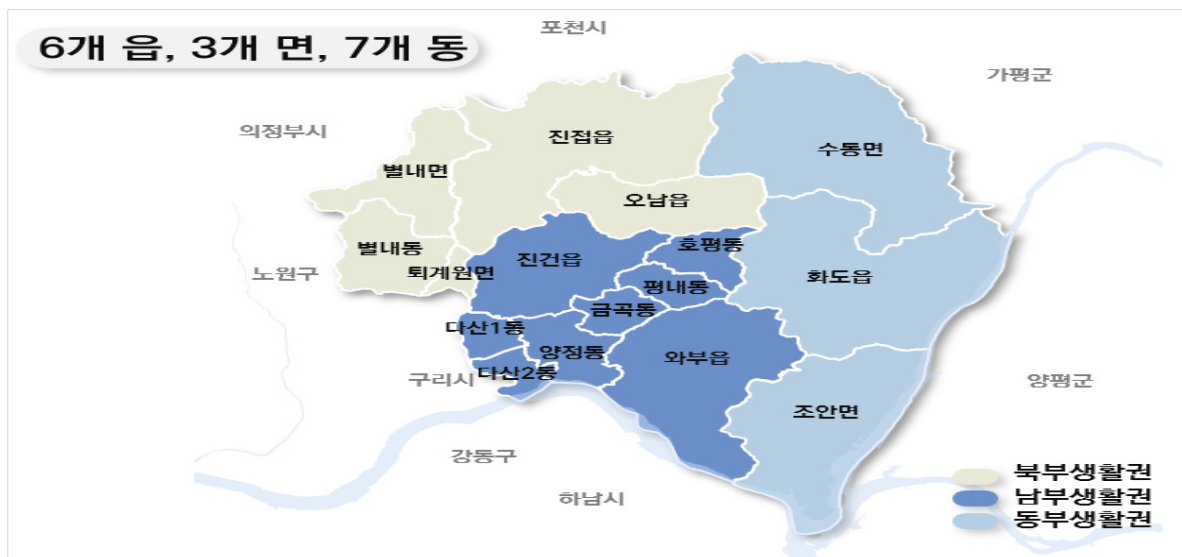
- 본 연구는 지역 청년의 인구사회적 특성과 생활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여건에 적합한 청년정책의 방향과 정책 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청년의 인구학적 특성, 경제활동 상태, 주거 여건, 생활환경 등 청년의 삶 전반에 대한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함
 - 청년이 체감하는 주요 문제와 정책 수요를 분석하여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함
- 또한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과 정책 참여 수준을 분석하여 향후 청년정책 추진 과정에서 정책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청년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 경험을 분석하여 정책 접근성 및 정책 전달체계의 개선 방향을 도출함
 - 청년의 정책 참여 의향과 정책 요구를 파악하여 청년 참여 기반 정책 추진 방안을 모색함
- 아울러 지역 청년의 생활 여건과 정책 수요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청년정책 추진 방향과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 고용, 주거, 복지, 문화, 참여 등 청년 삶의 주요 영역별 정책 과제를 도출함
 - 지역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함
-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지역 청년의 삶의 실태와 정책 수요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청년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정책 의사결정의 근거를 마련함
 - 지역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와 지역사회 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기반 마련에 기여함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 본 연구는 지역 청년의 생활 실태와 정책 수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청년정책 방향을 도출하기 위하여 연구의 시간적·공간적·내용적 범위를 설정하여 수행함
 - (시간적 범위) 연구 수행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청년정책 환경과 청년의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분석함
 - (공간적 범위) 남양주시 행정구역(6읍, 3면, 7동)

그림 1-1 행정구역



-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청년의 삶과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주요 영역을 중심으로 설정함
 - 청년인구 및 사회경제적 특성 등 청년 일반 현황분석
 - 청년의 경제활동 및 일자리 관련 실태 분석
 - 청년의 주거 여건 및 생활환경 분석
 - 청년 삶의 만족도 및 사회 인식 분석

- 청년정책 인식 및 정책 이용 경험, 정책 수요 분석
- 또한 청년 실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청년정책 방향 및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범위를 포함함
- 청년 삶의 주요 영역별 정책과제 도출
- 지역 청년정책 추진 방향 및 정책 개선 방안 제시

2 연구 방법

- 본 연구는 남양주시 청년의 생활 실태와 정책 수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문헌연구, 실태조사, 심층면접조사, 통계자료 분석 등을 병행하여 수행함
- 문헌 및 사례연구를 통해 청년정책 관련 선행연구 및 정책 추진 현황을 분석함
 - 국내·외 참고문헌 및 연구자료 등 청년정책 관련 선행연구 사례조사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경기도 등)의 청년정책 관련 정책자료 분석
 - 국외 주요 국가(일본, 독일, 미국 등)의 청년정책 사례 분석
 - 통계청 및 남양주시 사회조사 등 기존 통계자료를 활용한 기초자료 분석
- 남양주시 청년의 생활 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함
 - 조사대상: 남양주시 거주 청년(18~39세) 1,000명
 - 조사방법: 온라인 및 오프라인 설문조사 병행 실시
 - 표본설계: 성별, 연령구간, 생활권역, 가구형태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배분
 - 조사내용: 문화·여가, 건강, 결혼·출산, 경제, 일자리, 주거, 참여·권리, 교육·훈련, 생활여건, 남양주시 정책평가
- 청년의 정책 인식과 요구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심층면접조사(FGI)를 실시함
 - 조사대상: 남양주시 거주 청년(18~39세) 총 20명
 - 조사방법: 집단 심층면접(FGI) 방식으로 실시
 - 표본구성: 남양주시 청년정책협의체 구성원 및 남양주 거주 청년 등
 - 조사내용: 이주경험·소속감, 일자리·취업교육, 주거, 경제·자산형성, 건강·복지, 참여·소통, 문화·여가, 결혼·출산, 청년정책

02

청년 이해 및 청년정책 사례 분석

제1절 청년 이해

1 청년의 개념과 정책적 범위

□ 청년의 개념

- 청년은 사회 진입과 경제적 자립을 준비하는 생애주기 단계에 있는 인구집단으로, 지역의 미래 인구구조와 경제활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정책 대상 집단임(안성수 외, 2025)
 - 청년은 교육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경제적 독립, 사회적 역할 형성 등이 이루어지는 전환기적 시기에 있음
 -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청년은 노동시장, 주거, 사회참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정책적 영향을 크게 받는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음
 -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청년의 지역 정착 여부가 지역 인구구조와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청년은 중요한 정책 대상 집단으로 이해되고 있음(오정민 외, 2025)

□ 학술적 의미의 청년

- 학술적으로 청년은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생애주기 단계에 있는 집단을 의미하며, 사회적·경제적 독립을 준비하는 과도기적 인구집단으로 설명됨(최지연 외, 2022)
 - 청년은 교육을 마치고 노동시장에 진입하며 독립적인 생활을 준비하는 시기로 이해됨
 - 이러한 과정에서 취업, 주거, 인간관계 형성 등 삶의 전환점을 경험하게 됨
- 최근 연구에서는 청년을 단순한 연령집단이 아니라 사회구조 변화 속에서 형성되는 사회적

집단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안성수 외, 2025; 김규혜 외, 2020)

- 교육 기간의 연장, 노동시장 진입 지연, 결혼 및 출산 시기의 변화 등으로 인해 청년기의 범위가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남
- 이에 따라 청년은 생애주기적 특성과 함께 사회·경제적 환경의 영향을 받는 사회적 집단으로 이해되고 있음

□ 법적 의미의 청년

- 우리나라에서는 「청년기본법」을 통해 청년의 법적 정의와 정책 대상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 「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르면 청년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으로 정의됨
 - 이는 청년정책의 기본 대상 범위를 규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권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법적 근거로 활용되고 있음
- 다만, 다른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청년의 연령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청년기본법」에서는 다른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청년의 연령 범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일부 정책에서는 청년의 사회 진입 시기와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청년 연령 범위를 39세까지 확대하여 적용하기도 함
- 지방자치단체 또한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청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대상 범위를 설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청년 기본조례를 통해 청년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 정책 대상 범위와 정책 영역을 규정하고 있음

□ 정책적 의미의 청년

- 정책적 관점에서 청년은 사회 진입 과정에서 다양한 구조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정책 대상 집단으로 이해되고 있음(광주광역시 북구, 2024; 안성수 외, 2025)
 - 청년은 교육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과정에서 취업 준비 기간 장기화, 불안정 고용, 낮은 소득 수준 등 다양한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
 - 또한 높은 주거비 부담과 주택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독립적인 주거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부모와

동거하거나 주거비 부담이 큰 환경에 놓이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 자산 형성 측면에서도 학자금 대출, 낮은 초기 소득, 높은 생활비 등으로 인해 장기적인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문제는 개인의 차원을 넘어 노동시장 구조, 주거시장 환경 등 사회 구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김규혜 외, 2020)

○ 이에 따라 최근 청년정책은 단순한 취업 지원을 넘어 청년 삶 전반을 포괄하는 정책으로 확대되고 있음

- 과거 청년정책은 주로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에 초점을 두고 추진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청년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청년정책은 일자리뿐만 아니라 주거, 교육, 건강, 문화, 복지, 금융, 사회참여 등 다양한 영역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정책 체계로 발전하고 있음

- 또한 정책 수립과 추진 과정에서 청년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려는 노력도 강화되고 있음(안성수 외, 2025)

표 2-1 개념적 정의

구분	개념 정의	정책적 시사점
학술적 의미	•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생애주기 단계의 집단 • 사회적·경제적 독립을 준비하는 과도기적 인구집단	• 교육기간 연장, 노동시장 진입 지연, 결혼·출산 시기 변화로 청년기 범위 확대 경향 나타남 • 청년을 사회구조 영향을 받는 집단으로 이해 필요
법적 의미	• 「청년기본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 일부 정책에서는 사회 진입 지연 등을 고려하여 39세까지 확대 적용하기도 함 • 지방자치단체는 청년 기본조례를 통해 정책 대상 범위와 정책 영역 설정
정책적 의미	• 사회 진입 과정에서 다양한 구조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정책 대상 집단	• 청년 문제는 개인 문제가 아니라 노동시장·주거시장 등 사회 구조와 밀접하게 연관됨 • 최근 청년정책은 일자리 중심에서 주거·교육·건강·복지·사회참여 등 삶 전반을 포괄하는 정책으로 확대됨

자료: 최지연 외(2022), 오정민 외(2025), 안성수 외(2025) 등을 바탕으로 재구성

□ 「청년기본법」

- 우리나라 청년정책의 기본 법적 근거는 「청년기본법」이며,¹⁾ 동 법은 청년의 권리와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르면, 청년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며,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 법은 청년발전을 청년의 권리보호와 참여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을 통해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 또한 청년정책은 청년발전을 주된 목표로 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정책으로 규정하고 있음
- 「청년기본법」은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계획체계를 함께 제시하고 있음
 - 국무총리는 5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음
 - 정부는 효율적인 청년정책 수립을 위해 청년의 고용·주거·교육·문화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청년정책 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며,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에는 일정 비율 이상의 청년을 위촉하도록 하고 있음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과 고용기회를 확대하여 청년의 고용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됨
 - 동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청년을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청년고용 정책의 기본 대상 범위를 설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음
 - 다만,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의무조용제 적용 시에는 청년 연령 범위를 15세 이상 34세 이하까지 확대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 미취업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업훈련, 취업지원, 고용정보

1) 「청년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공 등 다양한 고용촉진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청년 미취업자를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하는 청년 의무고용제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와 함께 정부는 청년 미취업자의 취업 능력 향상을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청년정책 관련 주요 법령

○ 「고용정책 기본법」

- 「고용정책 기본법」은 국민의 고용 안정과 고용 촉진을 위한 국가의 기본 정책 방향을 규정하는 법률로 청년 고용정책 추진의 제도적 근거로 활용되고 있음
- 동 법에서는 국민의 고용안정과 고용촉진을 위해 종합적인 고용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청년, 여성, 고령자 등의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고용정책 기본법」 제25조)

○ 「주거기본법」

- 「주거기본법」은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기본 정책 방향을 규정하는 법률로 청년 주거정책 추진의 법적 기반으로 활용되고 있음
- 정부는 국민의 주거권 보장과 주거 안정 실현을 위해 주거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특히,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주거기본법」 제3조)

표 2-2 청년 관련 법령

법령명	주요 내용
청년기본법	•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의 • 청년 발전을 청년의 권리보호, 참여 확대, 고용 촉진, 능력 개발, 복지 향상 등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규정 • 청년정책 실태조사 실시 및 정책 과정에서 청년 참여 확대 규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 시행령 기준 청년 연령 15~29세 규정 • 공공기관 청년 의무고용 적용 시 15~34세까지 확대 적용 • 청년 직업훈련, 취업지원, 고용정보 제공 등 고용촉진 사업 추진 • 일정 규모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청년 의무고용제운영
고용정책 기본법	• 국가의 종합적 고용정책 수립·시행 규정 • 청년·여성·고령자 등 취업 취약계층 고용 촉진 정책 추진 규정
주거기본법	• 국민의 주거권 보장 및 주거 안정 정책 수립 규정 •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 대상 주거지원 정책 추진 가능

□ 경기도 청년정책 관련 주요 조례

- 경기도는 청년정책 관련 조례를 통해 청년정책의 제도적 기반 구축을 중심으로 경제적 지원과 일자리·창업 활성화, 청년 활동 기반 조성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는 경기도 청년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체계를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로, 청년의 권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동 조례는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등 경기도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청년정책의 주요 분야를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문화 등으로 설정하고 청년의 사회 참여 확대와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이와 함께 청년정책 수립 과정에서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고 청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청년 참여기구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는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임
 - 동 조례에 따라 경기도는 일정 기간 이상 도내에 거주한 청년에게 분기별 일정 금액의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는 청년의 고용 촉진과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임
 - 동 조례는 청년의 취업 기회 확대와 고용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사업과 관련 기관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경기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
 - 「경기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는 청년의 창업 활성화와 창업 기반 조성을 위해 제정된 조례로 청년 창업가의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동 조례는 창업 교육, 창업 공간 지원, 창업 자금 및 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 「경기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 「경기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청년의 활동과 교류를 지원하기 위한 청년 전용 공간의

조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임

- 동 조례에 따라 경기도는 청년의 소통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공간을 조성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음

표 2-3 경기도 청년정책 관련 주요 조례

조례명	주요 내용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 경기도 청년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체계 규정 •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근거 마련 • 청년정책위원회 및 청년참여기구 운영 규정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 도내 거주 청년 대상 청년기본소득 지급 근거 마련 •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 청년 고용 촉진 및 일자리 창출 지원 근거 마련 • 취업 지원사업 및 관련 기관 협력 추진 규정
경기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	• 청년 창업 활성화 및 창업 기반 조성 목적 • 창업 교육, 창업 공간, 창업 지원 프로그램 추진 근거
경기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 청년 전용 공간 조성 및 운영 근거 마련 • 청년 활동, 교류 및 커뮤니티 프로그램 지원

□ 남양주시 청년정책 관련 주요 조례

- 남양주시는 청년정책 조례를 통해 청년의 기본 권리 보장과 정책 추진 기반 마련을 중심으로 일자리·창업 지원과 사회적 취약 청년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는 청년의 권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청년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제정된 조례임
 - 동 조례는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등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와 청년 의견 수렴을 위한 청년 참여기구 운영 및 청년정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남양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 「남양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는 청년의 사회참여 촉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임
 - 동 조례에 따라 일정 기간 이상 남양주시에 거주한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청년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 「남양주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 「남양주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는 청년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임

- 동 조례는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일자리 지원사업, 직업능력 개발,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남양주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 「남양주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사회적 관계 단절 및 고립 상태에 있는 청년의 사회 복귀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임

- 동 조례는 상담, 사례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 사회적 고립청년의 사회참여와 자립 지원을 위한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남양주시 청년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 「남양주시 청년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는 청년에게 공공기관 행정업무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직무 경험과 진로 탐색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임

- 동 조례는 행정체험연수 대상, 운영 방법, 지원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남양주시 청년창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남양주시 청년창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청년 창업 활성화와 창업 기반 조성을 위해 청년창업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임

- 동 조례는 창업 공간 제공, 창업 교육 및 컨설팅, 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청년 창업가의 성장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표 2-4 남양주시 청년정책 관련 주요 조례

조례명	주요 내용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 청년정책 기본 방향 및 추진체계 규정 •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근거 마련 • 청년정책위원회 및 청년참여기구 운영
남양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 일정 기간 남양주시 거주 청년 대상 기본소득 지급 근거 마련 • 청년의 생활 안정 및 사회참여 촉진
남양주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 청년 고용 촉진 및 일자리 창출 정책 추진 근거 마련 • 취업지원 및 직업능력 개발 사업 추진
남양주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사회적 고립 청년의 사회복귀 및 자립 지원 • 상담, 사례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남양주시 청년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 청년 대상 공공기관 행정업무 체험 기회 제공 • 진로 탐색 및 직무 경험 지원
남양주시 청년창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청년창업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 창업 공간, 교육 및 창업 지원 프로그램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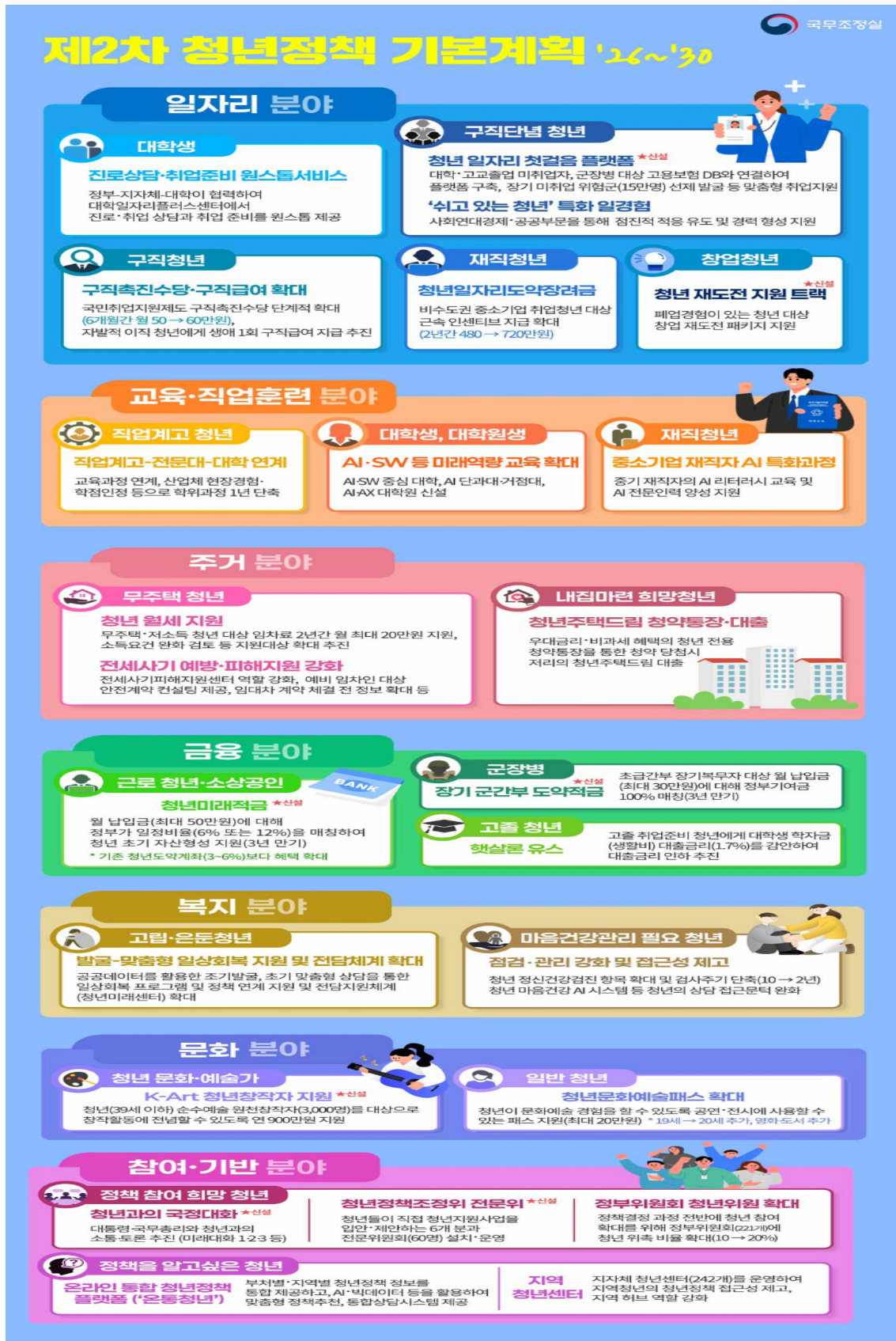
1 국내 청년정책 사례

- 우리나라 청년정책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구조로 추진되며, 청년 정책 영역은 대체로 일자리, 교육, 주거, 금융, 생활복지문화, 참여를 중심으로 구성됨
- 특히, 2020년 「청년기본법」 제정 이후 청년정책은 단순 고용정책에서 청년 삶 전반을 지원하는 종합정책으로 확대되고 있음

□ 중앙정부 청년정책 사례

-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청년정책은 「청년기본법」을 기반으로 국무총리 산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음
- 법률에 따라 정부는 5년 단위의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청년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2025년까지는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을 통해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의 5개 분야 중심으로 청년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통해 범정부 청년정책 추진체계 구축과 청년 삶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적 정책 기반이 마련됨
- 이후 정부는 제1차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반영하여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2030)」을 수립하였으며, “첫걸음부터 함께, 모든 청년이 만들어가는 미래”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청년의 기회보장, 기본생활 지원, 권리 확대를 정책 목표로 제시하고 있음
-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청년정책을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의 5개 분야로 재구성하여 추진하고 있음

그림 2-1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2030)



자료: 은둔청년 홈페이지(<https://www.youthcenter.go.kr/main>) (2026년 03월 검색)

○ 일자리 분야

- 중앙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은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고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취업지원, 직업훈련, 일경험 제공, 취업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음
- 특히 미취업 청년과 구직단념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활동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과 함께, 디지털·신산업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 정책을 확대하여 청년의 취업역량 강화와 노동시장 적응을 지원하고 있음
- 또한 중소기업 취업 촉진과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지원제도와 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지원 정책을 병행하여 청년의 다양한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있음

표 2-5 청년정책(일자리·창업 분야)

구분	정책명	지원대상
취업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 대학 재학생(직업계고 등 고교생 포함) • 대학·고교 재학생(연령무관)
	청년고용 올케어 플랫폼	• 대학 졸업 후 미취업 상태인 청년 • 대학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 졸업생(연령무관)
	일경험	• 미취업 청년 • 15~34세
	K-디지털트레이닝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받은 자 • 15세 이상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청년 특례)	• 소득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5억원 이하 • 15~34세 (병역의무 이행기간 최대 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 청년은 소득기준 무관 • 재산 5억원 이하 • 15~34세
	청년도전 지원사업	• 구직단념 청년(6개월 이상 실업 등) • 18~34세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 취업애로청년(4개월 이상 실업 등) 채용 기업 • 빈일자리 업종 기업 취업 청년 • 15~34세
	청년 내일채움공제 (24년 신규지원 중단)	• 건설·제조업 등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 정규직 취업 청년 • 월 급여 총액 300만원 이하 • 15~34세
창업	도전! K-스타트업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자 • 연령 무관
	청년창업사관학교	• 청년창업자(예비창업자 포함) 및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 • 39세 이하
	창업중심대학	• 예비창업자 및 대학발 창업기업 • 일반형(연령무관), 생애최초 청년 예비창업형(29세 이하)
	청년창업펀드	• 대표가 39세 이하 청년 • 임직원 중 청년 비중 50% 이상 중소·벤처기업
	청년전용 창업자금	• 청년창업자(업력 3년 미만 중소벤처기업 및 예비창업자) • 39세 이하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제감면	• 청년창업자(업력 3년 미만 중소벤처기업 및 예비창업자) • 15~34세
	공공 수익계약 우대	• 청년창업기업 • 39세 이하

자료: 온통청년 홈페이지(<https://www.youthcenter.go.kr/main>) (2026년 03월 검색)

○ 교육 분야

- 중앙정부의 청년 교육 정책은 청년의 교육 기회 확대와 직무역량 강화를 통해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미래 산업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음
- 대학생의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장학금, 근로장학 사업,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등을 통해 등록금 및 생활비 부담 경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공계 분야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음
- 직업계고 학생 및 고졸 청년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과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지원을 통해 직업교육과 취업을 연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산업 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및 첨단산업 분야 부트캠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항공우주 등 미래 산업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음
- 또한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통해 대학과 지역 산업을 연계한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청년의 지역 정착과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음

표 2-6 청년정책(교육 분야)

구분	정책명	지원대상
학비 부담 완화	국가장학금	• 소득분위 기준 9구간(기준 중위소득 300%) 이하 • 성적 기준(B 이상) • 대학생(연령무관) * 기초·차상위, C학점 이상, 신입생·장애학생·자립준비청년은 성적 기준 미적용
	근로장학 사업	• 소득분위 기준 9구간(기준 중위소득 300%) 이하 • 성적 기준(C0 이상) • 대학생(연령무관)
	대학생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 국내대학 학부생·대학원생 • 소득기준 - 학부생: 등록금 9구간 이하, 생활비 8구간 이하 - 대학원생: 등록금·생활비 모두 4구간 이하 • 학부생(만 35세 이하), 대학원생(만 40세 이하)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 이공계 전일제 대학원생으로 연구활동 수행자 • 연령무관
고졸 청년 취업 지원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지원	• 직업계고 및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참여 3학년 학생 중 중소·중견 기업 취업자 • 18~19세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지원	• 직업계고 재학생(고3) 및 미취업 졸업자(1년 이내)
맞춤형 직무 역량 교육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 계약학과 학생 • 연령무관
	부트캠프	• 첨단산업 분야 취업 희망 대학생 •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항공우주, 디스플레이, 미래차 등 • 대학생(연령무관)
지역 특화 인재 양성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 체계(RISE)	• 대학 및 지역청년 •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자료: 온통청년 홈페이지(<https://www.youthcenter.go.kr/main>) (2026년 03월 검색)

○ 주거 분야

- 중앙정부의 청년 주거 정책은 청년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주택 공급, 주택 구입 및 전·월세 자금 지원, 주거비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음
- 청년의 주거 안정 기반 마련을 위해 공공 분양주택 및 공공 임대주택 공급 정책을 추진하여 청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등을 대상으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있음
- 청년의 주택 구입 및 임차 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주택드림 청약 및 청년 주택드림 대출, 디딤돌 대출, 버팀목 대출, 청년 보증부 월세 대출 등 다양한 금융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이와 함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통해 무주택 청년의 월세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 주거안정 장학금 및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등을 통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있음

표 2-7 청년정책(주거 분야)

구분	정책명	지원대상
청년 주택 공급	공공 분양주택 공급	• 도시근로자 소득 140% 이하 • 자산 3.62억원 이하 • 청년,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신생아(0~1세)
	공공 임대주택 공급	• 도시근로자 소득 50~150% 이하 • 자산 3.37~3.45억원 이하 • 청년,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신생아(0~1세)
청년 주택 자금 대출	청년 주택드림 청약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19~34세 무주택 청년
	청년 주택드림 대출	• 연소득 미혼 7천만원, 기혼 1억원 이하 • 분양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 20~39세 무주택 청년
	디딤돌대출(신혼부부)	•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 순자산 4.88억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6억원 이하 주택 •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디딤돌대출(신생아 특례)	• 연소득 1.3억원 이하 • 순자산 4.88억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9억원 이하 주택
	버팀목대출(청년)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순자산 3.37억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3억원 이하 주택 • 19~34세 청년
	버팀목대출(신혼부부)	• 부부합산 소득 7.5천만원 이하 • 순자산 3.37억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4억원 이하 주택 •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버팀목대출(신생아 특례)	• 부부합산 소득 1.3억원 이하(맞벌이 2억원 이하) • 순자산 3.37억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5억원 이하 주택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
	청년 보증부 월세 대출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 • 전용면적 60㎡ 이하 • 임차보증금 6.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 19~34세 청년
청년 주택 주거비 지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부모가구 100% 이하 • 청년재산 1.02억원 이하 & 부모재산 4.7억원 이하 • 19~34세 무주택 청년
	청년 주거안정 장학금	• 기초·차상위 대학생 • 부모 주소지가 대학 기준 원거리 지역 • 39세 이하 미혼 대학생

구분	정책명	지원대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부부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자료: 온통청년 홈페이지(<https://www.youthcenter.go.kr/main>) (2026년 03월 검색)

○ 금융 분야

- 중앙정부의 청년 금융 정책은 청년의 자산 형성 지원과 금융 접근성 확대를 통해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음
- 청년의 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내일저축계좌등을 운영하여 정부 지원금 및 이자 혜택을 통해 청년의 저축을 장려하고 있음
- 병역의무 이행자의 사회 복귀와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을 운영하여 군 복무 기간 동안 목돈 마련을 지원하고 있음
- 금융 취약 청년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햇살론 유스와 청년 채무조정 특례등을 통해 학자금 및 생활자금 대출 지원과 채무 조정 제도를 제공하고 있음
- 이와 함께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등 금융투자 지원 제도를 통해 청년의 투자 경험 확대와 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있음

표 2-8 청년정책(금융 분야)

목적	정책명	지원대상
장기 자산 형성	청년도약계좌(금융위)	-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 가구소득 중위소득 250% 이하 * 개인소득 6,000~7,500만원은 정부기여금 없이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19~34세 청년
저소득 청년 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복지부)	- 월 근로·사업소득 50만원 초과 ~ 250만원 이하 * 기초·차상위: 월 10만원 이상 소득 - 가구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19~34세 청년 (수급자·차상위자 15~39세)
장병 사회 복귀 준비	장병내일준비적금(국방부)	병역의무이행자 (연령 무관)
금융 애로 해소	햇살론 유스	-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대학생·미취업청년·사회초년생·청년사업자 19~34세 청년
	청년 채무조정 특례	- 금융채무 연체 중인 대학생 및 미취업청년 19~34세 청년
금융 투자 경험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2025년 일몰)	- 총급여 5,000만원(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19~34세 청년

자료: 온통청년 홈페이지(<https://www.youthcenter.go.kr/main>) (2026년 03월 검색)

○ 생활복지문화 분야

- 중앙정부의 청년 생활복지·문화 정책은 청년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취약 청년 지원을 목표로 다양한 복지 및 문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가족 돌봄 부담이나 사회적 고립 등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돌봄청년 전담지원 사업과 고립은둔청년 전담지원 사업을 통해 상담, 사례관리, 사회복귀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음
- 보호 종료 이후 자립을 준비해야 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여 주거, 생활, 자산 형성 등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고 있음
- 청년의 생활 안정과 건강한 생활을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추진하여 식비 부담을 완화하고 있음
- 이와 함께 청년 문화예술패스와 청년예술인 예술활동 적립계좌등을 통해 청년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예술 활동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K-패스)을 통해 교통비 부담 완화를 지원하고 있음

표 2-9 청년정책(생활복지문화 분야)

구분	정책명	지원대상
가족돌봄 청년	가족돌봄청년 전담지원 시범사업	- 장애헌신·신체 질병, 약물 문제 등을 가진 가족을 돌봐야 하는 청년 13~34세 청(소)년
고립은둔 청년	고립은둔청년 전담지원 시범사업	- 사회관계 형성을 회피하고 심한 경우 일정기간 이상 가정(자기방) 내 머무르는 청년 19~34세 청년
자립준비 청년	자립준비청년 지원	- 보호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 종료 후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 18~34세 자립준비청년
식사	천원의 아침밥 사업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 · 대학 재학생
문화	청년 문화예술패스	만 19세 청년
	청년예술인 예술활동 적립계좌	-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18~39세 청년예술인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교통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K-패스)	일반·청년·저소득층 대상 · 청년 30% 환급 · 19~34세 청년

자료: 온통청년 홈페이지(<https://www.youthcenter.go.kr/main>) (2026년 03월 검색)

○ 참여 분야

- 중앙정부의 청년 참여 정책은 청년의 정책 결정 과정 참여 확대와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음
-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를 위해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 위촉 대상 정부위원회, 청년보좌역 및 2030 자문단등을 운영하여 정책 수립 및 결정 과정에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음
- 정책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을 발굴하기 위해 청년인재DB를 구축하여 정부 정책 과정에 청년

인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청년의 정책 제안과 의견 수렴을 위해 청년신문고를 운영하여 청년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있음
- 이와 함께 온통청년 플랫폼과 중앙·지역 청년지원센터를 통해 청년정책 정보 제공과 상담, 정책 연계 등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표 2-10 청년정책(참여 분야)

구분	정책명	참여대상
정책 참여	청년정책조정위원회	• (정부) 국무총리(위원장), 17개 중앙부처 장관 및 광역·기초자치단체 대표 • (민간) 청년정책 관련 전문가 또는 청년단체 대표 등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만 19~34세)
	청년 위촉 대상 정부위원회	• 모든 청년 • 19~34세 청년
	청년보좌역·2030자문단	• 정책결정 과정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 • 보좌역 19~34세, 자문단 19~39세
	청년인재DB	• 정책결정 과정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 • 성별·학력·경력 제한 없음 • 19~39세 청년
	청년신문고	• 청년정책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정책 전달 체계	온통청년	• 청년정책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중앙·지역 청년지원센터	• 모든 청년

자료: 온통청년 홈페이지(<https://www.youthcenter.go.kr/main>) (2026년 03월 검색)

□ 경기도 청년정책 사례

- 광역자치단체의 청년정책은 중앙정부 정책을 지역 여건에 맞게 보완하는 수준을 넘어, 지역 청년의 삶과 이행 경로를 반영한 독자적 정책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
- 경기도는 전국 최대 규모의 청년 인구를 보유한 광역자치단체로서, 청년의 취업·교육·주거·복지·참여를 포괄하는 종합적 정책 추진의 필요성이 큰 지역임
- 경기도의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2030)」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경기도 청년인구(19~39세)는 약 360.9만 명으로 전체 도 인구의 26.3%, 전국 청년인구의 28.2%를 차지하고 있음

표 2-11 시도별 청년인구 비율(2025년 12월 기준)

(단위: 명, %)

구분	인구수	청년인구수	청년비율
전국	51,117,378	12,806,636	25.1
서울특별시	9,299,548	2,795,620	30.1
인천광역시	3,051,961	795,950	26.1
세종특별자치시	391,965	98,497	25.1
경기도	13,730,135	3,608,971	26.3
충청북도	1,596,502	373,945	23.4
전라남도	1,779,135	344,436	19.4

자료: 경기도(2026). 경기도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6~'30) 2026년 시행계획

- 경기도는 이러한 여건을 반영하여 2026년부터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2030)」 체제에 따라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2026년 시행계획의 비전은 “청년을 위한 더 많은 기회 보장”이며,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권리의 5대 정책 영역에서 총 80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음
- 총예산은 약 5,210.91 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사업 수와 정책 범위가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경기도 청년정책의 양적·질적 확장됨

표 2-12 경기도 청년정책 사업 현황

(단위: 개, 백만원)

분야	사업수		합계		국비		도비		시군비 등	
	2025	2026	2025	2026	2025	2026	2025	2026	2025	2026
계	54	80	421,406	521,091	75,458	220,733	274,401	215,936	71,547	84,422
일자리	16	22	123,420	81,767	11,246	12,163	104,325	57,631	7,849	11,973
주거	4	16	28,137	153,883	9,403	113,304	12,152	35,585	6,582	4,994
교육	12	8	19,855	64,883	218	27,643	19,557	17,115	80	20,125
복지·문화	14	25	236,533	212,750	54,591	67,623	128,877	100,217	53,065	44,910
참여·권리	8	9	13,461	7,808	-	0	9,490	5,388	3,971	2,420

자료: 경기도(2026). 경기도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6~'30) 2026년 시행계획

- 또한 경기도는 단순한 복지지원 중심을 넘어,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 기회의 사다리 강화, 기본 사회안전망 구축, 정책 당사자로서의 참여 확대를 중점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음
- 특히 2026년 시행계획은 청년기회패키지, AI 시대 대응형 교육, 전세사기 예방, 취약청년 맞춤형 지원, 참여 플랫폼 고도화 등 지역 차원의 수요 맞춤형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2026년 경기도 청년정책의 목표는 청년의 정책 참여율을 전년 대비 5% 높이는 것이며, 이를 위해 정책을 5대 영역으로 재구조화함
- 구체적으로는 일할 기회 보장, 기회사다리 기능 강화, 안정적 주거환경 지원, 기본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 당사자로서의 역할 강화를 정책 방향으로 설정함
- 이는 단순한 현금성 지원이나 단기 지원을 넘어, 청년의 삶 전 과정에 개입하는 구조적 접근으로 이해할 수 있음

그림 2-2 2026년도 제2차 청년정책 추진방향



자료: 경기도(2026). 경기도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6~'30) 2026년 시행계획

○ 일자리 분야

- 경기도의 일자리 정책은 청년의 취업 지원을 중심으로 미래 산업 인력 양성과 창업·글로벌 진출 확대를 함께 추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음
-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 컨설팅, 취업역량 강화 교육, 채용 연계 등을 제공하는 경기청년 맞춤형 채용지원 서비스와 경기청년 일자리 매치업 플러스사업을 통해 청년과 기업 간 일자리 매칭을 지원하고 있음
- 또한 구직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을 지원하여 청년의 적극적인 취업활동을 유도하고 있음
- 이와 함께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하여 미래 산업 수요에 대응한 청년 인재를 육성하고 있음
- 더불어 창업 교육, 창업공간 조성, 글로벌 진출 지원 등을 통해 청년 창업 및 해외 취·창업 기회 확대 정책을 추진하며 청년의 다양한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있음

표 2-13 경기도 청년정책 사업 현황(일자리 분야)

연번	과제명	주요내용
1	경기청년 맞춤형 채용지원 서비스	• 미취업청년 맞춤형 컨설팅, 취업역량강화 교육, 채용 지원 등
2	경기청년 일자리 매치업 플러스	• 청년 구직자와 중소기업 간 일자리를 매칭하고 일정 경험 후 정규직 전환 지원
3	기후미래직업 청년일자리 전문교육 지원	• 탄소중립 기후변화 대응 기술 관련 교육 및 정책 강의
4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 취업면접 참여 시 면접비용 지급
5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 중소기업 등 재직 청년 노동자 임금 및 복리후생 지원
6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 영농정착지원금 3년간 지급
7	청년어촌 정착지원	• 청년어업인에게 정착지원금 지원
8	해운물류 인력양성 지원	• 해운·항만 물류 관련 이론 및 현장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
9	나노기술 인력 양성 사업	• 도내 특성화고 및 전문대생 대상 기술교육
10	반도체 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 반도체 중소장비기업 중심 실무형 기술인력 양성
11	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	• AI 산업 수요 대응 빅테크 교육과정 기반 전문인력 양성
12	청년 엔지니어 육성사업	• 예비 청년 엔지니어 교육 개발 및 청년 엔지니어 노동자 지원
13	경기청년 해외 취창업 기회 확충	• 해외 현지기업 체험 등 글로벌 취창업 경험 제공
14	경기 스타트업 글로벌 성장 지원	• 청년창업가 해외 판로 개척 지원 및 네트워크 강화
15	경기도 대학생 창업기회 지원	• 창업 교육 및 창업 지원
16	창업중심대학 지원 사업	• 지역 창업 인프라 및 네트워크 기반 창업 지원
17	소상공인 청년창업 원스텝	• 창업 역량강화를 통한 우수 청년창업자 육성
18	청년 사회적경제 창업동아리	• 임팩트 창업 교육 및 멘토링 운영
19	GH 청년 빌드업 창업 공모전 개최	• 청년 창업 아이디어 발굴 및 창업 지원
20	경기도 창업혁신공간 조성 및 운영	• 창업공간 및 창업보육시설 운영
21	스페이스Y(SW) 미래대응 사업	• 미래산업 대응을 위한 SW 인력 양성
22	경기 AI 대학원 플랫폼 지원	• 첨단산업 분야 AI 교육 및 산업 연계

자료: 경기도(2026). 경기도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6~'30) 2026년 시행계획

○ 교육·직업훈련 분야

- 경기도의 교육·직업훈련 정책은 청년의 진로 탐색과 직무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다양한 교육 및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음
- 대학과 연계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지원과 경기도 대학생 드림링크 직무실습, 아공계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등을 통해 청년에게 실무 중심의 일경험과 취업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또한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과 경기청년 깎이어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연수와 다양한 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의 진로 탐색과 자기개발을 지원하고 있음
- 이와 함께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을 통해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를 지원하여 청년의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있음
- 더불어 인공지능(AI) 연구인력 지원 등 첨단 분야 인재 육성과 평생교육 지원 등을 통해 청년의 지속적인 역량 개발과 직업 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있음

표 2-14 경기도 청년정책 사업 현황(교육·직업훈련 분야)

연번	과제명	주요내용
1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지원	• 고용노동부 선정 도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
2	경기도 대학생 드림링크 직무실습	• 학점연계형 기업직무실습(2~4개월)
3	이공계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	• 이공계 대학생 대상 2주간 실무 위주의 일경험 및 취업역량 교육
4	경기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지원	• 지역 주도의 대학 지원체계 구축 및 대학 경쟁력 강화
5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 해외대학연수 프로그램 제공
6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 스스로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도전과 경험 기회 제공
7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	• 미취업청년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최대 30만원 지원
8	경기도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및 사업운영	• 평생교육 이용권 등록기관 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
9	경계선 지능인 청년 일 역량 강화 지원사업	• 경계선 지능 청년 대상 맞춤형 진로설계 및 직무교육
10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 청년농업인 신규 영농 정착 및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11	대학교 노동인권 강좌개설 및 프로그램 개발	• 대학 노동인권 교양강좌 및 특강 개설
12	청년 평화통일 리더 양성과정	• 청년 대상 국내외 분쟁 및 평화통일 현장연수
13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코칭 지원사업	• 자립준비청년 대상 1:1 전문 코칭 프로그램 지원
14	경기 재도전학교	• 취창업 실패 청년 대상 평생교육 통한 재도전 지원
15	인공지능 연구인력 지원	• AI·ICT 분야 석박사 과정 연구활동비 지원
16	1인가구 금융안전교육	• 금융안전 예방교육 및 생애주기별 재무교육

자료: 경기도(2026). 경기도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6~'30) 2026년 시행계획

○ 주거 분야

- 경기도의 주거 정책은 청년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중심으로 다양한 주거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음
- 청년층의 안정적인 주거 확보를 위해 청년층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공급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급등을 추진하여 공공주택 기반의 주거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 또한 경기도 공공기숙사 운영과 대학기숙사 확충 지원을 통해 대학생 및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있음
- 이와 함께 청년월세 지원과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 등을 통해 주거 취약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있음
- 더불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전세사기 피해 예방 교육등을 추진하여 청년의 주거 안전과 주거권 보호를 지원하고 있음

표 2-15 경기도 청년정책 사업 현황(주거 분야)

연번	과제명	주요내용
1	청년층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공급	• 기존주택 매입 후 청년층 저렴 임대
2	청년층을 위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급	• 공공 기초를 기반으로 한 분양주택 공급
3	경기도 공공기숙사 운영	• 경기도기숙사 및 송파학사 운영
4	대학기숙사 확충	• 경기푸른미래관 운영 지원
5	청년월세 지원	•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 월세 지원
6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	• GH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보증금 지원
7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8	전세사기 피해 예방 아카데미	• 전세사기 피해 예방 교육 추진

자료: 경기도(2026). 경기도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6~'30) 2026년 시행계획

○ 금융·복지·문화 분야

- 경기도의 금융·복지·문화 정책은 청년의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과 생활 안정,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중심으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음
- 특히 청년 노동자 통장, 경기청년 기회사다리 금융등을 통해 청년의 자산 형성과 금융 접근성을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있음
- 또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과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등을 통해 청년의 생활 안정과 교육비 부담 완화를 지원하고 있음
- 이와 함께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및 정착금 지원을 통해 보호종료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고 있음
- 더불어 청년문화예술패스, 경기 킬처패스등 문화 지원 정책을 통해 청년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있으며, 정신건강 서비스 강화와 건강검진 지원 등 다양한 복지 정책을 통해 청년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고 있음

표 2-16 경기도 청년정책 사업 현황(금융·복지·문화 분야)

연번	과제명	주요내용
1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 일하는 수급·차상위·중간계층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
2	청년 노동자 통장	• 청년노동자 자산형성을 통한 근로의지 고취 및 자립기반 마련
3	경기청년 기회사다리 금융	• 경기도 청년대상 소액·장기·저리 대출지원
4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	• 도내 거주 자립준비청년에게 월 50만원 현금 지급
5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 보호종료 자립준비청년에게 1인당 15백만원 지급
6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 중증장애 청년의 자립을 위한 매칭 지원
7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최대 100만원) 지급
8	경기청년 재기격려지원사업	• 금융취약 청년 재무관리 역량 강화 및 경제적 재기 지원
9	경기청년 결혼축하 복지포인트 지원	• 청년 신혼부부 생활안정 지원
10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 대학(원) 재학·졸업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11	대학생 교육비 부담 완화	• 경기도민회 장학금 지원
12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 대학생 아침식사 1천원 지원
13	공중보건 장학제도 운영	• 의대생 장학금 및 졸업 후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무 근무

연번	과제명	주요내용
14	경기 고립은둔청년 지원	• 상담 프로그램 및 실무자 교육, 인식개선 홍보
15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지원	• 군복무 중 사망·상해·질병 피해 보험 지원
16	군장병 상해보험 가입지원	• 군 훈련 및 재해 피해 보상
17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	• 청년 문화예술 향유 지원
18	경기 컬처패스	• 문화소비 쿠폰 지급
19	반월산단 청년문화센터 건립	• 산업단지 청년문화시설 조성
20	청년층 정신건강 서비스 강화	• 정신건강 상담 및 치료비 지원
21	지역사회서비스분야 청년사업단 지원	• 청년 주도 사회서비스 제공
22	경기청년 메디케어 플러스 사업	• 건강검진비 최대 20만원 지원
23	1인가구 병원안심동행 사업	• 1인가구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
24	1인가구 식생활 개선 다이닝	• 요리교실 및 소통 프로그램
25	1인가구 건강돌봄 프로그램	• 연령대별 맞춤 건강 프로그램 운영

자료: 경기도(2026). 경기도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6~'30) 2026년 시행계획

○ 참여·권리 분야

- 경기도의 참여·권리 정책은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사회적 활동 기회 제공을 중심으로 다양한 참여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음
- 특히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경기도 청년참여기구 운영을 통해 청년이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정책 제안 및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또한 경기청년공간 조성 및 운영을 통해 청년 전용 복합공간을 마련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년의 소통과 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 이와 함께 경기도 기후특사단, 경기북부 청년 서포터즈 운영등을 통해 사회참여 및 정책 홍보 활동에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더불어 경기도 청년의 날과 경기청년포털 플랫폼 운영등을 통해 청년정책 정보 제공과 참여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음

표 2-17 경기도 청년정책 사업 현황(참여·권리 분야)

연번	과제명	주요내용
1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	• 위원회 활동을 통해 정책결정 과정에 청년참여 확대
2	경기도 청년참여기구 운영	• 청년 관련 의제 발굴 및 정책제안 의견 제시
3	경기청년공간 조성 및 운영	• 청년전용 복합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4	경기도 기후특사단	• 기후위기 대응 해외봉사
5	경기북부 청년 서포터즈 운영	• 청년 서포터즈 활용 정책 홍보
6	경기도 예술인 기회마루	• 청년 예술인 선발 및 공연 기회 제공
7	미래세대 아카데미 운영	• 진로·취창업 콘텐츠 개발 및 유튜브 채널 운영
8	경기도 청년의 날	• 청년정책 홍보 및 참여 프로그램 운영
9	경기청년포털 플랫폼 고도화	• 청년포털 시스템 고도화 및 클라우드 통합 운영

자료: 경기도(2026). 경기도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6~'30) 2026년 시행계획

□ 일본

- 일본 청년정책은 「아동·청년 육성지원 추진법(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法)」을 법적 근거로 하며, 특정 정책 프로그램 중심이라기보다 상담센터와 지역 협의체를 기반으로 교육·고용·복지 기관이 협력하여 사회적 자립이 어려운 청년을 지원하는 체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
- 일본의 청년정책은 청년 실업 문제와 사회적 고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업 및 고용지원 중심으로 추진되는 것이 특징임
- 일본 정부는 청년 자립·도전 플랜, 지역 청년 서포트 스테이션(サポステ), 헬로워크(ハローワーク)등의 정책을 통해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과 사회적 자립을 지원하고 있음
 - 청년 자립·도전 플랜은 진로교육, 인턴십 확대, 직업훈련 등을 통해 청년의 직업능력 개발과 취업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지역 청년 서포트 스테이션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된 청년을 대상으로 상담, 직업체험, 취업연계 등을 제공하고 있음. 또한 헬로워크는 공공 고용서비스 기관으로 직업 상담, 구인·구직 매칭, 직업훈련 안내 등을 통해 청년을 포함한 구직자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음
- 이를 통해 일본은 취업 지원과 직업능력 개발을 중심으로 청년의 노동시장 참여와 사회적 자립을 지원하는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표 2-18 일본 청년정책 현황

구분	정책명	주요 내용
고용 지원	청년 자립·도전 플랜(若者自立・挑戦プラン) ²⁾	• 청년 실업 증가와 프리터 등 불안정 고용 문제에 대응하는 정책 • 청년의 직업능력 개발과 취업 지원 체계 구축 • 진로교육·인턴십 확대, 일본형 듀얼시스템 도입, 캐리어 컨설턴트 양성 등 제공
취업 지원	지역 청년 서포트 스테이션(サポステ) ³⁾	• 청년의 사회참여와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종합 청년지원 정책 • 취업에 어려움을 겪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된 청년을 대상 • 상담, 역량개발, 직업체험, 취업연계 등 제공
	헬로워크(ハローワークインターネットサービス) ⁴⁾	• 직업 상담, 구인·구직 매칭, 취업 정보 제공, 직업훈련 안내 등 제공 • 청년을 포함한 구직자의 노동시장 진입 지원

자료: 정책별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재구성

2) 청년 자립·도전을 위한 액션 플랜「若者の自立・挑戦のためのアクションプラン」(<https://www.mhlw.go.jp/shingi/2005/03/s0303-11d.html>). 2026년 3월 검색.

3) 지역 청년 서포트 스테이션(サポステ) 홈페이지(<https://saposute-net.mhlw.go.jp/>), 2026년 3월 검색.

4) 헬로워크(ハローワークインターネットサービス) 홈페이지(<https://www.hellowork.mhlw.go.jp/>). 2026년 3월 검색.

□ 싱가포르

- 싱가포르의 청년정책은 청년을 복지 대상으로 지원하기보다는 교육·역량개발 중심의 인적자원 정책으로 추진되는 것이 특징임
- 싱가포르 정부는 SkillsFuture, Youth Action Plan, Youth Action Challenge 등의 정책을 통해 청년의 직업역량 개발, 사회참여 확대, 리더십 강화 등을 지원하고 있음
 - 특히 SkillsFuture 정책을 통해 직업교육과 평생교육을 지원하여 청년이 미래 산업에 필요한 기술과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Youth Action Plan과 Youth Action Challenge를 통해 청년이 사회문제 해결과 정책 과정에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있음
- 이를 통해 싱가포르는 청년의 역량 개발과 사회참여 확대를 중심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와 청년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유도하는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표 2-19 싱가포르 청년정책 현황

구분	정책명	주요 내용
역량 개발	SkillsFuture ⁵⁾	• 청년을 포함한 국민의 직업능력 향상 및 평생교육 지원 • 청년이 미래 산업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고 지속적으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 • 교육·훈련 프로그램, 직업기술 교육, 교육비 지원
청년 참여	Youth Action Plan ⁶⁾	• 청년의 사회참여와 역량 강화를 목표 • 정신건강, 환경, 사회참여, 취업 역량, 디지털 역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지원 정책 방향 제시 • 청년 참여와 리더십 활동을 통해 청년의 사회문제 해결 및 국가 발전 참여 지원
사회 참여	Youth Action Challenge ⁷⁾	• 청년이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를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 프로젝트 자금 지원, 멘토링,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청년의 사회혁신 활동 촉진

자료: 정책별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재구성

□ 핀란드

- 핀란드의 청년정책은 「청년법(Youth Act, Nuorisolaki)」과 국가 청년정책 기본계획인 「National Youth Work and Policy Programme (Valtakunnallinen nuorisotyön ja -politiikan ohjelma)」을 근간으로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와 자립 지원을 위해 추진되고 있음
- 핀란드 정부는 4년 단위로 국가 청년정책 기본계획(「National Youth Work and Policy Programme」)을 수립하여, 청년의 성장 환경과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청년의 복지와 사회참

5) SkillsFuture 홈페이지(<https://www.skillsfuture.gov.sg/>). 2026년 3월 검색.

6) Ministry of Culture, Community & Youth 홈페이지(<https://www.mccy.gov.sg/sectors/youth/sg-youth-action-plan/>). 2026년 3월 검색.

7) National Youth Council Singapore 홈페이지(<https://www.nyc.gov.sg/>). 2026년 3월 검색.

여를 증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음

- 또한 취업·교육·훈련에 참여하지 않는 청년(NEET) 감소 정책과 청년 원스톱 서비스센터 (Ohjaamo) 운영 등을 통해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과 사회적 자립을 지원하고 있음
- 아울러 청년의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 문화·체육 활동 지원, 정책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청년의 삶의 질과 사회참여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음

표 2-20 핀란드 청년정책 현황

연번	정책명	주요내용
1	교육기관 청년 학습 및 복지 지원 강화	•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 학생 복지 서비스 강화 및 청년 지원 프로그램 운영
2	청년 공동체 및 교육기관 활동 지원	• 교육기관 내 청년 공동체 활동 확대 및 학습 환경 개선
3	청년 여가활동 접근성 확대	• 모든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저비용·저장벽 취미 및 여가활동 기회 확대
4	청년 여가활동 프로그램 및 지역활동 지원	• 지역 기반 청년 여가활동 프로그램 및 문화·체육 활동 지원
5	NEET 청년 감소 정책	• 취업·교육·훈련에 참여하지 않는 청년 감소를 위한 정책 추진
6	청년 원스톱 지원 서비스 운영	• Ohjaamo 청년 원스톱 서비스센터 및 청년 워크숍 운영을 통한 취업·교육 지원
7	청년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	• 청년 대상 상담 및 정신건강 치료 지원 서비스 확대
8	청년 정신건강 예방 프로그램 운영	• 청년 정신건강 교육 및 예방 프로그램 확대 및 취약 청년 지원
9	문화·체육 활동 기반 정신건강 지원	• 스포츠·문화·자연활동 등을 통한 청년 정신건강 증진
10	디지털 기반 청년 활동 지원	• 디지털 환경을 활용한 청년 활동 프로그램 확대
11	청년정책 참여 확대	• 청년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 구조 및 플랫폼 확대
12	청년 민주주의 및 시민성 교육	• 청년의 시민의식 및 민주적 참여 역량 강화 프로그램 추진
13	청년 안전 및 범죄 예방 정책	• 청년 대상 폭력·범죄·혐오 표현 예방 및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14	청년 사회안전망 강화	• 청년 보호 및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통한 안정적 사회환경 조성

자료: 핀란드 교육문화부(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National Youth Work and Youth Policy Programme 2024-2027, 2024

□ 독일

- 독일의 청년정책은 연방정부 전체 부처가 참여하는 「청년전략(Jugendstrategie der Bundesregierung)」을 중심으로 추진되며, 청년을 별도의 정책 대상이 아닌 모든 정책 영역에서 고려하는 범정부·횡단적 정책 체계를 특징으로 함
- 연방정부는 총 163개의 정책 조치(measures)를 통해 교육, 고용, 주거, 사회참여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통합적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청년의 삶 전반을 지원하는 구조를 구축하고 있음
- 특히 「국가 행동계획(NAP)」, 「청년정책회의(JugendPolitikTage)」, 「연방 청년회의(Bundesjugendkonferenz)」, 「EU Youth Conference」 등을 통해 청년의 정책 참여를 제도화하고, 정책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는 다양한 참여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음
- 독일의 청년정책은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전 생애 영역에서의 삶의 질 보장’, 그리고

‘교육과 고용의 연계를 통한 자립 지원’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는 것이 특징임

- 「국가 행동계획」, 「청년정책회의」, 「연방 청년회의」, 「EU Youth Conference」 등을 통해 청년의 정책 참여를 제도화하고, 정책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는 다양한 참여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음
- 청년의회 및 청년포럼 활성화 사업(“Starke Kinder- und Jugendparlamente”)을 통해 지역 기반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참여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준 마련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참여 역량 강화 정책을 병행하고 있음
- 이원화 직업교육제도(Duales Ausbildungssystem)를 통해 학교 교육과 기업 현장훈련을 연계함으로써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교육과 고용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핵심 정책을 운영하고 있음

표 2-21 독일 청년정책 현황

구분	정책명	주요 내용
청년 참여	국가 행동계획 (NAP, Nationaler Aktionsplan für Kinder- und Jugendbeteiligung)	•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를 위한 국가 행동계획 • 정책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실질적 참여 보장 및 참여 구조 구축 • 정보 접근성 개선, 디지털 참여, 포용적 참여 환경 조성 등 추진
	청년정책회의 (JugendPolitikTage)	• 청년이 정책 의제에 대해 정부와 직접 토론하는 참여 프로그램 • 청년 의견 수렴 및 정책 반응을 위한 전국 단위 참여 플랫폼 역할 수행
	연방 청년회의 (Bundesjugendkonferenz)	• 청년, 정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정책 논의 프로그램 • 청년정책 방향 설정 및 의견 교환을 위한 공식 참여 기구
	EU Youth Conference	• EU 차원의 청년 참여 프로그램 • 청년의 유럽 정책 참여 및 국제적 협력 강화
사회 참여	Initiative Starke Kinder- und Jugendparlamente	• 청년의회 및 청년포럼 활성화 지원 사업 • 네트워크 구축, 컨설팅, 역량강화 등을 통해 지역 기반 참여 확대
역량 강화	청년참여 역량 및 품질관리 정책	• 청년 참여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준(quality standards) 개발 • 청년 참여 교육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소통·환경	청년 친화적 소통 및 참여환경 조성	• 청년 대상 정책 소통 방식 개선 및 디지털 기반 참여 확대 • 다양성·포용성 고려한 참여 환경 구축 및 차별 없는 참여 보장
고용·교육	이원화 직업교육제도(Duales Ausbildungssystem)	• 학교 교육과 기업 현장훈련을 병행하는 직업교육 제도 •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핵심 고용 정책

자료: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BMFSFJ), 2020.와 OECD, Apprenticeship in Germany, 2020을 재구성

1 결과 요약

□ 청년의 이해

- 청년은 단순한 연령집단이 아니라 교육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경제적 자립, 사회적 역할 형성 등이 이루어지는 생애주기적 전환기에 있는 집단으로, 노동시장, 주거, 자산 형성, 사회참여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구조적 영향을 받는 정책 대상임
- 특히 정책적 관점에서 청년 문제는 개인의 선택이나 역량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시장 구조, 주거시장 환경, 교육체계 등 사회 구조적 요인과 밀접하게 연계된 문제로 이해되며, 이에 따라 청년정책 또한 단일 영역이 아닌 삶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정책으로 확대되고 있음

□ 우리나라 청년정책

- 우리나라 청년정책은 「청년기본법」을 중심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역할을 분담하는 다층적 추진체계를 기반으로 하며, 일자리, 교육, 주거, 금융, 복지, 참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 최근에는 자산 형성 지원, 주거 안정, 취약청년 지원 등 청년의 생활 기반을 강화하는 정책이 확대되고 있으며, 정책 참여 확대 및 전달체계 구축 등 정책구조 또한 점차 고도화되고 있음

□ 국외 청년정책

- 국외 주요 국가의 청년정책을 살펴보면, 청년을 생애 이행 과정에 있는 집단으로 인식하고,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을 기반으로 정책을 운영한다는 공통점을 보임
- 또한, 교육-고용-복지-참여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청년을 정책의 수혜자가 아닌 정책 형성의 주체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 차이를 확인할 수 있음
- 주요 국가들의 청년정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일본) 지역정책과 연계한 청년 정착·고용 중심 정책
 - (싱가포르) 역량개발과 인재육성을 중심으로 한 국가주도 성장형 정책
 - (핀란드) 청년법 기반의 복지·사회통합 중심 정책

- (독일) 범정부 청년전략과 참여 제도화를 통해 참여 중심 정책

□ 우리나라와 주요 국가 청년정책 비교

- 이러한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청년정책은 정책 범위 확대와 제도적 기반 구축 측면에서는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으나, 정책 운영 방식에 있어서는 여전히 개별 사업 중심과 단기 지원 중심의 한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정책 영역 간 연계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교육·고용·주거·복지 등 청년의 생애 이행 과정 전반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 반면 국외 주요 국가들은 청년을 생애 이행 과정에 있는 집단으로 인식하고, 중장기 전략을 기반으로 교육·고용·복지·참여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구조적 정책 체계를 운영하고 있음
- 또한 국가별로 일본은 지역 연계, 싱가포르의 역량개발 중심, 핀란드는 복지·사회통합 중심, 독일은 참여 중심 등 정책 방향을 차별화하면서도, 공통적으로 통합적이고 전략적인 정책 운영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2-22 국가별 청년정책 주요 특징 비교

구분	우리나라	일본	싱가포르	핀란드	독일
핵심 방향	생활 안정 지원	정착·일자리	역량·성장 중심	복지·사회통합	참여 중심
정책관점	지원 대상	지역·인구 대응 대상	국가 인재	사회통합 대상	정책 주체
정책구조	개별 사업 중심	지역정책 연계	국가 전략형	법 기반 통합	범 정부 통합 전략
정책 연계성	분야별 분절	고용+지역 연계	교육+고용 연계	복지 중심 통합	전 영역 통합

2 시사점

-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향후 청년정책은 청년을 단순한 정책 수혜 대상이 아닌 교육에서 노동시장, 주거, 사회참여로 이어지는 생애이행 과정에 있는 집단으로 인식하고, 각 정책 영역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함
- 특히 우리나라 청년정책은 정책 범위와 제도적 기반 측면에서는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으나, 개별 사업 중심의 단기적 지원 구조로 인해 정책 간 연계성과 지속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나타나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 중심의 정책 운영체계의 전환이 요구됨

- 이를 위해 교육·고용·주거·복지·참여를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생애주기 기반 정책 설계를 강화하고, 정책 간 연계성을 높일 수 있는 총괄·조정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주요 국가의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청년을 정책의 주체로 설정하고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 플랫폼, 청년의회 등 제도화된 참여 구조를 강화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과 체감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단순한 취업 지원을 넘어 직업교육, 역량개발, 경력 형성 등 교육과 노동시장을 연계하는 구조적 자립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주거비 부담 완화, 자산 형성 지원 등 경제적 기반을 강화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일본 사례와 같이 청년정책을 지역정책과 연계하여 청년의 지역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전략이 요구되며, 핀란드와 싱가포르 사례에서 나타나듯 청년의 초기 이행 단계부터 지원하는 예방적 정책과 통합 서비스 제공을 통해 문제의 사전 대응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정책 전달체계 측면에서는 정보 제공, 상담, 지원사업을 통합하는 원스톱 청년지원 플랫폼을 구축·고도화하여 정책 접근성을 높이고, 청년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효과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03

남양주시 청년 및 청년정책 현황 분석

제1절 남양주시 청년 현황

1 인구

1) 인구 규모

- 남양주시 전체 주민등록인구는 2021년 약 73만 4천명에서 약 73만명으로 소폭 감소하였으며, 동기간 청년인구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2025년 기준 남양주 청년인구(15~39세) 비율은 전국(29.4%)과 경기도(30.9%) 보다 낮은 수준이며, 35~39세 감소폭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큰 편임
 -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의 뚜렷한 감소 추세는 이는 향후 청년인구의 구조적 축소와 연결됨
 - 50대 후반과 65세 이상 중·고령 인구는 202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인구 고령화에 따른 세대 간 인구구조 불균형 심화 가능성을 내포함

표 3-1 연도별 인구 규모(2021~2025년)

(단위: 천명)

연도	주민 등록 인구	14세 이하	15~19	20~24	25~29	30~34	35~39	40~49	50~59	60~64	65세 이상	청년 15~39
2021	733.8	104.4	37.4	43.5	42.9	39.2	51.3	132.2	122.5	52.3	108.3	214.1
2022	737.4	100.6	38.3	41.4	42.8	41.0	47.5	131.9	124.8	54.0	115.2	210.9
2023	732.3	95.0	38.7	39.6	42.1	41.2	43.9	128.3	127.4	54.2	121.9	205.4
2024	732.5	90.3	38.8	38.3	41.6	42.4	42.3	124.2	129.7	55.2	129.6	203.5
2025	729.8	85.5	39.7	35.8	41.1	43.3	41.1	120.1	130.3	55.1	137.9	200.9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2021~2025)

- 2025년 기준 남양주시 청년인구(15~39세)는 200,898명으로 전체 주민등록인구(729,754명)의 약 27.5%를 차지함
 - 남양주시 청년인구는 남자 102,473명, 여자 98,425명으로 성비는 104.1이며, 이는 청년 남성 비중이 여성보다 높음을 의미함
 - 15~34세 연령대별 성비는 105.1~107.6인 반면 35~39세의 성비는 98.1로 30대 후반에 여성 비중이 증가하는 구조로 나타남
 - 청년인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대는 30~34세(43,296명, 5.9%), 25~29세(41,064명, 5.6%) 및 35~39세(41,089명, 5.6%) 순임
 - 반면 20대 초반(20~24세)은 3만 5,766명(4.9%)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
 - 청년인구 비중(27.5%)은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11.7%) 보다 높지만, 향후 50대 및 65세 이상 인구 증가를 고려하면 인구구조 전환의 핵심 연령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이는 청년 연령대별 성별 구조와 특성 차이를 고려한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시사함

표 3-2 성별·연령별 청년인구(2025년)

(단위: 명, %, 여자 100명당)

구분		주민등록인구		남 자		여 자		성 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남양주시		729,754	100.0	360,722	100.0	369,032	100.0	97.7
연령별	14세 이하	85,485	11.7	43,804	12.1	41,681	11.3	105.1
	청년(15~39세)	200,898	27.5	102,473	28.4	98,425	26.7	104.1
	15~19세	39,683	5.4	20,359	5.6	19,324	5.2	105.4
	20~24세	35,766	4.9	18,537	5.1	17,229	4.7	107.6
	25~29세	41,064	5.6	21,047	5.8	20,017	5.4	105.1
	30~34세	43,296	5.9	22,187	6.2	21,109	5.7	105.1
	35~39세	41,089	5.6	20,343	5.6	20,746	5.6	98.1
	40~49세	120,052	16.5	59,140	16.4	60,912	16.5	97.1
	50~59세	130,266	17.9	65,601	18.2	64,665	17.5	101.4
	60~64세	55,121	7.6	27,806	7.7	27,315	7.4	101.8
	65세 이상	137,932	18.9	61,898	17.2	76,034	20.6	81.4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2025)

- 2025년 남양주시 청년인구(15~39세)는 읍면부에서는 화도읍(28,822명, 14.3%)이, 동부에 사는 다산1동(31,989명, 15.9%)이 청년인구 비율이 높음
 - 청년인구 차지 비율은 읍면부(102,963명, 51.3%)가 동부(97,935명, 48.7%) 보다 2.6%p 높음
 - (읍면부) 화도읍(14.3%), 전접읍(12.9%), 와부읍(8.0%)
 - (동부) 다산1동(15.9%), 별내동(12.4%), 호평동(7.5%)

표 3-3 읍면동별 청년인구(15~29세, 2025년)

(단위: 명, %, 여자 100명당)

구분	청년 15~39세						성 비
		구성비	남 자	구성비	여 자	구성비	
청년(15~39세)	200,898	100.0	102,473	100.0	98,425	100.0	104.11
읍면부	102,963	51.3	54,193	52.9	48,770	49.6	111.12
· 와부읍	16,068	8.0	8,336	8.1	7,732	7.9	107.81
· 진접읍	25,928	12.9	13,615	13.3	12,313	12.5	110.57
· 화도읍	28,822	14.3	15,131	14.8	13,691	13.9	110.52
· 진건읍	4,734	2.4	2,601	2.5	2,133	2.2	121.94
· 오남읍	14,113	7.0	7,400	7.2	6,713	6.8	110.23
· 퇴계원읍	6,993	3.5	3,738	3.6	3,255	3.3	114.84
· 별내면	4,245	2.1	2,225	2.2	2,020	2.1	110.15
· 수동면	1,410	0.7	808	0.8	602	0.6	134.22
· 조안면	650	0.3	339	0.3	311	0.3	109.00
동부	97,935	48.7	48,280	47.1	49,655	50.4	97.23
· 호평동	15,117	7.5	7,610	7.4	7,507	7.6	101.37
· 평내동	11,201	5.6	5,688	5.6	5,513	5.6	103.17
· 금곡동	4,080	2.0	2,265	2.2	1,815	1.8	124.79
· 양정동	521	0.3	334	0.3	187	0.2	178.61
· 다산1동	31,989	15.9	15,273	14.9	16,716	17.0	91.37
· 다산2동	10,059	5.0	4,895	4.8	5,164	5.2	94.79
· 별내동	24,968	12.4	12,215	11.9	12,753	13.0	95.78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2025)

2) 인구 이동

- 2025년 기준 남양주시 청년인구(15~39세)의 총전입은 29,818명, 총전출은 29,665명으로 순이동은 153명 증가하였으며, 순이동률은 0.08%로 전입 인구가 전출 인구보다 많았음
- 청년은 순이동이 크지 않으나, 성별·연령에 따라 상이한 이동 양상을 보임
 - (성별) 남성의 순이동은 -169명(전입 15,148명, 전출 15,317명)인 반면 여성은 322명(전입 14,670명, 전출 14,348명)으로 청년층 순유입은 여성 청년에 의해 주도되는 구조
 - (연령대별) 15~19세와 20~24세의 순이동이 각각 -230명(-0.58%), -479명(-1.34%)으로 학업, 진학, 취업 단계에서의 외부 이동 가능성을 보임
 - 30~34세와 35~39세에서는 순유입구조가 확인되어 주거·직장 정착 단계에서의 유입 가능성을 보여줌

표 3-4 연령별 순이동 및 순이동률(2025년)

		(단위: 명, %)				
구분		주민등록인구 (A)	총전입 (B)	총전출 (C)	순이동 (D=B-C)	순이동률 (D/A*100)
청년(15~39세)		200,898	29,818	29,665	153	0.08
성별	남 자	102,473	15,148	15,317	-169	-0.16
	여 자	98,425	14,670	14,348	322	0.33
연령별	15~19세	39,683	2,776	3,006	-230	-0.58
	20~24세	35,766	4,747	5,226	-479	-1.34
	25~29세	41,064	7,716	7,725	-9	-0.02
	30~34세	43,296	8,358	7,888	470	1.09
	35~39세	41,089	6,221	5,820	401	0.98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2025)

- 2025년 남양주시에 전입한 청년인구는 29,818명으로 ‘시군구 내 전입’이 높은 비중(55.1%)을 차지하며, 외부 지역으로부터의 유입도 비중이 높은 편이었음(시도 간 전입 13,378명, 44.9%)
 - (성별) 남자(15,148명)가 여자(14,670)보다 많음
 - (연령대별) 모든 연령대에서 ‘시군구 내 전입’이 ‘시도 간 전입’보다 높았으며, 전입이 가장 많은 연령대는 30~34세로 나타남
- 2025년 남양주시에서 전출한 청년인구는 29,665명으로 ‘시군구내 전출’이 59.2%로 많았음
 - (성별) 남자(15,317명)가 여자(14,348명)보다 많음
 - (연령대별) 모든 연령대에서 ‘시군구내 전출’이 ‘시도간 전출’보다 많으며, 연령대별로는 30~34세 전출이 가장 많음

표 3-5 전입이동(2025년)

(단위: 명, %)

구분		전입이동 (총전입)		시군구내 전입						시도간 전입	
				시군구내 전입		시군구내 이동		시군구간 전입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청년(15~39세)		29,818	100.0	16,440	55.1	8,716	29.2	7,724	25.9	13,378	44.9
성별	남 자	15,148	100.0	8,338	55.0	4,358	28.8	3,980	26.3	6,810	45.0
	여 자	14,670	100.0	8,102	55.2	4,358	29.7	3,744	25.5	6,568	44.8
연령별	15~19세	2,776	100.0	1,695	61.1	1,002	36.1	693	25.0	1,081	38.9
	20~24세	4,747	100.0	2,400	50.6	1,259	26.5	1,141	24.0	2,347	49.4
	25~29세	7,716	100.0	4,069	52.7	2,101	27.2	1,968	25.5	3,647	47.3
	30~34세	8,358	100.0	4,682	56.0	2,407	28.8	2,275	27.2	3,676	44.0
	35~39세	6,221	100.0	3,594	57.8	1,947	31.3	1,647	26.5	2,627	42.2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2025)

표 3-6 전출이동(2025년)

(단위: 명, %)

구분		전출이동 (총전출)		시군구내 전출						시도간 전출	
				시군구내 전출		시군구내 이동		시군구간 전출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청년(15~39세)		29,665	100.0	17,548	59.2	8,716	29.4	8,832	29.8	12,117	40.8
성별	남 자	15,317	100.0	9,061	59.2	4,358	28.5	4,703	30.7	6,256	40.8
	여 자	14,348	100.0	8,487	59.2	4,358	30.4	4,129	28.8	5,861	40.8
연령 별	15~19세	3,006	100.0	1,848	61.5	1,002	33.3	846	28.1	1,158	38.5
	20~24세	5,226	100.0	2,656	50.8	1,259	24.1	1,397	26.7	2,570	49.2
	25~29세	7,725	100.0	4,299	55.7	2,101	27.2	2,198	28.5	3,426	44.3
	30~34세	7,888	100.0	4,918	62.3	2,407	30.5	2,511	31.8	2,970	37.7
	35~39세	5,820	100.0	3,827	65.8	1,947	33.5	1,880	32.3	1,993	34.2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2025)

2

가구

- 남양주시 청년 주택 소유자수는 2020년 23,361명에서 2024년 17,736명으로 감소하였으며, 2024년 청년 청년인구(203,482명) 대비 약 8.7%임
 - 남양주시 전체 주택 소유자 수에서 청년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약 12.7%에서 2024년 8.7%로 감소
 - 2024년 청년 주택 소유자(17,736명) 중 아파트 소유자는 14,010명으로 아파트 소유 청년 비율은 약 79.0%임
 - (연령대별) 주택 및 아파트 소유자의 대부분은 30~39세이며, 남성 소유자(주택 8,418명, 아파트 6,891명)가 여성(주택 7,083명, 아파트 5,840명)보다 많음
 - 참고로 남양주시 사회조사에 따르면 청년 연령대별 주택 형태는 상이하나, 점유 형태는 월세 주거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로 주거비 부담과 정착 불안정성이 확인됨(남양주시, 2021; 2025)
 - 20~29세는 아파트 비중이 크게 감소하였고(2021년 63.4%, 2025년 48.0%), 보증금 있는 월세 비중이 2021년 28.3%에서 2025년 67.0%로 급증함
 - 30~39세는 아파트 거주 비중이 높으나, 자가 비중 감소와 보증금 있는 월세 비중 증가로 임차 중심 구조가 확대

표 3-7 주택 소유현황

(단위: 명)

구분	전체 주택 소유자 수		청년 주택 소유자 수	
	아파트 소유자 수		아파트 소유자 수	
2020	184,528	140,957	23,361	18,594
2021	192,918	148,233	22,821	18,241
2022	194,836	150,260	20,088	15,830
2023	200,365	155,738	18,892	14,966
2024	203,191	158,075	17,736	14,010

자료: 국가데이터처 「주택소유통계」. (2025)

표 3-8 청년 연령대별 주택 소유현황(2024년)

(단위: 명)

구분	전체			남자			여자		
	전체	30세 미만	30~39세	전체	30세 미만	30~39세	전체	30세 미만	30~39세
전체 주택 소유자 수	203,191	2,235	15,501	105,762	1,122	8,418	97,429	1,113	7,083
아파트 소유자 수	158,075	1,279	12,731	82,523	629	6,891	75,552	650	5,840

자료: 국가데이터처 「주택소유통계」. (2025)

- 남양주시 청년 1인 가구(20대 미만 포함)는 2020년 13,508명에서 2024년 17,743명으로 증가함
- (성별)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24년 기준 여성 비중이 확대된 것이 특징

○ (연령대별) 30~34세 59.8%, 25~29세 28.5%, 20~24세 9.3% 순으로 증가 폭이 큼

표 3-9 청년 1인 가구

(단위: 명, %)

구분	2020			2024			2020년 대비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증감	증감률
남양주시 전체	53,418	27,077	26,341	72,251	35,712	36,539	18,833	35.3
20세 미만	130	59	71	117	52	65	-13	-10.0
20~24세	1,269	566	703	1,387	592	795	118	9.3
25~29세	3,863	2,230	1,633	4,963	2,583	2,380	1,100	28.5
30~34세	4,051	2,754	1,297	6,474	3,868	2,606	2,423	59.8
35~39세	4,195	2,752	1,443	4,802	3,097	1,705	607	14.5
40~49세	9,150	5,772	3,378	10,374	6,462	3,912	1,224	13.4
50~59세	10,389	5,915	4,474	13,177	7,584	5,593	2,788	26.8
60~64세	5,729	2,600	3,129	7,600	3,703	3,897	1,871	32.7
65세 이상	14,642	4,429	10,213	23,357	7,771	15,586	8,715	59.5

주: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집계하였으며, 집단가구(6인 이상 비친족 가구, 기숙사, 사회시설 등) 및 외국인 가구 제외
자료: 국가데이터처 「인구총조사」. (2020, 2024)

- 남양주시 청년인구의 혼인상태는 30대로 갈수록 유배우 비중이 높아지는 구조
 - 20대 미만은 연령 특성상 혼인 경험이 없었으며, 20~29세도 대부분 미혼 상태임
 - 남양주시 청년인구는 30대부터 가구를 형성하고 있으나, 2024년 30~39세의 '유배우' 비율은 2022년 대비 6.5%p 감소하였으며, 이혼 비중은 소폭 증가하는 양상임
 - 참고로 남양주시 전체 신혼부부수는 2015년 19,169에서 2024년 13,701로 감소함
 - 연령대별 이혼 건수도 30~39세가 많아 청년 후반과 가구형성기에 가구·돌봄·주거·경제요인과 결합된 이혼 리스크를 겪는 것으로 보임

표 3-10 연령별(18세 이상) 혼인상태

(단위: %)

구분	2022			2023			2024		
	20세 미만	20~29세	30~39세	20세 미만	20~29세	30~39세	20세 미만	20~29세	30~39세
미혼	99.9	93.6	41.0	100.0	94.4	44.9	100.0	94.6	47.7
유배우	0.1	6.1	56.2	0.0	5.3	52.5	0.0	5.0	49.7
사별·이혼	0.0	0.4	2.7	0.0	0.3	2.6	0.0	0.3	2.6

주: 18세 이상 연령별·혼인상태별 인구를 기준으로 각 연령대별 내 혼인상태 비율을 산출함

자료: 국가데이터처 「인구총조사」, (2022~2024)

표 3-11 이혼건수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전체	계	3,224	1,049	2,923	3,000	2,971
	15~19세	2	0	3	14	0
	20~24세	28	15	22	97	14
	25~29세	93	58	107	221	94
	30~34세	234	70	202	345	233
	35~39세	427	125	363	567	332
여자	계	1,631	496	1,474	1,479	1,510
	15~19세	2	0	2	10	0
	20~24세	19	11	12	55	9
	25~29세	65	32	67	122	58
	30~34세	140	41	136	184	137
	35~39세	239	70	214	292	185
남자	계	1,593	553	1,449	1,521	1,461
	15~19세	0	0	1	4	0
	20~24세	9	4	10	42	5
	25~29세	28	26	40	99	36
	30~34세	94	29	66	161	96
	35~39세	188	55	149	275	147

자료: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이혼편」, (2021~2024)

- 남양주시 출산율을 보면 20대 출산은 급감하는 반면 30대 중심으로 출산율이 재편되는 양상임
 - 남양주시 전체 합계출산율은 2020년 0.868에서 2024년 0.789로 2023년 이후 소폭 반등하고 있으나, 여전히 0.8 미만 수준임
 - 20대 출산율의 지속적인 감소와 30대 초반의 출산이 집중되는 현상은 혼인연령의 상승과 고용·주거 불안정 등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는 30대 초반의 피보험자 증가와 연계됨
 - 남양주시 사회조사(2024)에 따르면 5년 이내 출산 계획이 있는 청년인구의 비중은 20~29세 20.2%, 30~39세 28.1%로 적은 편이며, 출산 지원 정책으로 출산장려금 정책, 보육비·교육비 지원 등의 현금지원 형태를 선호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가 핵심과제임
 - 30대 후반의 출산 비중은 유지되어 전체 출산 감소에도 출산연령 상향 이동은 뚜렷함

표 3-12 합계출산율 및 모의 연령별 출산율

(단위: 여자 1명당,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출산율		0.868	0.834	0.821	0.754	0.789
모의 연령별 출산율	15~19세	0.4	0.4	0.2	0.2	0.3
	20~24세	5.0	5.3	3.8	3.4	2.5
	25~29세	31.9	29.5	26.9	24.0	21.8
	30~34세	81.6	76.1	74.7	68.4	77.5
	35~39세	43.9	44.3	46.9	44.9	46.3

자료: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 (2020~2024)

4 일자리·고용

- 남양주시 청년인구 고용률은 55.5%로 비교적 높은 편이나, 실업률 또한 4.7%로 남양주시 전체(2.7%)보다 높음
 - (성별)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60.5%)이 여성(56.1%)보다 높으며, 실업률 또한 남성(5.5%)이 여성(3.8%)보다 높아 성별 역할(경력단절, 돌봄)에 따른 영향을 배제할 수 없음
 - (연령대별) 20대는 경제활동 진입기로, 30대는 경제활동 정착기로 구조적 분화 양상
 - 학업 중심의 연령대인 15~19세는 노동시장 직접 연결성이 낮음(경제활동참가율 2.9%, 경제활동 인구 1,055명, 비경제활동 인구 35,458명)
 - 20~29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0.8%(경제활동인구 42,024명)이며, 실업률은 5.7%로 청년인구 중 가장 높은 값을 보여 취업 진입 과정에서의 불안정성을 시사함
 - 30~39세는 경제활동참가율 80.7%(경제활동인구 66,464명), 고용률 77.3%(63,722명)로 청년층

경제활동의 핵심 연령대이나, 실업자도 2,741명(실업률 4.1%)으로 남양주시 전체 실업자의 26.1%를 차지함

표 3-13 청년 경제활동 현황(2025년 상반기)

(단위: 명, %)

구분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					비경제활동 인구
			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취업자	고용률	실업자	실업률
남양주시 전체		624,062	384,465	61.6	373,950	59.9	10,515	2.7
청년(15~39세)		188,069	109,542	58.2	104,388	55.5	5156	4.7
성별	남성	93,536	56,556	60.5	53,431	57.1	3,125	5.5
	여성	94,533	52,986	56.1	50,957	53.9	2,031	3.8
연령대별	15~19세	36513	1,055	2.9	1,055	2.9	0	0.0
	20~29세	69154	42,024	60.8	39,611	57.3	2,413	5.7
	30~39세	82402	66,464	80.7	63,722	77.3	2,741	4.1

주: 1) 경제활동참가율=경제활동인구/15세 이상 인구×100

2) 고용률=취업자/15세 이상 인구×100

3) 실업률=실업자수/경제활동인구×100

자료: 국가데이터처 「지역별고용조사」 (2025년 하반기)

□ 남양주시 전체와 청년인구의 구직·취업건수(2021~2025년 마감년도 및 구직자 거주지역 기준)는 30~34세를 제외하고 다소 감소하는 추세

- 남양주시 전체 구직건수는 2021년 69,067명에서 67,817명으로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전체 취업건수는 28,111건에서 19,922건으로 약 8천 건 감소
- 20~24세의 구직건수는 2021년 6,330건에서 5,793건으로 감소 후 회복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동 기간 취업건수는 1,726건에서 1,339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 25~29세와 35~39세는 동 기간 구직·취업건수 모두 감소하여 노동시장 성과 둔화
- 30~34세는 유일하게 구직·취업건수 모두 각각 2021년 4,885건, 1,442건에서 '25년 5,589건, 1,571건으로 증가하여 경력 이동기 특성을 보임

표 3-14 구직 및 취업건수(마감년도)

(단위: 건)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구직	취업	구직	취업	구직	취업	구직	취업	구직	취업
남양주시 전체	69,067	28,111	63,640	25,173	66,402	24,062	62,589	18,760	67,817	19,922
19세 이하	719	84	663	69	569	60	788	63	743	89
20~24세	6,330	1,726	5,406	1,309	5,668	1,238	5,405	1,233	5,793	1,339
25~29세	8,366	2,762	7,302	2,367	7,308	2,126	7,153	2,180	7,842	2,560
30~34세	4,885	1,442	4,770	1,260	5,186	1,256	4,991	1,326	5,589	1,571
35~39세	5,783	1,418	5,051	1,107	4,896	1,075	4,324	1,076	4,605	1,191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2021~2025)

- 사업장 소재지역이 남양주시인 20대 피보험자는 감소하고 30대 초반 피보험자는 집중되는 구조로 재편되는 양상
 - 20~24세는 2021년 54,896에서 2025년 44,104명으로 크게 감소하여 노동시장 진입층 축소 및 신규채용 둔화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음
 - 25~29세의 경우, 총 피보험자 규모는 유사하나 취득자수는 감소하여 기존 고용을 유지하면서 신규 유입은 악화되는 구조임
 - 30~34세는 피보험자는 2021년 99,998명에서 120,843명으로 증가하여 청년 고용의 핵심 연령대로 이동·집중됨을 확인할 수 있음
 - 반면 35~39세는 2025년 108,650명으로 2021년 대비 감소한 값을 보여 중간 경력층 구조조정 및 이탈의 가능성을 내포함

표 3-15 피보험자 현황(마감년도)

(단위: 명)

구분	2021년			2023년			2025년		
	전체 피보험자수	취득자수	상실자수	전체 피보험자수	취득자수	상실자수	전체 피보험자수	취득자수	상실자수
남양주시 전체	1,234,751	67,643	60,869	1,355,532	68,558	64,504	1,307,802	61,472	56,032
17세 이하	415	96	58	494	129	67	631	105	68
18~19세	6,433	1,320	958	6,465	1,285	997	4,987	991	689
20~24세	54,896	6,723	5,203	52,762	5,816	4,767	44,104	4,633	3,733
25~29세	103,288	7,453	6,380	113,929	7,576	6,810	103,112	6,219	5,517
30~34세	99,998	5,285	4,531	120,056	6,006	5,496	120,843	5,442	5,058
35~39세	123,617	5,709	5,033	118,230	5,205	4,789	108,650	4,260	3,967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2021, 2023, 2025)

- 남양주시 청년층 실업급여는 20대는 정체·완만 감소, 30대는 유지·소폭 반등하는 추세
 - 20~29세는 2020년 3,621명, 2022년 3,864명, 2024년 3,799명으로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으며, 지급액은 증가하여 실업의 장기화 또는 평균 지급액 상승 가능성을 시사함
 - 30~39세는 2020년 4,634명에서 2022년 4,380명으로 감소한 후, 2024년 4,542명으로 다시 증가하여 중경력 청년층의 고용불안이 반복되는 구조를 보여줌
 - 남양주시 전체 지급액은 2020년 164,691백만원에서 2024년 179,687백만원으로 증가하여 관내 고용충격의 질적·양적 확대 가능성을 내포함
 - 특히 30대는 지급액 규모가 20대보다 지속적으로 높아 생계책임을 동반한 실직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구조임

표 3-16 실업급여 수급 규모

(단위: 명, 건, 백만원)

구분	2020년			2022년			2024년		
	실업급여 지급자수	실업급여 지급건수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자수	실업급여 지급건수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자수	실업급여 지급건수	실업급여 지급액
남양주시 전체	24,381	115,323	164,691	25,187	114,188	164,454	26,382	118,802	179,687
19세 이하	43	167	220	32	143	181	33	115	140
20~29세	3,621	16,331	22,719	3,864	16,326	23,152	3,799	15,986	23,817
30~39세	4,634	21,342	30,793	4,380	19,232	28,226	4,542	19,538	30,094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2020, 2022, 2024)

-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현황을 보면 지원사업 수요는 20대 중심으로 나타나며, 30대 초반은 2023년 이후 재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 20~24세는 2021년 933명에서 2024년 1,071명까지 증가 후 2025년(1~11월) 825명으로 감소하여 단기 경기 영향에 민감한 초기 구직층 특성을 보임
 - 25~29세는 동 기간 1,277명에서 930명으로 감소하여 20대 후반의 공공 고용지원 의존도는 완화되는 경향
 - 30~34세는 2021년 498명에서 2022년 344명으로 감소한 후 2025년 523명으로 증가하여 30대 초반 경력전환·재취업 수요가 재집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35~39세는 2021년 316명에서 2022년 145명으로 급감한 이후, 2025년 237명으로 일부 회복하여 재취업 시도의 가능성을 시사함

표 3-17 일자리 지원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현황

(단위: 명)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1~11
남양주시 전체	4,578	2,776	3,507	3,753	3,519
15~17세	6	10	12	32	33
18~19세	58	65	69	87	55
20~24세	933	737	973	1,071	825
25~29세	1,277	813	934	1,023	930
30~34세	498	344	397	434	523
35~39세	316	145	196	199	237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2021~2025)

- 남양주시 청년층 모성보호 수급은 30대 중심으로 출산이 30대에 집중되는 경향이며, 20대 또한 완만하게 증가하여 20~30대 고용유지제도 활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수립 필요
 - 20~29세는 출산전후 지급자는 2020년 72명에서 2024년 82명으로 소폭 증가하였으며, 육아 휴직은 233명에서 319명으로 확대되어 20대 후반의 출산·육아 진입은 유지되는 양상

- 30~39세는 출산전후 지급자는 2020년 248명에서 2024년 329명으로, 육아휴직도 741명에서 1,196명으로 급증하여 모성보호 수급의 핵심 연령대로 집중되는 양상
- 육아기 근로단축 역시 20대와 30대에서 확대되며, 특히 30대 중심으로 경력단절 방지형 고용 유지 전략이 강화되는 구조

표 3-18 모성보호지급자 현황(순지급자수)

(단위: 명)

구분	2020년						2024년					
	출산 전후	육아 휴직	육아기 근로 단축	배우자 출산	유사산	난임 치료	출산 전후	육아 휴직	육아기 근로 단축	배우자 출산	유사산	난임 치료
남양주시 전체	341	1,026	208	76	6	0	439	1,629	523	118	11	0
19세 이하	0	0	0	0	0	0	0	2	3	0	0	0
20~29세	72	233	65	7	0	0	82	319	147	13	0	0
30~39세	248	741	139	54	6	0	329	1,196	353	91	9	0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2020, 2024)

제2절 남양주시 청년정책 현황

1 남양주시 청년 지원사업 현황

- 2026년 기준 남양주시 청년 지원사업은 총 57개(본예산 40,894백만원)로 전년대비 사업수는 6개 줄었으나, 예산은 3.3% 증가
 - 청년 지원사업 예산은 40,894백만원(국비 14,390백만원, 도비 10,660백만원, 시비 15,844백만원)이며, 청년 1인당 청년예산은 242천원으로 전년대비 18천원 증가
 - ※ 청년예산 18,304백만원(2024년) → 38,421백만원(2025년) → 40,894백만원(2026년)
 - ※ 청년 1인당 청년예산 105천원(2024년) → 224천원(2025년) → 242천원(2026년)
 - 남양주시 청년전담 조직은 부시장 직속 청년담당관(1과 3팀)이며, 청년 지원사업과 관련된 조례는 남양주시 청년 기본조례를 포함하여 8개임

표 3-19 남양주시 청년 지원사업 관련 조례

조례명	제정일
남양주시 청년 기본조례	2017.12.26.
남양주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2018.2.28.
남양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2020.7.30.
남양주시 청년창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021.5.13.
남양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3.7.27.
남양주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3.9.26.
남양주시 청년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2024.2.15.
남양주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2024.4.4.

- 남양주시는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을 홍보하고 추진 관리를 하고 있음
 - ‘청년이 뜬다! 남양주가 뜬다! 함께 성장하는 남양주’를 비전으로 설정하여 청년정책관과 17개 부서가 57개 관련 사업을 추진
 - (추진방향) 청년 참여형 정책 지속·확대 및 청년정책 브랜딩 추진, 청년 창업부터 문화·여가, 경제적 지원까지 다각도 지원, 준비-경험-취업까지 체계적인 청년지원 흐름 구축
 - 5대 전략으로는 일자리(일자리 창출 및 지원, 19개), 주거(안전한 자립지원, 6개), 복지(청년 삶의 life-up, 19개), 문화(행복한 일상지원, 5개), 참여(청년정책 참여&소통, 8개)로 구분됨

- 일자리 사업은 총 19개로 예산은 1,936백만원이며, 청년공간 운영, 청년도전지원 사업, 청년인증기업 지원, 정약용의후예 운영, 청년크루 해외연수단, 농축산물전시판매전으로 구분됨
- 안전한 자립을 위한 주거지원 사업(6개 사업, 2,609백만원)으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증료 지원,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청년 주거급여 지원, 청년월세 지원사업, 청년이사비 지원, 남양주청년월세 지원이 있음
- 청년복지 관련 사업은 총 19개(예산 35,539백만원)이며, 크게 청년기본소득,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농업인 기회소득 지원, 고립청년지원사업, 청년마음건강센터 운영, K-패스·기후동행카드, 경기청년역량강화기회지원 사업 등이 있음
- 청년문화 사업 예산은 333백만원이며, 관련 사업은 총 5개(청년꽃간문화프로그램, 청년공간 활성화사업, 청춘야학당(솔로체크인), 청년문화예술패스, 여유당 북페어)임
- 청년정책 참여 사업 예산은 477백만원이며, 청년정책협의체 위원회 운영, 청년커뮤니티 활성화를 포함하여 8개 사업으로 구성됨

그림 3-1 남양주시 청년지원사업 개요



+ 전체대상이지만 청년층 혜택이 큰 5개 사업(K-패스, 기후동행, 농어민기회소득 등) 22,538백만원 포함
 + 전년대비 변동사항 : 사업종료(7개), 사업통합 및 이관(3개), 신규·추가사업(4개) **예산 2,473백만원 증가**

자료: 남양주시(2026). 내부자료

표 3-20 2026년 남양주시 청년 지원사업 분야별 현황

(단위: 백만원)

과제 번호	세부추진과제	구분	소요예산					추진부서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5대 전략, 57개 세부추진과제		40,894		14,390	10,660	15,844		18개 부서
1. 일자리 분야(19개)		1,936		596	68	1,271		
1-1	남양주시 청년공간 운영	계속	588			588		청년담당관
1-2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공모)	계속	660	580		80		청년담당관
1-3	청년 창업 지원	계속	35			35		청년담당관
1-4	6T 산업연계 현장형 교육 운영	계속	10			10		청년담당관
1-5	취업 역량강화 교육 운영	계속	36			36		청년담당관
1-6	청년크루 해외 연수단 운영	계속	25			25		청년담당관
1-7	청년기업인증제	계속	비 예 산					지역경제과
1-8	청년인증기업 및 창업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계속	100			100		지역경제과
1-9	내일드림 청년키움사업	계속	13	6.2	2	4.4		청년담당관
1-10	대학 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	계속	30			30		청년담당관
1-11	말산업 청년인턴취업 지원	계속	84		42	42		농축산지원과
1-12	농업인대학 운영	계속	72	10	5	57		농생명정책과
1-13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계속	24	0	9	15		농생명정책과
1-14	일자리카페 운영	계속	47			47		일자리지원과
1-15	취업성공 프로젝트 운영	계속	29			29		일자리지원과
1-16	취업(채용)박람회 개최	계속	40			40		일자리지원과
1-17	정약용의 후예 플랫폼 운영	추가	80			80		청년담당관
1-18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	계속	33		10	23		지역경제과
1-19	농특산물 전시판매전 참가	추가	30			30		농업기술과
2. 주거 분야(6개)		2,609		1,032	287	1,291		
2-1	청년 주거급여 지원	계속	280	252	20	8		주택과
2-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증료 지원(전체)	계속	77	38	12	27		주택과
2-3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계속	110		33	77		여성아동과
2-4	청년 월세 지원사업	계속	1,482	741	222	519		청년담당관
2-5	남양주시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신규	180			180		정책기획과
2-6	남양주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규	480			480		정책기획과
3. 복지 분야(19개)		35,539		12,762	10,227	12,551		
3-1	청년기본소득 지급	계속	5,303		3,712	1,591		청년담당관
3-2	청년내일저축계좌	계속	3,048	2,744	91	213		복지행정과
3-3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전액도비)	계속	미통보(전액도비)					청년담당관
3-4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 사업	계속	188		94	94		청년담당관
3-5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계속	2,826	-	1,890	936		건강증진과
3-6	청년정신건강증진사업	계속	100	50	8	43		보건정책과
3-7	청년마음건강센터 운영	계속	200	100	15	85		보건정책과
3-8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	계속	330	231	15	84		여성아동과
3-9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	계속	20			20		여성아동과
3-10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사업	계속	10			10		청년담당관
3-11	장학사업	계속	426			426		미래교육과
3-12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계속	221	154		67		농축산지원과
3-13	입영지원금 지원	계속	210			210		행정지원과
3-14	농업인자녀 학자금 융자 지원	계속	0.13			0.13		농생명정책과
3-15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계속	198	99	30	69		보건정책과
3-16	농어민 기초소득 지원사업(전체)	계속	3,349		1,675	1,674		농생명정책과
3-17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전체)	계속	714	500	32	182		보건정책과
3-18	기후동행카드 사업 (전체)	계속	628			628		대중교통과

과제 번호	세부추진과제	구분	소요예산					추진부서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3-19	K-패스 사업(전체)	계속	17,768	8,884	2,665	6,219		대중교통과
	4. 문화 분야(5개)	333			79	254		
4-1	경기청년공간활성화 지원사업	계속	32		10	22		청년담당관
4-2	청춘야학당 교육프로그램 운영	계속	14			14		청년담당관
4-3	청년꽃간 문화프로그램	계속	22			22		청년담당관
4-4	청년문화예술패스	계속	230		69	161		문화예술과
4-5	여유당복페어	계속	35			35		다산평생학습과
	5. 참여 분야(8개)	477				477		
5-1	청년정책위원회 및 협의체 운영	계속	17			17		청년담당관
5-2	청년커뮤니티 지원사업	계속	36			36		청년담당관
5-3	예비청년 지원	계속	11			11		청년담당관
5-4	청년참여정책운영	계속	6			6		청년담당관
5-5	청년 소통 SNS 운영	계속	13			13		청년담당관
5-6	청년 축제 개최	계속	40			40		청년담당관
5-7	청년 행정체험 연수 운영	계속	346			346		청년담당관
5-8	대학생 플래너즈 운영	계속	8			8		자치협력과

자료: 남양주시(2026). 내부자료

2 분야별 세부과제

1) 일자리 분야

- 남양주시 청년의 취업역량 강화와 안정적인 노동시장 진입 지원을 위해 19개 취·창업지원 사업 추진
 - 일자리분야 사업으로 예산 1,936백만원(국비 596백만원, 도비 68백만원, 시비 1,271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담당부서는 청년담당관, 지역경제과, 농축산지원과, 농생명정책과, 일자리지원과, 농업기술과로 구성됨
 - 청년공간, 취업지원 등 청년 일자리 기반 인프라와 프로그램 중심의 사업 운영
- 일자리분야 지원사업은 크게 청년공간 운영(1개 사업), 청년도전지원 사업(12개 사업), 청년인증기업 지원(3개 사업), 정약용의후예 운영(1개 사업), 청년크루 해외연수(1개 사업), 농특산물 전시판매전(1개 사업)으로 구분됨
 - (청년공간 운영) 청년 창업과 소통의 거점공간 운영을 통한 청년 창업 생태계 기반 지원
 - (남양주시 청년공간 운영) 청년 창업가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창업공간 제공, 청년 누구나 이용가능한 공유공간 운영을 운영하여 청년 창업과 소통 중심지로 운영
 - (청년도전지원 사업) 구직의욕 고취와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제공과 참여수당·인센티브 지원, 직무·산업 연계 교육 운영,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과 채용 연계 등을 통해 청년의 취업

준비 부담을 완화하고 취업성과 제고를 도모함

- (남양주시 청년도전지원사업(공모)) 만 18~39세 구직도전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과 참여수당(인센티브) 제공 및 고용서비스 연계로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목표인원 130명)
- (청년창업 지원) 청년 예비·기창업가를 대상으로 단기 역량강화 교육과 1:1 맞춤형 창업 코칭·멘토링(컨설팅)을 제공하여 창업 역량 강화 도모(35백만원/청년담당관)
- (6T 산업연계 현장형 교육 운영) 6T 산업 분야 교육을 체계화하여 청년의 진로 설정 및 취·창업 역량 강화 지원
- (취업 역량강화 교육 운영) 청년 대상 맞춤형 취업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실질적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사회·경제적 자립을 지원
- (내일드림 청년키움사업) 미취업 청년과 지역 디지털·첨단 업종 기업을 매칭하고 인건비(월 최대 180만원, 2년), 복지포인트(지역화폐) 및 인센티브 등을 지원하여 취업률 제고 및 기업 인력난 완화 도모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지원(공모)) 경북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비 및 프로그램비를 매칭 방식으로 지원하여 청년 취업지원 서비스 및 역량교육 프로그램 운영
- (말산업 청년인턴 취업 지원) 말산업 분야 취업 희망 청년에게 실무연수(인턴) 기회를 제공하고, 신규 인턴 채용 승마장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취업 연계 강화
- (농업인대학 운영) 농업인·교육 희망 시민을 대상으로 기후적응·스마트농업·전통발효 등 분야별 전문 농업기술 교육을 통해 전문 농업경영인 양성
- (청년 농업인 경쟁력 제고) 청년농업인(청년4-H) 초기 영농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규모화·현대화 등 영농기반 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안정적 조기 정착 지원
- (일자리카페 운영) 취업지원프로그램(취업로드맵 등)과 면접정장 대여·면접사진 촬영·공간대여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 준비 비용 절감 및 취업역량 강화 지원
- (취업성공 프로젝트 운영) 청년 맞춤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수당(수료 10만원), 취업성공수당(취업 10만원) 지급을 통해 구직기술 및 취업역량 강화 지원(관내 19~39세 60명)
- (취업(채용)박람회 개최) 채용박람회 및 구인·구직 매칭데이 운영을 통해 기업-구직자 간 채용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고용 활성화 및 취업률 제고 도모

표 3-21 남양주시 청년정책: 일자리분야(1) 청년공간 운영, 청년도전지원 사업

구분	주요 내용
남양주시 청년공간 운영	• 목적: 청년 창업가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창업 공간을 제공하고, 청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유공간 운영하여 청년창업 및 소통의 중심지로 운영 • 세부 추진계획: 제3기 창업 스토어 입주자 추가 모집·운영 • 사업비/부서: 588백만원 (시비 100%, 남양주시공사 위탁운영)/청년담당관
청년도전 지원사업 (공모)	• 목적: 구직도전청년 등 참여자를 발굴하여 자신감 회복, 구직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및 참여수당 등을 제공함으로써 청년의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 • 대상: 만 18~39세 구직도전청년(목표인원 130명) • 사업내용: 사회활동 참여 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인센티브 제공 및 고용서비스 연계 지원 • 사업비/부서: 660백만원/청년담당관
청년창업 지원	• 목적: 남양주시 청년 예비창업가·기창업가를 대상으로 실전형 단기 역량 강화 교육 제공 및 전문가의 창업 컨설팅을 지원하여 창업 역량강화 도모 • 대상: 남양주시 거주 청년(19세~39세)(예비창업가·기창업가) • 사업내용 - 청년창업 교육 운영: 분야별·영역별 수요와 트렌드에 따른 맞춤형 청년창업교육 프로그램 제공 - 청년창업 컨설팅 운영: 영역별·수준별 실무 중심의 1:1 맞춤형 창업 코칭 및 멘토링 • 사업비/부서: 35백만원/청년담당관
6T 산업연계 현장형 교육 운영	• 목적: 6T 산업 분야 교육의 입문 과정부터 심화 과정까지 체계적 운영을 통한 청년들의 접근성 지원 및 진로 설정과 취·창업 역량 강화 도모 • 대상: 남양주시 거주 19~39세 청년 • 교육내용: 분야별·영역별 수요와 트렌드에 따른 6T 산업 교육 제공 • 사업비/부서: 10백만원/청년담당관
취업 역량강화 교육 운영	• 목적: 남양주시 청년 대상 실질적인 취업 역량강화 지원을 통해 남양주시 청년취업률 제고 및 사회·경제적 자립 도모 • 대상: 남양주시 거주 19~39세 청년 • 교육내용: 취업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청년취업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사업비/부서: 36백만원/청년담당관
내일드림 청년키움사업	• 목적: 행정안전부 청년일자리 공모사업으로 미취업 청년에게 지역 디지털·첨단업종기업 등의 일자리를 매칭하여 취업률 제고 및 기업 인력난 해소에 기여 • 대상 - 기업: 남양주시 소재 5인 이상의 혁신형중소기업, 벤처기업, 디지털·IT 분야기업, 첨단업종기업, 지식산업센터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 - 청년: 경기도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 사업내용: 1인당 인건비 월 최대 180만원(2년간 지원, 기업부담 10%), 복지포인트(지역화폐) 및 인센티브 등 지원 • 사업비/부서: 13백만원/청년담당관
대학일자리 플러스센터 운영 지원 (공모)	• 목적: 경북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한 청년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및 • 역량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미래 인재 양성 • 대상: 경북대학교 취업지원센터 • 지원내용: 고용노동부-경기도-남양주시-경북대학교 매칭 방식을 통한 운영비(인건비+운영경비), 프로그램비 지원 • 사업비/부서: 30백만원/청년담당관
말산업 청년인턴 취업 지원	• 목적: 말산업 관련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층 대상 실무연수 기회 제공 • 대상: 청년 중 미취업자(10개월 간 사업체 근무 가능자, 사업체당 최대 2명)

구분	주요 내용
	• 사업내용: 신규 인턴을 채용한 승마장에 인건비 지원 • 사업비/부서: 84백만원/농축산지원과
농업인대학 운영	• 목적: 남양주농업의 지속 발전을 위하여 농업의 혁신과 변화를 선도하는 전문 • 전문농업경영인 양성 • 대상: 남양주시민(농업인 및 교육 희망 시민) • 사업내용: 분야별 전문 농업기술 교육 (정규학과: 기후적응농업과, 스마트농업과, 전통발효과, 교육시간: 과별 25회 100시간 내외) • 사업비/부서: 72.4백만원/농생명정책과
청년 농업인 경쟁력 제고	• 목적: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청년농업인 4-H회원들의 초기 영농정착 지원 통해 안정적인 초기 정착에 기여 • 대상: 19~39세 청년4-H회원으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회원 활동경력 3년 미만인 자) • 사업내용: 청년농업인들의 초기 영농기반 조성을 위한 규모화, 현대화 사업 - 지역실정에 맞는 신기술 및 아이디어 투입으로 작목별 영농 기반 조성 • 사업비/부서: 24백만원/농생명정책과
일자리카페 운영	• 목적: 맞춤형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으로 취업 역량 강화 및 취업을 제고,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으로 취업 준비 비용 절감 및 공공서비스 만족도 향상 • 추진근거: 「남양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 대상: 관내 취업준비생 • 사업내용 - 구직 필수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취업로드맵 -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면접정장 대여, 면접사진 촬영, 공간대여 • 사업비/부서: 47백만원/일자리지원과
취업성공 프로젝트 운영	• 목적: 청년 맞춤형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으로 구직 기술 및 취업 역량 강화 • 추진근거: 「남양주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6조, 제9조 • 대상: 관내 19~39세 청년 구직자 60명 • 사업내용: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및 참여수당 지급 - 참여수당 10만원(수료시), 취업성공수당 10만원(취업시, 예산 범위 내 지급) • 사업비/부서: 29백만원/일자리지원과
취업(채용)박람회 개최	• 목적: 기업과 구직자 간 채용 기회 제공으로 지역고용활성화 및 취업을 제고 • 추진근거: 「남양주시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6조 • 대상: 관내·외 구인 기업 및 일자리를 찾는 시민 • 사업내용: 채용박람회 및 구인·구직 매칭데이 운영 • 사업비/부서: 40백만원/일자리지원과

자료: 남양주시(2026). 내부자료 재구성

- (청년인증기업 지원) 청년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기업 인증 및 금융지원(특례보증)을 추진하고, 창업기업의 사업화 지원을 통해 창업 성공 가능성을 제고함
- (청년기업인증제) 청년대표(19~39세)가 운영하는 남양주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증을 부여(인증일로부터 3년 유효)하고, 각종 사업 신청 시 가산점 부여를 통해 청년 기업활동 촉진
- (청년인증기업 및 창업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남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청년인증기업·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신용보증 대출을 지원(개인별 최대 5,000만원 보증)하여 경영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 경북대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사업화를 지원(국내외 인증, 시제품 제작, 홍보마케팅 등)하여 창업 활성화 및 창업 성공률 제고
- 청년 인재의 참여·교류 기반을 구축하여 지역 내 일자리 및 협업 기회를 확대하고, 청년의 역량 확장을 위한 경험 기회를 제공함
- (정약용의 후예 플랫폼 운영) 남양주시 거주 또는 활동 청년(19~39세)의 인재 프로필을 청년 공식 블로그 내 「정약용의 후예」 카테고리에 등록·홍보하여 지역 내 일자리·협업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 네트워킹 지원(누적 100명 목표)
- (청년크루 해외 연수단 운영) 청년의 전문 확대 및 지역사회 리더십 함양을 위해 해외연수를 추진하고, 항공료·숙박비·식비·여행자보험 등 해외연수비용을 지원
- 지역 특화자원(농특산물)의 판로·홍보를 지원하여 청년농업인 등의 경제활동 기회를 확대함
- (농특산물 전시판매전 참가) 관내 청년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전시판매전 참가 및 직거래장터 운영을 지원하여 우리시 우수 농특산물 홍보 및 유통 활성화 도모
- 남양주시 일자리분야 사업은 공간·프로그램·기업지원·채용연계가 함께 운영되고 있어 사업 간 연계를 통해 ‘지원 사다리(경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청년도전지원(다수 사업) 중심 구조는 유사 프로그램의 중복 가능성과 교육 이후 채용·정착으로의 연계 부족이 발생할 수 있어, 프로그램 종료 후 단계(매칭·인턴·정규전환·창업 사업화 등)까지 포함한 운영체계 정비가 필요함
- 또한 청년기업 지원(인증·특례보증·보육)은 개별 사업으로 존재하는 만큼, 원스톱 패키지(인증→금융→사업화→판로)로 묶어 기업 성장 경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표 3-22 남양주시 청년정책: 일자리분야(2) 청년인증기업 지원, 역량 확장 경험 기회 제공 사업

구분	주요 내용
청년기업인증제	• 목적: 청년들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청년기업 인증제를 접목 시행하여 각종 사업 신청 시 가산점을 부여 • 대상: 청년대표(19세 이상~39세 이하)가 운영하는 남양주소재 중소기업 • 사업내용: 지역경제과 신청·발급, 소관부서 검토 진행하여 인증일로부터 3년 유효 • 사업비/부서: 비예산/지역경제과
청년인증기업 및 창업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 목적: 담보력이 부족한 청년인증기업 및 창업기업에 신용보증 대출 지원을 통해 경영 안정화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추진근거: 「남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 대상: 남양주시 청년인증기업 및 창업기업으로 남양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2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지원내용: 개인별 최대 5,000만원까지 보증 지원 • 사업비/부서: 100백만원/지역경제과

구분	주요 내용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	• 목적: 경북대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사업화 지원으로 창업 활성화 및 창업 성공을 제고 • 사업내용: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사업화(국내외 인증, 시제품 제작, 홍보마케팅 등) 지원 • 사업비/부서: 33백만원/지역경제과
정약용의 후예 플랫폼 운영	• 목적: 청년 인재의 주체적인 참여와 교류를 통해 재능을 발굴·확산하고, 이를 기반으로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협업 기회 확대를 지원 • 대상: 남양주시 거주 또는 활동 중인 19~39세 청년 (누적 100명 목표) • 사업내용: 청년 인재 프로필을 남양주시 청년 공식 블로그 「정약용의 후예」 카테고리에 등록·홍보하여 지역 내 일자리 및 협업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 간 네트워킹을 지원 • 사업비/부서: 8백만원/청년담당관
청년크루 해외 연수단 운영	• 목적: 청년의 건문 확대 및 지역사회 리더십 함양을 위한 해외연수 추진 • 대상: 남양주시 거주 만19세~39세 청년 • 지원내용: 해외연수비용(항공료, 숙박비, 식비, 여행자보험) • 사업비/부서: 25백만원/청년담당관
농특산물 전시판매전 참가	• 목적: 전시판매전 참가를 통해 우리시 우수 농특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대상: 관내 청년농업인 등 • 사업내용: 직거래장터 운영, 전시판매전 참가 • 사업비/부서: 30백만원/농업기술과

자료: 남양주시(2026). 내부자료 재구성

2) 주거 분야

□ 청년 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6개의 주거분야 청년정책 추진

- 주거분야 사업의 총 예산은 2,609백만원(국비 1,032백만원, 도비 287백만원, 시비 1,291백만원)이며, 담당부서는 주택과, 여성아동과, 청년담당관, 정책기획과가 있음

□ 주거분야 지원사업은 임대료 지원, 주거이동 지원, 주거안정 지원, 취약청년 자립지원이 있음

-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정책 운영
 - (청년 주거급여 지원) 저소득 미혼 청년(만19~30세 미만)의 주거 안정 및 자립 지원을 위한 주거급여 지급
 - (청년 월세 지원사업) 부모 별도 거주 만19~34세 무주택청년 가구의 월세 부담 완화를 위한 임대료 지원(월 최대 20만원, 최장 24개월 월세 지급)
 - (남양주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규사업으로 남양주시 거주 19~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의 주거 안정 및 정주기반 마련을 위한 맞춤형 월세 지원(450세대, 최대 40만원 지원)
- 주거 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사업 추진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증료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지원을 통한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임차인 보호

- (남양주시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신규사업으로 청년의 주거 이동 비용 부담 완화 목적의 이사비 지원

○ 취약 청년을 위한 자립 지원 사업 추진

-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보호 종료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진입과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정착금 지원

- 남양주시 청년 주거정책은 청년의 직접적인 주거비 완화와 주거 안전 확보를 지원하고 있으나, 단기적 주거비 지원의 형태로 안정적인 주거 기반 마련을 위한 중장기적 주거 안정 정책과의 연계가 필요함

표 3-23 남양주시 청년정책: 주거분야

구분	주요 내용
청년 주거급여 지원	• 목적: 저소득층 청년, 주거급여 별도 지급 및 자립 도모 • 대상: 주거급여 지급 수급자 가구원 중 부모와 거주지 달리하는 만19~30세 미만 미혼 청년 • 지급기준: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소득수준 따라 차등 지급 • 사업비/부서: 280백만원/주택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증료 지원(전체)	• 목적: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유도 • 법적근거: 주거기본법 제15조, 청년기본법 제20조 • 대상: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2024년 청년대상에서 전체대상으로 사업 확대 • 사업내용: 기납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전부/일부(최대40만원) 지원 • 사업비/부서: 77백만원/주택과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 목적: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는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자립실현을 위한 수당 지원 • 대상: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경기도 내 시설 2년 이상 거주, 만기퇴소 직전 6개월 이상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 생활) • 지원내용: 1차 1,000천원, 2차 5,000천원 지원 • 사업비/부서: 110백만원/여성아동과
청년 월세 지원사업	• 목적: 임대료 상승에 따른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주거안정 도모 • 대상: 부모 별도 거주 만19~34세 무주택청년이면서 기준 소득조건(청년가구/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60%/100% 이하) 및 재산조건(청년가구/원가구 재산가액 1억22백만원/4억7천만원 이하) 충족 청년 • 사업내용: 월 최대 20만원, 최장 24개월 월세 지급 • 사업비/부서: 1,482백만원/청년담당관
남양주시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신규)	• 목적: 남양주시 청년이 지역사회 안에서 삶을 설계하고 정주할 수 있도록 맞춤형 주거비 지원 • 대상: 남양주시 거주 19~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가구당 중위소득 120% 이하, 남양주시 관내·외 진입 청년,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 지원내용: 최대 40만원 지원(450세대) • 사업비/부서: 180백만원/정책기획과
남양주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 목적: 남양주시 청년이 지역사회 안에서 삶을 설계하고 정주할 수 있도록 맞춤형 주거비 지원 • 대상: 남양주시 거주 19~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가구당 중위소득 120% 이하, 남양주시 거주

구분	주요 내용
(신규)	청년, 보증금8천만원 이하 월세/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 지원내용: 최대 월 20만원 지원(최대 12개월 240만원/200세대) • 사업비/부서: 480백만원/정책기획과

자료: 남양주시(2026). 내부자료 재구성

3) 복지 분야

- 남양주시는 기본소득을 포함하여 청년인구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해 19개 사업 추진
 - 복지분야 사업 예산은 35,539백만원(국비 596백만원, 도비 68백만원, 시비 1,271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약86.9%를 차지하며, 담당부서는 청년담당관, 지역경제과, 농축산지원과, 일자리지원과, 농업기술과가 있음
 - 주로 현금·바우처·환급 등 단기 비용완화 정책이 많은 편임
- 복지분야 지원사업은 청년기본소득(3개 사업), 청년내일저축계좌(2개 사업), 청년농업인기회 소득 지원(3개 사업), 고립청년지원사업(5개 사업), 청년마음건강센터 운영(3개 사업), K-패스·기후동행카드(2개 사업), 경기청년역량강화기회지원(1개 사업)이 있음
 - (청년기본소득) 청년의 기본생활 지원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현금성 지원을 통해 청년층의 기본권 보장과 지역 내 정주 기반을 지원함
 - (청년기본소득 운영)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남양주사랑상품권)로 지급하여 청년의 사회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근거: 「경기도/남양주시 청년 기본소득 지급 조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고, 정부지원금(소득수준·출산유형·서비스기간 등에 따라 차등) 바우처 지원
 - (남양주시 입영지원금 지원)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예정)자에게 1인당 10만원(남양주 사랑상품권)을 지급하여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
 - (청년내일저축계좌) 근로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경제적 안정과 사회 정착을 도모함
 - (청년내일저축계좌) 3년간 근로 유지 및 저축(월 10만원 이상) 시 근로소득장려금(차상위 이하 월 30만원/차상위 초과 월 10만원)을 지원하여 근로유인 및 자립 촉진(교육 이수·자금사용계획서 등 요건 포함)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매월 10만원 저축(2년 만기) 시 현금 480만원 및 지역사랑상품권 100만원을 지급하고, 재무·노무 교육 및 금융컨설팅 등 자립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병행 지원

표 3-24 남양주시 청년정책: 복지분야(1) 청년기본소득, 청년내일저축계좌

구분	주요 내용
청년기본소득 운영	• 목적: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 • 사업근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남양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 대상: 남양주시 거주 24세 청년 중 도 내 최근 연속 3년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자 • 사업내용: 분기별 25만원, 최대 100만원/남양주시사랑상품권 지급 • 사업비/부서: 5,303백만원/청년담당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목적: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 및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산후조리 관련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대상: 남양주시 모든 출산가구 - 기본지원(도70/시30):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예외지원(도30/시70):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 사업내용 - 서비스 내용: 산모 및 신생아관리(건강상태 확인 및 수유지원 등), 가사활동 지원(산모 식사준비, 주 생활공간 청소 및 의류세탁) - 지원금액: 456천원~18,604천원 바우처(정부지원금) 지원 * 소득수준, 태아유형, 출산순위, 서비스기간에 따라 상이 • 사업비/부서: 2,826백만원/건강증진과
남양주시 입영지원금 지원	• 목적: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남양주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입영대상자의 자부심을 높이고,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 • 대상: 남양주시 거주(신청일 기준 1년 이상)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예정)자 • 사업내용: 1인당 10만원(남양주시사랑상품권) • 사업비/부서: 210백만원/행정지원과
청년내일 저축계좌	• 목적: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지원 및 자립 촉진 • 대상: 차상위이하(중위소득 50%이하): 월소득 10만원 이상인 일하는 청년(만15~39세)/차상위초하(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월소득 50만원 초과~250만원 이하인 일하는 청년(만19~34세) * 2026년 신규 가입대상 축소 예정(미확정) • 사업내용: 3년간 근로 유지 및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시, 근로소득 장려금 매월 30만원(차상위 이하), 10만원(차상위 초과) 지원하여 근로유인 및 자립기반 마련 * 지급해지 조건: 3년간 근로 및 저축+ 교육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사업비/부서: 3,048백만원/복지행정과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 목적: 도내 청년의 근로의지를 고취하고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대상: 도내 거주 19세~39세,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노동자 가구 • 사업내용 - 자산형성지원: 매월 10만원 저축(2년만기) 시 현금 480만원+지역사랑상품권 100만원 지급 - 사회적 자립역량 강화 지원: 재무·노무 교육, 금융컨설팅, 자기개발지원 • 사업비/부서: 미정/청년담당관

자료: 남양주시(2026). 내부자료 재구성

- (청년농업인 기회소득 지원)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 및 농어민 소득 보전을 지원하여 농촌 정착 기반을 강화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에 기여함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청년후계농을 대상으로 영농정착 지원금(월 110~90만원, 최장 3년)을 바우처 방식(청년농업희망카드)으로 지급
 - (농업인자녀 학자금 융자 지원) 농업인 자녀(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융자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를

지원하여 교육비 부담 경감

-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남양주시사랑상품권을 지급(일반 월 5만원, 청년·환경·귀농어민 월 15만원)하여 공익적 기능 유지 및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 체계 운영

표 3-25 남양주시 청년정책: 복지분야(2) 청년농업인 기회소득 지원

구분	주요 내용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 목적: 청년농업인에게 영농초기 생활안정 자금 지급 및 영농정착 지원 • 대상: 청년후계농 • 사업내용: 청년농업희망카드 발급후 바우처 방식으로 사업대상자에게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월 110~90만원, 최장 3년) • 사업비/부서: 221백만원/농축산지원과
농업인자녀 학자금 융자 지원	• 목적: 농업인 자녀(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무이자 융자 지원하여 교육비 부담 경감과 교육의 기회균등 제공 • 대상: '26년 현재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 실행 중인 자 • 사업내용: 학자금 무이자 융자에 따른 발생 이자 지원 • 사업비/부서: 0.13백만원/농생명정책과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 목적: 농어업·농어촌의 소멸 위기에 대응 공익적 기능 유지,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으로 일반·청년·환경·귀농어민 개인에게 기회소득 지급 • 대상: 관내 농어업 경영체 등록 농어민 • 사업내용: 농어민 개인에게 남양주시사랑상품권 지급 - 일반농어민 월 5만원, 청년·환경·귀농어민 월 15만원 • 사업비/부서: 3,349백만원/농생명정책과

자료: 남양주시(2026). 내부자료 재구성

- 사회적 고립 및 취약상황 청년의 회복·자립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 진입을 돕고, 위기 상황의 장기화를 예방함
 -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에게 보호종료일로부터 5년간 매월 50만원을 지급하여 안정적 사회진출 및 자립 기반 지원
 -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 멘토-멘티 맞춤형 멘토링(진로·취업·생활 전반)과 활동비·특별활동비 지원, 문화체험 등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경제적 자립 및 안정적 정착 지원
 -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사업) 남양주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고립청년의 초기 발굴 및 회복·경험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 (장학사업)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재능이 우수한 학생·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지역사회 인재 육성(근거: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12~17세 여성 청소년 및 18~26세 저소득층 여성을 대상으로 HPV 예방접종(2~3회) 지원하여 질병 부담 감소 도모

표 3-26 남양주시 복지분야(3) 고립청년지원사업

구분	주요 내용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	• 목적: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는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자립실현을 위한 수당 지원 • 대상: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보호 종료된 자 -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보호를 받은 자 • 사업내용: 보호종료일로부터 5년간 매월 500천원 지급 • 사업비/부서: 330백만원/여성아동과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	• 목적: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사회적,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 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 • 대상: 멘토 50명, 멘티 130명(자립준비청년 57명, 자립지원대상아동 73명) * 자립지원대상아동: 15세 이상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연장 중인 아동 • 사업내용 - 멘토-멘티 조별·개별 멘토링 월 1회 활동비 및 특별활동비 지원 - 진로, 취업, 생활 전반에 대한 맞춤형 멘토링 제공 - 멘토단 역량 강화 교육 및 멘토·멘티 관련 행사 참여 - 멘토·멘티 가족 봄·가을 문화체험 활동 진행 • 사업비/부서: 20백만원/여성아동과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사업	• 목적: 미래 불확실성 등 청년들의 주체적 자립에 어려움 가중됨에 따라 고립된 청년들의 회복을 돕는 사업을 추진 • 지원근거: 남양주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사업내용: 고립청년의 초기 발굴 및 회복과 경험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사업비/부서: 10백만원/청년담당관
장학사업	• 목적: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재능이 우수한 학생 및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인재 육성 • 사업근거: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대상: 미래 장학생(대학생), 복지 장학생(대학생)/재능 장학생(초, 중, 고, 대, 청소년) • 사업비/부서: 426백만원/미래교육과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목적: 자궁경부암을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백신인 HPV 예방접종 국가 지원을 통해 HPV 접종률 향상과 질병 부담 감소를 위한 • 대상: 18~26세 저소득층 여성 및 12~17세 여성 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사업내용: HPV 예방접종 2~3회 지원(HPV 4가, 가다실) • 사업비/부서: 198백만원/보건정책과·보건행정과

자료: 남양주시(2026). 내부자료 재구성

- (청년마음건강센터 운영) 청년(청소년 포함) 정신건강의 조기개입 및 서비스 연계를 통해 정신 질환의 만성화를 예방하고 일상 회복을 지원함
 - (청년정신건강증진사업) 15~3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 찾아가는 심리지원, 홍보 등을 추진
 - (청년마음건강센터) 15~34세 청(소)년을 발굴·조기개입하여 사례관리, 교육·프로그램 운영, 마음건강 환경조성 및 홍보사업 추진

-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전문 심리상담 바우처(총 8회, 120일) 제공
 - (K-패스·기후동행카드)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교통비 환급을 통해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지원함
 - (K-패스)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환급기준(일반 20%/청년 30%/저소득 53% 등)에 따라 교통비 일부를 환급하여 교통비 부담 완화 및 이용 활성화 도모
 - (기후동행카드 사업) 월 65,000원 정가권으로 서울시 지하철·버스·파arking 등을 무제한 이용(청년 55,000원 정가권 금액 안내 포함)하여 교통비 부담 완화 및 대중교통 이용 확대 지원
 - 취업준비 및 생활·건강 관련 비용 지원을 통해 청년의 도전 지속과 생활 안정 기반을 보완함
 -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 사업) 「경기도/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미취업 청년(19~39세)에게 어학·자격 시험 응시료를 1인당 연 최대 30만원 지원하여 취업준비 비용 부담 완화
- 남양주시 복지분야 사업은 소득·자산형성·취약청년 자립·정신건강·교통비 완화 등 다층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사업별 연령·소득·상태 기준이 상이하여 경계구간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어 대상 기준의 체계적 정리가 필요함
- 현금·바우처·환급 등 단기 비용완화 성격이 큰 만큼 자산형성(저축계좌·노동자통장), 일자리 지원, 정신건강, 자립지원 간 연계 경로를 명시하여 ‘부담 완화→자립’으로 이어지는 정책 논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고립·자립준비 청년 지원과 정신건강 사업은 서비스 성격이 유사·연관되어 있어, 발굴-조기개입-상담/치료-사후관리(사례관리) 흐름을 정리하고 연계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표 3-27 남양주시 청년정책: 복지분야(4)

구분	주요 내용
청년정신건강 증진사업	• 목적: 지역사회 내 청(소)년의 정신질환 조기발견 및 정신과 치료 지원을 통해 질환의 만성화를 예방하고 일상생활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함 • 대상: 관내 15~34세 청(소)년 • 사업내용: 청년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 찾아가는 심리지원, 홍보 • 사업비/부서: 100.7백만원/보건정책과
청년마음 건강센터	• 목적: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겪는 15세~34세 청(소)년을 발굴하여 적절한 조기개입으로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맞춤형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으로 정신건강 개선 강화 • 대상: 관내 15~34세 청(소)년 • 사업내용: 청(소)년 사례관리, 청(소)년 교육 및 프로그램, 청(소)년 마음건강 환경조성 사업 및 홍보사업 • 사업비/부서: 200백만원/보건정책과

구분	주요 내용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 목적: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시민에게 대화 기반의 전문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마음건강 돌봄, 자살 예방 및 정신질환 조기발견 • 대상: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 고위험군 • 사업내용: 전문 심리상담 바우처 총 8회 제공(120일간, 최소 50분 이상) • 사업비/부서: 714백만원/보건정책과
기후동행카드 사업	• 목적: 시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늘려 기후 변화에 대응 • 사업내용: 월 65,000원 교통카드로 서울시 지하철, 버스, 따릉이 등 무제한 이용(+협약 시군 지하철) * 정기권 금액: 청년(만19세~39세) 55,000원 • 사업비/부서: 628백만원/대중교통과
K-패스	• 목적: 도민 전국 어디서나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한 경우, 카드 1장으로 이용한 교통비의 일부를 환급하여 교통비 부담 완화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기여 • 대상: K-패스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에 주민등록상 등록된 만19세 이상 주민 • 사업내용: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지급기준에 따라 환급(일반 20%, 청년(만19~39세), 어르신 30%, 저소득 53%) • 사업비/부서: 17,768백만원/대중교통과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획지원 사업	• 목적: 취업준비비용 지원으로 청년들의 지속적인 취업 도전의지 제고 • 사업근거: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제19조 제2항,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23조 제3항 • 대상: 남양주시 거주 미취업 청년(19세~39세) • 사업내용: 어학·자격 시험 응시료 1인당 연 최대 30만원 지원 • 사업비/부서: 188백만원/청년담당관

자료: 남양주시(2026). 내부자료 재구성

4) 문화 분야

- 청년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자기계발 및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총 5개의 문화 분야 청년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문화분야 사업의 총 예산은 333백만원(도비 79백만원, 시비 254백만원)이며, 문화관련 사업은 청년담당관, 문화예술과, 다산평생학습과 담당
- 문화 분야 사업은 청년 전용 공간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과 문화예술 향유 지원, 지역 문화행사 참여 확대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년의 문화 활동 참여와 자기계발 기회를 확대하는데 목적이 있음
 - (경기청년공간 프로그램 운영) 청년 전용공간을 기반으로 다양한 문화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년 커뮤니티 형성 지원
 - (청춘야학당 교육 프로그램) 청년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 역량 강화 지원
 - (청년꽃간 프로그램 운영) 청년 전용 공간을 활용한 문화·자기계발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의 일상 회복 및 자기 성장 지원

○ (청년문화예술패스)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공연·전시 관람 지원 사업

□ 현재 청년 문화분야 지원정책은 청년 전용공간 중심의 참여형으로 운영되고 있어 향후 청년의 문화 창작활동 지원 등의 정책 연계·확대 필요

표 3-28 남양주시 청년정책: 문화분야

구분	주요 내용
경기청년공간 프로그램 운영	• 목적: 문화 향유 및 관심분야 교육 기회 제공,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가 가능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청년 전용공간의 역할 및 기능 제고 • 대상: 남양주시 거주 청년(19~39세) • 사업내용: 청년의 수요 및 트렌드에 맞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예: 음악스쿨, 어학당, 댄스스쿨) • 사업비/부서: 32백만원/청년담당관
청춘야학당 교육 프로그램	• 목적: 청년 수요 반영 취·창업 교육 외 다양한 청년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역량강화 도모 • 대상: 남양주시 거주·활동 청년(19~39세) • 사업내용: 청년 관심사 맞춤형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예: 테니스, 솔로체코인) • 사업비/부서: 14백만원/청년담당관
청년꽃간 프로그램 운영	• 목적: 청년 전용공간인 「청년꽃간」을 활용하여 청년 맞춤형 문화·자기계발 프로그램 운영, 청년 일상 회복과 자기 성장 기회 확대를 도모 • 사업근거: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16조, 제26조 • 대상: 남양주시 거주 미취업 청년(19~39세) • 사업내용: 청년 일상 회복을 위한 힐링·성장 프로그램(문화·여가 등 월간 클래스, 재테크·재무·멘탈헬스/사회초년생 인간관계 등 특강) • 사업비/부서: 22백만원/청년담당관
청년문화예술 패스	• 목적: 순수예술 관람비를 지원하여 문화예술의 향유기회 제공 • 대상: 만 19~20세 청년(평생 1번 지원) • 사업내용: 예술분야 공연과 전시에 사용 가능한 지원금 지급(연간 15만원/1인, 사업주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사업비/부서: 230백만원/문화예술과
여유당북페어 및 야행	• 목적: 다산 정약용 선생의 저술 활동을 현대적으로 조명하고 특색있는 페어(Fair)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우리 시 관광 및 정약용 브랜드 확산 • 추진근거: 독서문화진흥법 제9조 (지역의 독서 문화 진흥), 남양주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사업) • 대상: 청년 포함 남양주시민 누구나 • 사업내용: 남양주 동네책방·전국 출판물 창작자와 협업한 도서 페어(Fair) 및 야간 관광 형태의 정약용 브랜드 확산 행사(2026년 하반기 중 주말(토) 다산역 광장) • 사업비/부서: 35백만원/다산평생학습과

자료: 남양주시(2026). 내부자료 재구성

5) 참여 분야

□ 청년정책 참여 확대와 지역사회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총 8개의 청년사업을 추진

○ 참여분야 예산은 477백만원(100% 시비)이며, 청년담당관이 관련 사업을 담당함

- 참여분야 사업은 청년정책 거버넌스 구축, 커뮤니티 활성화, 정책 참여 기회 확대, 시정 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구성됨
- 정책 참여 기반을 구축하고 청년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체계 운영
 - (청년정책위원회 및 협의체 운영) 청년 참여 기반의 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 추진
 - (청년참여정책 운영) 청년의 정책 제안 기회를 확대하여 청년 수요 기반 정책 발굴
 -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및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
 - (청년 커뮤니티 지원사업) 공동 관심사 중심 청년 커뮤니티 활동 지원
 - 청년의 시정 참여 확대 및 정책 홍보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예비청년 지원) 성년이 되는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정책 홍보 및 시정 참여 유도
 - (청년 소통 SNS 운영) 청년정책 정보 전달 및 홍보 플랫폼 운영
 - (청년축제 개최) 청년 교류 확대 및 청년 문화 활성화를 위한 행사 운영
 - 청년의 행정 참여 경험 확대 및 시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 추진
 - (청년 행정체험 연수 사업 운영) 청년의 행정 경험 확대를 위한 시정 체험 프로그램
 - (대학생 플래너즈 운영) 대학생의 시정 참여 확대 및 정책 아이디어 발굴
- 남양주시는 청년의 시정 참여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청년정책 참여분야 정책사업을 시행중이나, 현재 정책은 행사 및 프로그램 중심의 참여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어 청년의 정책 결정 과정 참여 확대 및 지속적인 정책 거버넌스 강화가 필요

표 3-29 남양주시 청년정책: 참여분야

구분	주요 내용
청년정책위원회 및 협의체 운영	• 목적: 청년정책 수립과정의 청년 참여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청년정책 기반을 구축하여 청년의 시정 참여 활성화 도모 • 사업내용: 청년정책위원회 및 청년정책협의체운영 지원 • 사업비/부서: 18백만원/청년담당관
청년 커뮤니티 지원사업	• 목적: 공동의 관심사 등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유형의 커뮤니티 활동 기반을 조성하여 장기적으로 지역 내 청년 네트워크 생태계 형성 • 사업내용: 청년 커뮤니티 활동 지원 및 교류 프로그램 운영(소모임, 여행, 체육활동 지원) • 사업비/부서: 36백만원/청년담당관
예비청년 지원	• 목적: 사회에 진입하는 성년을 축하하고, 예비청년 대상 청년정책을 집중홍보하여 정보 접근성 향상 및 시정참여 제고 • 대상: 20세 성년이 되는 청년 • 사업내용: 찾아가는 정책홍보 실시 및 성년의 날 이벤트 추진 • 사업비/부서: 11.5백만원/청년담당관

구분	주요 내용
청년참여정책 운영	• 목적: 정책 수혜 당사자인 청년에게 제안의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의 니즈가 반영된 정책을 발굴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해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 수립을 도모 • 대상: 남양주시 청년정책에 관심 있는 청년 • 사업내용: 청년의 아이디어 발굴 및 참여 활성화 「청년정책 아이디어 캠프」 • 사업비/부서: 6백만원/청년담당관
청년 소통 SNS 운영	• 목적: 청년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집약한 홍보 플랫폼을 구축하여, 정보 접근성 향상 및 시정참여 제고 • 사업내용: 공식 청년 SNS(블로그, 인스타, 카카오톡채널) 운영, '청년 기자단'연계하여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발굴·SNS 활성화 추진 • 사업비/부서: 13백만원/청년담당관
청년축제 개최	• 목적: 청년의 날을 기념하고 청년들이 소통·공감할 수 있는 교류의 장 마련함으로써 청년의 시정 참여 확대 및 청년 문화 활성화 추진 • 사업내용: 청년축제 운영(청년의날 매년 9월 셋째주 토요일) • 사업비/부서: 40백만원/청년담당관
청년 행정체험 연수 사업운영	• 목적: 청년들에게 시정업무체험 기회 제공으로 행정기관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형성 및 소통행정 구현 • 대상: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의거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 사업내용: 일선 현장 위주의 다양한 행정업무 경험 기회 제공 • 사업비/부서: 346백만원/청년담당관
대학생 플래너즈 운영	• 목적: 관내 거주하는 대학생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를 유도하고 젊은 인재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시정에 접목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 • 대상: 관내 거주 대학생 • 사업내용: 대학생 시정 참여 활성화를 위한 활동 지원 • 사업비/부서: 8.6백만원/청년담당관

자료: 남양주시(2026). 내부자료 재구성

1 결과 요약

□ 청년 인구·고용구조 변화와 지역 정착 특성

- 남양주시 청년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27.5%를 차지하는 핵심 인구집단으로 나타났으나, 청년층 내부에서는 연령구조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20대와 30대 후반 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30대 초반 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며, 15~24세 청년층은 순유출, 30대 청년층은 순유입 경향을 보였음
- 또한 청년 고용시장은 신규 진입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으며, 혼인과 가족 형성 시기 역시 30대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남양주시 청년정책 추진 현황

- 남양주시는 일자리, 주거, 복지, 문화, 참여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및 경기도 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청년기본소득, 면접수당, 월세지원 등 경제적 부담 완화 정책과 함께 청년공간 운영, 정신건강 지원, 청년정책 참여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었음

□ 정책체계의 특징

- 남양주시 청년정책은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정책 참여를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나, 분야별 사업 간 연계성과 통합성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단기적 지원사업의 비중이 높아 청년의 성장과 자립을 지원하는 중장기 정책 확대의 필요성이 확인됨

2 시사점

□ 청년 유출 방지를 위한 정착지원 정책 강화 필요

- 분석 결과 남양주시는 청년인구 비중이 높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학업과 취업 단계의 청년

유출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30대 청년층은 주거와 생활환경을 이유로 유입되는 특성이 확인됨. 이는 청년의 지역 정착 여부가 일자리와 주거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을 의미함

□ 현금지원 중심에서 성장지원형 정책으로 전환 필요

- 남양주시의 현재 청년정책은 기본소득, 수당, 현금사업 등 단기적 부담 완화 정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이러한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으나 장기적인 자립 역량 형성에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취업역량 강화, 직무훈련, 창업지원, 경력개발, 금융교육, 자산형성 지원 등을 확대하여 청년이 스스로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함. 특히 청년의 생애주기에 맞춰 취업·주거·결혼·가족형성으로 이어지는 성장 경로를 지원하는 정책체계 구축 필요

□ 정신건강·고립청년 지원체계의 통합 운영 필요

- 청년마음건강센터, 정신건강증진사업,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등 다양한 정신건강 지원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나 사업별 대상과 지원방식이 분산되어 있어 이용자의 접근성이 낮을 수 있음. 또한 고립청년, 자립준비청년, 정신건강 취약청년은 상호 연관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통합 관리체계는 미흡한 상황임
- 따라서 발굴·상담·치료·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지원센터와 정신건강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위기청년의 조기 발견과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함

□ 청년문화 정책의 질적 고도화 필요

- 남양주시의 현재 문화정책은 청년공간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문화 향유와 커뮤니티 형성 기능에 집중되어 있음. 향후에는 단순 참여형 프로그램을 넘어 문화 창작활동 지원, 지역 문화콘텐츠 개발, 청년 예술인 지원, 문화산업 연계사업 등으로 정책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문화정책이 단순 여가 지원을 넘어 청년의 창의성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

□ 청년정책 통합플랫폼 구축 및 전달체계 개선 필요

- 현재 남양주시 청년정책은 분야별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정책 정보가 분산되어

있고 사업 간 연계성도 부족한 실정임. 이에 따라 청년들은 자신에게 적합한 정책을 찾기 어렵고 정책 체감도 또한 낮을 수 있음

- 따라서 청년정책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여 정책 검색, 신청, 상담, 사후관리 기능을 일원화하고, 청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맞춤형 정책 연계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정책 접근성을 높이고 정책 효과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

04

남양주시 청년 실태조사 및 심층면접조사

제1절 남양주시 청년 실태조사

1 남양주시 청년 실태조사 개요

□ 실태조사 대상 및 목적

○ 조사 목적

- 청년층이 처한 삶의 실태와 특성, 그들이 가진 욕구와 인식을 체계적이고 상세하게 파악
- 청년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
- 남양주시 청년정책 시행계획의 근거 자료 활용
- 청년층 삶의 변화 추이를 살펴볼 수 있는 시계열 자료 축적

○ 조사 대상

-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18~39세의 남녀 1,000명

○ 조사 방법 및 기간

- 조사 방법: 정량조사(온라인조사/현장조사 병행)
- 조사 기간: 2026.3.~2026.4.

○ 분석 대상

- 확보된 분석 대상은 총 1,000명이며, 5세 단위 표본 할당

○ 조사 항목

- 국무조정실의 2024년 청년 삶 실태조사, 2025년 서울청년패널조사 등 준거가 될 수 있는 기존 청년대상 조사의 설문문항을 검토 후 작성

표 4-1 남양주시 청년 실태조사 항목

구분	주요 내용
일반사항	• 가구 특성, 인적 사항(학력·가족 유형), 돌봄 책임 여부 등 개인과 가구의 기초적인 사회·경제적 배경
문화·여가	• 여가생활 중요도, 여가활동 참여 비중, 문화·여가활동 비용, 여가활동 어려움, 문화·여가활동 정책 우선순위
건강	• 신체·정신 건강(우울·번아웃) 상태와 건강 행태(음주·운동), 의료 이용 및 성건강(피임) 실태를 확인
결혼·출산	• 결혼 계획, 자녀 계획 여부 확인
경제	• 월 평균 소득, 생활비, 부채, 경제정책 수요
일자리	• 일자리: 취업 상태, 일자리 특성(임금·시간·계약형태), 구직 활동 내역, 직장 내 환경 및 부모의 경제활동
주거	• 부모 동거 및 독립 현황, 주거 점유 형태(자가/전월세)와 비용, 주거 환경의 질 및 정책 수요를 파악
참여·권리	• 참여 활동, 청년교류, 의견 대변 통로
교육·훈련	• 학력 및 전공 정보, 취업 준비 활동(사교육·자기계발비), 진로 결정 등 역량 개발 현황
생활여건	• 생활 부담, 삶 만족도
남양주시 정책평가	• 정책 인지 여부, 정책 만족도, 미래 전망 및 필요한 정책 지원

2

남양주시 청년 실태조사 결과

1) 응답자 기본사항

- ☐ 거주지역
- ☐ 거주지역 기준은 신도심, 구도심, 기타 지역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진행함

표 4-2 거주지역 구분

구분	주요 행정구역	인식경향
신도심	진건읍, 양정동, 다산1동, 다산2동, 별내동,	쾌적·발전 가능성에 집중. 신도시적 정체성과 미래지향성
구도심	와부읍, 진접읍, 화도읍, 오남읍, 퇴계원읍, 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기존 시가지로, 친근하고 안정적 이미지
기타	별내면, 수동면, 조안면	전통성이 특징. 자연 중심 지역 이미지

자료 : 이영안 외(2025)

- ☐ 전체적으로 남양주시 청년의 거주지는 다산1동(11.3%), 별내동(10.0%), 화도읍(10.4%), 진접읍(10.1%) 순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남

- (거주지역별) 구도심에서는 화도읍(17.7%), 진접읍(17.2%)이, 신도심에서는 별내동(30.1%), 다산1동(34.0%)이, 기타지역에서는 별내면(49.4%)에 거주 인구가 높게 나타남
- (연령별) 연령대별 거주지 분포는 유사한 패턴을 보이며, 다산1동의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거주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남(18~24세 9.4% → 35~39세 13.1%)
- (성별) 남녀 간 거주지 분포는 전반적으로 유사하나, 남성은 다산1동(10.9%), 금곡동(4.4%), 진건읍(4.4%) 비중이 여성보다 다소 높고, 여성은 다산1동(11.7%), 별내동(10.3%), 다산2동(6.5%) 비중이 남성보다 소폭 높게 나타남
- (혼인별) 미혼은 와부읍(8.2%), 오남읍(7.8%) 등 구도심 분산 거주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기혼은 다산1동(13.6%), 호평동(8.6%), 별내동(10.4%) 등 신도심 집중 거주 경향이 두드러짐

표 4-3 거주지역

(단위: %)

구분	구도심								신도심				기타			
	와부 읍	진접 읍	화도 읍	오남 읍	퇴계 원읍	호평 동	평내 동	금곡 동	진건 읍	양정 동	다산 1동	다산 2동	별내 동	별내 면	수동 면	조안 면
전체	7.7	10.1	10.4	7.3	5.3	7.4	6.4	4.1	4.3	1.4	11.3	6.2	10.0	4.0	2.5	1.6
거주 지역	신도심	-	-	-	-	-	-	-	13.0	4.2	34.0	18.7	30.1	-	-	-
	구도심	13.1	17.2	17.7	12.4	9.0	12.6	10.9	7.0	-	-	-	-	-	-	-
	기타	-	-	-	-	-	-	-	-	-	-	-	-	49.4	30.9	19.8
연령	18~24세	8.5	10.6	10.6	8.1	5.1	8.1	6.8	3.8	4.3	1.3	9.4	6.0	8.9	4.3	1.7
	25~29세	7.8	9.8	10.5	7.8	5.5	7.0	6.3	4.3	4.7	1.6	10.5	5.9	9.8	4.3	1.6
	30~34세	7.4	10.1	10.1	7.0	5.4	7.0	6.2	4.3	4.3	1.6	12.0	6.2	10.9	3.9	1.6
	35~39세	7.2	10.0	10.4	6.4	5.2	7.6	6.4	4.0	4.0	1.2	13.1	6.8	10.4	3.6	1.6
성별	남성	7.7	10.1	10.5	7.5	5.3	7.3	6.3	4.4	4.4	1.6	10.9	5.9	9.7	4.2	1.6
	여성	7.7	10.1	10.3	7.1	5.3	7.5	6.5	3.8	4.2	1.2	11.7	6.5	10.3	3.8	1.6
혼인	미혼	8.2	9.9	10.4	7.8	5.4	7.1	6.0	4.6	4.2	1.3	10.7	6.2	9.9	4.2	1.7
	기혼	5.9	10.9	10.4	5.4	5.0	8.6	7.7	2.3	4.5	1.8	13.6	6.3	10.4	3.2	1.4

□ 연령

- 전체적으로 남양주시 청년 응답자의 연령 분포는 30~34세(25.8%), 25~29세(25.6%), 35~39세(25.1%), 18~24세(23.5%) 순으로 전 연령대에 걸쳐 비교적 균등하게 분포함
- (거주지역별) 신도심은 30~34세(27.1%)와 35~39세(26.8%) 등 30대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구도심과 기타 지역은 18~24세(각 24.7%) 비중이 신도심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 신도심에 30대 청년 거주가 집중되는 경향이 확인됨
- (성별) 남녀 간 연령 분포는 전반적으로 유사하나, 남성은 18~24세(23.8%) 및 30~34세(25.9%) 비중이 여성보다 소폭 높고, 여성은 25~29세(25.7%), 30~34세(25.7%), 35~39세(25.5%) 등

20대 후반~30대 전반에 걸쳐 고르게 분포하는 경향을 보임

- (혼인별) 미혼은 25~29세(32.0%)와 18~24세(30.2%) 등 저연령층 비중이 높은 반면, 기혼은 35~39세(69.2%)와 30~34세(27.6%)에 집중되어 있어 혼인 여부에 따른 연령 분포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남

표 4-4 연령

(단위: %)

구분		만18~24세	만25~29세	만30~34세	만35~39세
전체		23.5	25.6	25.8	25.1
거주 지역	신도심	21.1	25.0	27.1	26.8
	구도심	24.7	25.7	25.2	24.4
	기타	24.7	27.2	24.7	23.5
성별	남성	23.8	25.5	25.9	24.8
	여성	23.2	25.7	25.7	25.5
혼인	미혼	30.2	32.0	25.3	12.6
	기혼	-	3.2	27.6	69.2

□ 최종학력

- 전체적으로 남양주시 청년 응답자의 최종학력은 대학교(4년제 이상) 졸업(39.4%)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전문대학 졸업(20.5%), 대학교(4년제 이상) 재학(18.7%)이 다음 순으로 나타남
- (거주지역별) 신도심은 대학교(4년제 이상) 졸업(43.4%) 및 대학원 졸업·수료(4.2%) 비중이 구도심·기타 지역보다 높아 상대적으로 고학력 청년의 거주 비중이 높은 편임. 구도심과 기타 지역은 전문대학 졸업(각 21.3%, 21.0%) 및 대학교 재학(각 21.3%, 21.0%) 비중이 신도심보다 높게 나타남
- (연령별) 18~24세는 대학교(4년제 이상) 재학(59.6%) 비중이 높아 재학 중인 청년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반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졸업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남. 대학교(4년제 이상) 졸업 비중이 각각 30~34세(49.6%), 35~39세(59.4%)로 높게 나타났으며, 전문대학 졸업 비중도 20대 중후반부터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성별) 여성은 대학교(4년제 이상) 졸업(45.3%) 및 전문대학 졸업(22.8%) 비중이 남성보다 높은 반면, 남성은 대학교 재학(22.4%) 및 고등학교 졸업(11.7%) 비중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남
- (혼인별) 기혼은 대학교(4년제 이상) 졸업(53.8%) 및 전문대학 졸업(25.3%) 비중이 미혼보다 높아 학업을 마친 청년 중심으로 혼인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확인됨. 미혼은 대학교 재학(23.5%) 비중이 기혼(1.8%)보다 월등히 높아 재학 중인 청년층의 미혼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음

표 4-5 최종학력

(단위: %)

구분		고교 중퇴 이하	고등 학교 졸업	전문대 재학 (휴학 포함)	전문대 중퇴	전문대 졸업	대학교 중퇴 (4년제 이상)	대학교 재학 (4년제 이상) (휴학 포함)	대학교 졸업 (4년제 이상)	대학원 재학 (휴학 포함)	대학원 중퇴	대학원 졸업/ 수료
전체		0.1	9.5	4.2	1.0	20.5	2.1	18.7	39.4	1.2	0.4	2.9
거주 지역	신도심	-	9.9	4.5	1.2	19.0	3.0	13.6	43.4	0.9	0.3	4.2
	구도심	0.2	9.2	4.1	1.0	21.3	1.9	21.3	37.0	1.4	0.5	2.2
	기타	-	9.9	3.7	-	21.0	-	21.0	40.7	1.2	-	2.5
연령	18~24세	-	12.3	12.3	1.7	6.8	0.9	59.6	5.1	0.4	-	0.9
	25~29세	0.4	9.0	2.7	0.4	25.8	1.6	14.8	41.0	2.0	0.4	2.0
	30~34세	-	10.1	1.6	1.6	25.2	1.9	2.7	49.6	1.6	0.4	5.4
	35~39세	-	6.8	0.8	0.4	23.1	4.0	0.8	59.4	0.8	0.8	3.2
성별	남성	0.2	11.7	5.5	0.8	18.2	3.0	22.4	33.7	1.6	0.8	2.2
	여성	-	7.3	2.8	1.2	22.8	1.2	14.9	45.3	0.8	-	3.6
혼인	미혼	0.1	9.4	5.0	1.2	19.1	2.2	23.5	35.3	1.3	0.5	2.4
	기혼	-	10.0	1.4	0.5	25.3	1.8	1.8	53.8	0.9	-	4.5

□ 직업

- 전체적으로 사무직이 29.7%로 가장 높으며, 학생(22.3%), 서비스업(11.7%), 취업준비 중 (6.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거주지역별) 신도심은 사무직(36.7%) 비중이 구도심(25.9%)·기타 지역(28.4%)보다 높은 반면, 구도심과 기타 지역은 학생(각 24.5%, 24.7%) 비중이 신도심(17.8%)보다 높게 나타남. 기타 지역은 취업준비 중(9.9%)·기능·현장업(7.4%)·가정주부(6.2%) 비중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 (연령별) 18~24세는 학생(73.2%) 비중이 가장 높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사무직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이 뚜렷함(25~29세 28.9% → 30~34세 40.7% → 35~39세 43.4%). 35~39세는 자영업 (10.0%)과 가정주부(12.0%) 비중도 타 연령대에 비해 높아 생애주기에 따른 직업 분포의 차이가 확인됨
- (성별) 여성은 사무직(37.0%)과 가정주부(8.5%) 비중이 남성보다 높은 반면, 남성은 기능·현장업 (8.7%)·자영업(6.7%)·학생(26.5%) 비중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남
- (혼인별) 기혼은 사무직(41.2%)·자영업(10.0%)·가정주부(19.0%) 비중이 미혼보다 높은 반면, 미혼은 학생(28.6%)·취업준비 중(8.3%)·무직(5.8%) 비중이 기혼보다 높게 나타나 혼인 여부에 따른 직업 분포의 차이가 뚜렷함

표 4-6 직업

(단위: %)

구분	사무직	학생	서비스 (점원, 세일즈 등)	취업 준비 중	전문/ 관리/ 경영직	기능/ 현장직	군인/ 교사/ 공무원	무직	자영업	가정 주부	기타	농업/ 임업/ 수산업	
거주 지역	전체	29.7	22.3	11.7	6.7	5.1	4.7	4.5	4.5	4.3	4.2	1.7	0.6
	신도심	36.7	17.8	10.5	5.4	5.1	4.8	3.9	4.8	4.8	4.5	1.5	-
	구도심	25.9	24.5	12.3	7.0	5.6	4.3	4.8	4.8	4.3	3.7	2.0	0.9
	기타	28.4	24.7	12.3	9.9	1.2	7.4	4.9	1.2	2.5	6.2	-	1.2
연령	18~24세	3.8	73.2	5.1	7.7	1.3	3.0	0.4	5.1	0.4	-	-	-
	25~29세	28.9	18.8	16.8	12.1	3.5	5.5	3.5	7.0	2.0	-	0.8	1.2
	30~34세	40.7	1.2	16.3	5.0	7.4	5.8	6.6	4.7	4.7	4.7	3.1	-
	35~39세	43.4	-	8.0	2.0	8.0	4.4	7.2	1.2	10.0	12.0	2.8	1.2
성별	남성	22.6	26.5	14.3	5.5	4.8	8.7	5.0	3.2	6.7	-	1.6	1.2
	여성	37.0	18.0	9.1	7.9	5.5	0.6	4.0	5.9	1.8	8.5	1.8	-
혼인	미혼	26.4	28.6	12.8	8.3	4.2	5.0	4.1	5.8	2.7	-	1.3	0.6
	기혼	41.2	-	7.7	0.9	8.1	3.6	5.9	-	10.0	19.0	3.2	0.5

□ 혼인

- 전체적으로 남양주시 청년 응답자의 혼인 상태는 미혼(76.8%)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기혼(자녀있음)(14.7%), 기혼(자녀없음)(7.4%), 이혼·별거·사별 등(1.1%) 순으로 나타남
- (거주지역별) 미혼 비중은 기타 지역(79.0%), 구도심(77.7%), 신도심(74.7%) 순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기혼(자녀없음+자녀있음) 비중은 신도심(24.4%)이 구도심(21.2%)·기타 지역(19.8%)보다 높아 신도심에 신혼부부 등 기혼자 청년이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됨
- (연령별) 미혼 비중은 18~24세(100.0%), 25~29세(96.9%), 30~34세(74.8%) 순으로 낮아지는 반면, 기혼(자녀있음) 비중은 35~39세에서 45.8%로 가장 높게 나타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혼인 및 출산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성별) 남성은 미혼 비중(81.0%)이 여성(72.5%)보다 높은 반면, 여성은 기혼(자녀있음)(17.4%) 및 이혼·별거·사별 등(2.0%) 비중이 남성(각 12.1%, 0.2%)보다 높게 나타남. 이는 여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이른 혼인 및 출산 경향과 함께 이혼·별거·사별 등 비율도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4-7 혼인

(단위: %)

구분		미혼	기혼(자녀없음)	기혼(자녀있음)	이혼, 별거, 사별 등
전체		76.8	7.4	14.7	1.1
거주 지역	신도심	74.7	9.3	15.1	0.9
	구도심	77.7	6.5	14.7	1.2
	기타	79.0	6.2	13.6	1.2
연령	18~24세	100.0	-	-	-
	25~29세	96.9	2.3	0.4	0.4
	30~34세	74.8	11.6	12.0	1.6
	35~39세	36.7	15.1	45.8	2.4
성별	남성	81.0	6.7	12.1	0.2
	여성	72.5	8.1	17.4	2.0

2) 일반 현황

□ 거주 기간

- 전체적으로 남양주시 청년 응답자의 거주 기간은 20년 이상~30년 미만(28.4%)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1년 이상~5년 미만(25.6%), 10년 이상~20년 미만(18.4%), 5년 이상~10년 미만(17.3%) 순으로 나타남
- (거주지역별) 신도심은 1년 이상~5년 미만(30.4%) 비중이 높아 최근 유입 인구가 많은 신개발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반면, 구도심과 기타지역은 20년 이상~30년 미만(각 33.0%, 30.9%) 등 장기 거주 비중이 높아 정착 인구 중심의 거주 패턴이 확인됨
- (연령별) 18~24세와 25~29세는 20년 이상~30년 미만(각 44.3%, 43.0%) 비중이 높아 출생 후 장기 거주한 청년이 다수인 반면, 30~34세(31.0%)와 35~39세(32.7%)는 1년 이상~5년 미만 비중이 높아 30대 청년의 이주·정착 경향이 두드러짐
- (성별) 남성과 여성 모두 20년 이상~30년 미만(남성 27.7%, 여성 29.1%) 비중이 가장 높고, 1년 이상~5년 미만(각 25.7%, 25.5%), 10년 이상~20년 미만(각 18.2%, 18.6%) 순으로 나타나 성별 간 거주 기간 분포는 전반적으로 유사한 양상을 보임
- (혼인별) 기혼은 1년 이상~5년 미만(38.5%) 비중이 높아 혼인을 계기로 남양주시로 이주한 청년이 많은 것으로 해석되며, 미혼은 20년 이상~30년 미만(34.3%) 비중이 높아 오랜 거주지에 머무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남

표 4-8 거주 기간

(단위: %)

구분		1년 미만	1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30년 미만	30년 이상
전체		2.4	25.6	17.3	18.4	28.4	7.9
거주 지역	신도심	2.7	30.4	23.5	18.1	19.6	5.7
	구도심	2.6	23.3	12.4	19.6	33.0	9.0
	기타	-	22.2	27.2	11.1	30.9	8.6
연령	18~24세	2.6	11.5	11.5	30.2	44.3	-
	25~29세	1.6	26.2	12.1	16.8	43.0	0.4
	30~34세	3.9	31.0	13.6	13.6	20.2	17.8
	35~39세	1.6	32.7	31.9	13.9	7.2	12.7
성별	남성	3.6	25.7	16.0	18.2	27.7	8.7
	여성	1.2	25.5	18.6	18.6	29.1	7.1
혼인	미혼	2.4	22.0	14.0	20.3	34.3	7.1
	기혼	2.3	38.5	29.0	11.8	7.7	10.9

□ 거주(이주) 이유

- 전체적으로 남양주시 청년 응답자의 거주(이주) 이유는 고향이라서(복귀·계속 거주)(37.2%)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주거비가 저렴해서(18.8%), 직장(17.5%), 통근·통학 등 교통이 편리해서(5.9%) 순으로 나타남
- (거주지역별) 구도심(43.1%)과 기타 지역(42.0%)은 고향이라서 비중이 높아 토착 거주 인구 중심의 정착 패턴이 나타나는 반면, 신도심은 고향이라서 비중(25.6%)이 상대적으로 낮고 주거비·직장·교통 등 다양한 이주 요인이 고르게 분포하여 외부 유입 인구 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됨
- (연령별) 18~24세(48.5%)와 25~29세(47.7%)는 고향이라서 비중이 높아 출생지에 계속 거주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 30대 이상은 직장 및 주거비 저렴 등 실질적 생활 요인에 의한 거주 비중이 높아지며, 특히 35~39세는 주거비가 저렴해서(27.9%)와 육아 때문에(7.6%) 비중이 두드러짐
- (성별) 남성은 고향이라서(39.6%) 및 직장(20.4%) 비중이 높은 반면, 여성은 주거비가 저렴해서(21.6%) 및 육아 때문에(3.4%) 비중이 남성보다 높아 결혼·출산 이후 주거 환경을 고려한 이주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됨
- (혼인별) 미혼은 고향이라서(42.6%) 비중이 높은 반면, 기혼은 주거비가 저렴해서(33.9%)와 육아 때문에(12.2%) 비중이 높아 혼인·출산 이후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육아 환경을 고려한 이주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남

표 4-9 거주(이주) 이유

(단위: %)

구분	직장 (발령, 이직, 취직)	주거비 가 저렴해 서	육아 때문에 (친정, 시댁)	고향이 라서 (복귀, 계속 거주)	정책 등 복지가 좋아서	학업 때문에	자연환 경이 좋아서	레저 등 삶의 균형을 위해	통근/통 학 등 교통이 편리해 서	기타
전체	17.5	18.8	2.8	37.2	1.2	3.5	4.8	0.6	5.9	7.7
거주 지역	신도심	16.9	18.4	3.9	25.6	2.1	3.9	6.6	0.6	8.4
	구도심	16.4	19.6	1.9	43.1	0.9	3.6	3.7	0.7	4.9
	기타	28.4	14.8	4.9	42.0	-	1.2	4.9	-	2.5
연령	18~24세	5.5	14.5	-	48.5	0.9	8.5	6.0	0.9	8.5
	25~29세	18.0	13.7	0.4	47.7	0.8	3.1	3.9	-	5.9
	30~34세	22.5	19.0	3.1	36.4	1.2	2.3	3.9	0.4	4.3
	35~39세	23.1	27.9	7.6	16.7	2.0	0.4	5.6	1.2	5.2
성별	남성	20.4	16.0	2.2	39.6	2.0	3.0	4.4	0.8	6.5
	여성	14.5	21.6	3.4	34.7	0.4	4.0	5.3	0.4	5.3
혼인	미혼	18.1	14.5	0.1	42.6	0.9	4.4	4.7	0.6	6.3
	기혼	15.4	33.9	12.2	18.1	2.3	0.5	5.0	0.5	4.5

□ 향후 지속거주 이유

- 전체적으로 남양주시 청년 응답자의 향후 지속거주 이유는 주거(부동산 가격 등)(27.1%)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일자리(20.9%), 인적교류(15.1%), 교통의 편의성(10.0%) 순으로 나타남
- (거주지역별) 신도심은 주거(24.1%) 비중이 가장 높고, 구도심은 주거(29.6%) 비중이 타 지역보다 높아 주거 안정이 지속거주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함. 기타 지역은 일자리(39.5%)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지역 내 취업 여건이 지속거주의 주된 요인으로 확인됨
- (연령별) 18~24세는 인적교류(27.7%) 비중이 가장 높아 사회적 관계망이 지속거주의 주된 요인으로 나타난 반면, 25~29세(26.6%)·30~34세(26.0%)·35~39세(33.1%)는 주거 비중이 연령대별로 가장 높게 나타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주거 안정을 지속거주의 핵심 요인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짐
- (성별) 남성은 일자리(28.3%) 비중이 가장 높은 반면, 여성은 주거(30.9%)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 남성은 취업 여건, 여성은 주거 안정을 지속거주의 주된 요인으로 인식하는 차이가 확인됨
- (혼인별) 미혼은 주거(25.9%) 비중이 가장 높은 반면, 기혼은 주거(31.2%)와 자녀 육아 및 교육환경(20.8%) 비중이 두드러져 가족 형성 이후 주거 안정과 육아 환경을 중심으로 지속거주를 결정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남

표 4-10 향후 지속 거주 이유

(단위: %)

구분	일자리	문화·여가	주거 (부동산 가격 등)	본인의 학업	인적 교류	혼인 등 가족 사항	자녀 육아 및 자녀 교육 환경	교통의 편의성	복지 등 지원 정책	기타
전체	20.9	3.2	27.1	2.4	15.1	9.2	5.2	10.0	2.8	4.1
거주 지역	신도심	16.6	6.9	24.1	3.0	12.7	8.7	8.1	9.0	6.3
	구도심	20.8	1.4	29.6	1.5	16.7	9.4	3.9	11.8	1.7
	기타	39.5	1.2	21.0	6.2	13.6	9.9	2.5	1.2	3.7
연령	18~24세	11.1	3.8	22.6	8.5	27.7	7.2	1.3	11.9	3.8
	25~29세	25.4	3.1	26.6	1.2	17.2	10.9	1.2	8.2	2.3
	30~34세	24.8	2.7	26.0	0.4	12.4	10.1	4.3	11.6	2.3
	35~39세	21.5	3.2	33.1	-	4.0	8.4	13.9	8.4	2.8
성별	남성	28.3	3.2	23.4	2.4	18.8	6.9	3.6	8.9	2.8
	여성	13.3	3.2	30.9	2.4	11.3	11.5	6.9	11.1	2.8
혼인	미혼	22.6	3.3	25.9	3.1	17.7	8.0	0.8	10.9	3.1
	기혼	14.9	2.7	31.2	-	5.9	13.6	20.8	6.8	1.8

□ 향후 이주 이유

- 전체적으로 남양주시 청년 응답자의 향후 이주 이유는 일자리(50.7%)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교통의 편의성(12.7%), 혼인 등 가족사항(10.3%), 자녀 육아 및 교육환경(8.6%), 주거(7.9%) 순으로 나타남

- (거주지역별) 모든 지역에서 일자리가 이주의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신도심과 구도심은 교통의 편의성(16.3%, 11.2%)이, 기타 지역 혼인 등 가족사항(13.6%)이 높게 나타남

- (연령별) 모든 연령대에서 일자리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8~24세와 25~29세는 교통의 편의성(13.6%, 14.8%), 30~34세 혼인 등 가족사항(12.8%), 35~39세 자녀 육아 및 교육환경(19.9%)으로 나타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가족·육아 관련 요인의 비중이 커지는 경향이 확인됨

- (성별) 남성과 여성 모두 일자리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남성 56.0%, 여성 45.3%), 2순위는 남성은 혼인 등 가족사항(10.9%), 여성은 교통 편의성(18.4%)으로 차이를 보임

- (혼인별) 미혼은 일자리(57.0%)에 이어 교통의 편의성(12.3%) 순으로 나타난 반면, 기혼은 일자리(28.5%) 다음으로 자녀 육아 및 교육환경(31.7%) 순으로 혼인 여부에 따른 이주 요인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남

표 4-11 향후 이주 이유

(단위: %)

구분	일자리	문화·여가	주거 (부동산 가격 등)	본인의 학업	인적 교류	혼인 등 가족 사항	자녀 육아 및 자녀 교육 환경	교통의 편의성	복지 등 지원 정책	기타
전체	50.7	2.4	7.9	2.1	1.8	10.3	8.6	12.7	2.2	1.3
거주 지역	신도심	44.6	1.8	10.8	2.1	1.2	11.1	6.0	16.3	3.6
	구도심	52.5	3.1	7.0	2.2	2.4	9.4	9.7	11.2	1.7
	기타	63.0	-	2.5	1.2	-	13.6	11.1	8.6	-
연령	18~24세	62.6	3.0	4.3	6.0	2.1	6.0	1.3	13.6	0.4
	25~29세	55.5	2.3	4.3	1.2	1.6	14.5	2.0	14.8	3.1
	30~34세	48.8	2.7	11.6	0.8	1.6	12.8	10.9	8.9	1.2
	35~39세	36.7	1.6	11.2	0.8	2.0	7.6	19.9	13.5	4.0
성별	남성	56.0	2.0	7.1	2.4	3.0	10.9	8.1	7.1	2.0
	여성	45.3	2.8	8.7	1.8	0.6	9.7	9.1	18.4	2.4
혼인	미혼	57.0	2.6	5.9	2.6	2.2	12.2	2.1	12.3	1.8
	기혼	28.5	1.8	14.9	0.5	0.5	3.6	31.7	14.0	3.6

3) 문화·여가

□ 여가생활 중요도

- 전체적으로 남양주시 청년 응답자의 여가생활 중요도는 '보통이다'(57.9%)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어느 정도 중요하다'(29.1%), '별로 중요하지 않다'(11.3%) 순으로 나타남
- (거주지역별) 기타 지역은 '매우 중요하다'(37.0%) 비중이 신도심(29.2%)·구도심(27.9%)보다 높은 반면, 신도심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7.5%) 비중이 가장 낮아 여가생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연령별) 전 연령대에서 '보통이다' 비중이 가장 높은 가운데, 30~34세는 '매우 중요하다'(32.2%) 비중이 타 연령대보다 높고, 25~29세(26.6%)는 가장 낮게 나타남
- (성별) 여성은 '매우 중요하다'(34.3%) 비중이 남성(24.0%)보다 높은 반면, 남성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16.2%) 비중이 여성(6.3%)보다 높아 여성이 남성보다 여가생활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확인됨
- (혼인별) 미혼은 '매우 중요하다'(30.4%) 비중이 기혼(24.4%)보다 높은 반면, 기혼은 '보통이다'(61.5%) 비중이 미혼(56.9%)보다 높아 기혼 청년이 육아·가사 부담으로 인해 여가생활 중요도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해석됨

표 4-12 여가생활 중요도

(단위: %)

구분		전혀중요하지 않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어느 정도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전체		-	1.7	11.3	57.9	29.1
거주 지역	신도심	-	1.2	7.5	62.0	29.2
	구도심	-	2.2	12.9	56.9	27.9
	기타	-	-	14.8	48.1	37.0
연령	18~24세	-	0.9	10.2	59.6	29.4
	25~29세	-	2.0	11.7	59.8	26.6
	30~34세	-	2.3	10.9	54.7	32.2
	35~39세	-	1.6	12.4	57.8	28.3
성별	남성	-	2.8	16.2	57.0	24.0
	여성	-	0.6	6.3	58.8	34.3
혼인	미혼	-	1.5	11.2	56.9	30.4
	기혼	-	2.3	11.8	61.5	24.4

□ 지난 1년간 참여한 여가활동

- 전체적으로 남양주시 청년 응답자가 지난 1년간 참여한 여가활동은 휴식 활동(93.5%)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취미·오락 활동(90.1%), 사회 및 기타 활동(68.7%), 관광 활동(59.9%), 문화예술 활동(58.4%), 스포츠 활동(38.8%) 순으로 나타남

- (거주지역별) 모든 지역에서 휴식 활동과 취미·오락 활동 비중이 높은 가운데, 신도심은 문화예술(65.1%)·관광 활동(63.6%) 비중이 타 지역보다 높은 반면, 기타 지역은 문화예술 활동(38.3%) 비중이 가장 낮아 문화예술 참여 기회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것으로 확인됨

- (연령별) 관광 활동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참여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난 반면(18~24세 50.6% → 35~39세 68.9%), 스포츠 활동은 35~39세(29.9%)에서 가장 낮아 연령 증가에 따른 참여 감소 경향이 확인됨

- (성별) 여성은 문화예술 활동(72.1%), 관광 활동(71.7%), 취미·오락 활동(92.3%) 비중이 남성보다 높은 반면, 남성은 스포츠 활동(47.3%) 비중이 여성(30.1%)보다 높아 여가활동 유형에 있어 성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남

- (혼인별) 기혼은 관광 활동(78.7%)·문화예술 활동(64.3%) 비중이 미혼보다 높아 가족 단위 여가활동 참여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되며, 미혼은 스포츠 활동(41.5%)·휴식 활동(93.8%) 비중이 기혼보다 높게 나타남

표 4-13 지난 1년간 참여한 여가활동

(단위: %, 중복응답)

구분		문화예술 활동	스포츠 활동	관광 활동	취미/오락 활동	휴식 활동	사회 및 기타 활동	기타
전체		58.4	38.8	59.9	90.1	93.5	68.7	0.1
거주 지역	신도심	65.1	40.1	63.6	92.5	94.9	72.9	-
	구도심	57.4	38.3	58.9	88.4	92.2	65.2	0.2
	기타	38.3	37.0	51.9	92.6	97.5	76.5	-
연령	18~24세	53.6	40.9	50.6	91.5	91.5	70.6	-
	25~29세	58.6	43.8	55.9	89.8	96.1	71.9	-
	30~34세	62.4	40.7	63.6	89.9	93.8	69.8	-
	35~39세	58.6	29.9	68.9	89.2	92.4	62.5	0.4
성별	남성	45.0	47.3	48.3	87.9	92.5	67.3	-
	여성	72.1	30.1	71.7	92.3	94.5	70.1	0.2
혼인	미혼	56.7	41.5	54.6	89.9	93.8	69.6	0.1
	기혼	64.3	29.4	78.7	91.0	92.3	65.6	-

주 : 문화예술활동(전시회, 박물관, 연주회, 공연, 연극, 무용, 영화 등 관람 및 참여), 스포츠활동(스포츠 경기(축구·야구·농구·배구 등) 관람 및 직접 참여), 관광활동(문화유적 방문, 야외 소풍, 캠핑, 놀이공원, 동물원, 지역축제, 해외여행 등), 취미/오락 활동(인터넷 검색, 게임, 독서, 원예, 쇼핑, 요리, 반려동물 돌봄, 등산, 낚시, 학원, 노래방 등), 휴식활동(산책, 낮잠, 사우나, TV·유투브 시청, 아무것도 안 하기 등), 사회 및 기타 활동(사회봉사, 종교활동, 사교모임, 친구 만남, 동호회 모임 등)

□ 문화·여가 활동별 비중

- 전체적으로 남양주시 청년 응답자의 문화·여가 활동별 비중은 휴식 활동(33.8%)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취미·오락 활동(27.7%), 관광 활동(19.1%), 사회 및 기타 활동(19.4%), 스포츠 활동(20.9%), 문화예술 활동(18.1%) 순으로 나타남
- (거주지역별) 모든 지역에서 휴식 활동 비중이 가장 높고 취미·오락 활동이 두 번째로 높은 공통된 경향이 나타남. 구도심은 스포츠 활동(21.5%), 관광 활동(19.8%)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활동적·외향적 여가 참여 경향이 확인되며, 기타 지역은 사회 및 기타 활동(22.2%) 비중이 높아 공동체 중심의 여가 참여 경향이 나타남
- (연령별) 모든 연령대에서 휴식 활동 비중이 가장 높고 취미·오락 활동이 두 번째로 높은 공통된 경향이 나타남. 다만 18~24세는 스포츠 활동(25.1%) 비중이 타 연령대보다 높아 활동적 여가 참여 경향이 두드러지는 반면, 35~39세는 관광 활동(22.3%) 비중이 가장 높아 연령이 높아질수록 외향적·체험형 여가로 전환되는 경향이 확인됨
- (성별) 남성과 여성 모두 휴식·취미오락 활동 순으로 높은 공통된 경향이 나타났으며, 남성은 스포츠·사교적 여가, 여성은 관광 활동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여가유형의 성별 차이가 확인됨
- (혼인별) 미혼과 기혼 모두 휴식·취미오락 활동 순으로 높으나, 기혼은 관광 활동(22.1%) 비중이 미혼(17.8%)보다 높게 나타나 가족 단위 여가활동 참여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됨

표 4-14 문화·여가 활동별 비중

(단위: %)

구분		문화예술 활동	스포츠 활동	관광 활동	취미/오락 활동	휴식 활동	사회 및 기타 활동	기타
전체		18.1	20.9	19.1	27.7	33.8	19.4	10.0
거주 지역	신도심	17.0	20.3	17.6	27.4	32.5	18.4	-
	구도심	18.8	21.5	19.8	27.8	34.7	19.5	10.0
	기타	18.7	18.9	20.0	28.9	32.5	22.2	-
연령	18~24세	18.7	25.1	16.1	30.6	31.9	20.4	-
	25~29세	16.9	18.5	17.9	27.5	34.3	20.1	-
	30~34세	18.4	20.6	18.8	27.7	33.2	17.4	-
	35~39세	18.6	19.6	22.3	25.3	35.5	19.8	10.0
성별	남성	18.4	23.2	18.7	29.6	33.5	21.9	-
	여성	18.0	17.2	19.3	25.9	34.0	16.9	10.0
혼인	미혼	17.9	21.5	17.8	28.7	34.0	19.5	10.0
	기혼	19.0	18.1	22.1	24.5	33.0	18.9	-

□ 문화·여가 활동 한달 평균 지출 비용

- 전체적으로 남양주시 청년 응답자의 문화·여가 활동 한달 평균 지출 비용은 10만 원 이상~20만 원 미만(35.3%)이 가장 높았으며, 20만 원 이상~30만 원 미만(27.5%), 10만 원 미만(21.2%), 30만 원 이상~50만 원 미만(13.2%), 50만 원 이상(2.8%) 순으로 나타남
- (거주지역별) 모든 지역에서 10만 원 이상~20만 원 미만 비중이 가장 높은 공통된 경향이 나타남. 신도심은 50만 원 이상(4.2%) 비중이 높아 고액 지출 경향이 확인되는 반면, 기타 지역은 해당 구간(40.7%)과 30만 원 이상~50만 원 미만(19.8%) 비중이 모두 높아 지출 양극화 경향이 나타남
- (연령별) 모든 연령대에서 10만 원 이상~20만 원 미만 비중이 가장 높은 가운데, 18~24세는 해당 구간(42.6%) 비중이 가장 높아 저비용 여가 지출 경향이 두드러지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30만 원 이상~50만 원 미만 비중이 증가하여 여가 지출 규모 확대 경향이 확인됨
- (성별) 남성은 20만 원 이상~30만 원 미만(32.9%) 비중이 여성(22.0%)보다 높은 반면, 여성은 10만 원 미만(27.9%)과 50만 원 이상(3.2%) 비중이 남성보다 높아 저비용·고비용 구간에서의 양극화 경향이 확인됨
- (혼인별) 기혼은 30만 원 이상~50만 원 미만(16.3%) 비중이 미혼(12.3%)보다 높아 가족 단위 여가활동에 따른 지출 증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되며, 미혼은 10만 원 미만(22.3%) 비중이 기혼(17.2%)보다 높아 저비용 여가 지출 경향이 확인됨

표 4-15 문화·여가 활동 한달 평균 지출 비용

(단위: %)

구분		10만 원 미만	10만 원 이상~ 0만 원 미만	20만 원 이상~ 30만 원 미만	30만 원 이상~ 50만 원 미만	50만 원 이상
전체		21.2	35.3	27.5	13.2	2.8
거주 지역	신도심	21.4	35.5	28.9	9.9	4.2
	구도심	21.6	34.4	27.8	14.1	2.0
	기타	17.3	40.7	19.8	19.8	2.5
연령	18~24세	22.6	42.6	23.0	8.9	3.0
	25~29세	20.3	35.5	29.7	12.1	2.3
	30~34세	21.7	32.6	27.9	14.7	3.1
	35~39세	20.3	31.1	29.1	16.7	2.8
성별	남성	14.7	36.6	32.9	13.5	2.4
	여성	27.9	33.9	22.0	12.9	3.2
혼인	미혼	22.3	34.9	27.5	12.3	3.0
	기혼	17.2	36.7	27.6	16.3	2.3

□ 문화·여가 활동 시 어려운 점

- 전체적으로 어려움 없음(17.8%)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교통 불편(17.4%), 원하는 공간 및 시설 부족(14.7%), 비용 부담(11.3%) 순으로 나타났으며, 교통 불편과 공간·시설 부족 등 인프라 관련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거주지역별) 신도심과 구도심은 교통 불편(각 17.5%, 18.4%) 비중이 높은 반면, 기타 지역은 어려움 없음(35.8%) 비중이 타 지역보다 월등히 높으나 시간 부족(12.3%)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신도심은 프로그램·콘텐츠 부족(14.2%), 구도심은 원하는 공간 및 시설 부족(15.5%)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지역별 여가 수요의 차이가 확인됨
- (연령별) 18~24세와 25~29세는 교통 불편(각 19.6%, 19.9%)과 비용 부담(각 16.6%, 14.8%) 비중이 높아 저연령층의 이동·경제적 제약이 주된 장애 요인으로 나타남. 30~34세는 프로그램·콘텐츠 부족(17.4%), 35~39세는 원하는 공간 및 시설 부족(19.1%) 비중이 높은 가운데 어려움 없음(20.3%) 비중도 가장 높아 연령별 여가 제약 요인의 차이가 확인됨
- (성별) 여성은 교통 불편(23.6%)·원하는 공간 및 시설 부족(17.8%) 비중이 남성보다 높은 반면, 남성은 비용 부담(15.0%)·시간 부족(12.1%) 비중이 높고 어려움 없음(21.6%) 비중도 여성(13.9%)보다 높게 나타남
- (혼인별) 기혼은 원하는 공간 및 시설 부족(20.8%)·프로그램·콘텐츠 부족(15.4%) 비중이 미혼보다 높으며, 이는 가족 단위 여가활동을 위한 시설·콘텐츠 수요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됨. 반면 미혼은 교통 불편(17.7%)·비용 부담(12.5%) 비중이 높아 이동·경제적 제약이 주된 장애 요인으로 나타남

표 4-16 문화·여가 활동 시 어려운 점

(단위: %)

구분		프로그램/콘텐츠 부족	시간대가 맞지 않음	교통 불편	정보 부족	시간 부족	비용 부담	같이 할 사람이 없음	피곤/무관심	원하는 공간 및 시설 부족	기타	어려움 없음
전체		11.8	4.9	17.4	3.6	9.3	11.3	4.7	4.2	14.7	0.3	17.8
거주 지역	신도심	14.2	4.2	17.5	4.5	9.6	11.7	5.7	3.9	13.9	0.6	14.2
	구도심	10.7	5.8	18.4	2.9	8.7	11.8	4.1	4.6	15.5	0.2	17.4
	기타	9.9	1.2	9.9	4.9	12.3	6.2	4.9	2.5	12.3	-	35.8
연령	18~24세	9.4	3.0	19.6	1.7	8.1	16.6	2.6	4.7	14.5	-	20.0
	25~29세	8.6	7.4	19.9	3.5	9.8	14.8	6.3	2.7	10.2	-	16.8
	30~34세	17.4	4.7	15.9	5.8	7.4	8.1	4.7	6.2	15.1	0.4	14.3
	35~39세	11.6	4.4	14.3	3.2	12.0	6.0	5.2	3.2	19.1	0.8	20.3
성별	남성	11.3	4.6	11.3	3.0	12.1	15.0	5.3	4.2	11.7	-	21.6
	여성	12.3	5.3	23.6	4.2	6.5	7.5	4.0	4.2	17.8	0.6	13.9
혼인	미혼	10.8	5.0	17.7	3.5	8.7	12.5	5.4	4.7	13.0	0.1	18.6
	기혼	15.4	4.5	16.3	4.1	11.3	7.2	2.3	2.3	20.8	0.9	14.9

□ 문화·여가 활동 활성화 정책

- 전체적으로 교통 접근성 확보(25.2%)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청년의 문화·여가 활동비 지원(22.4%), 다양한 문화예술·취미생활 콘텐츠 보급(20.4%), 생활문화센터 등 활동 공간 및 단체 조성(13.2%), 전용 공연장 등 문화시설 확충(11.5%) 순으로 나타남
- (거주지역별) 신도심은 활동비 지원(25.3%), 콘텐츠 보급(22.3%) 비중이 높은 반면, 구도심은 교통 접근성 확보(29.5%)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기타 지역은 교통 접근성 확보(25.9%)가 높으나 활동공간 및 단체 조성(18.5%) 비중도 타 지역보다 높아 생활권 내 여가 인프라 수요가 확인됨
- (연령별) 18~24세는 활동비 지원(31.9%) 비중이 가장 높아 경제적 지원 수요가 두드러지며, 25~29세 이상은 교통 접근성 확보가 공통적으로 높은 가운데 30~34세는 콘텐츠 보급(20.5%), 35~39세는 활동공간 및 단체 조성(20.3%) 비중이 높아 연령별 정책 수요의 차이가 확인됨
- (성별) 남성과 여성 모두 교통 접근성 확보 비중이 가장 높은 공통된 경향이 나타난 가운데, 남성은 청년의 문화·여가 활동비 지원(22.4%), 여성은 다양한 문화예술·취미생활 콘텐츠 보급(22.8%) 비중이 높게 나타나 정책 수요의 성별 차이가 확인됨
- (혼인별) 미혼은 활동비 지원(25.0%), 교통 접근성 확보(24.1%) 비중이 높은 반면, 기혼은 교통 접근성 확보(29.0%)와 함께 활동공간 및 단체 조성(16.7%) 비중이 높아 가족 단위 여가를 위한 생활권 내 인프라 수요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됨

표 4-17 문화·여가 활동 활성화 정책

(단위: %)

구분		전용 공연장 등 문화시설의 확충	다양한 문화예술/취미생활 콘텐츠 보급	마을 축제 등 생활권 중심 활동 지원	생활문화 센터 등 활동공간 및 단체 조성	청년의 문화·여가 활동비 지원	교통 접근성 확보	기타
전체		11.5	20.4	6.6	13.2	22.4	25.2	0.7
거주 지역	신도심	14.5	22.3	7.2	12.3	25.3	17.5	0.9
	구도심	10.1	19.9	6.1	12.9	20.8	29.5	0.7
	기타	9.9	16.0	7.4	18.5	22.2	25.9	-
연령	18~24세	11.9	18.7	3.8	8.9	31.9	24.7	-
	25~29세	11.7	21.9	4.3	12.1	21.9	27.0	1.2
	30~34세	11.6	20.5	9.3	12.8	20.2	24.0	1.6
	35~39세	10.8	20.3	8.8	18.7	16.3	25.1	-
성별	남성	13.1	18.0	6.9	13.7	22.4	25.7	0.2
	여성	9.9	22.8	6.3	12.7	22.4	24.6	1.2
혼인	미혼	11.6	20.8	5.8	12.2	25.0	24.1	0.5
	기혼	11.3	19.0	9.5	16.7	13.1	29.0	1.4

4) 건강

□ 건강상태 진단

- 전체적으로 '건강하다'(43.6%)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매우 건강하다'(31.2%), '보통이다'(20.4%) 순으로 나타나 청년의 건강상태 자가진단 수준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확인됨
- (거주지역별) 기타 지역은 '매우 건강하다'(55.6%) 비중이 신도심(22.3%)·구도심(32.9%)보다 월등히 높아 건강상태 자가진단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연령별) 18~24세(36.6%)와 25~29세(35.5%)는 '매우 건강하다' 비중이 높은 반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해당 비중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남. 30~34세는 '건강하지 않다'(6.2%), '보통이다' 22.9% 비중이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아 30대 초반 청년의 건강상태 자가진단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됨
- (성별) 남성은 '매우 건강하다'(38.4%) 비중이 여성(23.8%)보다 높은 반면, 여성은 '보통이다' 24.6%)·'건강하지 않다'(6.7%) 비중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나 건강상태 자가진단 수준의 성별 차이가 확인됨
- (혼인별) 기혼은 '건강하다'(46.2%) 비중이 미혼(42.9%)보다 높은 반면, 미혼은 '매우 건강하다' 32.0% 비중이 기혼(28.5%)보다 소폭 높게 나타남. 전반적으로 혼인 여부에 따른 건강상태 자가진단의 차이는 크지 않으나, 기혼은 '건강하다' 응답에 집중되는 경향이 확인됨

표 4-18 건강상태 진단

(단위: %)

구분		전혀 건강하지 않다	건강하지 않다	보통이다	건강하다	매우 건강하다
전체		0.6	4.2	20.4	43.6	31.2
거주 지역	신도심	0.6	4.2	21.1	51.8	22.3
	구도심	0.7	4.6	21.5	40.4	32.9
	기타	-	1.2	9.9	33.3	55.6
연령	18~24세	0.4	2.6	17.9	42.6	36.6
	25~29세	0.4	4.3	16.4	43.4	35.5
	30~34세	0.8	6.2	22.9	45.3	24.8
	35~39세	0.8	3.6	24.3	43.0	28.3
성별	남성	0.2	1.8	16.2	43.4	38.4
	여성	1.0	6.7	24.6	43.8	23.8
혼인	미혼	0.6	4.4	20.2	42.9	32.0
	기혼	0.5	3.6	21.3	46.2	28.5

□ 건강상태 진단 이유

- 전체적으로 신체활동 저하 및 만성피로(25.0%)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미래 및 진로에 대한 심리적 압박(16.7%), 불규칙한 생활습관(16.7%), 정신적 문제(14.6%), 대인관계 및 사회적 고립감(12.5%) 순으로 나타남
- (거주지역별) 신도심은 심리적 압박(18.8%)·신체적 불편(25.0%) 비중이 높은 반면, 구도심은 불규칙한 생활습관(22.6%), 정신적 문제(16.1%)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연령별) 18~24세는 정신적 문제(42.9%) 비중이 가장 높아 저연령층의 심리·정신적 건강 취약성이 두드러지며, 25~29세는 심리적 압박(33.3%) 비중이 높아 취업·경제적 불안정에 따른 부담이 주된 요인으로 나타남. 35~39세는 신체활동 저하 및 만성피로(45.5%) 비중이 가장 높아 연령 증가에 따른 신체적 건강 저하 경향이 확인됨
- (성별) 남성은 신체적 불편(40.0%) 비중이 여성(2.6%)보다 월등히 높은 반면, 여성은 만성피로(28.9%)·심리적 압박(18.4%)·정신적 문제(15.8%)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건강 저하 요인의 성별 차이가 확인됨
- (혼인별) 기혼은 신체활동 저하 및 만성피로(55.6%) 비중이 미혼(17.9%)보다 월등히 높은 반면, 미혼은 심리적 압박(17.9%)·대인관계 고립감(15.4%)·정신적 문제(15.4%) 등 심리·정신적 요인 비중이 높게 나타남

표 4-19 건강상태 진단 이유

(단위: %)

구분		미래 및 진로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 (취업준비, 경제적 불안정 등)	대인 관계 및 사회적 고립감(타인 과의 비교 (SNS 등), 고립감, 인간관계의 피로도)	불규칙한 생활습관 (게임, 야근 등 수면부족)	신체활동 저하 및 만성피로 (운동 부족, 장시간 좌식생활로 인한 체력저하)	신체적 불편 (장애, 사고로 인한 부상 등)	정신적 문제 (공황 등의 치료가 필요한 상황)	기타
전체		16.7	12.5	16.7	25.0	10.4	14.6	4.2
거주 지역	신도심	18.8	12.5	-	25.0	25.0	12.5	6.3
	구도심	16.1	12.9	22.6	25.8	3.2	16.1	3.2
	기타	-	-	100.0	-	-	-	-
연령	18~24세	14.3	14.3	14.3	14.3	-	42.9	-
	25~29세	33.3	16.7	16.7	8.3	25.0	-	-
	30~34세	5.6	11.1	22.2	27.8	5.6	22.2	5.6
	35~39세	18.2	9.1	9.1	45.5	9.1	-	9.1
성별	남성	10.0	10.0	20.0	10.0	40.0	10.0	-
	여성	18.4	13.2	15.8	28.9	2.6	15.8	5.3
혼인	미혼	17.9	15.4	17.9	17.9	10.3	15.4	5.1
	기혼	11.1	-	11.1	55.6	11.1	11.1	-

□ 건강관리 방법

- 전체적으로 적절한 휴식 또는 취미활동(34.3%)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운동 및 식단 관리(28.0%), 별도로 관리하지 않음(25.6%), 사회적 교류(6.4%), 의료기관 이용(5.5%) 순으로 나타남
- (거주지역별) 신도심은 적절한 휴식 또는 취미활동(40.4%) 비중이 타 지역보다 높은 반면, 구도심과 기타 지역은 별도로 관리하지 않음(각 29.5%, 29.6%) 비중이 높게 나타남. 기타 지역은 운동 및 식단 관리(37.0%) 비중도 타 지역보다 높아 능동적 건강관리와 미관리가 혼재하는 경향이 확인됨
- (연령별) 18~24세(29.8%)와 25~29세(29.3%)는 별도로 관리하지 않음 비중이 높아 저연령층의 건강 관리 실천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30~34세는 적절한 휴식 또는 취미활동(39.9%), 의료기관 이용(7.8%) 비중이 가장 높고, 35~39세는 운동 및 식단 관리(31.1%)·사회적 교류(7.6%)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성별) 여성은 적절한 휴식 또는 취미활동(42.2%)·의료기관 이용(7.1%) 비중이 높은 반면, 남성은 운동 및 식단 관리(30.3%)와 별도로 관리하지 않음(31.9%) 비중이 여성(19.2%)보다 높게 나타나 남성 청년의 건강 관리 실천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됨
- (혼인별) 기혼은 사회적 교류(10.0%) 비중이 미혼(5.4%)보다 높아 관계 중심의 건강 관리 경향이 확인되며, 미혼은 별도로 관리하지 않음(26.2%) 비중이 기혼(23.5%)보다 소폭 높게 나타남

표 4-20 건강관리 방법

(단위: %)

구분		운동 및 식단 관리	사회적 교류 (친목 등)	의료기관 (건강검진, 상담)	적절한 휴식 또는 취미활동	기타	별도로 관리하지 않음
전체		28.0	6.4	5.5	34.3	0.2	25.6
거주 지역	신도심	29.5	6.3	6.0	40.4	-	17.8
	구도심	25.9	6.3	6.0	32.0	0.3	29.5
	기타	37.0	7.4	-	25.9	-	29.6
연령	18~24세	23.8	5.5	4.7	36.2	-	29.8
	25~29세	32.4	7.0	3.9	27.3	-	29.3
	30~34세	24.4	5.4	7.8	39.9	-	22.5
	35~39세	31.1	7.6	5.6	33.9	0.8	21.1
성별	남성	30.3	7.1	4.0	26.5	0.2	31.9
	여성	25.7	5.7	7.1	42.2	0.2	19.2
혼인	미혼	28.2	5.4	5.5	34.5	0.1	26.2
	기혼	27.1	10.0	5.4	33.5	0.5	23.5

□ 규칙적인 운동 하지 않는 이유

- 전체적으로 운동할 시간을 내기가 어려워(38.8%)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19.4%), 비용이 부담돼서(17.1%), 나에게 맞는 운동 프로그램이 없어서(9.2%), 장소(체육시설 등)가 없어서(7.8%) 순으로 나타남. 시간 부족과 필요성 인식 부재가 운동 미실천의 주된 요인으로 확인됨
- (거주지역별) 신도심과 구도심은 운동할 시간 부족(각 38.9%, 40.0%) 비중이 가장 높은 가운데, 신도심은 비용 부담(19.7%), 구도심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21.1%)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기타 지역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31.4%) 비중이 타 지역보다 월등히 높아 운동 동기 부족이 주된 저해 요인으로 확인됨
- (연령별) 35~39세는 시간 부족(48.0%) 비중이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아 연령 증가에 따른 시간적 제약이 두드러지며, 18~24세와 25~29세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각 25.7%, 27.2%)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저연령층의 운동 동기 부족이 주된 저해 요인으로 나타남
- (성별) 남성은 시간 부족(40.1%)·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28.1%) 비중이 여성보다 높은 반면, 여성은 비용 부담(20.4%) 비중이 남성(13.6%)보다 높게 나타나 운동 저해 요인의 성별 차이가 확인됨
- (혼인별) 기혼은 시간 부족(50.3%) 비중이 미혼(35.4%)보다 월등히 높아 육아·가사 등에 따른 시간적 제약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미혼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21.6%)·비용 부담(18.6%) 비중이 기혼보다 높게 나타남

표 4-21 규칙적인 운동 하지 않는 이유

(단위: %)

구분		운동할 시간을 내기가 어려워서	장소 (체육시설 등)가 없어서	비용이 부담돼서	나에게 맞는 운동 프로그램이 없어서	건강이 좋지 않아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기타
전체		38.8	7.8	17.1	9.2	2.6	19.4	5.1
거주 지역	신도심	38.9	6.0	19.7	12.0	3.8	13.7	6.0
	구도심	40.0	8.3	15.6	7.6	2.1	21.1	5.3
	기타	27.5	11.8	17.6	9.8	2.0	31.4	-
연령	18~24세	30.7	8.4	19.0	8.9	3.4	25.7	3.9
	25~29세	37.6	3.5	17.3	10.4	0.6	27.2	3.5
	30~34세	39.0	9.7	17.9	9.2	3.6	13.8	6.7
	35~39세	48.0	9.2	13.9	8.1	2.9	11.6	6.4
성별	남성	40.1	6.0	13.6	8.5	1.4	28.1	2.3
	여성	37.5	9.5	20.4	9.8	3.8	11.1	7.9
혼인	미혼	35.4	7.0	18.6	8.8	3.0	21.6	5.5
	기혼	50.3	10.6	11.8	10.6	1.2	11.8	3.7

□ 사회적 고립 자가진단

- 전체 응답자의 10.6%가 스스로를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다고 진단하였으며, 89.4%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함
- (거주지역별) 기타 지역(11.1%)이 신도심(10.5%), 구도심(10.6%)에 비해 소폭 높게 나타나며 지역 간 차이는 크지 않음
- (연령별) 30~34세(12.0%), 35~39세(11.2%) 등 3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18~24세 (9.4%), 25~29세(9.8%) 등 20대 이하에서는 낮게 나타남
- (성별) 여성(13.3%)이 남성(7.9%)에 비해 약 1.7배 높게 나타나 뚜렷한 성별 차이가 확인됨
- (혼인별) 기혼(10.9%)과 미혼(10.5%) 간 차이는 미미함

□ 현재 삶의 변화

- 전체적으로 스스로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떨어진다는(34.9%)가 가장 높으며, 취업 후 업무 수행 자신감 부족(20.8%), 특별히 변화 없음(13.2%), 자주 화가 나고 불안함(13.2%) 순으로 나타나 자신감 저하가 핵심 문제로 부각됨
- (거주지역별) 신도심은 특별한 변화 없음(22.9%)이 높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반면, 구도심은 자신감 저하(40.3%), 기타 지역은 불안감(22.2%)이 두드러짐
- (연령별) 18~24세는 불안감(22.7%)이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으며, 25~29세는 업무 수행 자신감 부족(32.0%)이 집중적으로 나타남. 35~39세는 자신감 저하(39.3%)가 가장 높음

- (성별) 남성은 불안감(22.5%)과 자신감 저하(32.5%)가 두드러지며, 여성은 자신감 저하(36.4%)가 남성보다 높게 나타남
- (혼인별) 미혼은 자신감 저하(36.6%)가 높은 반면, 기혼은 업무 수행 자신감 부족(29.2%)이 미혼(18.3%)보다 높게 나타남

표 4-22 사회적 고립 자가진단 및 현재 삶의 변화

(단위: %)

구분		자가진단		현재 삶의 변화						
		예	아오	친구나 이웃 등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힘들다	취업 후 업무를 잘 수행할 자신이 없다	스스로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떨어진다	자꾸 화가 나고 불안한 마음이 든다	사소한 일로 가족과 다툼은 경우가 많아졌다	특별히 변화된 삶의 변화는 없다	기타
전체		10.6	89.4	20.8	7.5	34.9	13.2	6.6	13.2	3.8
거주 지역	신도심	10.5	89.5	25.7	2.9	25.7	14.3	5.7	22.9	2.9
	구도심	10.6	89.4	19.4	11.3	40.3	11.3	8.1	6.5	3.2
	기타	11.1	88.9	11.1	-	33.3	22.2	-	22.2	11.1
연령	18~24세	9.4	90.6	13.6	9.1	40.9	22.7	4.5	9.1	-
	25~29세	9.8	90.2	32.0	8.0	32.0	12.0	4.0	12.0	-
	30~34세	12.0	88.0	16.1	9.7	29.0	12.9	12.9	9.7	9.7
	35~39세	11.2	88.8	21.4	3.6	39.3	7.1	3.6	21.4	3.6
성별	남성	7.9	92.1	25.0	2.5	32.5	22.5	7.5	10.0	-
	여성	13.3	86.7	18.2	10.6	36.4	7.6	6.1	15.2	6.1
혼인	미혼	10.5	89.5	18.3	7.3	36.6	13.4	7.3	13.4	3.7
	기혼	10.9	89.1	29.2	8.3	29.2	12.5	4.2	12.5	4.2

□ 외출 빈도

- 전체적으로 직장·학교로 매일 외출(35.8%)이 가장 높으며, 집 근처 편의점·마트 등 외출(20.8%), 3~4일 외출(13.2%) 순으로 나타남. 직장·학교 외출을 제외하면 집 근처 단순 외출에 그치는 비중이 높아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외출은 제한적임
- (거주지역별) 신도심은 매일 외출(37.1%) 및 3~4일 외출(17.1%) 비중이 높은 반면, 구도심은 집 근처 외출(22.6%), 기타 지역은 사람을 만나기 위한 외출(22.2%)과 집 근처 외출(22.2%)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연령별) 18~24세는 매일 외출(54.5%) 비중이 가장 높은 반면, 35~39세는 집 근처 외출(50.0%)이 압도적으로 높아 연령 증가에 따라 외출 범위가 제한되는 경향이 뚜렷함
- (성별) 남성은 매일 외출(42.5%) 및 3~4일 외출(22.5%) 비중이 높은 반면, 여성은 집 근처 외출(24.2%) 및 혼자 시간을 보냄(9.1%) 비중이 높아 외출 범위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임
- (혼인별) 기혼은 집 근처 외출(37.5%) 비중이 미혼(15.9%)보다 월등히 높아 육아·가사에 따른 외출 제약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되며, 미혼은 매일 외출(36.6%) 및 3~4일 외출(15.9%)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4-23 외출 빈도

(단위: %)

구분	직장이 나 학교로 평일은 매일 외출한 다	직장이 나 학교로 일주일에 3-4일 외출한 다	여가생 활을 위해 자주 외출한 다	사람을 만나기 위해 가끔 외출한 다	보통은 집에 있지만, 자신의 취미생 활을 위해 외출한 다	대부분 집에 있지만, 집 근처 편의점/ 마트 등에 외출한 다	때때로 집 밖으로 나가지 만,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고 혼자 시간을 보낸다	자기 방에서 나오지 만, 밖 으로 는 나가지 않는다	자기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다	기타
전체	35.8	13.2	5.7	8.5	3.8	20.8	6.6	1.9	0.9	2.8
거주 지역	신도심	37.1	17.1	8.6	5.7	2.9	17.1	5.7	-	5.7
	구도심	35.5	12.9	4.8	8.1	3.2	22.6	6.5	3.2	1.6
	기타	33.3	-	-	22.2	11.1	22.2	11.1	-	-
연령	18~24세	54.5	13.6	-	-	-	9.1	9.1	9.1	4.5
	25~29세	36.0	28.0	4.0	12.0	8.0	4.0	8.0	-	-
	30~34세	29.0	9.7	6.5	16.1	6.5	16.1	6.5	-	3.2
	35~39세	28.6	3.6	10.7	3.6	-	50.0	3.6	-	-
성별	남성	42.5	22.5	10.0	5.0	-	15.0	2.5	-	2.5
	여성	31.8	7.6	3.0	10.6	6.1	24.2	9.1	3.0	1.5
혼인	미혼	36.6	15.9	4.9	8.5	4.9	15.9	6.1	2.4	1.2
	기혼	33.3	4.2	8.3	8.3	-	37.5	8.3	-	-

□ 현재 생활 계기

- 전체적으로 취(창)업이 잘 안 되어서(44.4%)가 가장 높으며, 임신·출산(22.2%),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서(13.3%) 순으로 나타나 취업·경제적 불안정이 주된 계기로 확인됨
- (거주지역별) 모든 지역에서 취(창)업 어려움이 가장 높은 가운데, 기타 지역(50.0%)·구도심(46.4%) 순으로 높게 나타남. 기타 지역은 임신·출산(33.3%) 비중도 타 지역보다 높음
- (연령별) 25~29세는 취(창)업 어려움(75.0%)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35~39세는 임신·출산(43.8%)이 높아 생애주기적 특성이 반영됨. 18~24세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서(33.3%)가 높아 무기력·동기 저하가 주된 계기로 확인됨
- (성별) 남성은 취(창)업이 잘 안 되어서(44.4%)·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서(33.3%) 비중이 높은 반면, 여성은 임신·출산(27.8%) 비중이 높게 나타나 현재 생활 계기의 성별 차이가 확인됨
- (혼인별) 미혼은 취(창)업이 잘 안 되어서(62.5%) 비중이 높은 반면, 기혼은 임신·출산(76.9%)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혼인 여부에 따른 현재 생활 계기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남

표 4-24 현재 생활 계기(1순위)

(단위: %)

구분	대학 입학의 실패로	취(창)업 이 잘 안 되서	학교나 직장 등에서 인간관계 가 잘 되지 않아서	임신· 출산 때문에	장애가 있거나 신체적 건강이 좋지 않아서	정신적/ 심리적 건강이 좋지 않아서	사회생활 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어 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서	기타
전체	2.2	44.4	2.2	22.2	2.2	4.4	4.4	13.3	4.4
거주 지역	신도심	-	36.4	9.1	18.2	9.1	-	9.1	9.1
	구도심	3.6	46.4	-	21.4	-	3.6	7.1	14.3
	기타	-	50.0	-	33.3	-	-	16.7	-
연령	18~24세	16.7	50.0	-	-	-	-	33.3	-
	25~29세	-	75.0	12.5	-	-	-	12.5	-
	30~34세	-	53.3	-	20.0	-	6.7	13.3	6.7
	35~39세	-	18.8	-	43.8	6.3	6.3	12.5	12.5
성별	남성	11.1	44.4	-	-	11.1	-	-	33.3
	여성	-	44.4	2.8	27.8	-	5.6	5.6	8.3
혼인	미혼	3.1	62.5	3.1	-	3.1	6.3	6.3	12.5
	기혼	-	-	-	76.9	-	-	-	15.4

□ 일상생활 규칙정도

-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규칙적이다'(60.3%)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보통이다'(19.9%), '매우 규칙적이다'(10.9%), '별로 규칙적이지 않다'(8.1%) 순으로 나타남
- (거주지역별) 모든 지역에서 '어느 정도 규칙적이다'가 가장 높은 가운데, 기타 지역은 '매우 규칙적이다'(21.0%) 비중이 타 지역보다 높으며, 구도심은 '별로 규칙적이지 않다'(9.0%)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연령별) 연령이 높아질수록 '매우 규칙적이다'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며(18~24세 8.9% → 35~39세 13.1%), 18~24세는 '별로 규칙적이지 않다'(11.1%) 비중이 가장 높아 저연령층의 생활 규칙성이 상대적으로 낮음
- (성별) 여성은 '매우 규칙적이다'(11.9%)·'별로 규칙적이지 않다'(9.9%) 비중이 남성보다 높으며, 남성은 '보통이다'(22.0%) 비중이 여성(17.8%)보다 높게 나타남
- (혼인별) 기혼은 '어느 정도 규칙적이다'(62.0%)·'매우 규칙적이다'(13.1%) 비중이 미혼보다 높아 혼인 이후 규칙적 생활패턴이 형성되는 경향이 확인됨. 미혼은 '별로 규칙적이지 않다'(8.9%) 비중이 기혼보다 높게 나타남

표 4-25 일상생활 규칙정도

(단위: %)

구분		전혀 규칙적이지 않다	별로 규칙적이지 않다	보통이다	어느정도 규칙적이다	매우 규칙적이다
전체		0.8	8.1	19.9	60.3	10.9
거주 지역	신도심	1.2	6.9	19.3	62.0	10.5
	구도심	0.7	9.0	20.3	60.3	9.7
	기타	-	6.2	19.8	53.1	21.0
연령	18~24세	1.3	11.1	19.6	59.1	8.9
	25~29세	-	9.4	21.9	57.8	10.9
	30~34세	1.2	7.0	20.2	61.2	10.5
	35~39세	0.8	5.2	17.9	62.9	13.1
성별	남성	0.6	6.3	22.0	61.2	9.9
	여성	1.0	9.9	17.8	59.4	11.9
혼인	미혼	1.0	8.9	20.0	59.8	10.3
	기혼	-	5.4	19.5	62.0	13.1

□ 청년 건강 문제 해결 정책

- 전체적으로 생활체육 등 활성화 지원(63.1%)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진료 등 의료비용 지원(40.6%), 정기적인 검진 프로그램 도입(38.8%), 건강 관련 캠페인 등 인식 개선 프로그램 운영(34.3%), 심리상담 프로그램 확대(32.1%) 순으로 나타남
- (거주지역)별 모든 지역에서 생활체육 등 활성화 지원 비중이 가장 높은 가운데, 기타 지역(74.1%)·구도심(64.2%) 순으로 높게 나타남. 기타 지역은 건강 캠페인 등 인식 개선(42.0%) 비중도 타 지역보다 높으며, 신도심은 진료 등 의료비용 지원(43.7%) 비중이 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남
- (연령별) 모든 연령대에서 생활체육 등 활성화 지원 비중이 가장 높은 가운데, 18~24세는 진료 등 의료비용 지원(44.7%) 비중이 가장 높아 경제적 의료 부담 완화 수요가 두드러짐. 25~29세는 정기적인 검진 프로그램 도입(39.1%), 30~34세는 정기적인 검진 프로그램 도입(42.2%)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성별)남성과 여성 모두 생활체육 등 활성화 지원 비중이 가장 높은 가운데, 남성은 건강 캠페인 등 인식 개선(41.2%) 비중이 여성(27.3%)보다 높은 반면, 여성은 진료 등 의료비용 지원(42.4%) 비중이 남성(38.8%)보다 높게 나타나 정책 수요의 성별 차이가 확인됨
- (혼인별) 미혼과 기혼 모두 생활체육 등 활성화 지원 비중이 가장 높고 진료 등 의료비용 지원이 두 번째로 높은 공통된 경향이 나타나며, 전반적으로 혼인 여부에 따른 정책 수요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표 4-26 청년 건강 문제 해결 정책

(단위: %, 중복응답)

구분		심리상담 프로그램 확대	진료 등 의료비용 지원	정기적인 검진 프로그램 도입	건강 관련 캠페인 등 인식 개선 프로그램 운영	생활체육 등 활성화 지원	기타
전체		32.1	40.6	38.8	34.3	63.1	0.6
거주 지역	신도심	33.7	43.7	40.4	29.8	58.4	1.5
	구도심	30.5	40.0	37.8	35.8	64.2	0.2
	기타	37.0	32.1	39.5	42.0	74.1	-
연령	18~24세	33.6	44.7	34.0	30.6	68.1	0.4
	25~29세	29.7	37.1	39.1	35.9	62.9	0.8
	30~34세	33.7	37.6	42.2	33.7	61.6	0.8
	35~39세	31.5	43.4	39.4	36.7	60.2	0.4
성별	남성	30.7	38.8	40.0	41.2	64.4	-
	여성	33.5	42.4	37.6	27.3	61.8	1.2
혼인	미혼	33.2	40.6	38.9	35.2	63.7	0.6
	기혼	28.1	40.7	38.5	31.2	61.1	0.5

5) 결혼 · 출산⁸⁾

□ 향후 결혼계획

○ 남양주시 미혼 청년 중 미혼자의 향후 결혼계획으로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결혼을 하고 싶다'(49.6%)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결혼 계획이 없다'(42.0%),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다'(8.5%) 순으로 나타남. 결혼 의향이 있는 응답('구체적 계획'+ '하고 싶다')이 58.1%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나, 결혼 계획이 없다는 응답도 42.0%로 미혼 청년의 결혼 기피 경향이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거주지역별) 모든 지역에서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결혼을 하고 싶다' 비중이 가장 높은 가운데, 기타 지역(64.6%) 비중이 타 지역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남. 신도심과 구도심은 결혼 계획이 없다는 응답(각 41.4%, 43.6%)이 상대적으로 높아 도심 거주 청년의 결혼 기피 경향이 확인됨

- (연령별) 연령이 높아질수록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다는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남 (18~24세 5.5% → 35~39세 16.3%). 25~29세는 결혼을 하고 싶다(52.2%) 비중이 가장 높은 반면, 18~24세는 결혼 계획이 없다(44.7%) 비중이 전 연령대 중 가장 높게 나타남

- (성별) 남성은 결혼을 하고 싶다(53.4%) 비중이 여성(45.3%)보다 높은 반면, 여성은 결혼 계획이 없다(47.2%) 비중이 남성(37.3%)보다 높게 나타나 결혼 의향의 성별 차이가 뚜렷하게 확인됨

8) 미혼자만을 대상으로 함

표 4-27 향후 결혼계획

(단위: %)

구분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다	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결혼을 하고싶다	결혼 계획이 없다
전체		8.5	49.6	42.0
거주 지역	신도심	10.4	48.2	41.4
	구도심	8.2	48.2	43.6
	기타	3.1	64.6	32.3
연령	18~24세	5.5	49.8	44.7
	25~29세	4.8	52.2	43.0
	30~34세	12.7	48.2	39.1
	35~39세	16.3	44.9	38.8
성별	남성	9.3	53.4	37.3
	여성	7.6	45.3	47.2

□ 비혼 사유

- 남양주시 미혼 청년의 비혼 사유로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43.1%)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18.0%), 연애 중인 상대가 없어서/결혼 상대를 만나지 못해서(15.9%), 자유로운 삶을 포기할 수 없어서(12.5%), 출산·양육이 부담되어서(5.8%) 순으로 나타남
- (거주지역별) 모든 지역에서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비중이 가장 높은 가운데, 기타 지역(52.4%)·신도심(48.1%) 순으로 높게 나타남. 신도심은 연애 상대를 만나지 못해서(16.3%) 비중이 타 지역보다 높은 반면, 구도심은 경제적 여유 부족(19.3%)·자유로운 삶 포기 불가(14.4%)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연령별) 25~29세는 경제적 여유 부족(24.3%)과 연애 상대를 만나지 못해서(24.3%) 비중이 동일하게 높아 현실적 제약이 주된 요인으로 나타남. 30~34세와 35~39세는 결혼 필요성 인식 부재(각 51.9%, 47.4%)와 자유로운 삶 포기 불가(각 15.6%, 21.1%) 비중이 높아 연령이 높아질수록 가치관 중심의 결혼 기피 경향이 강화되는 것으로 확인됨
- (성별) 남성은 경제적 여유 부족(25.5%) 비중이 여성(11.5%)보다 높은 반면, 여성은 결혼 필요성 인식 부재(50.6%)·자유로운 삶 포기 불가(14.4%) 비중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나 결혼 기피 요인의 성별 차이가 뚜렷하게 확인됨

표 4-28 비혼 사유

(단위: %)

구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고용 상태가 불안정해서	연애 중인 상대가 없어서/결혼 상대를 만나지 못해서	출산·양육이 부담 되어서	자유로운 삶을 포기할 수 없어서	기타
전체		18.0	43.1	1.5	15.9	5.8	12.5	3.1
거주 지역	신도심	15.4	48.1	1.9	16.3	5.8	10.6	1.9
	구도심	19.3	39.6	1.5	15.8	5.4	14.4	4.0
	기타	19.0	52.4	-	14.3	9.5	4.8	-
연령	18~24세	13.3	43.8	1.9	14.3	6.7	12.4	7.6
	25~29세	24.3	34.6	0.9	24.3	8.4	7.5	-
	30~34세	14.3	51.9	2.6	11.7	2.6	15.6	1.3
	35~39세	21.1	47.4	-	5.3	2.6	21.1	2.6
성별	남성	25.5	34.6	2.6	20.3	4.6	10.5	2.0
	여성	11.5	50.6	0.6	12.1	6.9	14.4	4.0

□ 결혼이 좋은 이유

- 남양주시 미혼 청년은 결혼이 좋은 이유로 사랑하는 사람과 살 수 있다(60.7%)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정신적 안식처가 생긴다(49.2%), 자신의 자녀와 가족을 가질 수 있다(40.7%), 부모로부터 독립할 수 있다(24.5%), 경제적 여유가 생긴다(21.3%) 순으로 나타남
- (거주지역별) 모든 지역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살 수 있다 비중이 가장 높은 가운데, 신도심(64.2%)·구도심(60.3%) 순으로 높게 나타남. 기타 지역은 가사분담 등 생활 편리(34.6%), 부모로부터 독립(35.8%) 비중이 타 지역보다 높아 실용적 가치 중심의 결혼 인식이 확인됨
- (연령별) 모든 연령대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살 수 있다 비중이 가장 높은 가운데, 저연령층(18~24세 67.7%, 25~29세 66.0%)에서 특히 높게 나타남. 35~39세는 정신적 안식처(55.4%)·자녀와 가족 형성(51.0%) 비중이 높아 연령이 높아질수록 정서적 안정과 가족적 가치를 중시하는 경향이 확인됨
- (성별) 남성과 여성 모두 사랑하는 사람과 살 수 있다 비중이 가장 높은 가운데, 남성은 정신적 안식처(54.7%)·자녀와 가족 형성(48.7%) 비중이 여성보다 높은 반면, 여성은 좋은 점이 없다(10.3%) 비중이 남성(4.2%)보다 높게 나타나 결혼 가치 인식의 성별 차이가 확인됨

표 4-29 결혼 좋은 이유

(단위: %, 중복응답)

구분		자신의 자녀와 가족을 가질 수 있다	정신적 안식처 가 생긴다	부모나 주위의 기대에 부응한 다	사랑하 는 사람과 살 수 있다	사회적 인 신용을 얻을 수 있다	경제적 여유가 생긴다	가사분 담 등 생활이 편리해 진다	부모로 부터 독립할 수 있다	기타	좋은 점이 없다
전체		40.7	49.2	21.6	60.7	19.8	21.3	20.5	24.5	0.4	8.7
거주 지역	신도심	45.2	54.5	17.2	64.2	13.3	17.8	16.3	17.5	0.9	6.9
	구도심	44.0	53.2	22.1	60.3	21.3	22.7	21.0	27.4	0.2	6.6
	기타	44.4	39.5	30.9	56.8	27.2	32.1	34.6	35.8	-	12.3
연령	18~24세	39.6	48.1	20.9	67.7	17.9	19.6	20.0	19.6	-	7.2
	25~29세	43.4	53.9	22.3	66.0	26.2	26.6	25.0	29.3	-	6.3
	30~34세	43.4	52.3	20.9	51.9	15.1	18.6	17.8	24.0	1.6	8.5
	35~39세	51.0	55.4	20.7	60.2	17.1	22.3	19.1	25.9	-	6.8
성별	남성	48.7	54.7	26.9	64.4	25.0	23.8	25.1	25.7	0.2	4.2
	여성	40.0	50.3	15.4	58.2	13.1	19.8	15.8	23.8	0.6	10.3

□ 비혼이 좋은 이유

- 남양주시 미혼 청년이 비혼을 선호하는 이유로 행동과 삶이 자유롭다(67.1%)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가족부양의 책임이 없다(48.0%),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일에 몰두할 수 있다(45.2%), 금전적 여유가 있다(42.5%), 이성교제의 자유가 있다(33.5%) 순으로 나타남
- (거주지역별) 모든 지역에서 행동과 삶이 자유롭다 비중이 가장 높은 가운데, 신도심은 가족부양 책임 없음(51.8%), 구도심은 금전적 여유(45.1%), 기타 지역은 이성교제 자유·넓은 대인관계(각 40.7%)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지역별 비혼 가치 인식의 차이가 확인됨
- (연령별) 모든 연령대에서 행동과 삶이 자유롭다 비중이 가장 높은 가운데, 18~24세는 금전적 여유(48.5%) 비중이 높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일에 몰두할 수 있다 비중이 증가(25~29세 48.4% → 35~39세 52.2%)하여 업무 집중 가치를 중시하는 경향이 확인됨
- (성별) 여성은 행동과 삶이 자유롭다(73.3%)·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일에 몰두할 수 있다(50.7%) 비중이 남성보다 높은 반면, 남성은 가족부양의 책임이 없다(50.5%)·금전적 여유(46.0%) 비중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나 비혼 가치 인식의 성별 차이가 확인됨

표 4-30 비혼 좋은 이유

(단위: %, 중복응답)

구분		행동과 삶이 자유롭 다	가족부 양의 책임이 없다	금전적 여유가 있다	넓은 대인관 계를 가질 수 있다	이성교 제의 자유가 있다	주거 환경 선택의 폭이 넓다	현재 가족과 관계를 유지 할 수 있다	시간에 구애 받 지 않고 일에 몰두할 수 있다	기타	좋은 점이 없다
전체		67.1	48.0	42.5	32.0	33.5	29.8	29.4	45.2	0.6	2.6
거주 지역	신도심	73.2	51.8	39.5	34.0	32.8	30.1	18.7	43.7	1.2	2.7
	구도심	65.4	42.6	45.1	29.8	34.1	30.2	31.9	46.7	0.2	2.6
	기타	56.8	48.1	34.6	40.7	40.7	42.0	27.2	45.7	-	1.2
연령	18~24세	68.1	49.8	48.5	28.9	36.2	26.0	30.2	38.7	1.3	3.0
	25~29세	67.2	47.7	39.1	40.2	36.7	31.3	29.3	48.4	-	1.6
	30~34세	63.6	45.3	39.1	26.7	30.6	31.8	23.6	42.6	0.4	3.9
	35~39세	70.5	41.8	43.4	32.3	33.5	35.1	25.5	52.2	0.4	1.6
성별	남성	61.4	50.5	45.0	35.0	36.2	32.9	29.9	40.6	0.2	2.4
	여성	73.3	41.6	39.8	29.1	32.1	29.3	24.2	50.7	0.8	2.6

□ 사회·제도적 결혼 장애 요인

○ 남양주시 미혼 청년의 사회·제도적 결혼 장애 요인으로 주택 마련 문제(26.3%)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결혼 의사 없음(11.7%), 사회통념 상 적령기가 아니어서(10.1%), 생활비 등을 충당하기에 소득 불충분(10.0%), 일자리 불안정(9.6%) 순으로 나타남

- (거주지역별) 모든 지역에서 주택 마련 문제 비중이 가장 높은 가운데, 신도심(35.2%)이 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남. 구도심은 학업 중이어서(12.1%) 비중이 높으며, 기타 지역은 직을 제외한 결혼자금 부족(13.6%) 비중이 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 지역별 결혼 장애 요인의 차이가 확인됨

- (연령별) 18~24세는 학업 중이어서(20.9%) 비중이 가장 높아 학업 단계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됨. 30~34세와 35~39세는 주택 마련 문제(각 38.8%, 41.0%)와 출산·육아로 인한 직장 불이익(각 12.0%, 15.9%) 비중이 높아 연령이 높아질수록 주거·육아 부담이 주된 장애 요인으로 나타남. 25~29세는 결혼 의사 없음(10.9%)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성별) 남성은 주택 마련 문제(34.5%)·일자리 불안정(11.1%)·학업 중이어서(12.3%) 비중이 여성보다 높은 반면, 여성은 출산·육아로 인한 직장 불이익(17.0%)·생활비 소득 불충분(10.9%) 비중이 높게 나타나 결혼 장애 요인의 성별 차이가 확인됨

표 4-31 사회·제도적 결혼 장애 요인

(단위: %)

구분		주택 마련 문제	집을 제외한 결혼 자금의 부족	부모와 동거 및 부양 문제	사회 통념 적령기 가 아니어 서	일자리 불안정 (실업 비정규 직 등)	학업 중이어 서	출산/ 육아로 인한 직장 불이익 및 자속 어려움	가족관 계에서 오는 각종 의무와 역할 분담	생활비 등을 충당하 기에 소득 불충분	기타	결혼 의사 없음
전체		26.3	8.9	0.9	2.7	10.1	9.6	9.4	9.2	10.0	1.2	11.7
거주 지역	신도심	35.2	7.8	0.9	1.2	7.8	5.1	10.2	11.1	8.4	2.1	9.9
	구도심	30.0	8.3	0.9	2.4	10.1	8.7	12.1	7.7	10.2	0.7	9.0
	기타	25.9	13.6	1.2	7.4	7.4	9.9	12.3	9.9	6.2	-	6.2
연령	18~24세	20.0	8.1	-	2.6	11.9	20.9	6.8	7.7	11.5	0.4	10.2
	25~29세	25.0	8.6	1.6	4.3	10.2	10.2	10.9	8.2	9.8	0.4	10.9
	30~34세	38.8	9.7	0.8	0.8	9.3	-	12.0	9.7	8.1	1.9	8.9
	35~39세	41.0	8.0	1.2	2.0	5.2	0.4	15.9	10.4	8.0	1.6	6.4
성별	남성	34.5	6.9	1.2	2.4	11.1	12.3	6.1	8.7	7.7	0.4	8.7
	여성	28.3	10.3	0.6	2.4	7.1	2.8	17.0	9.3	10.9	1.8	9.5

□ 자녀 계획

- 남양주시 미혼 청년의 사회·제도적 결혼 장애 요인으로 아직 자녀 계획은 없으나 언젠가는 계획할 것이다(76.5%)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딥크(14.8%),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8.0%), 현재 임신 준비 중(0.7%) 순으로 나타남. 자녀 계획이 있는 응답이 대다수이나 딥크 비중도 14.8%로 자녀 없는 삶을 선택하는 청년층이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거주지역별) 모든 지역에서 언젠가는 계획할 것이다 비중이 가장 높은 가운데, 기타 지역(84.1%)이 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남. 구도심은 딥크(16.1%) 비중이 타 지역보다 높으며, 신도심은 딥크(13.6%) 비중이 가장 낮고 구체적인 계획(8.2%)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연령별) 모든 연령대에서 언젠가는 계획할 것이다 비중이 가장 높은 가운데, 25~29세(79.6%)가 가장 높게 나타남. 30~34세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11.7%) 비중이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아 실질적 자녀 계획이 본격화되는 시기임이 확인되며, 딥크 비중은 연령대별 큰 차이 없이 14~15% 수준으로 유사하게 나타남
- (성별) 남성은 언젠가는 계획할 것이다(77.8%) 비중이 여성(74.9%)보다 높은 반면, 여성은 딥크(16.4%) 비중이 남성(13.6%)보다 높게 나타나 자녀 계획 인식의 성별 차이가 확인됨

표 4-32 자녀 계획

(단위: %)

구분		아직 자녀 계획은 없으나 언젠가는 계획할 것이다	현재 임신 준비 중	구체적인 계획은 있다	딩크 (자녀계획은 전혀 없다)
전체		76.5	0.7	8.0	14.8
거주 지역	신도심	78.2	-	8.2	13.6
	구도심	74.3	1.1	8.4	16.1
	기타	84.1	-	4.5	11.4
연령	18~24세	76.9	0.8	6.9	15.4
	25~29세	79.6	0.7	5.6	14.1
	30~34세	73.3	-	11.7	15.0
	35~39세	75.0	1.7	8.3	15.0
성별	남성	77.8	1.2	7.4	13.6
	여성	74.9	-	8.7	16.4

□ 출산 고민 이유

- 남양주시 미혼 청년이 출산을 고민하는 이유로 경제적 여건 불안정(27.4%)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자녀 양육 비용 부담(26.5%), 자녀 양육과 일 병행 어려움(11.1%), 좋은 부모가 될 자신 없음(8.2%), 자아 성취 및 여가·인간관계 집중(7.5%) 순으로 나타남
- (거주지역별) 신도심과 구도심은 경제적 여건 불안정(각 27.9%, 28.7%) 비중이 가장 높은 반면, 기타 지역은 자녀 양육 비용(34.1%)과 자녀 양육과 일 병행 어려움(18.2%) 비중이 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 실질적 양육 부담에 대한 우려가 두드러짐
- (연령별) 25~29세는 경제적 여건 불안정(30.3%) 비중이 가장 높아 취업·경제적 불안정이 주된 요인으로 나타남. 18~24세는 자녀 양육 비용(31.5%) 비중이 높으며, 35~39세는 안전하지 못한 사회라서(10.0%) 비중이 타 연령대보다 높아 사회적 환경에 대한 우려가 확인됨
- (성별) 남성은 경제적 여건 불안정(31.5%)·자녀 양육 비용(29.2%) 비중이 여성보다 높은 반면, 여성은 자아 성취 및 여가 집중(10.3%)·자녀 양육과 일 병행 어려움(14.9%)·안전하지 못한 사회(9.2%) 비중이 높게 나타나 출산 고민 요인의 성별 차이가 확인됨

표 4-33 출산 고민 이유

(단위: %)

구분	경제적 여건 불안정	자녀 양육에 많은 비용이 들어서 (교육비 포함)	좋은 부모(인 성·부모로 서의 덕목)가 될 자신이 없어서	자아 성취 및 여가, 기존 인간 관계에 집중 하고 싶어서	자녀 양육과 일 병행이 어려워서	본인의 사회 계층이 대물림 될 것 같아서	경쟁 위주의 사회라 서	안전하 지 못한 사회라 서	건강상 의 이유	기타
전체	27.4	26.5	8.2	7.5	11.1	3.3	6.2	5.8	3.1	0.9
거주 지역	신도심	27.9	24.5	11.6	8.8	2.0	6.8	6.1	2.7	0.7
	구도심	28.7	26.4	5.7	8.0	11.1	6.1	5.4	3.4	1.1
	기타	18.2	34.1	11.4	-	18.2	4.5	6.8	2.3	-
연령	18~24세	26.2	31.5	7.7	8.5	-	5.4	6.9	4.6	0.8
	25~29세	30.3	22.5	7.7	7.7	14.1	8.5	4.2	1.4	0.7
	30~34세	29.2	26.7	8.3	6.7	10.8	7.5	4.2	1.7	0.8
	35~39세	20.0	25.0	10.0	6.7	10.0	3.3	6.7	6.7	1.7
성별	남성	31.5	29.2	8.2	5.4	8.2	3.5	8.6	3.1	0.8
	여성	22.1	23.1	8.2	10.3	14.9	3.1	3.1	9.2	1.0

□ 출산 선행 조건

- 남양주시 미혼 청년의 출산 선행 조건으로 충분한 소득(63.5%), 안정된 주거지(59.7%), 안정된 직장(52.2%), 돌봄 서비스(43.1%), 육아휴직 보장(40.0%), 규칙적 근로시간(39.4%) 순으로 나타나 경제·주거·돌봄 인프라가 핵심 선행 조건으로 확인됨
- (거주지역별) 모든 지역에서 충분한 소득과 안정된 주거지 비중이 높은 가운데, 신도심은 충분한 소득(68.0%)·돌봄 서비스(47.6%)·배우자 육아휴직 보장(40.1%), 기타 지역은 안정된 직장(61.4%)·돌봄 서비스(47.7%) 비중이 높아 돌봄 여건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구도심은 안정된 주거지(61.3%)와 규칙적 근로시간(42.5%) 비중이 타 지역보다 높음
- (연령별) 18~24세는 충분한 소득(67.7%)과 안정된 직장(55.4%) 비중이 높은 반면, 35~39세는 돌봄 서비스(50.0%)·육아휴직 보장(45.0%) 등 실제 육아 경험이 반영된 수요가 높게 나타남. 30~34세는 조부모 돌봄(17.5%)과 배우자 육아휴직 보장(37.5%) 비중이 타 연령대보다 높음
- (성별) 여성은 육아휴직 보장(52.3%)·규칙적 근로시간(47.2%)·배우자 안정된 직장(45.6%) 비중이 남성보다 높아 경력 보호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됨. 남성은 안정된 직장(56.4%)·안정된 주거지(61.9%) 비중이 높아 출산 선행 조건 인식에서 성별 차이가 뚜렷하게 확인됨

표 4-34 출산 선행 조건

(단위: %, 중복응답)

구분		본인의 안정된 직장	배우자 의 안정된 직장	본인의 육아 휴직과 복직의 보장	배우자 의 육아 휴직과 복직의 보장	안정된 주거지 확보	아이를 키울 만큼의 충분한 소득	규칙적 이고 예상 가능한 근로시 간	아이를 언제든 수 말길 있는 돌봄 서비스	조부모 의 손자녀 돌봄 가능	기타	전제 조건 없음
전체		52.2	37.2	40.0	33.2	59.7	63.5	39.4	43.1	12.4	0.7	0.9
거주 지역	신도심	49.0	36.1	40.1	40.1	57.8	68.0	34.0	47.6	8.2	-	2.0
	구도심	52.5	37.5	39.8	31.4	61.3	62.5	42.5	39.8	13.8	1.1	0.4
	기타	61.4	38.6	40.9	20.5	56.8	54.5	38.6	47.7	18.2	-	-
연령	18~24세	55.4	43.1	38.5	31.5	61.5	67.7	38.5	43.8	9.2	0.8	0.8
	25~29세	54.9	34.5	40.1	31.0	58.5	62.0	38.0	43.7	9.9	-	1.4
	30~34세	49.2	38.3	39.2	37.5	60.8	58.3	40.8	38.3	17.5	-	-
	35~39세	45.0	28.3	45.0	33.3	56.7	68.3	41.7	50.0	15.0	3.3	1.7
성별	남성	56.4	30.7	30.7	27.6	61.9	61.5	33.5	44.7	10.1	0.4	0.4
	여성	46.7	45.6	52.3	40.5	56.9	66.2	47.2	41.0	15.4	1.0	1.5

□ 자녀 계획 수

- 남양주시 청년의 자녀 계획 수는 1명(36.7%)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2명(34.0%), 기타(25.9%), 3명(3.1%), 4명(0.3%) 순으로 나타남. 1명과 2명을 합한 비중이 70.7%로 대다수를 차지하나, 자녀 계획이 없거나 미정인 기타 응답(25.9%)도 적지 않아 저출산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확인됨
- (거주지역별) 신도심과 구도심은 1명(각 35.1%, 37.4%) 비중이 가장 높은 반면, 기타 지역은 2명(41.5%)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신도심은 기타(32.7%) 비중이 타 지역보다 높아 자녀 계획이 불확실한 청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됨
- (연령별) 18~24세와 30~34세는 1명(각 37.9%, 39.1%) 비중이 가장 높은 반면, 25~29세는 2명(36.1%) 비중이 높게 나타남. 35~39세는 기타(34.7%) 비중이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아 자녀 계획이 불확실하거나 포기한 경향이 두드러짐
- (성별) 남성은 1명(43.9%) 비중이 여성(28.7%)보다 높은 반면, 여성은 2명(35.2%)·기타(33.1%) 비중이 높게 나타나 희망 자녀 수의 성별 차이가 확인됨

표 4-35 자녀 계획 수

(단위: %)

구분		1명	2명	3명	4명	기타
전체		36.7	34.0	3.1	0.3	25.9
거주 지역	신도심	35.1	29.5	2.0	0.8	32.7
	구도심	37.4	35.4	4.1	-	23.1
	기타	38.5	41.5	-	-	20.0
연령	18~24세	37.9	34.5	2.6	-	25.1
	25~29세	34.9	36.1	5.2	0.4	23.3
	30~34세	39.1	33.5	1.0	0.5	25.9
	35~39세	33.7	28.6	3.1	-	34.7
성별	남성	43.9	32.9	3.2	0.5	19.5
	여성	28.7	35.2	3.0	-	33.1

6) 경제

□ 월 평균 소득 및 소득원

- 남양주시 청년의 월 평균 소득은 중간 구간(200~400만원 미만)에 집중되어 있는 편이며, 연령 및 혼인여부에 따라 격차가 뚜렷함
 - (거주지역별) 신·구도심은 200~400만원 구간 비중이 높으나, 기타 지역은 100만원 미만 비중이 비교적 높아 지역 간 소득 분포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 18~24세는 100만원 미만 비중이 높게 나타난 반면 25세 이후 연령대에서는 200만원 이상의 구간대 비중이 높아 연령에 따른 소득수준 상승 경향이 있음
 - (성별) 남녀 모두 100만원 미만 혹은 200~400만원 구간의 소득 비중이 높은 편임
 - (혼인별) 미혼은 100만원 미만이 우세이고, 기혼은 300만원 이상 소득 구간의 비중이 높음

표 4-36 월 평균 소득

(단위: %)

구분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400만원 미만	400~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전체		25.5	11.4	23.8	25.7	9.5	4.1
거주 지역	신도심	21.4	12.3	25.3	23.2	12.7	5.1
	구도심	26.7	11.2	23.3	27.3	8.3	3.1
	기타	33.3	8.6	21.0	24.7	4.9	7.4
연령	18~24세	67.7	17.4	8.5	4.7	0.9	0.9
	25~29세	23.4	14.1	40.6	17.2	3.1	1.6
	30~34세	7.4	10.1	28.3	40.3	10.5	3.5
	35~39세	6.8	4.4	16.3	39.0	23.1	10.4
성별	남성	25.0	10.3	20.0	29.3	11.1	4.4
	여성	26.1	12.5	27.7	22.0	7.9	3.8
혼인	미혼	30.9	12.6	26.7	22.3	5.4	2.1
	기혼	6.3	7.2	13.6	37.6	24.0	11.3

○ 남양주시 청년의 소득원은 근로소득(월급) 중심이며, 용돈의 비중(20.9%)도 높은 편임

- 성별, 거주지역별, 혼인별에 따르면 모두 근로소득(월급)의 비중이 가장 높고 용돈이 다음 순임
- 연령별의 경우, 18~24세는 용돈 비중(55.9%)이 높은 반면 근로소득(월급) 비중은 38.1%인 반면 25~39세는 근로소득(월급) 비중이 75% 이상으로 20대 중반 이후 경제적 자립 기반이 조성되는 경향

표 4-37 월 평균 소득 유형별 구성

(단위: %)

구분		근로소득 (월급)	사업소득 (자영업자)	금융소득 (주식, 이자)	임대소득 (부동산)	가상자산 (코인매매)	고용보험 등 정부 보조금	용돈	기타 (대출 등)
전체		70.0	4.2	2.8	0.2	0.2	0.4	20.9	1.9
거주 지역	신도심	74.6	3.6	3.5	0.4	0.3	0.1	17.3	1.1
	구도심	67.9	4.6	2.4	0.2	0.3	0.6	22.1	2.4
	기타	66.7	4.2	2.2	0.0	0.0	0.1	26.2	1.4
연령	18~24세	38.1	0.2	2.9	0.1	0.1	0.3	55.9	3.0
	25~29세	75.6	1.6	1.9	0.2	0.3	0.5	18.3	1.8
	30~34세	82.5	4.8	3.2	0.1	0.4	0.4	7.0	1.6
	35~39세	81.2	10.1	3.1	0.6	0.1	0.3	4.8	1.2
성별	남성	69.3	5.7	2.5	0.2	0.3	0.1	21.8	0.8
	여성	70.8	2.7	3.0	0.3	0.2	0.7	19.8	3.0
혼인	미혼	67.3	2.5	3.0	0.1	0.3	0.3	25.1	1.9
	기혼	79.9	10.2	1.8	0.6	0.2	0.8	5.7	1.9

□ 생활비 및 부채

- 남양주시 청년의 생활비 지출은 100만원 미만 비중이 72.5%로 크지 않은 편이며(평균 66.6만원), 전반적으로 주된 생활비 지출 항목은 식비(53.5%)였음
- (거주지역별) 신도심의 평균 생활비(74.6만원)가 구도심(58.9만원)보다 높게 나타남
- (연령별) 연령대가 높을수록 평균 생활비가 높고(18~24세 39.0만원, 35~39세 90.5만원), 식비 외 지출 항목으로 25~29세는 교육·자기계발비(9.8%), 35~39세는 자녀 육아·교육비 지출(14.7%)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 (성별) 남성의 평균 생활비는 83.3만원으로 여성(49.6만원)보다 높고, 남성은 여가활동비(13.1%), 차량유지비(8.9%) 관련 비용 비중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남
- (혼인별) 기혼의 생활비(90.7만원)가 미혼(59.8만원)보다 높고, 미혼은 여가활동비(12.3%)의 지출 비중이 높은 반면 기혼은 자녀육아·교육비(19.5%)의 지출 비용이 높았음

표 4-38 1인 기준 한달 평균 생활비(주거비용 제외)

(단위: %)

구분		1인 기준 한달 평균 생활비						주된 생활비 지출 항목										
		50 만원 미만	50~ 100 만원 미만	100 ~ 200 만원 미만	200 ~ 300 만원 미만	300 만원 이상	평균	식비	부채 상환 비	교통 비	차량 유지 비	의료· 미용 비	교육· 자기 계발 비	여가 활동 비	보험· 양육 비	자녀 육아· 교육 비	부모 님 생활 비	기타
전체		46.8	25.7	20.3	4.7	2.5	66.6	53.5	6.0	6.1	5.7	4.0	5.0	10.0	3.0	4.5	1.6	0.6
거주 지역	신도심	40.4	26.2	27.1	4.2	2.1	74.6	58.1	3.9	3.6	8.1	3.6	3.9	10.2	2.7	3.3	2.1	0.3
	구도심	54.2	22.0	16.5	4.9	2.4	58.9	50.6	6.5	8.0	5.1	4.3	5.3	9.5	3.6	4.8	1.5	0.9
	기타	19.8	50.6	19.8	4.9	4.9	89.6	55.6	11.1	2.5	-	3.7	7.4	12.3	-	7.4	-	-
연령	18~24세	56.2	37.9	5.1	0.9	0.0	39.0	55.7	0.4	12.8	2.1	5.5	5.5	17.0	0.4	-	0.4	-
	25~29세	41.4	31.6	25.8	0.8	0.4	64.0	52.7	2.7	6.3	5.9	7.0	9.8	10.5	2.3	0.4	1.6	0.8
	30~34세	45.3	19.8	25.6	7.8	1.6	71.2	51.6	11.2	3.9	8.5	1.6	3.5	8.9	5.4	2.7	1.6	1.2
	35~39세	45.0	14.3	23.5	9.2	8.0	90.5	54.2	9.2	2.0	6.0	2.0	1.2	4.0	3.6	14.7	2.8	0.4
성별	남성	36.0	28.7	24.6	7.1	3.6	83.3	44.8	7.7	5.9	8.9	2.6	7.7	13.1	2.2	4.6	2.2	0.4
	여성	57.8	22.6	16.0	2.2	1.4	49.6	62.4	4.2	6.3	2.4	5.5	2.2	6.9	3.8	4.4	1.0	0.8
혼인	미혼	46.9	28.0	21.4	3.3	0.4	59.8	53.7	4.1	7.2	6.5	4.9	5.9	12.3	2.8	0.3	1.7	0.6
	기혼	46.6	17.6	16.3	9.5	10.0	90.7	52.9	12.7	2.3	2.7	0.9	1.8	1.8	3.6	19.5	1.4	0.5

주: 1) 1인 기준 한달 평균 생활비는 주거비용 제외 기준임

2) 주된 생활비 지출 항목에서 부채상환비는 주거비 제외이며, 교통비는 대중교통비를 포함함

- 남양주시 30대 중후반과 기혼 집단에서의 부채 보유 비율이 높아 집단에 따른 경제적 부담의 차이가 확인됨
- (거주지역별) 부채 보유는 모든 지역이 54% 내외로 유사하며, 주된 원인 또한 주택 관련 자금

비중(20.7%)이 높음

- (연령별) 부채 보유 비중은 30대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주거 관련 부채 비중이 주로 높았음
- (성별) 부채가 있는 남성(55.4%)과 여성(52.5%)의 비율은 비슷한 수준이나, 주거 관련 부채를 제외하면 남성은 차량 구입비 부채 비중(13.9%)이 높음
- (혼인별) 기혼의 부채 보유 비율은 86.9%로 매우 높으며, 주요 부채 원인은 주거로 가구형성 과정에서 부담이 클 것으로 사료됨

표 4-39 부채 유무 및 주된 원인

(단위: %)

구분	부채 있음	생활비	주택 매입· 보증금· 전세 금	주거 월세· 관리비	차량 구입비	학자금 등 교육 비용	자기 관리비	문화 비용 (여행 비용 등)	사업 (창업) 자금	결혼 비용 (주거 제외)	의료비	기타
전체	54.0	4.8	20.7	5.9	8.8	7.1	2.4	1.7	1.5	0.6	0.4	0.1
거주 지역	신도심	54.2	4.8	19.0	6.0	9.6	8.4	1.8	2.1	0.6	0.9	-
	구도심	53.8	4.8	22.0	6.3	8.2	6.6	2.2	1.0	2.0	0.3	0.2
	기타	54.3	4.9	18.5	2.5	9.9	4.9	6.2	4.9	1.2	1.2	-
연령	18~24세	27.7	2.6	3.4	2.1	3.0	10.2	1.3	3.4	0.9	-	0.9
	25~29세	43.0	5.1	7.8	3.5	7.8	11.7	4.3	2.0	0.8	-	-
	30~34세	67.1	6.2	25.6	7.4	14.7	5.4	1.9	1.6	2.3	1.6	-
	35~39세	76.5	5.2	45.0	10.4	9.2	1.2	2.0	-	2.0	0.8	0.8
성별	남성	55.4	2.6	19.0	5.7	13.9	6.1	2.8	1.4	2.2	1.0	0.8
	여성	52.5	7.1	22.4	6.1	3.6	8.1	2.0	2.0	0.8	0.2	-
혼인	미혼	44.7	4.6	10.4	4.6	9.1	8.9	3.0	2.2	1.4	0.1	0.3
	기혼	86.9	5.4	57.0	10.4	7.7	0.9	0.5	-	1.8	2.3	0.9

□ 청년 금융경제 관련 정책 수요

- 남양주시 청년의 금융경제 관련 정책수요는 교육보다는 자산형성과 생활 소득 지원에 집중되는 양상이며, 집단별 세부 수요 차이는 보임
 - 유형별(거주지역, 연령, 성별, 혼인유무) 모든 집단에서 자산형성(목돈 마련 자산형성 지원 청년 적금상품, 청년 수당 등 생활 소득 지원)과 생활 소득(청년 대상 긴급 생활안정 저리 대출 지원) 지원에 정책 수요가 집중됨
 - 다만, 높은 연령대일수록, 남성이면, 기혼이면 금융(재무) 설계 교육·컨설팅에 대한 정책 수요도 집단 내 상대적 높은 비중을 보여 생애주기에 따른 정책 우선순위 차이가 있었음

표 4-40 청년 금융경제 상황 관련 우선 정책

(단위: %)

구분		학자금 대출금 일부 지원	금융(재무) 설계 교육 컨설팅	청년 대상 긴급 생활안정 저리 대출 지원	목돈 마련 자산 형성을 청년 지원하는 청년 적금상품	청년 수당 등 생활 소득 지원	기타
전체		7.4	14.6	18.8	29.5	28.7	1.0
거주 지역	신도심	8.1	13.6	18.4	30.7	28.0	1.2
	구도심	6.5	16.0	18.1	29.6	28.8	1.0
	기타	11.1	8.6	25.9	23.5	30.9	-
연령	18~24세	12.8	8.1	10.6	27.2	40.4	0.9
	25~29세	9.4	14.1	20.3	25.0	30.9	0.4
	30~34세	3.5	16.7	23.6	31.4	22.9	1.9
	35~39세	4.4	19.1	19.9	34.3	21.5	0.8
성별	남성	9.1	15.8	23.0	22.8	28.5	0.8
	여성	5.7	13.3	14.5	36.4	28.9	1.2
혼인	미혼	8.9	13.1	18.4	27.3	31.8	0.5
	기혼	2.3	19.9	20.4	37.1	17.6	2.7

7) 일자리

□ 경제활동 상태

- 남양주시 청년 응답자의 62.4%가 근로자였으며, 18~24세와 미혼 청년은 미취업자 비중이, 35~39세와 기혼 청년은 경영활동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 18~24세를 제외한 모든 유형(거주지역, 연령, 성별, 혼인)에서 근로자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일부 유형에서 미취업 및 경영자·개인사업 등의 비중 차이가 나타남
 - (미취업) 18~24세와 미혼은 동일 분류 내 미취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 (경영활동) 34~39세, 남성, 기혼은 동일 분류 내 상대적으로 경영활동 비중이 높은 편임

표 4-41 경제활동 상태

(단위: %)

구분		미취업자	근로자	경영활동
전체		32.4	62.4	5.2
거주 지역	신도심	27.4	68.7	3.9
	구도심	34.6	59.3	6.1
	기타	37.0	59.3	3.7
연령	18~24세	69.8	28.1	2.1
	25~29세	32.4	65.2	2.3
	30~34세	15.5	78.7	5.8
	35~39세	14.7	74.9	10.4
성별	남성	30.7	62.2	7.1
	여성	34.1	62.6	3.2
혼인	미혼	35.9	60.5	3.6
	기혼	19.9	69.2	10.9

주: 1) 미취업자: 학생, 주부, 구직자 등
 2) 근로자: 전일제 직장인, 파트타임 및 아르바이트 등
 3) 경영활동: 창업, 소상공인, 농·어업, 자영업, 개인사업 등

8) 학생·구직자

□ 구직활동·취업준비 여부, 기간 및 미준비 이유

- 설문 응답 청년 중 구직활동·취업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비율이 절반을 이상이었으나, 일부 집단(신도심, 25~34세, 여성)은 준비하는 비율이 더 높음. 준비 중인 경우에는 1~6개월 미만(34.9%)과 1년 이상(25.7%) 비중이 높은 편이며, 준비하지 않는 이유로는 학업(73.3%)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거주지역별) 신도심은 준비하고 있는 학생·구직자가 더 많았으며, 구도심·기타 지역은 미준비 비율이 다소 높았음. 미준비 사유는 전 지역에서 학업 집중, 육아·임신, 가사가 높았음

- (연령별) 18~24세는 학업 중심의 미준비 사유를 중심으로 구직활동·취업준비 비중이 가장 낮으며, 30대는 돌봄·가사 사유의 미준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성별·혼인별) 미혼·남성은 학업 중심, 여성과 기혼은 육아·가사 중심의 미준비 양상이 나타남

표 4-42 구직활동·취업준비 여부와 기간

(단위: %)

구분		구직활동·취업준비 여부		구직활동·취업준비 기간			
		예	아니오	1개월 미만	1~6개월 미만	6~12개월 미만	1년 이상
전체		46.9	53.1	21.7	34.9	17.8	25.7
거주 지역	신도심	53.8	46.2	20.4	38.8	16.3	24.5
	구도심	45.8	54.2	23.7	32.3	17.2	26.9
	기타	33.3	66.7	10.0	40.0	30.0	20.0
연령	18~24세	30.5	69.5	36.0	42.0	10.0	12.0
	25~29세	69.9	30.1	12.1	37.9	29.3	20.7
	30~34세	70.0	30.0	14.3	25.0	10.7	50.0
	35~39세	43.2	56.8	25.0	18.8	12.5	43.8
성별	남성	43.2	56.8	13.4	40.3	26.9	19.4
	여성	50.3	49.7	28.2	30.6	10.6	30.6
혼인	미혼	48.6	51.4	19.9	36.8	18.4	25.0
	기혼	36.4	63.6	37.5	18.8	12.5	31.3

주: 응답자 중 학생·구직자는 총 324명임

표 4-43 구직활동·취업준비 하지 않는 이유

(단위: %)

구분		학업에 집중	군입대 대기	육아·임신	가사	건강상의 이유	당분간 휴식	공사·고시 준비	기타
전체		73.3	2.9	10.5	6.4	2.3	2.3	1.7	0.6
거주 지역	신도심	66.7	2.4	14.3	9.5	2.4	4.8	-	-
	구도심	74.5	3.6	9.1	5.5	2.7	0.9	2.7	0.9
	기타	80.0	-	10.0	5.0	-	5.0	-	-
연령	18~24세	93.9	2.6	-	-	1.8	1.8	-	-
	25~29세	68.0	8.0	-	8.0	-	4.0	12.0	-
	30~34세	8.3	-	58.3	16.7	8.3	-	-	8.3
	35~39세	4.8	-	52.4	33.3	4.8	4.8	-	-
성별	남성	85.2	5.7	-	1.1	2.3	2.3	3.4	-
	여성	60.7	-	21.4	11.9	2.4	2.4	-	1.2
혼인	미혼	86.8	3.5	-	2.1	2.1	2.8	2.1	0.7
	기혼	3.6	-	64.3	28.6	3.6	-	-	-

주: 학생·구직자(324명) 응답자 중 구직활동·취업준비를 하지 않는 청년은 172명임

□ 취직 희망 직장

- 남양주시 청년은 대기업과 공공부문 취업 선호가 높았으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중소기업·개인사업 등으로 희망 직장 유형이 다양화되는 경향을 보임

- (거주지역별) 신도심은 대기업·공공부문, 구도심은 상대적으로 중소기업·공무원 비중이 높았음

- (연령별) 30대 이하는 대기업과 공공부문 선호가 높고, 30대 후반으로 갈수록 중소기업과 개인사업 선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성별) 남성은 대기업·공공부문, 여성은 중소기업·기타 유형 선호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혼인별) 미혼은 대기업·공공부문, 기혼은 중소기업·개인사업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4-44 취직 희망 직장

(단위: %)

구분		대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 및 공기업	정부 (중앙 및 지방 공무원)	비영리 기관 및 사회적 기업	스타트업	개인사업 (창업 또는 승계 등)	기타
전체		29.0	17.9	19.8	12.0	4.0	4.6	6.5	6.2
거주 지역	신도심	33.0	11.0	22.0	9.9	4.4	3.3	6.6	9.9
	구도심	28.6	20.7	17.2	12.3	3.9	5.9	5.9	5.4
	기타	20.0	20.0	30.0	16.7	3.3	-	10.0	-
연령	18~24세	37.8	11.6	23.8	10.4	2.4	7.3	3.0	3.7
	25~29세	33.7	19.3	14.5	20.5	1.2	2.4	7.2	1.2
	30~34세	7.5	27.5	17.5	7.5	12.5	2.5	7.5	17.5
	35~39세	2.7	32.4	16.2	5.4	8.1	-	18.9	16.2
성별	남성	32.9	10.3	22.6	19.4	2.6	5.8	4.5	1.9
	여성	25.4	24.9	17.2	5.3	5.3	3.6	8.3	10.1
혼인	미혼	33.2	15.4	20.4	13.2	3.2	5.4	4.6	4.6
	기혼	2.3	34.1	15.9	4.5	9.1	-	18.2	15.9

주: 학생·구직자(324명) 응답자 중 구직활동·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은 152명임

□ 취직 희망 직종 및 근로형태

- 희망 직종은 경영·사무·금융·보험직(24.7%), 연구직 및 공학기술직(17.6%), 교육·법률·사회 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13.9%), 보건·의료직,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13.6%) 등의 순으로 고르게 분포
 - 대부분의 집단 유형에서 경영·사무·금융·보험직 등 전문직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0대·여성·기혼은 보건·의료직, 서비스직 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특징
- 취업 희망 근로형태는 정규직 선호가 매우 높게 나타났으나, 30대나 기혼 청년은 파트타임, 프리랜서, 자영업 등 다양한 근로형태에 대한 선호도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모든 유형에서 높은 정규직 선호가 나타난 가운데 상대적으로 30~34세(65.0%), 35~39세(51.4%), 기혼(43.2%)이면 상대적으로 파트타임·프리랜서·자영업 등 선호가 다양해짐

표 4-45 취직 희망 직종

(단위: %)

구분		경영, 사무, 금융, 보험직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교육, 법률, 사회 복지, 경찰, 소방직 및 군인	보건, 의료직	예술, 디자인, 방송, 스포츠 직	미용, 여행, 숙박, 음식, 경비, 청소직	영업, 판매, 운전자, 운송직	건설, 채굴직	설치, 정비, 생산직	농림, 어업직	기타
전체		24.7	17.6	13.9	11.7	13.6	7.1	1.9	0.9	3.7	0.3	4.6
거주 지역	신도심	33.0	7.7	14.3	9.9	13.2	6.6	2.2	1.1	5.5	-	6.6
	구도심	22.2	22.2	12.3	12.8	14.3	5.4	2.0	1.0	3.4	0.5	3.9
	기타	16.7	16.7	23.3	10.0	10.0	20.0	-	-	-	-	3.3
연령	18~24세	27.4	20.1	14.6	12.2	15.9	3.7	-	1.2	1.2	-	3.7
	25~29세	21.7	24.1	16.9	7.2	10.8	6.0	-	1.2	8.4	1.2	2.4
	30~34세	25.0	7.5	10.0	17.5	7.5	15.0	5.0	-	5.0	-	7.5
	35~39세	18.9	2.7	8.1	13.5	16.2	16.2	10.8	-	2.7	-	10.8
성별	남성	23.9	23.9	21.9	7.7	9.7	3.9	1.3	1.3	5.8	0.6	-
	여성	25.4	11.8	6.5	15.4	17.2	10.1	2.4	0.6	1.8	-	8.9
혼인	미혼	25.4	20.0	15.4	10.4	13.9	5.0	1.1	1.1	4.3	0.4	3.2
	기혼	20.5	2.3	4.5	20.5	11.4	20.5	6.8	-	-	-	13.6

주: 학생·구직자(324명) 응답자 중 구직활동·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은 152명임

표 4-46 취업 희망 근로형태

(단위: %)

구분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	프리랜서	자영업 등 고용주	기타
전체		80.9	0.9	6.2	7.4	4.0	0.6
거주 지역	신도심	79.1	1.1	2.2	9.9	5.5	2.2
	구도심	81.3	1.0	8.4	6.9	2.5	-
	기타	83.3	-	3.3	3.3	10.0	-
연령	18~24세	87.8	-	2.4	8.5	1.2	-
	25~29세	88.0	2.4	1.2	3.6	4.8	-
	30~34세	65.0	2.5	15.0	10.0	7.5	-
	35~39세	51.4	-	24.3	8.1	10.8	5.4
성별	남성	92.3	0.6	1.3	3.2	2.6	-
	여성	70.4	1.2	10.7	11.2	5.3	1.2
혼인	미혼	86.8	0.7	2.5	7.5	2.5	-
	기혼	43.2	2.3	29.5	6.8	13.6	4.5

주: 학생·구직자(324명) 응답자 중 구직활동·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은 152명임

□ 일자리 선택 시 중요 요소

- 남양주시 청년이 일자리 선택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임금수준(61.4%), 근로환경 및 복리후생(49.2%), 워라밸(46.0%), 출퇴근 소요 시간(42.9%), 고용 안정성(36.7%) 등임
- (거주지역별) 모든 지역에서 임금수준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가운데 신도심은 신도심은 고용 안정성과 출퇴근 시간을, 구도심은 워라밸과 노동강도를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인식
- (연령별) 30대는 출퇴근 시간과 근로환경 및 복리후생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특징임
- (성별, 혼인별) 미혼·남성은 여성에 비해 보상수준·직무 성장·경력 발전 측면을 중시하는 반면 기혼·여성은 근로여건과 일·생활 균형 측면을 더 중시하는 것으로 확인됨

표 4-47 일자리 선택 시 중요 요소(중복 응답)

(단위: %)

구분		임금 수준	고용 안정성	사회적 인정	직업의 전망	개인 경력 발전 가능성	업무의 자율성	전공 또는 기술 적합성	근로 환경 및 복리 후생	출퇴근 소요 시간	노동 강도	워라밸 (work-life balance)	기타
전체		61.4	36.7	27.2	29.6	26.9	29.6	26.2	49.4	42.9	30.9	46.0	0.6
거주 지역	신도심	56.0	40.7	28.6	29.7	26.4	24.2	16.5	46.2	44.0	30.8	44.0	1.1
	구도심	64.0	35.5	25.1	29.6	27.1	31.0	29.1	48.3	44.8	32.0	47.3	0.5
	기타	60.0	33.3	36.7	30.0	26.7	36.7	36.7	66.7	26.7	23.3	43.3	-
연령	18~24세	67.1	38.4	32.9	32.9	28.7	30.5	28.0	48.8	39.6	29.3	48.2	0.6
	25~29세	67.5	34.9	25.3	31.3	31.3	37.3	33.7	54.2	39.8	30.1	49.4	-
	30~34세	47.5	40.0	12.5	27.5	22.5	20.0	15.0	50.0	65.0	40.0	50.0	2.5
	35~39세	37.8	29.7	21.6	13.5	13.5	18.9	13.5	40.5	40.5	29.7	24.3	-
성별	남성	65.2	38.1	33.5	30.3	31.6	38.1	32.9	51.0	33.5	26.5	45.8	-
	여성	58.0	35.5	21.3	29.0	22.5	21.9	20.1	47.9	51.5	34.9	46.2	1.2
혼인	미혼	65.4	37.5	28.9	31.4	28.2	31.1	28.6	50.0	42.1	31.4	48.6	0.4
	기혼	36.4	31.8	15.9	18.2	18.2	20.5	11.4	45.5	47.7	27.3	29.5	2.3

주: 학생·구직자(324명) 응답자 중 구직활동·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은 152명임

□ 구직활동 중 가장 어려운 점

- 세부 집단별 차이는 있으나, 공통적으로 양질의 청년 일자리와 미스매치, 초기 경력 형성과 경력 축적의 어려움이 공통 애로사항이었음
- 일자리 부족(50.6%), 경력 쌓기의 어려움(42.3%), 적절한 근로조건의 직장 부재(35.2%), 취업정보 부족(32.1%) 순으로 의견이 많았음
- 특히 저연령층은 진로 탐색과 일자리 진입의 어려움을, 고연령층은 근로조건과 경력 축적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음

표 4-48 구직활동 중 가장 어려운 점(중복 응답)

(단위: %)

구분		일자리 부족	취업 준비 비용 마련	진로 선택의 어려움	경력 쌓기의 어려움	적절한 근로 조건의 직장 부재	취업 정보 부족	외모, 학력, 성별 등의 차별	전공, 기술 자격 요건 부적합	취업 희망 산업, 기업의 부재	기타
전체		50.6	25.3	30.9	42.3	35.2	32.1	22.8	27.8	23.1	2.5
거주 지역	신도심	41.8	19.8	28.6	50.5	25.3	24.2	14.3	17.6	12.1	6.6
	구도심	54.2	27.1	32.5	39.4	39.4	33.5	24.6	30.0	27.1	1.0
	기타	53.3	30.0	26.7	36.7	36.7	46.7	36.7	43.3	30.0	-
연령	18~24세	53.7	23.8	33.5	43.9	31.1	32.9	25.0	25.6	23.8	3.0
	25~29세	51.8	32.5	33.7	41.0	34.9	30.1	20.5	42.2	30.1	-
	30~34세	47.5	20.0	27.5	42.5	40.0	37.5	27.5	22.5	12.5	2.5
	35~39세	37.8	21.6	16.2	37.8	48.6	27.0	13.5	10.8	16.2	5.4
성별	남성	47.7	29.7	32.3	38.1	31.0	34.2	27.1	43.9	30.3	2.6
	여성	53.3	21.3	29.6	46.2	39.1	30.2	18.9	13.0	16.6	2.4
혼인	미혼	51.8	27.5	33.9	44.3	32.9	32.5	24.6	31.1	25.0	2.1
	기혼	43.2	11.4	11.4	29.5	50.0	29.5	11.4	6.8	11.4	4.5

주: 학생·구직자(324명) 응답자 중 구직활동·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은 152명임

9) 근로자

□ 현재 직장 소재지 및 고용형태

- 전체 응답자 중 청년근로자(624명)의 현 직장 소재지는 전반적으로 남양주(50.2%)와 서울(35.4%)에 집중되어 있으며, 고용형태는 정규직(75.2%) 중심으로 확인됨
- (거주지역별) 모든 지역에서 기타 지역은 남양주 소재 직장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고용형태는 전 지역에서 정규직이 가장 높은 가운데, 구도심은 비정규직 비중이, 신도심은 정규직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연령별) 18~24세는 남양주 소재 직장 및 파트타임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난 반면 30대 이상은 서울 소재 직장 및 정규직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
- (성별) 남성과 여성 모두 남양주와 서울 소재 직장 및 정규직 고용의 비중이 높으며, 여성은 상대적으로 파트타임·프리랜서 고용 비중이 높게 나타남
- (혼인별) 기혼은 상대적으로 서울 소재 직장 비중이, 미혼은 남양주 소재 직장 비중이 높으며, 미혼은 비정규직과 파트타임 비중이, 기혼은 정규직 비중이 매우 높은 편임

표 4-49 현재 직장 소재지 및 고용형태

(단위: %)

구분		현 직장 소재지				고용 형태				
		남양주	서울	구리	기타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프리랜서	기타
전체		50.2	35.4	9.6	4.8	75.2	12.3	8.8	3.4	0.3
거주 지역	신도심	46.9	39.0	8.3	5.7	78.9	8.3	8.3	3.9	0.4
	구도심	50.0	34.5	10.9	4.6	72.7	14.4	9.5	3.4	-
	기타	66.7	25.0	6.3	2.1	75.0	16.7	6.3	-	2.1
연령	18~24세	72.7	18.2	6.1	3.0	30.3	16.7	50.0	1.5	1.5
	25~29세	58.7	32.3	6.6	2.4	70.7	16.8	9.0	3.6	-
	30~34세	44.3	36.5	12.8	6.4	80.3	13.3	1.0	5.4	-
	35~39세	41.0	43.1	10.1	5.9	89.4	5.9	2.7	1.6	0.5
성별	남성	51.9	32.2	12.4	3.5	78.0	12.1	7.6	1.9	0.3
	여성	48.4	38.7	6.8	6.1	72.3	12.6	10.0	4.8	0.3
혼인	미혼	54.6	32.7	8.7	4.0	70.5	15.1	11.3	3.0	0.2
	기혼	36.6	43.8	12.4	7.2	89.5	3.9	1.3	4.6	0.7

주: 1) 전체 응답자 중 근로자는 총 624명임

2) 파트타임은 아르바이트 등을 포함

□ 현 직장 만족도

○ 남양주시 청년 근로자의 현 직장 만족도는 5점 평균 3.6점으로 비교적 양호한 편임

- 모든 유형분류에서 직장 만족 수준은 보통 이상이었으며, 특히 기타지역, 30대, 남성, 기혼의 만족 수준이 상대적으로 다소 높은 경향을 보임

표 4-50 현 직장 만족도

(단위: %)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5점 평균
전체		1.3	6.4	32.4	50.8	9.1	3.6
거주 지역	신도심	1.3	5.7	34.6	49.6	8.8	3.6
	구도심	1.1	7.5	33.3	50.0	8.0	3.6
	기타	2.1	2.1	14.6	62.5	18.8	3.9
연령	18~24세	-	10.6	45.5	42.4	1.5	3.3
	25~29세	0.6	9.0	36.5	47.3	6.6	3.5
	30~34세	1.5	6.9	28.1	52.2	11.3	3.7
	35~39세	2.1	2.1	28.7	55.3	11.7	3.7
성별	남성	1.0	5.7	29.0	54.8	9.6	3.7
	여성	1.6	7.1	35.8	46.8	8.7	3.5
혼인	미혼	1.5	7.2	34.0	47.8	9.6	3.6
	기혼	0.7	3.9	27.5	60.1	7.8	3.7

주: 응답자 중 근로자는 총 624명임

□ 이직 검토 및 계획의 주된 이유

- 남양주시 청년 근로자는 주로 임금(25.6%) 문제로 이직을 검토·계획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요인으로서는 직무 만족도(8.0%), 장기적 진로설계(6.6%), 통근시간·회사 성장 전망·정규직 여부(각 6.1%) 등이 있었음
- (거주지역별) 신도심은 회사 성장 전망과 직무 만족도, 구도심은 통근시간, 기타지역은 정규직여부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 18~24세와 25~29세는 장기적 진로설계, 정규직 여부, 직무 만족도, 통근시간 등을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고려하는 반면 30대는 임금과 직무 만족도 비중이 더 높아 경력에 따른 이직 검토 및 계획의 주된 이유 차이가 나타남
- (성별) 남성은 직무 만족도, 회사 성장 전망, 여성은 통근시간, 사내 분위기, 정규직 여부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혼인별) 미혼은 장기적 진로설계와 직무 만족도를, 기혼은 통근시간과 사내 분위기를 더 중요하게 고려

표 4-51 이직 검토 및 계획의 주된 이유

(단위: %)

구분		임금	승진 가능성	정년 까지 근무 가능성	장기적 진로 설계	회사 성장 전망	정규직 여부	사내 분위기	복지 제도	직무 만족도	통근 시간	기타
전체		25.6	2.6	5.8	6.6	6.1	6.1	5.0	4.5	8.0	6.1	1.1
거주 지역	신도심	21.5	3.5	5.7	7.9	8.8	3.5	3.5	4.8	8.8	4.4	2.2
	구도심	26.7	2.0	6.0	6.0	4.6	7.5	6.6	4.3	8.0	7.8	0.6
	기타	37.5	2.1	4.2	4.2	4.2	8.3	-	4.2	4.2	2.1	-
연령	18~24세	15.2	1.5	1.5	10.6	7.6	10.6	4.5	3.0	7.6	7.6	-
	25~29세	25.7	1.8	7.2	9.0	5.4	6.0	4.8	4.2	8.4	9.0	-
	30~34세	23.2	3.9	7.4	4.9	5.9	4.4	5.4	4.9	9.4	4.4	1.0
	35~39세	31.9	2.1	4.3	4.8	6.4	6.4	4.8	4.8	6.4	4.8	2.7
성별	남성	27.4	2.9	6.1	6.1	7.0	5.4	2.5	5.1	8.3	3.2	0.6
	여성	23.9	2.3	5.5	7.1	5.2	6.8	7.4	3.9	7.7	9.0	1.6
혼인	미혼	25.5	2.1	6.4	7.9	6.2	6.4	4.2	4.5	8.5	4.5	1.1
	기혼	26.1	3.9	3.9	2.6	5.9	5.2	7.2	4.6	6.5	11.1	1.3

주: 응답자 중 근로자는 총 624명임

10) 경영자

□ 창업(사업) 소재지

- 남양주시 청년 창업자(52명)의 사업 소재지는 남양주(67.3%)에 집중되어 있으며, 일부는 인접 지역(서울 19.2%, 구리 9.6% 등)에도 분포
- (거주지역별) 신도심은 상대적으로 구리, 구도심은 서울 응답 비중이 높은 반면 기타 지역은 고루 분산되어 있음
- (연령별) 18~29세는 남양주와 서울로 비교적 분산된 반면 30대는 남양주 중심의 사업 입지 경향
- (성별) 남성은 남양주 소재 비중이 집중된 반면 여성은 서울 소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 (혼인별) 미혼은 남양주와 서울에 분산되는 기혼은 지역 내(남양주) 정착 창업 경향 강한편임

표 4-52 창업(사업) 소재지

(단위: %)

구분		남양주	서울	구리	기타
전체		67.3	19.2	9.6	3.8
거주 지역	신도심	61.5	7.7	23.1	7.7
	구도심	72.2	22.2	2.8	2.8
	기타	33.3	33.3	33.3	-
연령	18~24세	40.0	40.0	-	20.0
	25~29세	50.0	50.0	-	-
	30~34세	66.7	13.3	20.0	-
	35~39세	76.9	11.5	7.7	3.8
성별	남성	75.0	8.3	11.1	5.6
	여성	50.0	43.8	6.3	-
혼인	미혼	57.1	28.6	10.7	3.6
	기혼	79.2	8.3	8.3	4.2

주: 응답자 중 근로자는 총 52명임

□ 창업(사업) 결심 이유

- 남양주시 청년의 창업 결심 이유는 경제적 이익 추구가 전반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전문영역·적성 활용, 사회적 성공, 근무시간의 자율성 등도 주요 요인으로 나타남
- (거주지역별) 신도심은 전문영역·적성 활용, 구도심은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성공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연령별) 18~24세는 사회적 성공, 25~39세는 경제적 이익과 전문영역·적성 활용을 중심으로

창업을 결심하는 경향이 있음

- (성별) 남성과 여성 모두 경제적 이익을 중시하는 가운데 남성은 사회적 성공과 전문영역 활용 비중이, 여성은 근무시간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혼인별) 모든 집단에서 경제적 이익과 전문영역·적성 활용이 높았으며, 특히 미혼은 사회적 성공, 기혼은 근무시간 자율성 비중이 상대적으로 다소 높았음

표 4-53 창업(사업) 결심 이유

(단위: %)

구분	경제적인 이익 추구	사회적 성공 추구	아이디어의 사업 실현	전문영역·적성 활용	취업이 어려워서	지인의 창업 권유	가업 승계	근무시간 활용의 자율성 확보	기타
전체	34.6	17.3	1.9	21.2	5.8	5.8	3.8	7.7	1.9
거주 지역	신도심	23.1	7.7	-	38.5	7.7	-	7.7	7.7
	구도심	36.1	22.2	2.8	16.7	5.6	8.3	-	8.3
	기타	66.7	-	-	-	-	-	33.3	-
연령	18~24세	20.0	40.0	-	-	-	-	-	20.0
	25~29세	33.3	16.7	-	16.7	16.7	16.7	-	-
	30~34세	33.3	26.7	6.7	26.7	-	-	-	6.7
	35~39세	38.5	7.7	-	23.1	7.7	7.7	7.7	-
성별	남성	36.1	16.7	-	22.2	8.3	5.6	5.6	5.6
	여성	31.3	18.8	6.3	18.8	-	6.3	-	12.5
혼인	미혼	32.1	25.0	3.6	21.4	3.6	3.6	3.6	3.6
	기혼	37.5	8.3	-	20.8	8.3	8.3	4.2	12.5

주: 응답자 중 근로자는 총 52명임

□ 사업 경영 시 애로사항

- 남양주시 청년 창업자의 사업 경영과정 상 주요 애로사항은 원활하지 않은 자금 흐름, 제도적 지원 부족, 경영관리 경험 부족, 도급·위탁 기업의 불공정거래 등으로 나타남
- (거주지역별) 모든 지역에서 자금 흐름 문제가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으며, 구도심은 특히 남양주시 및 정부, 남양주시의 제도적 지원 부족에 대한 응답이 높은 편이었음
- (연령별) 자금 흐름 문제를 제외하면 18~24세는 경영관리 경험 부족과 도급·위탁 기업의 불공정거래 또는 갑질 문제, 30~34세는 정부, 남양주시의 제도적 지원 부족과 R&D 등 역량 부족, 35~39세는 판로 및 물량 문제·근로자 수급 문제·경영 관리 경험 부족 비중이 높은 편임
- (성별) 남녀 모두 자금 흐름 문제가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으며, 남성은 도급·위탁 기업의 불공정거래, 경영관리 부족을, 여성은 경영관리 부족과 제도적 지원 부족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남

- (혼인별) 미혼과 기혼 모두 자금 흐름 문제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인식하였으며, 미혼은 제도적 지원 부족과 R&D 역량 부족을, 기혼은 근로자 수급 문제를 상대적으로 크게 인식하는 경향

표 4-54 사업 경영 시 애로사항

(단위: %, 중복응답)

구분		원활하지 않은 자금 흐름	판로 및 물량 문제 (소비자 감소 포함)	R&D 역량 등 부족	근로자 수급 문제	경영 관리 경험 부족	도급·위탁 기업의 불공정거래 또는 갑질	규제 법령 및 제도	정부, 남양주시의 제도적 지원 부족
전체		55.8	17.3	9.6	17.3	23.1	21.2	17.3	26.9
거주 지역	신도심	84.6	15.4	-	15.4	30.8	15.4	15.4	-
	구도심	44.4	16.7	11.1	19.4	22.2	25.0	16.7	33.3
	기타	66.7	33.3	33.3	-	-	-	33.3	66.7
연령	18~24세	20.0	-	20.0	-	40.0	40.0	-	40.0
	25~29세	66.7	16.7	-	16.7	16.7	16.7	-	33.3
	30~34세	60.0	13.3	26.7	13.3	20.0	26.7	20.0	40.0
	35~39세	57.7	23.1	-	23.1	23.1	15.4	23.1	15.4
성별	남성	52.8	22.2	11.1	22.2	25.0	27.8	22.2	30.6
	여성	62.5	6.3	6.3	6.3	18.8	6.3	6.3	18.8
혼인	미혼	53.6	10.7	14.3	3.6	21.4	21.4	10.7	28.6
	기혼	58.3	25.0	4.2	33.3	25.0	20.8	25.0	25.0

주: 응답자 중 근로자는 총 52명임

□ 사업 경영 시 근로자 수급(직원 채용) 어려움 경험

- 남양주시 청년 창업자는 근로자 수급 어려움과 관련하여 어려움 없다는 응답이 가장 높음. 어려움을 경험한 경우에는 경력 근로자 부족, 전문기술 근로자 부족, 보수 등 근로조건 불일치가 주요 요인으로 나타나 필요한 숙련 인력 확보에 일정한 제약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 (거주지역별) 신·구도심은 어려움 없다는 응답 비중이 높은 반면 기타지역은 근로자 고령화와 경력 근로자 부족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연령별) 18~29세는 경력 근로자 부족을 중심으로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30~34세는 어려움이 없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음. 반면 35~39세는 전문기술 근로자 부족과 보수 등 근로조건 불일치 비중이 다소 높게 나타남
- (성별) 남성은 경력 근로자 부족과 전문기술 근로자 부족, 여성은 어려움 없음 외 보수 등 근로조건 불일치, 경력 근로자 부족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혼인별) 미혼은 경력 근로자 부족 비중이, 기혼은 전문기술 근로자 부족과 보수 등 근로조건 불일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4-55 사업 경영 시 근로자 수급(직원 채용) 어려움을 겪은 경험

(단위: %)

구분		전문 기술 근로자 부족	보수 등 근로조건 불일치	근로자 고령화 추세	경력 근로자 부족	기타	어려움 없음
전체		15.4	13.5	9.6	26.9	1.9	32.7
거주 지역	신도심	7.7	23.1	7.7	7.7	7.7	46.2
	구도심	19.4	11.1	8.3	30.6	-	30.6
	기타	-	-	33.3	66.7	-	-
연령	18~24세	-	-	20.0	40.0	20.0	20.0
	25~29세	16.7	-	16.7	33.3	-	33.3
	30~34세	13.3	6.7	-	20.0	-	60.0
	35~39세	19.2	23.1	11.5	26.9	-	19.2
성별	남성	19.4	11.1	8.3	30.6	-	30.6
	여성	6.3	18.8	12.5	18.8	6.3	37.5
혼인	미혼	7.1	7.1	10.7	35.7	3.6	35.7
	기혼	25.0	20.8	8.3	16.7	-	29.2

주: 응답자 중 근로자는 총 52명임

11) 공통

□ 남양주시 청년 일자리 충분도 및 취업·이직 의향

- 설문에 응답한 남양주시 청년은 전반적으로 남양주 내 청년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다(85.9%)고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양주 내 취업·이직 의향은 5점 평균 3.3점으로 나타남
- (청년 일자리 충분도) 거주지역·연령·성별·혼인여부 유형별로 구분하여도 청년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이 우세함
- (남양주시 취업·이직 의향) 집단 분류 내 상대적으로 기타지역, 35~39세, 여성, 기혼 청년의 남양주 내 취업·이직 의향이 다소 높은 편으로 나타남

표 4-56 남양주시 청년 일자리 충분도 및 취업·이직 의향

(단위: %)

구분		청년 일자리 충분도		남양주시 취업·이직 의향					
		일자리가 충분함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음	전혀 그럴 생각이 없다	별로 그럴 생각이 없다	반반이다	어느 정도 그렇생각 이다	매우 그렇생각 이다	5점 평균
전체		14.1	85.9	3.4	16.9	33.7	36.3	9.7	3.3
거주 지역	신도심	13.9	86.1	3.6	18.7	30.7	38.3	8.7	3.3
	구도심	13.6	86.4	3.7	15.8	36.5	34.6	9.4	3.3
	기타	18.5	81.5	-	17.3	25.9	40.7	16.0	3.6
연령	18~24세	13.2	86.8	1.3	17.4	41.7	34.0	5.5	3.3
	25~29세	16.0	84.0	3.1	20.3	32.0	35.2	9.4	3.3
	30~34세	11.2	88.8	4.3	17.4	34.1	33.7	10.5	3.3
	35~39세	15.9	84.1	4.8	12.4	27.5	42.2	13.1	3.5
성별	남성	14.1	85.9	3.0	16.8	36.6	35.6	7.9	3.3
	여성	14.1	85.9	3.8	17.0	30.7	37.0	11.5	3.4
혼인	미혼	15.0	85.0	3.2	17.5	35.4	34.9	9.0	3.3
	기혼	10.9	89.1	4.1	14.9	27.6	41.2	12.2	3.4

□ 남양주 내 일자리 취업(이직)을 원하지 않는 이유

- 남양주 내 일자리 취업(이직) 의향이 없거나 유보적인 청년(504명)은 임금수준 불만족이 가장 큰 사유였으며, 일자리의 질과 지역 생활여건도 주요 요인으로 나타남
 - (거주지역별) 모든 지역에서 임금수준이 가장 큰 사유였으며, 신도심은 대기업·공기업 부족, 구도심은 대기업·공기업 부족과 양질의 산업 일자리 부족, 기타지역은 문화·여가 인프라 부족 응답이 다소 높게 나타남
 - (연령별) 18~24세를 제외한 연령대에서 임금수준 불만족이 가장 큰 이유였으며, 18~24세는 대기업·공기업 부족과 문화·여가 인프라 부족이 주요 사유였음
 - (성별) 남성은 양질의 산업·일자리 부족과 워라밸 문제를, 여성은 대기업·공기업 부족과 생활여건 문제를 상대적으로 더 크게 인식
 - (혼인별) 미혼과 기혼 모두 임금수준 불만족과 대기업·공기업 부족에 대한 응답 비중이 높았으며, 기혼은 임금수준 민감도가 더 높게 나타남

표 4-57 남양주 내 일자리 취업(이직) 원하지 않는 이유

(단위: %)

구분		워라밸 충족의 어려움	임금수준 불만족 우려	문화·여가생활 등 인프라 수준에 대한 불만족	지식집약산업(4차산업), 첨단산업(6T산업) 등 양질의 일자리 부족	대기업·공기업 부족 및 중소기업 중심 산업구조	기타
전체		12.0	31.9	13.5	16.3	22.2	4.1
거주 지역	신도심	15.3	35.8	9.1	9.7	25.6	4.5
	구도심	9.7	30.1	14.9	20.4	20.7	4.3
	기타	17.1	28.6	22.9	11.4	20.0	-
연령	18~24세	12.7	19.0	19.7	17.6	28.9	2.1
	25~29세	11.3	35.2	9.9	17.6	22.5	3.5
	30~34세	11.8	33.3	13.2	16.0	20.1	5.6
	35~39세	12.5	42.0	10.7	13.4	16.1	5.4
성별	남성	14.4	33.3	12.6	20.4	17.2	2.1
	여성	9.4	30.2	14.5	11.8	27.8	6.3
혼인	미혼	11.7	30.0	14.4	17.8	22.2	3.9
	기혼	13.6	39.8	9.7	9.7	22.3	4.9

주: 청년 응답자 전체(1,000명) 중 남양주시 취업·이직 의향이 없거나 유보적인 청년은 504명임

□ 남양주 청년에게 필요한 고용 및 일자리 정책

- 남양주시 청년은 취업 기회 확대와 함께 실질적인 정보 접근성 및 구직 과정 지원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

- (거주지역별) 신·구도심 모두 일자리 매칭 수요가 가장 높았으며, 구도심·기타 지역은 기업 투자 유치 활성화에 대한 요구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 (연령별) 전 연령대에서 일자리 매칭, 일자리 정보제공, 구직 활동비에 대한 수요가 높았음
- (성별) 성별과 무관하게 일자리 매칭에 대한 수요가 높은 편이었으며, 남성은 창업가 공간 지원 및 컨설팅, 여성은 일자리 정보제공과 공공일자리 창출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았음
- (혼인별) 미혼·기혼 모두 일자리 매칭, 일자리 정보제공에 대한 수요가 가장 많았으며, 미혼은 구직활동비 지원, 기혼은 기업 투자 유치 활성화, 공공일자리 창출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4-58 남양주 청년에게 필요한 고용 및 일자리 정책

(단위: %)

구분		구직을 위한 활동비 지원	진로탐색 및 체험 프로그램	일자리 정보제공	기업투자 유치 활성화	청년 창업가 공간지원 및 컨설팅	일자리 매칭	공공 일자리 창출	일자리 박람회	기타
전체		15.1	8.8	16.7	14.6	9.0	20.5	11.7	3.4	0.2
거주 지역	신도심	16.9	8.7	16.6	13.0	6.6	23.8	10.5	3.3	0.6
	구도심	14.5	8.7	16.9	15.0	9.9	19.1	12.6	3.4	-
	기타	12.3	9.9	16.0	18.5	12.3	17.3	9.9	3.7	-
연령	18~24세	16.2	9.4	15.3	10.2	10.2	25.1	10.2	3.4	-
	25~29세	18.4	7.4	18.4	14.8	9.4	18.8	9.8	2.7	0.4
	30~34세	15.5	8.5	17.1	14.3	8.1	19.0	13.6	3.5	0.4
	35~39세	10.4	10.0	15.9	18.7	8.4	19.5	13.1	4.0	-
성별	남성	14.3	9.9	16.0	14.5	12.3	20.8	8.7	3.6	-
	여성	16.0	7.7	17.4	14.7	5.7	20.2	14.7	3.2	0.4
혼인	미혼	16.4	8.7	16.9	12.8	9.4	20.9	10.9	3.6	0.3
	기혼	10.4	9.0	15.8	20.8	7.7	19.0	14.5	2.7	-

주: 일자리 매칭은 청년과 기업을 서로 매칭해주는 사업을 의미함

□ 남양주 청년 일자리 정책의 부족한 면

○ 남양주시 현행 일자리 정책의 체감도와 실효성에 대한 개선 요구가 큰 것으로 나타남

- (거주지역별) 신도심과 기타 지역은 청년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부족 응답이, 구도심은 지원 조건의 까다로움과 지원 규모 부족 응답이 다소 높음
- (연령별) 18~29세는 정책 홍보 부족과 지원 조건의 어려움을, 30대는 청년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부족 문제를 상대적으로 더 크게 인식하는 경향
- (성별) 남성은 지원 조건의 까다로움을, 여성은 정책 홍보 부족을 상대적으로 더 크게 인식
- (혼인별) 미혼은 좋은 일자리 부족과 정책 홍보 부족을, 기혼은 지원 규모 부족 응답을 상대적으로 더 크게 인식

표 4-59 남양주 청년 일자리 정책의 부족한 면

(단위: %)

구분		정책 홍보가 부족하여, 청년 일자리 정책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	지원 조건이 까다로워, 청년과 기업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지원 규모가 크지 않아서, 정책에 참여하고픈 욕구를 느끼지 않는다	여러 정책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는 거의 없다	기타
전체		28.9	19.4	20.3	30.8	0.6
거주 지역	신도심	31.9	17.5	16.3	33.4	0.9
	구도심	27.1	20.8	22.8	28.8	0.5
	기타	29.6	17.3	18.5	34.6	-
연령	18~24세	31.9	25.1	17.4	25.1	0.4
	25~29세	28.9	21.9	21.9	26.6	0.8
	30~34세	29.1	12.8	21.7	35.7	0.8
	35~39세	25.9	18.3	19.9	35.5	0.4
성별	남성	26.5	23.0	19.2	30.9	0.4
	여성	31.3	15.8	21.4	30.7	0.8
혼인	미혼	28.2	19.9	19.6	31.5	0.8
	기혼	31.2	17.6	22.6	28.5	-

□ 남양주 일자리 환경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 남양주시 일자리 환경개선을 위해 교통·인프라 등 물류환경 개선 필요성을 가장 크게 인식하고 있으며, 전문인력 양성, 기업 투자 유치, 산업단지 조성 등에 대한 요구도 높은 편임
- (거주지역별) 모든 지역에서 교통·인프라 등 물류환경 개선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구도심과 기타 지역은 전문인력 양성과 기업 투자 유치 요구도 상대적으로 높았음
- (연령별) 18~29세는 교통·인프라 개선과 전문인력 양성 수요가 높고, 35~39세는 기업 투자 유치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더 크게 인식하고 있음
- (성별) 남녀 모두 교통·인프라 개선과 전문인력 양성을 중요 정책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남성은 산업단지 조성, 여성은 기업 투자 유치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혼인별) 교통·인프라 개선에 대한 요구와 함께 미혼은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정책 수요 응답이, 기혼은 기업 투자 유치에 대한 수요 응답이 높게 나타남

표 4-60 남양주 일자리 환경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단위: %)

구분	근로자 권리 보호	기업 투자 유치	전문인력 양성	산업단지 조성	중소기업 지원	창업 컨설팅	교통, 인프라 등 물류환경 개선	기타
전체	12.6	16.2	16.7	14.3	10.5	4.0	25.5	0.2
거주 지역	신도심	14.2	16.3	14.5	15.1	13.9	22.3	0.3
	구도심	12.1	16.4	17.2	14.0	9.2	27.1	0.2
	기타	9.9	14.8	22.2	13.6	6.2	27.2	-
연령	18~24세	14.0	13.2	20.9	15.3	6.8	26.0	-
	25~29세	12.9	12.5	17.6	14.1	9.4	29.7	-
	30~34세	13.2	15.5	13.6	16.3	12.4	24.8	0.8
	35~39세	10.4	23.5	15.1	11.6	13.1	21.5	-
성별	남성	12.1	14.7	20.0	16.0	10.3	21.8	-
	여성	13.1	17.8	13.3	12.5	10.7	29.3	0.4
혼인	미혼	12.8	14.1	18.2	15.1	9.4	26.1	0.3
	기혼	11.8	23.5	11.3	11.3	14.5	23.5	-

12) 주거

□ 가구 구성 및 주거 형태

- 남양주시 청년 가구는 가족(부모, 형제, 배우자, 자녀 등) 동거 비율(76.4%)이 높으며, 주거 형태는 아파트(62.4%) 중심으로 나타남
 - (거주지역별) 신·구도심 모두 가족 동거 비율(신 73.8%, 구 71.6%)이 높고, 아파트 거주(신 66.0%, 구 62.5%) 중심이나, 기타 지역은 상대적으로 단독주택 비중(23.5%)이 높음
 - (연령별) 18~24세는 가족 동거 비율이(90.6%) 매우 높고, 상대적으로 타 연령대는 1인가구 비중이 높고 오피스텔과 다가구주택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 (성별) 남성은 여성보다 1인 가구(24.6%)와 비가족 동거(5.0%) 비율이 높고, 여성은 가족 동거(82.4%) 및 아파트 거주 비율(66.7%)이 남성보다 높음
 - (혼인별) 미혼은 1인 가구(25.7%)와 비가족 동거(3.9%) 비중이 기혼보다 높고, 아파트 외 주거 형태도 분산되는 반면 기혼은 대부분 가족과 동거(97.3%)하며 아파트 거부 비중(78.3%)이 높음

표 4-61 가구 구성 및 주거 형태

(단위: %)

구분	가구 구성 형태				주거 형태							
	1인 가구	가족 동거	비가족 동거	기타	원룸	고사원	오피스텔	아파트	단독 주택	다가구 주택	기숙사·관사	기타
전체	20.3	76.4	3.2	0.1	9.4	0.1	3.9	62.4	9.0	13.9	1.2	0.1
거주 지역	신도심	23.2	73.8	3.0	-	10.2	0.3	5.1	66.0	6.3	11.4	0.3
	구도심	18.2	78.5	3.1	0.2	8.2	-	3.1	62.5	8.5	16.0	1.7
	기타	23.5	71.6	4.9	-	14.8	-	4.9	46.9	23.5	8.6	1.2
연령	18~24세	7.7	90.6	1.7	-	5.5	-	1.3	66.8	13.6	11.1	1.7
	25~29세	21.1	73.4	5.5	-	14.5	-	2.3	55.9	11.7	12.9	2.3
	30~34세	29.5	66.3	4.3	-	11.6	0.4	6.6	56.6	5.0	19.0	0.8
	35~39세	21.9	76.5	1.2	0.4	5.6	-	5.2	70.9	6.0	12.4	-
성별	남성	24.6	70.5	5.0	-	11.3	0.2	5.3	58.2	10.3	12.7	2.0
	여성	16.0	82.4	1.4	0.2	7.5	-	2.4	66.7	7.7	15.2	0.4
혼인	미혼	25.7	70.5	3.9	-	11.9	0.1	4.1	57.9	10.1	14.1	1.5
	기혼	1.4	97.3	0.9	0.5	0.5	-	3.2	78.3	5.0	13.1	-

주: 1) 가족은 부모, 형제, 배우자, 자녀 등을, 비가족은 친구, 연인 동료 등을 의미함

2) 다가구 주택은 빌라 등 여러 세대가 거주 가능한 주택을 의미함

□ 주거 계약 형태

- 남양주시 청년 주거 계약 형태는 자가 비율(50.3%)이 가장 높고, 보증금 있는 월세(20.0%)와 일반 전세(19.5%)가 다음 순이었음
 - (거주지역별) 신도심은 자가 비율이 47.0%로 나타났으며, 보증금 있는 월세와 일반 전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구도심은 자가 비율이 52.3%로 신도심보다 높게 나타남
 - (연령별) 18~24세는 자가 비율이 69.8%로 매우 높게 나타난 반면, 30~34세와 35~39세는 일반 전세 비율이 각각 24.8%, 29.1%로 높아 연령별 차이가 확인됨
 - (성별) 여성은 자가(52.1%)와 전세 비중이 남성보다 다소 높고, 남성은 보증금 있는 월세 및 기숙사·관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혼인별) 미혼은 자가 53.3%, 보증금 있는 월세 22.5%, 일반 전세 15.3%로 비교적 분산된 반면, 기혼은 일반 전세 34.4%, 공공주택 전세 13.6%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4-62 주거 계약 형태

(단위: %)

구분	자가	전세 (일반)	전세 (공공주택)	보증금 있는 월세	일세	무상	기숙사, 관사	기타
전체	50.3	19.5	6.6	20.2	0.2	1.4	1.3	0.5
거주 지역	신도심	47.0	20.2	9.9	21.4	-	0.9	0.6
	구도심	52.3	18.6	4.6	19.9	0.3	1.9	1.5
	기타	49.4	23.5	7.4	17.3	-	-	2.5
연령	18~24세	69.8	11.1	1.3	12.3	0.9	3.0	1.3
	25~29세	55.5	12.5	4.7	21.1	-	2.3	3.1
	30~34세	36.0	24.8	8.9	28.7	-	0.4	0.8
	35~39세	41.4	29.1	11.2	17.9	-	-	-
성별	남성	48.5	18.8	5.3	22.4	0.2	2.0	2.4
	여성	52.1	20.2	7.9	18.0	0.2	0.8	0.2
혼인	미혼	53.3	15.3	4.6	22.5	0.3	1.8	1.7
	기혼	39.8	34.4	13.6	12.2	-	-	-

□ 월 평균 주거비용

- 남양주시 청년의 월 평균 주거 비용은 전반적으로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구간의 비중 (30.6%)이 가장 높았으며, 주거비용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도 25.2%였음
- 모든 유형분류(거주지역별, 연령별, 성별, 혼인별)에서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비중이 높았음
- 특히 연령대가 낮으면(18~24세, 25~29세), 남성이면, 미혼이면 상대적으로 주거비용 없음 비중이 높아 실제 주거비 부담이 적었음

표 4-63 월 평균 주거 비용

(단위: %)

구분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없음
전체	21.0	30.6	12.7	5.5	2.7	2.3	25.2
거주 지역	신도심	23.8	33.4	9.3	5.1	3.3	2.4
	구도심	20.4	27.8	14.5	5.8	2.4	2.6
	기타	13.6	39.5	13.6	4.9	2.5	-
연령	18~24세	16.6	16.6	9.8	5.5	3.8	3.0
	25~29세	18.0	28.9	6.3	2.3	2.3	1.2
	30~34세	22.5	41.9	15.1	5.4	1.2	1.9
	35~39세	26.7	33.9	19.5	8.8	3.6	3.2
성별	남성	18.4	27.1	13.5	4.8	1.2	2.2
	여성	23.6	34.1	11.9	6.3	4.2	2.4
혼인	미혼	21.7	29.3	9.5	4.0	2.2	1.5
	기혼	18.6	35.3	24.0	10.9	4.5	5.0

주: 월평균 주거비용은 월세, 대출금 및 대출이자, 관리비 등을 포함함

□ 거주지 선택 주요 요인

- 남양주시 청년은 가격(26.9%), 교통 여건(16.0%), 거주 안정성 및 주변 치안(15.6%), 직장 접근성(14.2%)을 거주지 선택의 주요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 (거주지역별) 신·구도심과 기타 지역의 가장 중요 요인은 가격이었으며, 기타 지역은 직장 접근성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 18~24세는 교통 여건, 25~34세는 직장 접근성, 35~39세는 자녀 육아 및 양육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생애주기에 따른 주거 선택 요인 차이가 확인됨
- (성별) 남성은 교통 여건(17.2%), 직장 접근(15.6%), 편의·위락시설(9.5%)을, 여성은 거주 안정성 및 주변 치안(21.0%), 자녀 육아 및 양육(6.7%)을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
- (혼인별) 미혼은 가격 외에 교통 여건, 거주 안정성 및 주변 치안, 직장 접근을 주된 요인으로 고려하는 반면 기혼은 자녀 육아 및 양육 응답 비중이 높음

표 4-64 거주지 선택 주요 요인

(단위: %)

구분		가격 (매매, 전세, 월세 등)	교육 환경	직장 접근	자녀 육아 및 양육	거주 안정성 및 주변 치안	재테크 수단	교통 여건	편의· 위락 시설	해당 지역의 이미지	주거 형태	기타
전체		26.9	1.0	14.2	4.5	15.6	2.9	16.0	6.9	1.5	9.2	1.3
거주 지역	신도심	21.4	0.9	13.0	5.7	14.8	2.7	16.0	11.4	1.2	10.8	2.1
	구도심	30.5	1.2	13.1	4.4	15.7	2.9	16.9	5.3	1.0	8.2	0.9
	기타	23.5	-	27.2	-	18.5	3.7	9.9	-	6.2	9.9	1.2
연령	18~24세	23.4	1.3	8.9	1.3	16.6	3.8	23.4	7.2	2.6	10.6	0.9
	25~29세	29.7	-	16.0	0.8	12.9	2.7	16.4	9.0	1.2	10.2	1.2
	30~34세	26.7	0.8	16.3	3.9	16.3	2.3	14.7	7.0	1.6	8.1	2.3
	35~39세	27.5	2.0	15.1	12.0	16.7	2.8	10.0	4.4	0.8	8.0	0.8
성별	남성	27.3	0.8	15.6	2.4	10.3	4.0	17.2	9.5	2.2	10.3	0.4
	여성	26.5	1.2	12.7	6.7	21.0	1.8	14.7	4.2	0.8	8.1	2.2
혼인	미혼	25.4	0.6	14.5	0.6	16.7	3.1	18.4	8.3	1.5	9.5	1.3
	기혼	32.1	2.3	13.1	18.1	11.8	2.3	7.7	1.8	1.4	8.1	1.4

□ 거주지 만족도 및 불만족 사유

- 남양주시 청년은 전반적으로 거주지 만족도가 높은 편(만족 55.2%, 매우 만족 10.1%, 5점 평균 3.7점)이며, 불만족의 주된 이유는 교통 불편, 시설 낙후·면적 협소, 상업시설 및 문화·여가시설 부족이라고 응답함
- (거주지 만족도) 모든 유형분류(거주지역별, 연령별, 성별, 혼인별)의 만족·매우 만족 비율은 62.5%~69.4%로 만족도가 높았음(5점 평균 3.6~3.8점)

- 다만, 구도심(7.8%), 30~34세(10.5%), 미혼(7.1%)의 불만족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불만족 사유) 집단별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며, 대체로 교통 불편, 시설 여건, 생활 편의시설 부족 등이 주요 요인이었으며, 특히 신도심 거주/30대 후반/남성/기혼 청년은 상대적으로 주차시설 부족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았음

표 4-65 거주지 만족도

(단위: %)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5점 평균
전체		0.8	5.7	28.2	55.2	10.1	3.7
거주 지역	신도심	0.6	4.5	25.3	59.3	10.2	3.7
	구도심	1.0	6.8	29.6	53.0	9.5	3.6
	기타	-	2.5	29.6	54.3	13.6	3.8
연령	18~24세	-	3.0	27.7	57.9	11.5	3.8
	25~29세	-	5.9	29.3	58.2	6.6	3.7
	30~34세	2.7	7.8	27.1	51.9	10.5	3.6
	35~39세	0.4	6.0	28.7	53.0	12.0	3.7
성별	남성	0.6	5.7	28.1	56.8	8.7	3.7
	여성	1.0	5.7	28.3	53.5	11.5	3.7
혼인	미혼	0.9	6.2	27.1	56.1	9.8	3.7
	기혼	0.5	4.1	32.1	52.0	11.3	3.7

표 4-66 거주지 불만족 이유

(단위: %)

구분		시설 낙후· 면적 협소	교통 불편	비위생· 유해 환경	높은 주거비	주차시 설 부족	채광, 통풍, 소음 등 문제	불안한 치안	상업 시설 부족	문화· 여가 시설 부족	공원 녹지 부족	기타
전체		15.6	27.1	0.9	7.5	9.2	7.5	1.4	12.1	10.1	1.2	7.5
거주 지역	신도심	18.8	24.8	-	8.9	11.9	9.9	-	6.9	9.9	-	8.9
	구도심	14.5	27.7	1.4	6.8	8.2	6.4	2.3	14.5	10.5	1.8	5.9
	기타	11.5	30.8	-	7.7	7.7	7.7	-	11.5	7.7	-	15.4
연령	18~24세	15.3	34.7	1.4	5.6	4.2	6.9	-	12.5	5.6	-	13.9
	25~29세	10.0	33.3	-	6.7	10.0	10.0	1.1	15.6	10.0	1.1	2.2
	30~34세	24.7	20.6	1.0	10.3	8.2	6.2	1.0	6.2	11.3	3.1	7.2
	35~39세	11.4	21.6	1.1	6.8	13.6	6.8	3.4	14.8	12.5	-	8.0
성별	남성	14.4	23.6	0.6	7.5	10.3	9.8	1.7	14.9	7.5	1.7	8.0
	여성	16.8	30.6	1.2	7.5	8.1	5.2	1.2	9.2	12.7	0.6	6.9
혼인	미혼	15.0	26.3	0.8	8.3	8.3	8.6	1.9	12.4	9.0	1.5	7.9
	기혼	17.3	29.6	1.2	4.9	12.3	3.7	-	11.1	13.6	-	6.2

□ 독립 경험·분가 여부 및 분가 주거비용 총당 방법

- 남양주시 청년 중 부모와 분리되어 거주해 본 적이 있거나 현재 분가하여 거주하고 있는 비율은 70.6%였으며, 연령과 혼인 여부에 따라 분가·독립 및 비용 총당 양상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남
- (독립 경험·분가 여부) 전반적으로 과거 경험이 있거나, 현재 독립·분가하고 있는 비율이 높았으며, 신도심·30대·남성·기혼의 독립·분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반면 18~24세와 25~29세는 부모 지원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은 편임
 - 참고로 남양주시 청년은 주로 학업, 직장생활 시작·이직, 결혼을 계기로 독립·분가하는 경향
- (주거비용 총당 방법) 전반적으로 본인(대출 포함) 부담이 높은 편이나, 30대 미만과 미혼은 부모 지원 의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30대와 기혼 청년은 본인 부담 중심으로 비용을 총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67 독립 경험·분가 여부 및 분가 주거비용 총당 방법

(단위: %)

구분		독립 경험·분가 여부			분가 주거비용 총당 방법			
		현재 독립·분가하여 거주	과거 독립·분가 경험은 있지만, 부모님(보호자) 현재 함께 거주	부모님(보호자) 과 거주 중이며 독립·분가 경험 없음	본인 (대출 포함)	부모님 (보호자)	본인·부모님 (보호자) 함께	기타 (장학금, 국가 보조금 등)
전체		45.3	25.3	29.4	48.7	29.3	20.0	2.0
거주 지역	신도심	48.2	20.8	31.0	43.2	33.6	22.3	0.9
	구도심	42.9	27.6	29.5	52.9	25.8	18.6	2.7
	기타	50.6	27.2	22.2	41.3	36.5	20.6	1.6
연령	18~24세	11.9	26.0	62.1	12.4	62.9	20.2	4.5
	25~29세	30.9	39.8	29.3	28.7	48.1	20.4	2.8
	30~34세	57.4	24.4	18.2	60.2	20.4	18.0	1.4
	35~39세	78.9	10.8	10.4	68.4	9.3	21.3	0.9
성별	남성	47.3	27.7	25.0	43.8	33.0	20.6	2.6
	여성	43.2	22.8	33.9	54.4	25.1	19.3	1.2
혼인	미혼	31.2	31.7	37.1	39.2	39.2	19.2	2.4
	기혼	95.0	2.7	2.3	70.4	6.9	21.8	0.9

주: 독립 경험·분가 경험이 있는 응답자만 분가 주거비용 총당 방법을 응답함

표 4-68 분가 계기

(단위: %)

구분	학업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등)	취업 준비 (자격증·시험공부 등)	직장생활의 시작·이직 (직장 위치 등)	이성친구 동거	결혼	자발적 선택	부모님(보호자)과의 갈등	기타
전체	28.0	5.4	25.4	1.6	24.6	12.0	2.1	0.8
거주 지역	신도심	31.0	4.4	23.6	1.7	24.5	13.1	0.9
	구도심	26.8	5.3	25.8	1.4	24.6	12.1	1.0
	기타	25.4	9.5	28.6	1.6	25.4	7.9	-
연령	18~24세	73.0	4.5	12.4	-	-	10.1	-
	25~29세	42.0	7.7	30.4	-	2.2	13.3	1.1
	30~34세	18.5	7.6	31.3	3.3	22.3	13.7	0.9
	35~39세	8.0	1.8	20.9	1.8	54.7	10.2	0.9
성별	남성	28.2	6.3	28.5	1.6	20.3	12.1	0.8
	여성	27.8	4.3	21.7	1.5	29.7	11.9	0.9
혼인	미혼	37.6	7.3	33.5	1.6	1.0	14.9	1.2
	기혼	6.5	0.9	6.9	1.4	78.2	5.6	-

□ 경제적 독립 여부 및 독립하지 않은 사유

- 경제적 독립의 경우, 74.9%가 경제적으로 독립하였다고 응답함. 단, 저연령층과 미혼층은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주된 이유는 경제적 부담이었음
 - (경제적 독립 여부) 신도심, 30대, 기혼에서 경제적 독립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반면 18~24세, 미혼은 경제적 자립 수준이 낮은 편임
 - (부모님과 독립하지 않은 이유) 전반적으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경제적 독립이 어려웠으며, 기타 지역과 기혼은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응답도 높았음
 - (향후 독립 계획) 독립할 계획이 있다는 응답이 높았으나, 다른 유형에 비해 기혼 청년은 독립계획이 없다는 응답 비중(40.0%)이 높게 나타남

표 4-69 경제적 독립 여부 및 독립하지 않은 사유

(단위: %)

구분		경제적 독립 여부		부모님(보호자)과 독립하지 않은 이유					향후 독립 계획	
		예	아니오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경제적 부담 때문에	부모님 (보호자)과 사는게 좋아서	부모 (보호자) 반대	기타	예	아니오
전체		74.9	25.1	24.5	48.0	14.6	10.9	2.0	78.6	21.4
거주 지역	신도심	78.6	21.4	24.3	55.3	11.7	6.8	1.9	87.4	12.6
	구도심	73.9	26.1	23.7	45.7	16.2	12.1	2.3	71.7	28.3
	기타	68.3	31.7	33.3	27.8	16.7	22.2	-	94.4	5.6
연령	18~24세	30.3	69.7	25.3	38.4	19.2	17.1	-	81.5	18.5
	25~29세	70.2	29.8	24.0	54.7	13.3	6.7	1.3	80.0	20.0
	30~34세	81.0	19.0	23.4	59.6	6.4	2.1	8.5	70.2	29.8
	35~39세	90.7	9.3	23.1	61.5	7.7	3.8	3.8	73.1	26.9
성별	남성	74.7	25.3	23.0	48.4	15.1	12.7	0.8	82.5	17.5
	여성	75.2	24.8	25.6	47.6	14.3	9.5	3.0	75.6	24.4
혼인	미혼	67.3	32.7	23.9	48.1	14.9	11.1	2.1	78.9	21.1
	기혼	92.1	7.9	60.0	40.0	-	-	-	60.0	40.0

주: 경제적 독립 여부는 부모·가족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전혀 받지 않고 모든 경제권을 본인이 스스로 해결하는 것을 의미함

□ 청년 주거 관련 우선 정책

- 남양주시 청년이 우선적으로 원하는 주거 정책은 청년주택 공급(40.1%)와 주거비용 지원(26.1%)임
 - (거주지역별) 구도심은 주거비용 지원, 기타 지역은 주거 정보제공 수요가 다소 높게 나타남
 - (연령별) 18~24세는 주거 정보제공이, 30대는 주거비용 지원 수요가 높게 나타남
 - (성별) 남성은 주거 정보제공, 여성은 임차인 권리 보호 및 상담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혼인별) 기혼은 주거비용 지원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보다 직접적인 주거비 부담 완화 필요성이 확인됨

표 4-70 청년 주거 관련 우선 정책

(단위: %)

구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위한 청년주택 공급	범죄예방환경설계(안전가로등, 우범지역 골목길 도색 등)	주거 정보제공	임차인 권리 보호 및 상담	대출 등 주거비용 지원	기타
전체		40.1	9.4	14.3	9.7	26.1	0.4
거주 지역	신도심	41.9	7.8	13.9	11.1	24.4	0.9
	구도심	38.3	10.2	13.3	9.9	28.1	0.2
	기타	45.7	9.9	23.5	2.5	18.5	-
연령	18~24세	40.4	11.9	19.1	6.0	22.6	-
	25~29세	43.4	10.5	10.5	10.2	25.4	-
	30~34세	41.1	8.5	10.9	10.9	27.5	1.2
	35~39세	35.5	6.8	17.1	11.6	28.7	0.4
성별	남성	38.6	9.7	18.6	8.1	25.0	-
	여성	41.6	9.1	9.9	11.3	27.3	0.8
혼인	미혼	41.2	9.8	14.1	9.4	25.0	0.5
	기혼	36.2	8.1	14.9	10.9	29.9	-

13) 참여·권리

□ 청년 참여활동 관련 주요 어려움

- 남양주시 청년이 정책 결정 및 입법 과정 등 청년 참여활동에서 가장 크게 느끼는 어려움은 청년 공간·인프라 부족(17.7%), 취업 준비 등 심리적 압박(13.3%), 비용 부담(12.8%) 순임. 따라서 청년 활동 기반 확충 필요성이 확인됨
- (거주지역별) 신도심은 청년 공간·인프라 부족(18.7%) 응답이 높았으며, 구도심은 비용 부담(13.1%)과 교통 불편(10.6%) 문제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기타 지역은 애로사항 없음(27.2%) 비율이 높았으나 교통 불편(12.3%) 문제도 함께 제기됨
- (연령별) 18~24세는 청년 공간·인프라 부족(20.9%)과 심리적 압박(14.0%)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30~34세는 시간 부족(13.2%)과 참여자 감소(10.1%)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35~39세는 비용 부담(13.1%)과 참여 기반 부족 문제를 동시에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성별) 남성은 비용 부담(15.8%)과 시간 부족(11.3%) 응답이 여성보다 높았으며, 여성은 심리적 압박(14.7%)과 청년 공간·인프라 부족(18.0%)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혼인별) 미혼 청년은 청년 공간·인프라 부족(18.2%)과 심리적 압박(14.1%) 응답이 높았으며, 기혼 청년은 시간 부족(13.6%)과 비용 부담(13.3%) 문제를 상대적으로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71 청년 참여활동 관련 주요 어려움

(단위: %)

구분		청년공간·인프라 부족	취업 준비 등 심리적 압박	비용 부담	애로사항 없음	시간 부족	교통 불편
전체		17.7	13.3	12.8	12.2	10.4	10.1
거주 지역	신도심	18.7	14.2	13.6	6.9	11.4	8.7
	구도심	17.4	12.8	13.1	13.1	10.2	10.6
	기타	16	13.6	7.4	27.2	7.4	12.3
연령	18~24세	20.9	14	13.2	14.9	7.7	11.9
	25~29세	19.1	14.1	12.5	12.1	8.6	12.1
	30~34세	16.3	14	12.4	9.3	13.2	7.8
	35~39세	14.7	11.2	13.1	12.7	12	8.8
성별	남성	17.4	11.9	15.8	12.5	11.3	11.1
	여성	18	14.7	9.7	11.9	9.5	9.1
혼인	미혼	15.4	10.9	11.3	10.9	13.6	10
	기혼	18.2	11.8	10.1	9.8	11.1	7.7

□ 청년교류 활성화 필요 분야

- 남양주시 청년은 청년교류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분야로 ‘일자리’(37.5%)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 다음으로 미래산업(19.8%), 청년권리 등 단체 활동(11.3%), 친목 및 정보공유(9.1%) 순으로 나타남
 - (거주지역별) 신도심과 구도심 모두 일자리 분야 수요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 지역은 미래산업 분야(28.4%)와 문화예술·스포츠 분야(14.8%)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연령별) 18~24세는 청년권리 등 단체 활동(13.6%)과 친목·정보공유(13.0%)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30대는 미래산업 분야 수요가 높게 나타나 진로·산업 연계 관심이 큰 것으로 확인됨
 - (성별) 남성은 미래산업(23.4%)과 청년권리 활동(15.4%) 수요가 높았으며, 여성은 일자리 분야(46.5%)와 문화·친목 중심 교류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혼인별) 미혼 청년은 일자리(36.5%)와 미래산업(19.0%) 중심 수요가 높았으며, 기혼 청년은 일자리(40.3%)와 청년권리 활동(12.5%)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4-72 청년교류 활성화 필요 분야

(단위: %)

구분	일자리	미래산업 (6차·첨단 산업 등)	청년권리 등 단체 활동	친목 및 정보공유	문화예술 ·스포츠	지역역량 강화	평생교육	관광	기타 분야
전체	37.5	19.8	11.3	9.1	8.5	4.7	4.1	2.2	2.8
거주 지역	신도심	37	15.7	9.6	11.7	9.3	5.7	4.8	3.6
	구도심	38.3	21	12.3	8	7.2	4.6	4.1	2.2
	기타	33.3	28.4	11.1	6.2	14.8	1.2	1.2	2.9
연령	18~24세	37.9	17.9	13.6	6.8	8.1	5.5	4.7	2.6
	25~29세	32.8	23	12.9	10.2	8.6	4.3	3.5	1.6
	30~34세	38.8	16.3	10.5	10.9	12.4	4.3	3.1	1.2
	35~39세	40.6	21.9	8.4	8.4	4.8	4.8	5.2	3.6
성별	남성	35.2	23.4	15.4	9.7	7.7	5.7	3.8	2.6
	여성	39.7	16.2	7.1	8.5	9.3	3.6	4.4	1.8
혼인	미혼	37.7	20.6	18.4	7.6	4.9	2.7	4.5	1.8
	기혼	40.7	18.9	8.1	8.1	8.8	6.7	4.4	1.7

□ 청년 의견 대변을 위한 필요 조직·통로

- 남양주시 청년은 청년들의 의견을 대변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조직 및 통로로 ‘남양주시 청년 종합 플랫폼(온라인)’(21.8%)과 ‘남양주시 청년 소셜미디어(SNS)’(20.4%)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 이어 청년관련 전담부서(13.1%), 청년정책 네트워크(11.9%) 순으로 나타남. 따라서 청년 친화적 디지털 소통체계 구축 필요성이 확인됨
- (거주지역별) 신도심은 청년 종합 플랫폼(23.5%)과 SNS(19.6%) 수요가 높았으며, 구도심 역시 온라인 플랫폼(21.1%)과 SNS(21.0%) 중심 수요가 높게 나타남. 기타 지역은 청년 플랫폼과 SNS 외에도 청년정책 네트워크 및 오프라인 공간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연령별) 18~24세는 SNS(24.3%)와 청년정책 위원회(8.1%) 수요가 높게 나타났으며, 35~39세는 청년 종합 플랫폼(26.7%)과 전담부서(13.5%)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타남
- (성별) 남성은 청년정책 네트워크(16.2%)와 오프라인 공간(10.3%) 수요가 높았으며, 여성은 청년 플랫폼(25.1%)과 SNS(24.6%)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혼인별) 미혼 청년은 SNS(20.4%)와 청년정책 네트워크(12.2%)에 대한 선호가 높았으며, 기혼 청년은 청년 종합 플랫폼(28.5%)과 전담부서(12.2%)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4-73 청년의견 대변을 위한 필요 조직·통로

(단위: %)

구분		청년 종합 플랫폼 (온라인)	청년 소셜미디 어(SNS)	청년관련 전담부서	청년정책 네트워크	청년 오프라인 공간	홈페이지	정책 위원회	간담회· 공청회	기타 조직· 통로
전체		21.8	20.4	13.1	11.9	9.1	7	6.8	4.8	5.1
거주 지역	신도심	23.5	19.6	12.7	10.8	9.6	6.9	5.4	5.1	6.3
	구도심	21.1	21	13.5	12.4	8.7	7.2	7.3	4.9	3.8
	기타	19.8	19.8	12.3	12.3	9.9	6.2	8.6	2.5	8.6
연령	18~24세	18.3	24.3	11.5	13.2	9.4	5.1	8.1	4.7	6.9
	25~29세	17.6	23	13.3	10.2	9	6.6	10.2	5.9	4.5
	30~34세	24.4	17.4	14	12.8	10.5	6.6	3.5	5.8	5.8
	35~39세	26.7	17.1	13.5	11.6	7.6	9.6	5.6	2.8	5.2
성별	남성	18.6	16.2	13.9	16.2	10.3	6.7	6.5	5.5	5.9
	여성	25.1	24.6	12.3	7.5	7.9	7.3	7.1	4	4.3
혼인	미혼	20.2	20.4	13.4	12.2	10.2	6.3	7.3	5.1	5.3
	기혼	28.5	19.5	12.2	11.3	5.4	9.5	5.4	3.6	4.5

□ 청년대상 공간 이용 경험

- 남양주시 청년의 대다수는 청년대상 공간을 이용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83.9%), 이용 경험이 있는 공간으로는 남양주시청년창업센터(청년꽃간)(10.5%), 우리동네 청년꽃간(7.2%) 순으로 조사됨. 따라서 청년공간 인지도 제고 및 접근성 강화 필요성이 확인됨
- (거주지역별) 신도심과 구도심 모두 ‘이용 경험 없음’ 비율이 8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 지역은 미이용 비율이 91.4%로 특히 높게 나타남. 반면 구도심은 청년창업센터(12.4%) 이용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연령별) 18~24세와 25~29세는 청년창업센터 이용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30대 후반으로 갈수록 공간 이용 경험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성별) 남성은 청년창업센터 이용 경험(11.3%)이 여성(9.7%)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은 우리동네 청년꽃간 이용 경험(7.7%)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혼인별) 미혼 청년은 청년공간 이용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기혼 청년은 ‘이용 경험 없음’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4-74 청년대상 공간 이용 경험

(단위: %, 중복응답)

구분		이용경험 없음	청년창업센터(청년 꽃간)	우리동네 청년꽃간	기타
전체		83.9	10.5	7.2	0.2
거주 지역	신도심	85.5	8.1	7.2	0.3
	구도심	81.9	12.4	7.8	0.2
	기타	91.4	6.2	2.5	-
연령	18~24세	81.7	12.8	7.7	0.4
	25~29세	82	12.5	7.8	0.4
	30~34세	85.7	8.9	6.6	-
	35~39세	86.1	8	6.8	0.4
성별	남성	83.4	11.3	6.7	0.4
	여성	84.4	9.7	7.7	-
혼인	미혼	85.2	9	9	-
	기혼	82.9	11.2	7.6	0.3

14) 교육·훈련

□ 취업 준비를 위한 활동 경험

- 남양주시 청년은 취업 준비를 위해 ‘자격증 취득 및 교육’(62.4%)을 가장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인턴·현장실습(25.9%), 어학 관련 교육 및 시험(24.9%), 직무적성검사 준비 및 교육(24.6%) 순으로 조사됨
- (거주지역별) 신도심과 구도심 모두 자격증 취득 및 교육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 지역은 직무적성검사 준비 및 직업훈련 경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연령별) 18~24세는 공모전·대외활동 및 어학 관련 준비 비율이 높았고, 25~34세는 인턴·현장실습과 직무적성검사 준비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35~39세는 자격증 취득 중심의 준비 경향이 강하게 나타남
- (성별) 남성은 직무적성검사 준비(25.9%)와 직업훈련(19.4%) 비율이 높았으며, 여성은 어학 관련 교육 및 시험(30.7%)과 인턴·현장실습(26.9%) 경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혼인별) 미혼 청년은 어학 준비 및 직무적성검사 준비 비율이 높았으며, 기혼 청년은 자격증 취득 및 직업훈련 중심의 취업 준비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4-75 취업 준비를 위한 활동 경험

(단위: %, 중복응답)

구분	자격증 취득· 교육	인턴·현 장실습	어학교육 ·시험	직무적성 검사 준비	직업훈련	취업 컨설팅	공모전· 대외활동	취업 동아리	기타활동
전체	62.4	25.9	24.9	24.6	19.1	18.9	14.6	13.3	16.6
거주 지역	신도심	64.5	25	30.7	25.3	17.8	21.4	16.6	11.1
	구도심	63.5	25.9	21.8	23.7	19.3	17.7	14	13.1
	기타	45.7	29.6	23.5	28.4	23.5	17.3	11.1	23.5
연령	18~24세	57.9	19.1	21.3	16.2	9.8	15.3	14.5	13.6
	25~29세	65.2	33.2	27	25	18.8	17.6	16.8	13.3
	30~34세	63.6	27.1	27.1	27.9	22.9	19.4	15.1	15.1
	35~39세	62.5	23.5	23.9	28.7	24.3	23.1	12	11.2
성별	남성	63.2	25	19.2	25.9	19.4	19.8	11.9	15
	여성	61.6	26.9	30.7	23.2	18.8	18	17.4	11.5
혼인	미혼	61	20.6	24.7	16.1	9	14.8	19.7	16.6
	기혼	62	27	24.9	23.8	17.6	17.8	14.8	13.8

□ 취업 준비 기간

- 남양주시 청년의 취업 준비 기간은 ‘6개월 미만’(30.5%)과 ‘6개월 이상~1년 미만’(29.9%)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1년 이상~2년 미만’(26.1%) 응답도 높게 나타남. 반면 3년 이상 장기 준비 비율은 5.0%로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됨
- 전반적으로 청년들의 취업 준비 기간은 1년 미만 단기 집중형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나, 약 40% 이상은 1년 이상 장기 준비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거주지역별) 신도심과 구도심 모두 6개월 미만 및 6개월~1년 미만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 지역은 ‘1년 이상~2년 미만’ 비율(34.6%)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연령별) 18~24세는 ‘6개월 미만’(52.8%)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난 반면, 30대는 ‘1년 이상~2년 미만’ 및 ‘2년 이상’ 장기 준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성별) 남성은 1년 이상 장기 준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여성은 ‘6개월 미만’(36.0%)과 ‘6개월~1년 미만’(25.3%) 중심의 단기 준비 비율이 높게 나타남
- (혼인별) 미혼 청년은 단기 취업 준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기혼 청년은 ‘1년 이상~2년 미만’ 및 ‘2년 이상’ 장기 준비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남

표 4-76 취업 준비 기간

(단위: %)

구분		6개월 미만	6개월~1년 미만	1~2년 미만	2~3년 미만	3년 이상
전체		62.4	25.9	24.9	24.6	19.1
거주 지역	신도심	64.5	25	30.7	25.3	17.8
	구도심	63.5	25.9	21.8	23.7	19.3
	기타	45.7	29.6	23.5	28.4	23.5
연령	18~24세	57.9	19.1	21.3	16.2	9.8
	25~29세	65.2	33.2	27	25	18.8
	30~34세	63.6	27.1	27.1	27.9	22.9
	35~39세	62.5	23.5	23.9	28.7	24.3
성별	남성	63.2	25	19.2	25.9	19.4
	여성	61.6	26.9	30.7	23.2	18.8
혼인	미혼	61	20.6	24.7	16.1	9
	기혼	62	27	24.9	23.8	17.6

□ 취업 관련 정보 및 교육 획득 경로

- 남양주시 청년은 취업 관련 정보 및 교육을 얻는 주요 경로로 '인터넷(취업사이트·카페 등)'(52.3%)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친구·선후배 등 지인(40.7%), 교수님·학과사무실(22.9%), 학교 취업정보실(21.3%) 순으로 나타남. 즉 온라인 기반 취업정보 탐색 비율 및 주변 인적 네트워크와 학교 기반 정보 채널 활용이 높은 것으로 확인됨
- (거주지역별) 신도심은 인터넷 활용 비율(59.9%)이 특히 높게 나타났으며, 구도심은 친구·선후배 등 지인 활용 비율(43.3%)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기타 지역은 교수님·학과사무실(35.8%), 학원(32.1%) 활용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연령별) 18~24세는 인터넷(70.0%), 학교 취업정보실(22.0%), 교수님·학과사무실(17.0%) 등 학교 기반 경로 활용이 높게 나타났으며, 25~29세는 친구·선후배 등 지인(43.4%) 활용 비율이 높게 나타남. 30~39세는 인터넷과 현장실습·인턴십 중심의 실무형 정보 획득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성별) 남성은 친구·선후배 등 지인(45.5%), 직업·취업 박람회(22.8%) 활용 비율이 높았으며, 여성은 인터넷(59.4%), 학교 취업정보실(24.4%), 현장실습·인턴십(23.2%) 활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혼인별) 미혼 청년은 인터넷(50.0%)과 친구·선후배 등 지인(41.8%) 활용 비율이 높았으며, 기혼 청년은 인터넷(60.8%) 활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또한 기혼 청년은 공공취업알선 기관과 학원 활용 비율도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4-77 취업 관련 정보 및 교육 획득 경로

(단위: %, 중복응답)

구분		인터넷 (취업사 이트· 카페 등)	친구· 선후배 등 지인	교수님 ·학과 사무실	학교 취업 정보실	현장 실습· 인턴십	학원	공공취 업알선 기관	취업 박람회	부모· 친척	사설 취업알 선기관	생활 정보지	기타
전체		52.3	40.7	22.9	21.3	20.4	19.4	19.3	18.8	14.6	10.2	7.6	1.8
거주 지역	신도심	59.9	35.5	20.8	20.2	16	9.9	25.9	23.2	12	11.4	9.6	1.5
	구도심	49.7	43.3	22.3	21.6	22.5	23	15	15.7	15.2	9.7	6.5	1.7
	기타	39.5	43.2	35.8	23.5	23.5	32.1	23.5	23.5	21	8.6	7.4	3.7
연령	18~24세	70	34	17	22	16	6	27	24	12	10	11	2
	25~29세	45.5	43.4	28.5	22.6	20	17.4	13.2	12.8	16.6	5.1	6.4	3.4
	30~34세	50	41.8	23.4	25	23.4	24.6	20.7	15.2	19.1	14.5	9.4	1.2
	35~39세	56.2	41.1	19.4	16.7	18.2	20.9	21.7	23.3	10.1	10.5	6.6	1.2
성별	남성	45.3	45.5	23.8	24.4	23.2	22.6	19.4	22.8	19.4	13.1	9.9	2
	여성	59.4	35.8	22	18.2	17.6	16.2	19.2	14.7	9.7	7.3	5.3	1.6
혼인	미혼	50	41.8	25	22.1	21.5	20.7	19.4	17.8	15.8	10.3	7	2.1
	기혼	60.8	37.6	13.5	14.9	12.2	16.2	17.6	18.9	10.8	12.2	8.1	0.9

□ 취업 관련 정보·교육 중 가장 도움이 된 경로

- 남양주시 청년은 취업 관련 정보 및 교육 중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경로로 '인터넷(취업사이트·카페 등)'(32.9%)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 다음으로 친구·선후배 등 지인(15.7%), 교수님·학과사무실(8.6%), 현장실습·인턴십(7.9%), 공공취업알선기관(7.0%) 순으로 나타남
- (거주지역별) 신도심은 인터넷 활용 만족도(38.0%)가 특히 높게 나타났으며, 구도심은 친구·선후배 등 지인(17.0%) 활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기타 지역은 교수님·학과사무실(14.8%), 공공취업알선기관(13.6%)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연령별) 18~24세는 인터넷(48.0%) 의존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교수님·학과사무실(5.0%)과 학교 취업정보실(5.0%) 등 학교 기반 채널 활용도 함께 나타남. 반면 30~39세는 인터넷 외에도 친구·선후배, 현장실습·인턴십 등 실무 경험 기반 경로 활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성별) 남성은 친구·선후배 등 지인(17.4%), 직업·취업 박람회(7.9%)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은 인터넷(42.2%) 활용 비율이 높고 현장실습·인턴십(7.3%) 및 교수님·학과사무실(8.5%) 활용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혼인별) 미혼 청년은 인터넷(30.1%)과 친구·선후배 등 지인(16.0%) 활용 비율이 높았으며, 기혼 청년은 인터넷(44.6%) 활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또한 기혼 청년은 공공취업알선기관 및 취업박람회 활용 비율도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4-78 취업 관련 정보·교육 중 가장 도움이 된 경로

(단위: %)

구분	인터넷(취 업사이트· 카페 등)	친구· 선후배 등 지인	교수님 ·학과 사무실	학교 취업 정보실	현장 실습· 인턴십	학원	공공취 업알선 기관	취업 박람회	부모· 친척	사설 취업선 기관	생활 정보지
전체	32.9	15.7	8.6	7.9	7	6.4	6.2	5.6	3.9	2.9	1.7
거주 지역	신도심	38	12.7	7.5	6	9.3	8.1	6.6	3.6	3.3	1.8
	구도심	32.2	17	8.3	9.7	4.8	5.6	6.1	6.5	3.6	3.6
	기타	17.3	18.5	14.8	2.5	13.6	4.9	4.9	7.4	8.6	2.5
연령	18~24세	48	7	5	6	10	8	5	3	5	-
	25~29세	26.8	17	13.2	8.1	5.5	6.4	8.1	3.8	5.5	1.7
	30~34세	25.8	17.2	10.9	9	7.4	4.7	7	5.9	5.5	3.9
	35~39세	40.3	14.7	4.7	6.6	8.5	6.2	3.5	7.8	1.6	4.3
성별	남성	23.8	17.4	8.7	8.5	7.1	7.9	8.3	5.9	5	3.8
	여성	42.2	13.9	8.5	7.3	6.9	4.8	4	5.3	2.8	2
혼인	미혼	30.1	16	9.9	8.5	6.9	6.4	6.6	5.6	3.6	3
	기혼	44.6	13.5	4.1	4.1	8.1	4.1	4.1	5.4	4	4.1

□ 청년 진로·적성 파악을 위해 필요한 지원

- 남양주시 청년은 진로·적성 파악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다양한 진로체험을 위한 인턴십'(28.7%)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 이어 다양한 분야의 무료 강의 및 교육프로그램(19.9%), 진로 상담 및 정보취득을 위한 멘토(19.8%), 적성파악을 위한 상담 및 심리검사(12.8%) 순으로 나타남
- (거주지역별) 신도심과 구도심 모두 '진로체험형 인턴십' 수요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 지역은 진로 상담 및 멘토(25.9%)와 무료 교육프로그램(21.0%)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연령별) 18~24세는 진로체험형 인턴십(32.3%)과 진로탐방·견학(12.3%) 수요가 높게 나타났으며, 25~29세는 진로 상담 및 멘토(23.8%)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30~39세는 인턴십 및 무료 교육프로그램 중심의 실질적 진로지원 요구가 높게 나타남
- (성별) 남성은 진로탐방·견학(13.3%) 및 진로 분야별 소모임 활동(10.1%) 수요가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은 인턴십(33.7%)과 무료 교육프로그램(21.2%)에 대한 선호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혼인별) 미혼 청년은 인턴십(28.9%)과 진로 상담·멘토(19.9%) 수요가 높게 나타났으며, 기혼 청년은 무료 교육프로그램(23.1%) 및 적성검사·심리상담(13.6%)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4-79 청년 진로·적성 파악을 위해 필요한 지원

(단위: %)

구분	진로체험형 인턴십	무료 강의·교육 프로그램	진로상담· 멘토	적성검사· 심리상담	진로탐방· 견학	소모임· 동아리 활동	기타
전체	28.7	19.9	19.8	12.8	9.8	8.5	0.5
거주 지역	신도심	28.9	18.4	22	14.2	10.5	0.6
	구도심	29.3	20.6	17.7	12.1	10.4	0.5
	기타	23.5	21	25.9	12.3	2.5	14.8
연령	18~24세	32.3	17.4	17.4	9.4	12.3	10.6
	25~29세	24.2	20.3	23.8	14.8	10.2	5.5
	30~34세	29.1	19.8	17.8	14.7	9.7	8.5
	35~39세	29.5	21.9	19.9	12	7.2	9.6
성별	남성	23.8	18.6	20.6	13.5	13.3	10.1
	여성	33.7	21.2	19	12.1	6.3	6.9
혼인	미혼	28.9	18.9	19.9	12.5	10.4	8.7
	기혼	28.1	23.1	19.5	13.6	7.7	8.1

□ 청년이 희망하는 교육·훈련 분야(1+2순위)

- 남양주시 청년은 희망하는 교육·훈련 분야로 ‘취업준비를 위한 비용 지원’(50.6%)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 다음으로 특정 직종과 관련된 직업훈련(43.9%), 교육상담서비스(36.3%), 어학교육(22.8%), 창업교육(16.0%) 순으로 나타남. 전반적으로 청년들은 직접적인 취업 비용 지원과 실무 중심 직업훈련을 가장 필요로 하고 있었으며,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 및 면접 대비 등 취업 컨설팅 수요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거주지역별) 신도심과 구도심 모두 취업준비 비용 지원 수요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구도심은 특정 직종 직업훈련(45.1%)과 교육상담서비스(37.5%) 수요도 높게 조사됨. 기타 지역은 ‘모두 필요없음’ 응답(24.7%)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연령별) 18~24세는 비용 지원(59.1%)과 교육상담서비스(42.6%) 수요가 높게 나타났으며, 25~29세는 어학교육(25.0%)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됨. 30~39세는 직업훈련과 비용 지원 중심의 실질적 취업지원 요구가 높게 나타남
- (성별) 남성은 특정 직종 직업훈련(42.8%)과 창업교육(19.0%)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은 교육상담서비스(38.0%)와 어학교육(28.7%)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혼인별) 미혼 청년은 비용 지원(51.4%)과 교육상담서비스(36.7%) 수요가 높게 나타났으며, 기혼 청년은 특정 직종 직업훈련(46.6%)과 창업교육(24.0%)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4-80 청년이 희망하는 교육·훈련 분야

(단위: %, 중복응답)

구분		취업준비 비용지원	특정 직종 직업훈련	교육상담 서비스	어학교육	창업교육	모두 필요 없음	기타
전체		50.6	43.9	36.3	22.8	16	10.7	0.2
거주 지역	신도심	42.2	42.2	36.7	26.8	15.4	12	0.6
	구도심	56	45.1	37.5	21.6	16.2	8	-
	기타	45.7	42	25.9	14.8	17.3	24.7	-
연령	18~24세	59.1	40.9	42.6	30.6	9.8	4.3	-
	25~29세	48	43	37.5	25	13.3	12.1	0.4
	30~34세	51.6	45.3	34.5	16.7	15.5	13.2	-
	35~39세	44.2	46.2	31.1	19.5	25.1	12.7	-
성별	남성	50.5	42.8	34.7	17	19	12.3	0.1
	여성	50.7	45.1	38	28.7	12.9	9.1	0.3
혼인	미혼	51.4	43.2	36.7	23.3	13.5	11.1	0.1
	기혼	47.5	46.6	34.8	22.2	24	9	0.5

□ 청년 능력개발(교육) 분야의 가장 큰 문제

○ 남양주시 청년은 청년 능력개발(교육) 분야에서 가장 큰 문제로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음’(21.8%)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 다음으로 ‘생활권 인근에서 원하는 분야의 교육을 받기 어려움’(20.7%), ‘교육내용이 취업현장에 바로 접목되지 않음’(15.9%), ‘원하는 수준의 교육을 받기 어려움’(15.5%) 순으로 나타남. 즉 청년들은 취업시장과 교육 간의 연계 부족, 지역 내 교육 접근성 한계 등을 주요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교육의 실효성과 지역 기반 교육 인프라 부족 문제가 동시에 나타남

- (거주지역별) 신도심은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음’(24.1%)과 ‘교육내용의 현장 적용 한계’(18.4%)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구도심은 생활권 인근 교육 접근 문제(22.1%)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기타 지역은 원하는 수준의 교육을 받기 어렵다는 응답(24.7%) 비율이 높게 조사됨

- (연령별) 18~24세는 졸업 후 취업 문제(29.8%)와 생활권 인근 교육 접근 어려움(13.6%)을 크게 인식하였으며, 25~29세는 생활권 인근 교육 접근 문제(22.3%)와 교육비 부담(12.1%) 응답이 높게 나타남. 30~39세는 취업 연계성과 지역 교육환경 문제를 동시에 경험하는 것으로 확인됨

- (성별) 남성은 생활권 인근 교육 접근 문제(18.4%)와 교육내용의 현장 적용 한계(15.6%)를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였으며, 여성은 졸업 후 취업 문제(23.0%)와 생활권 인근 교육 접근 문제(23.0%)를 보다 크게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남

- (혼인별) 미혼 청년은 졸업 후 취업 문제(22.5%)와 생활권 인근 교육 접근 문제(20.1%)를 주요 문제로 응답하였으며, 기혼 청년은 생활권 인근 교육 접근 문제(22.2%)와 교육 이외 주거·부대비용 부담(17.2%) 문제를 상대적으로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81 청년 능력개발(교육) 분야의 가장 큰 문제

(단위: %)

구분	졸업 후 취업 어려움	생활권 내 원하는 분야 교육 부족	교육내용 현장 활용 한계	원하는 수준 교육 부족	주거·부대비 용 부담	교육비 부담	기타
전체	21.8	20.7	15.9	15.5	13	11.9	1.2
거주 지역	신도심	24.1	18.4	18.4	13.9	11.7	0.9
	구도심	20.4	22.1	16	15.2	13.8	1
	기타	22.2	19.8	4.9	24.7	12.3	3.7
연령	18~24세	29.8	13.6	12.8	17.4	8.9	17.4
	25~29세	22.3	22.3	16.4	13.3	12.9	12.1
	30~34세	17.1	23.6	17.1	15.1	14.3	10.5
	35~39세	18.7	22.7	17.1	16.3	15.5	8
성별	남성	20.6	18.4	15.6	17.8	14.3	12.9
	여성	23	23	16.2	13.1	11.7	10.9
혼인	미혼	22.5	20.1	16.3	15.5	11.8	12.5
	기혼	17.6	22.2	14	15.8	17.2	9.5

15) 생활여건

□ 경제적 이유로 공교육비를 납부하지 못한 경험

- 남양주시 청년의 3.3%는 지난 1년간 경제적 이유로 공교육비(대학등록금 포함)를 한 달 이상 납부하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70.7%는 해당 경험이 없다고 응답함. 반면 비해당 응답은 26.0%로 나타남. 즉 공교육비 미납 경험 비율은 높지 않았으나, 일부 취약계층에서는 경제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 (거주지역별) 신도심은 공교육비 미납 경험 비율(4.5%)이 구도심(2.9%)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1.2%)을 보임

- (연령별) 30~34세(3.9%)와 35~39세(3.6%)에서 공교육비 미납 경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18~24세는 비해당 응답(40.0%) 비율이 높게 조사됨

- (성별) 여성(4.2%)이 남성(2.4%)보다 공교육비 미납 경험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남성은 '없다' 응답 비율(77.6%)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혼인별) 기혼 청년은 공교육비 미납 경험 비율(5.0%)이 미혼(2.6%)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미혼 청년은 '없다' 응답 비율(73.0%)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4-82 경제적 이유로 공교육비를 납부하지 못한 경험

(단위: %)

구분		있다	없다	비해당
전체		3.3	70.7	26
거주 지역	신도심	4.5	64.5	31
	구도심	2.9	74.3	22.8
	기타	1.2	70.4	28.4
연령	18~24세	2.6	83	14.5
	25~29세	3.1	73.8	23
	30~34세	3.9	67.4	28.7
	35~39세	3.6	59.4	37.1
성별	남성	2.4	77.6	20
	여성	4.2	63.6	32.1
혼인	미혼	2.6	73	24.3
	기혼	5	64.3	30.8

□ 경제적 이유로 병원에 가지 못한 경험

- 남양주시 청년의 5.3%는 지난 1년간 경제적 이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병원에 가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85.4%는 해당 경험이 없다고 응답함. 비해당 응답은 9.3%로 나타남
- (거주지역별) 신도심(6.0%)이 구도심(4.9%)보다 병원 이용 제약 경험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4.9%)을 보임
- (연령별) 30~34세(6.2%)와 35~39세(6.4%)에서 병원 이용 제약 경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18~24세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3.4%)으로 조사됨
- (성별) 여성(7.1%)이 남성(3.6%)보다 경제적 이유로 병원을 가지 못한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남성은 ‘없다’ 응답 비율(89.9%)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혼인별) 기혼 청년은 병원 이용 제약 경험 비율(5.4%)이 미혼(5.1%)보다 소폭 높게 나타났으며, 미혼과 기혼 모두 ‘없다’ 응답 비율이 80% 이상으로 나타남

표 4-83 경제적 이유로 병원에 가지 못한 경험

(단위: %)

구분		있다	없다	비해당
전체		5.3	85.4	9.3
거주 지역	신도심	6	85.5	8.4
	구도심	4.9	84.7	10.4
	기타	4.9	90.1	4.9
연령	18~24세	3.4	87.7	8.9
	25~29세	5.1	87.5	7.4
	30~34세	6.2	83.7	10.1
	35~39세	6.4	82.9	10.8
성별	남성	3.6	89.9	6.5
	여성	7.1	80.8	12.1
혼인	미혼	5.1	86.1	8.9
	기혼	5.4	84.6	10

□ 신용유의자 발생 경험

- 남양주시 청년의 6.6%는 지난 1년간 본인 또는 가족 중 신용유의자(금융채무불이행자, 신용 불량자)가 있었다고 응답하였으며, 81.8%는 해당 경험이 없다고 응답함. 비해당 응답은 11.6%로 나타남
- (거주지역별) 신도심(6.6%)과 구도심(6.8%)의 신용유의자 발생 경험 비율은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기타 지역은 4.9%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연령별) 35~39세(10.0%)와 30~34세(8.1%)에서 신용유의자 발생 경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금융 부담 경험이 커지는 경향이 확인됨
- (성별) 여성(9.1%)이 남성(4.2%)보다 신용유의자 발생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남성은 '없다' 응답 비율(87.7%)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혼인별) 기혼 청년의 신용유의자 발생 경험 비율(9.5%)이 미혼 청년(5.9%)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기혼 청년은 금융채무 관련 부담을 상대적으로 더 크게 경험하는 것으로 보임

표 4-84 신용유의자 발생 경험

(단위: %)

구분		있다	없다	비해당
전체		6.6	81.8	11.6
거주 지역	신도심	6.6	83.4	9.9
	구도심	6.8	79.6	13.6
	기타	4.9	91.4	3.7
연령	18~24세	4.7	84.7	10.6
	25~29세	3.5	83.2	13.3
	30~34세	8.1	81	10.9
	35~39세	10	78.5	11.6
성별	남성	4.2	87.7	8.1
	여성	9.1	75.8	15.2
혼인	미혼	5.9	82.6	11.6
	기혼	9.5	79.6	10.9

□ 경제적 이유로 임대료·대출금·관리비 등을 납부하지 못한 경험

- 남양주시 청년의 7.2%는 지난 1년간 경제적 이유로 임대료, 대출금, 관리비 등을 납부하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79.3%는 해당 경험이 없다고 응답함. 비해당 응답은 13.5%로 나타남. 전반적으로 주거 및 생활 유지 비용 부담으로 인해 일부 청년층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거주지역별) 신도심(8.1%)이 구도심(6.5%)보다 비용 미납 경험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 지역은 8.6%로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됨
- (연령별) 30~34세(10.9%)와 35~39세(8.0%)에서 비용 미납 경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18~24세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3.8%)으로 조사됨
- (성별) 여성(10.1%)이 남성(4.4%)보다 비용 미납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남성은 '없다' 응답 비율(83.0%)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혼인별) 기혼 청년의 비용 미납 경험 비율(10.4%)이 미혼 청년(6.1%)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기혼 청년은 주거 및 생활비 부담을 상대적으로 크게 경험하는 것으로 보임

표 4-85 경제적 이유로 임대료·대출금·관리비 등을 납부하지 못한 경험

(단위: %)

구분		있다	없다	비해당
전체		7.2	79.3	13.5
거주 지역	신도심	8.1	77.1	14.8
	구도심	6.5	79.4	14.1
	기타	8.6	87.7	3.7
연령	18~24세	3.8	77.4	18.7
	25~29세	5.9	76.6	17.6
	30~34세	10.9	80.6	8.5
	35~39세	8	82.5	9.6
성별	남성	4.4	83	12.7
	여성	10.1	75.6	14.3
혼인	미혼	6.1	78.5	15.4
	기혼	10.4	82.8	6.8

□ 경제적 이유로 냉·난방을 유지하지 못한 경험

- 남양주시 청년의 5.0%는 지난 1년간 경제적 이유로 집의 냉·난방을 유지하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83.5%는 해당 경험이 없다고 응답함. 비해당 응답은 11.5%로 나타남
- (거주지역별) 신도심(6.0%)이 구도심(4.6%)보다 냉·난방 유지 어려움 경험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3.7%)으로 조사됨
- (연령별) 35~39세(7.2%)와 30~34세(5.8%)에서 냉·난방 유지 어려움 경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18~24세는 가장 낮은 수준(3.0%)으로 나타남
- (성별) 여성(6.3%)이 남성(3.8%)보다 냉·난방 유지 어려움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남성은 '없다' 응답 비율(86.9%)이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됨
- (혼인별) 기혼 청년의 냉·난방 유지 어려움 경험 비율(7.2%)이 미혼 청년(4.4%)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기혼 청년은 주거·생활 유지 비용 부담을 상대적으로 크게 경험하는 것으로 보임

표 4-86 경제적 이유로 냉·난방을 유지하지 못한 경험

(단위: %)

구분		있다	없다	비해당
전체		5	83.5	11.5
거주 지역	신도심	6	78.6	15.4
	구도심	4.6	84.8	10.6
	기타	3.7	93.8	2.5
연령	18~24세	3	82.6	14.5
	25~29세	3.9	84	12.1
	30~34세	5.8	84.1	10.1
	35~39세	7.2	83.3	9.6
성별	남성	3.8	86.9	9.3
	여성	6.3	80	13.7
혼인	미혼	4.4	83.3	12.2
	기혼	7.2	85.1	7.7

□ 생활비 부족 시 대응 방식(1순위)

○ 남양주시 청년은 생활비가 부족할 경우 ‘부모에게 빌리거나 무상으로 지원받음’(30.4%)을 가장 우선적인 대응 방식으로 선택하였으며, 다음으로는 ‘저축·예금·적금 해약’(21.5%), ‘기타’(13.2%), ‘제1금융권 대출 이용’(12.3%) 순으로 나타남. 전반적으로 가족 의존 방식과 개인 자산 활용이 주요 대응 방식으로 나타났으며, 일부는 금융권 대출이나 지인 차입 등을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됨

- (거주지역별) 신도심은 ‘기타 방식’(22.0%)과 ‘저축 해약’(25.3%)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구도심은 ‘부모 지원’(33.7%) 의존도가 높게 나타남

- (연령별) 18~24세는 부모 지원(54.9%)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난 반면, 35~39세는 저축 해약(33.1%)과 금융권 대출(19.9%)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산 활용 및 금융 의존 경향이 증가하는 모습이 확인됨

- (성별) 남성은 부모 지원(32.9%)과 제1금융권 대출(14.9%) 비율이 높았고, 여성은 저축 해약(28.3%)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혼인별) 미혼 청년은 부모 지원(36.1%) 중심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 기혼 청년은 저축 해약(33.9%)과 금융권 대출(21.3%) 활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4-87 생활비 부족시 대응 방식(1순위)

(단위: %)

구분		부모 지원	저축 해약	제1금융권 대출	친구·이웃 차입	해결 못함	기타
전체		30.4	21.5	12.3	6.5	3	13.2
거주 지역	신도심	25	25.3	9.6	5.4	1.2	22
	구도심	33.7	20.6	13.8	6.1	3.7	7.7
	기타	28.4	12.3	12.3	13.6	4.9	17.3
연령	18~24세	54.9	10.6	4.7	6	3.4	13.6
	25~29세	36.3	18	7	7.8	4.3	13.3
	30~34세	19.4	23.6	17.1	8.9	3.5	10.5
	35~39세	12.7	33.1	19.9	3.2	0.8	15.5
성별	남성	32.9	14.9	14.9	8.1	3.4	11.3
	여성	27.9	28.3	9.7	4.8	2.6	15.2
혼인	미혼	36.1	17.7	9.6	6.8	3.5	13.7
	기혼	11.3	33.9	21.3	5.4	0.9	12.2

□ 생활비 부담 항목(1순위)

- 남양주시 청년이 지난 1년간 가장 부담을 느낀 생활비 항목은 ‘식비’(18.6%)와 ‘주거비(월세·관리비 등)’(18.2%)로 나타났으며, 이어 ‘사교육비·자기계발비’(10.0%), ‘교통비’(8.6%), ‘각종 빚의 원리금 상환’(8.4%) 순으로 조사됨. 즉 청년층은 기본 생계와 주거 유지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자기계발 및 금융부채 관련 부담도 상당 수준 확인됨
- (거주지역별) 신도심은 식비(21.1%)와 주거비(20.8%) 부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구도심은 사교육·자기계발비(11.2%)와 교통비(9.4%) 부담이 다소 높게 나타남
- (연령별) 18~24세는 식비 부담(27.7%)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30대는 주거비와 채무상환 부담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특히 35~39세는 주거비(25.9%)와 채무상환(15.1%) 부담 비율이 높게 조사됨
- (성별) 남성은 주거비(19.4%), 채무상환(7.7%), 교통비(9.1%) 부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은 식비(20.4%) 부담이 가장 높게 조사됨
- (혼인별) 미혼 청년은 식비(20.4%)와 사교육·자기계발비(10.9%)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기혼 청년은 주거비(27.1%)와 채무상환(20.4%) 부담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남

표 4-88 가장 부담되는 생활비 항목(1순위)

(단위: %)

구분		식비	주거비	사교육·자기 개발비	교통비	채무상환	부담 없음
전체		18.6	18.2	10	8.6	8.4	9.8
거주 지역	신도심	21.1	20.8	7.5	6.9	7.8	9.6
	구도심	17.2	17.2	11.2	9.4	8.7	9.7
	기타	18.5	14.8	11.1	9.9	8.6	11.1
연령	18~24세	27.7	7.2	12.3	11.5	1.7	13.2
	25~29세	18.8	14.5	14.5	11.3	3.9	12.9
	30~34세	15.1	24.4	7.4	6.2	12.4	5.8
	35~39세	13.5	25.9	6	5.6	15.1	7.6
성별	남성	16.8	19.4	11.7	9.1	7.7	9.1
	여성	20.4	17	8.3	8.1	9.1	10.5
혼인	미혼	20.4	15.6	10.9	10.5	4.8	11.1
	기혼	12.2	27.1	6.3	2.3	20.4	5.4

□ 삶의 만족도

- 남양주시 청년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는 ‘만족한다’(50.9%)와 ‘매우 만족한다’(5.5%)를 합한 긍정 응답(TOP2)이 56.4%로 나타났으며, 평균 점수는 5점 만점 기준 3.5점으로 조사됨. 반면 부정 응답(BOT2)은 9.8% 수준으로 비교적 낮게 나타남. 따라서 남양주시 청년의 삶의 만족도는 보통 이상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경제·고용·건강 상태에 따라 만족도 격차가 확인됨
- (거주지역별) 신도심 청년의 만족도(TOP2)는 57.5%로 구도심(55.7%)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 점수 역시 신도심 3.5점, 구도심 3.5점 수준으로 유사함
- (연령별) 18~24세의 만족도(TOP2)는 57.4%였으며, 35~39세는 60.2%로 가장 높게 나타남. 반면 30~34세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53.5%)을 보임
- (성별) 여성의 만족도(TOP2)는 52.5%로 남성(60.2%)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불만족 응답(BOT2)은 여성(11.1%)이 남성(8.5%)보다 높게 조사됨
- (혼인별) 기혼 청년의 만족도(TOP2)는 61.1%로 미혼 청년(55.3%)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기혼 청년의 평균 만족도 역시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됨(3.6점)

표 4-89 삶의 만족도

(단위: %, 점)

구분		불만족(BOT2)	보통	만족(TOP2)	평균(5점)
전체		9.8	33.8	56.4	3.5
거주 지역	신도심	9.9	32.5	57.5	3.5
	구도심	9.5	34.8	55.7	3.5
	기타	11.1	32.1	56.8	3.6
연령	18~24세	8.9	33.6	57.4	3.6
	25~29세	10.2	35.2	54.7	3.5
	30~34세	10.5	36	53.5	3.4
	35~39세	9.6	30.3	60.2	3.6
성별	남성	8.5	31.3	60.2	3.6
	여성	11.1	36.4	52.5	3.5
혼인	미혼	10.4	34.2	55.3	3.5
	기혼	7.2	31.7	61.1	3.6

16) 남양주시 정책평가

□ 현재 포기하고 있거나 향후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는 사항

- 남양주시 청년이 현재 포기하고 있거나 향후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는 사항으로는 ‘내 집 마련’(35.2%)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결혼’(20.7%), ‘출산’(19.2%), ‘연애’(12.1%), ‘취업’(8.9%) 순으로 조사됨. 반면 ‘없음’ 응답은 39.8%로 나타남
- (거주지역별) 구도심 청년은 내 집 마련(38.0%) 포기 비율이 신도심(31.0%)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신도심은 출산 포기(22.3%)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됨
- (연령별) 30~34세는 내 집 마련 포기 비율이 43.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5~39세 역시 27.1%로 높은 수준을 보임. 반면 18~24세는 연애(17.4%)와 취업(13.2%) 포기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됨
- (성별) 여성은 출산 포기(28.5%), 결혼 포기(22.2%), 대인관계 포기(8.1%) 비율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남성은 연애 포기(11.7%)와 취업 포기(10.1%)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됨
- (혼인별) 미혼 청년은 결혼(25.9%), 연애(14.3%), 취업(10.0%) 포기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기혼 청년은 내 집 마련(25.8%)과 출산(31.1%) 부담이 주요하게 나타남

표 4-90 현재 포기하고 있거나 향후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는 사항

(단위: %)

구분		내 집 마련	결혼	출산	연애	취업	없음
전체		35.2	20.7	19.2	12.1	8.9	39.8
거주 지역	신도심	31	19.9	22.3	12	6.6	40.1
	구도심	38	22	18.9	11.6	9.7	38.3
	기타	32.1	14.8	8.6	16	12.3	49.4
연령	18~24세	31.9	21.3	16.2	17.4	13.2	40.9
	25~29세	37.5	24.2	17.2	12.5	10.9	38.3
	30~34세	43.8	22.1	20.9	11.2	6.6	34.1
	35~39세	27.1	15.1	22.3	7.6	5.2	46.2
성별	남성	32.7	19.2	10.1	11.7	10.1	46.1
	여성	37.8	22.2	28.5	12.5	7.7	33.3
혼인	미혼	37.8	25.9	19.5	14.3	10	38
	기혼	25.8	0.9	16.7	4.1	5.4	46.6

□ 남양주시 청년들이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문제

- 남양주시 청년이 인식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청년 일자리 부족’(40.8%)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주거 빈곤’(14.8%), ‘청년 정신건강’(12.6%), ‘청년 부채 관리’(9.9%) 순으로 조사됨
- (거주지역별) 신도심은 청년 일자리 부족(44.0%)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구도심은 주거 빈곤(16.9%)과 정신건강 문제(13.3%) 응답 비율이 다소 높게 조사됨
- (연령별) 18~24세는 청년 일자리 부족(45.1%) 인식이 가장 높았고, 30~34세는 주거 빈곤(19.4%) 문제를 상대적으로 심각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남
- (성별) 여성은 주거 빈곤(18.3%)과 정신건강 문제(12.3%)에 대한 인식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남성은 청년 일자리 부족(36.8%)과 부당한 근로여건(9.3%) 문제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됨
- (혼인별) 미혼 청년은 청년 일자리 부족(40.9%)과 정신건강 문제(12.9%)를 주요 문제로 인식한 반면, 기혼 청년은 주거 빈곤(19.0%)과 청년 부채 관리(12.2%)에 대한 문제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4-91 남양주시 청년들이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문제

(단위: %)

구분		청년 일자리 부족	주거 빈곤	청년 정신건강	청년 부채 관리	문화 빈곤
전체		40.8	14.8	12.6	9.9	7.7
거주 지역	신도심	44	12.7	10.5	8.4	8.1
	구도심	39.4	16.9	13.3	10.7	7
	기타	38.3	8.6	16	9.9	11.1
연령	18~24세	45.1	10.6	13.2	6	6.8
	25~29세	42.6	11.7	13.3	11.7	9
	30~34세	35.3	19.4	12	12	8.5
	35~39세	40.6	17.1	12	9.6	6.4
성별	남성	36.8	15.8	12.9	10.7	7.5
	여성	44.8	13.7	12.3	9.1	7.9
혼인	미혼	40.9	13.6	13	9.2	8.2
	기혼	40.3	19	11.3	12.2	5.9

□ 현재 청년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

○ 남양주시 청년이 현재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생활비 등 돈 마련’(21.3%)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취업’(18.7%), ‘주거비용 조달’(16.4%), ‘각종 차별(외모·학력·성별 등)’(8.2%), ‘출산·육아’(7.0%) 순으로 조사됨. 따라서 청년층은 경제적 부담과 고용 불안정 문제를 가장 크게 체감하고 있었으며, 주거비 부담 또한 주요 어려움으로 나타남

- (거주지역별) 구도심 청년은 생활비 부담(22.5%)과 주거비용 조달(17.0%) 문제를 상대적으로 크게 느끼는 반면, 신도심은 취업(19.9%)과 기타 경제적 부담(13.3%) 응답 비율이 다소 높게 조사됨

- (연령별) 18~24세는 취업 문제(29.8%)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인식하였으며, 30~34세와 35~39세는 생활비 부담(각 25.2%, 25.1%)과 주거비용 조달(21.3%, 21.5%) 어려움이 크게 나타남

- (성별) 남성은 생활비 마련(15.8%)보다 취업(17.4%)과 차별 문제(10.7%)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은 생활비 마련(26.9%)과 주거비용 조달(15.8%) 부담이 더 크게 조사됨

- (혼인별) 미혼 청년은 취업(22.8%)과 생활비 마련(19.0%) 어려움을 주로 호소한 반면, 기혼 청년은 생활비 마련(29.4%)과 주거비용 조달(22.2%) 부담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남

표 4-92 현재 청년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

(단위: %)

구분		생활비 마련	취업	주거비용 조달	차별 경험	출산·육아
전체		21.3	18.7	16.4	8.2	7
거주지역	신도심	19.9	19.9	14.8	4.8	6.6
	구도심	22.5	18.2	17	9.7	7.3
	기타	18.5	17.3	18.5	11.1	6.2
연령	18~24세	19.1	29.8	7.7	14.5	0.9
	25~29세	15.6	29.7	14.5	8.6	2.7
	30~34세	25.2	10.9	21.3	6.2	9.3
	35~39세	25.1	5.2	21.5	4	14.7
성별	남성	15.8	17.4	17	10.7	5.3
	여성	26.9	20	15.8	5.7	8.7
혼인	미혼	19	22.8	14.8	9.2	1.5
	기혼	29.4	4.1	22.2	4.5	26.2

□ 남양주시 청년문제 중요도 인식(생활지원 분야: 여가/건강/결혼/출산/경제)

- 남양주시 청년들은 생활지원 분야를 매우 중요한 정책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중요하다(어느 정도 중요하다+매우 중요하다)’는 응답은 83.0%, 5점 평균은 4.1점으로 조사됨. 세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중요하다’ 54.0%, ‘매우 중요하다’ 29.0%로 나타나, 청년층 전반에서 생활지원 정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높은 수준으로 확인됨
- (거주지역별) 기타 권역은 중요도 TOP2 비율이 92.6%로 가장 높았으며, 신도심(86.1%)이 구도심(79.9%)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연령별) 전 연령층에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35~39세는 ‘매우 중요하다’ 응답이 30.3%로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됨. 반면 18~24세는 ‘보통이다’ 응답(18.7%)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남
- (성별) 여성은 ‘매우 중요하다’ 응답 비율이 36.2%로 남성(22.0%)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생활지원 정책에 대한 체감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조사됨
- (혼인별) 기혼 청년의 중요도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TOP2 비율은 90.0%, 5점 평균은 4.3점으로 조사됨. 특히 ‘매우 중요하다’ 응답은 35.7%로 미혼(27.1%)보다 높게 나타남

표 4-93 남양주시 청년문제 중요도 인식(생활지원 분야)

(단위: %)

구분		전혀+별로 중요하지 않다(BOT2)	보통	중요하다(TOP2)	5점 평균
전체		1.8	15.2	83	4.1
거주 지역	신도심	0.6	13.3	86.1	4.1
	구도심	2.6	17.5	79.9	4
	기타	1.2	6.2	92.6	4.3
연령	18~24세	2.1	18.7	79.1	4
	25~29세	1.2	16	82.8	4.1
	30~34세	1.9	15.1	82.9	4.2
	35~39세	2	11.2	86.9	4.1
성별	남성	2.4	16	81.6	4
	여성	1.2	14.3	84.4	4.2
혼인	미혼	2.1	16.8	81	4.1
	기혼	1.4	9.5	90	4.3

□ 남양주시 청년문제 중요도 인식(일자리 분야)

- 남양주시 청년들은 일자리 문제를 가장 중요한 정책 영역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중요하다(어느 정도 중요하다+매우 중요하다)’는 응답은 90.7%, 5점 평균은 4.5점으로 매우 높게 조사됨. 세부적으로는 ‘매우 중요하다’ 응답이 59.4%로 과반 이상을 차지하여, 청년층이 일자리 문제를 매우 핵심적인 정책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거주지역별) 신도심의 중요도(TOP2)는 94.0%로 구도심(88.8%)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 지역 역시 91.4%로 높은 수준을 보임
- (연령별) 전 연령층에서 중요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30~34세는 TOP2 92.2%, 평균 4.6점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됨. 18~24세 역시 TOP2 88.5%로 높은 수준을 유지함
- (성별) 여성의 중요도(TOP2)는 92.9%로 남성(88.5%)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매우 중요하다’ 응답도 여성(62.4%)이 남성(56.4%)보다 높게 조사됨
- (혼인별) 미혼과 기혼 모두 높은 중요도를 보였으며, 기혼 청년은 TOP2 91.0%, 평균 4.5점으로 나타남

표 4-94 남양주시 청년문제 중요도 인식(일자리 분야)

(단위: %)

구분		전혀+별로 중요하지 않다(BOT2)	보통	중요하다(TOP2)	5점 평균
전체		0.8	8.5	90.7	4.5
거주 지역	신도심	0.6	5.4	94	4.5
	구도심	0.7	10.6	88.8	4.5
	기타	2.5	6.2	91.4	4.6
연령	18~24세	0.8	10.6	88.5	4.5
	25~29세	1.2	8.6	90.6	4.4
	30~34세	0.8	6.6	92.2	4.6
	35~39세	0.8	8.4	91.2	4.5
성별	남성	1.2	10.3	88.5	4.4
	여성	0.4	6.7	92.9	4.5
혼인	미혼	1.5	8.5	90	4.5
	기혼	0.5	8.6	91	4.5

□ 남양주시 청년문제 중요도 인식(주거 분야)

- 남양주시 청년들은 주거 문제 역시 매우 중요한 청년정책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중요하다(어느 정도 중요하다+매우 중요하다)’는 응답은 88.7%, 5점 평균은 4.3점으로 조사됨. 세부적으로는 ‘매우 중요하다’ 응답이 46.0%, ‘어느 정도 중요하다’ 응답이 42.7%로 나타나, 청년층 다수가 주거 안정 문제를 핵심 현안으로 인식하고 있음이 확인됨
- (거주지역별) 신도심의 중요도(TOP2)는 91.0%로 구도심(87.2%)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 지역도 90.1%로 높은 수준을 보임
- (연령별) 30~34세의 중요도(TOP2)는 92.2%, 평균 4.5점으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18~24세는 TOP2 86.4%, 35~39세는 89.6%로 나타남
- (성별) 여성의 중요도(TOP2)는 90.9%로 남성(86.5%)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매우 중요하다’ 응답 역시 여성(48.7%)이 남성(43.4%)보다 높게 조사됨
- (혼인별) 기혼 청년의 중요도(TOP2)는 92.8%로 미혼(87.5%)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 점수 역시 기혼(4.5점)이 미혼(4.3점)보다 높게 조사됨

표 4-95 남양주시 청년문제 중요도 인식(주거 분야)

(단위: %)

구분		전혀+별로 중요하지 않다(BOT2)	보통	중요하다(TOP2)	5점 평균
전체		0.3	11	88.7	4.3
거주 지역	신도심	-	9	91	4.4
	구도심	0.5	12.3	87.2	4.3
	기타	0	9.9	90.1	4.3
연령	18~24세	0.4	13.6	86.4	4.3
	25~29세	0.2	12.9	86.3	4.3
	30~34세	0.4	7.4	92.2	4.5
	35~39세	0.2	10.4	89.6	4.4
성별	남성	0.5	13.3	86.5	4.3
	여성	0.2	8.7	90.9	4.4
혼인	미혼	0.3	12.2	87.5	4.3
	기혼	1	6.8	92.8	4.5

□ 남양주시 청년문제 중요도 인식(참여 및 권리 분야)

- 남양주시 청년들은 참여 및 권리 분야 역시 중요한 청년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중요하다(어느 정도 중요하다+매우 중요하다)’는 응답은 64.9%, 5점 평균은 3.8점으로 조사됨. 세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중요하다’ 45.1%, ‘매우 중요하다’ 19.8%로 나타났으며, ‘보통이다’는 29.0%로 조사됨. 반면 ‘중요하지 않다(BOT2)’는 6.1%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임
- (거주지역별) 신도심의 중요도(TOP2)는 70.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구도심은 62.5%, 기타 지역은 59.3%로 조사됨. 특히 와부읍(81.8%), 조안면(92.9%) 등 일부 지역에서는 중요도 인식이 매우 높게 나타남
- (연령별) 18~24세의 중요도(TOP2)는 71.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5~29세 61.7%, 30~34세 62.8%, 35~39세 64.5%로 조사됨. 상대적으로 청년 초기 연령층에서 참여·권리 문제에 대한 중요도 인식이 높게 나타남
- (성별) 여성의 중요도(TOP2)는 67.7%로 남성(62.2%)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은 ‘매우 중요하다’ 응답도 23.0%로 남성(16.6%)보다 높게 조사됨
- (혼인별) 미혼 청년의 중요도(TOP2)는 65.6%로 기혼(62.4%)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 점수 역시 미혼 3.8점, 기혼 3.7점으로 유사한 수준을 보임

표 4-96 남양주시 청년문제 중요도 인식(참여 및 권리 분야)

(단위: %)

구분		전혀+별로 중요하지 않다(BOT2)	보통	중요하다(TOP2)	5점 평균
전체		6.1	29	64.9	3.8
거주 지역	신도심	3.3	26.2	70.5	3.9
	구도심	7.3	30.2	62.5	3.7
	기타	8.6	32.1	59.3	3.7
연령	18~24세	5.5	23.4	71.1	3.9
	25~29세	8.2	30.1	61.7	3.8
	30~34세	5	32.2	62.8	3.8
	35~39세	5.6	29.9	64.5	3.7
성별	남성	8.7	29.1	62.2	3.7
	여성	3.4	28.9	67.7	3.9
혼인	미혼	6.3	28.1	65.6	3.8
	기혼	5.4	32.1	62.4	3.7

□ 남양주시 청년문제 중요도 인식(능력개발(교육) 분야)

○ 남양주시 청년들은 능력개발(교육) 분야를 매우 중요한 청년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중요하다(어느 정도 중요하다+매우 중요하다)’는 응답은 72.2%, 5점 평균은 3.9점으로 조사됨. 세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중요하다’ 50.5%, ‘매우 중요하다’ 21.7%로 나타났으며, ‘보통이다’는 24.3%로 조사됨. 반면 ‘중요하지 않다(BOT2)’는 3.5%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임

- (거주지역별) 신도심의 중요도(TOP2)는 75.9%로 구도심(70.9%)과 기타 지역(66.7%)보다 높게 나타남. 특히 와부읍(87.0%), 진접읍(83.2%), 금곡동(87.8%) 등에서 중요도 인식이 높게 조사됨

- (연령별) 18~24세의 중요도(TOP2)는 80.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5~29세 69.5%, 30~34세 69.4%, 35~39세 69.7%로 조사됨. 상대적으로 청년 초기 연령층에서 교육 및 능력개발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남

- (성별) 여성의 중요도(TOP2)는 74.1%로 남성(70.3%)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의 5점 평균도 4.0점으로 남성(3.8점)보다 다소 높게 조사됨

- (혼인별) 미혼 청년의 중요도(TOP2)는 72.8%로 기혼(71.0%)보다 소폭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 점수는 모두 3.9점 수준으로 유사함

표 4-97 남양주시 청년문제 중요도 인식(능력개발(교육) 분야)

(단위: %)

구분		전혀+별로 중요하지 않다(BOT2)	보통	중요하다(TOP2)	5점 평균
전체		3.5	24.3	72.2	3.9
거주 지역	신도심	2.4	21.7	75.9	3.9
	구도심	4.3	24.9	70.9	3.9
	기타	2.5	30.9	66.7	3.9
연령	18~24세	2.6	16.6	80.9	4
	25~29세	6.3	24.2	69.5	3.8
	30~34세	2.7	27.9	69.4	3.9
	35~39세	2.4	27.9	69.7	3.9
성별	남성	4.8	25	70.3	3.8
	여성	2.2	23.6	74.1	4
혼인	미혼	3.9	23.4	72.8	3.9
	기혼	3.8	26.7	71	3.9

□ 남양주시 청년지원사업 인지도

- 남양주시 청년지원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지원사업 몇 개 정도만 아는 수준’이라는 응답이 절반 이상(52.1%)을 차지함. 전체적으로 ‘전혀 알지 못한다(관심도 없다)’는 응답은 30.4%, ‘지원사업 몇 개 정도만 아는 수준이다’ 52.1%,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 16.5%, ‘전반적으로 자세히 알고 있다’는 응답은 1.0%에 그침
- (거주지역별) 신도심은 ‘지원사업 몇 개 정도만 안다’는 응답이 55.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구도심은 ‘전혀 알지 못한다’는 응답이 31.0%로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됨. 기타 지역은 ‘대략적으로 알고 있다’ 비율이 22.2%로 다른 권역 대비 높게 나타남
- (연령별) 18~24세는 ‘몇 개 정도만 안다’는 응답이 51.9%, ‘대략적으로 알고 있다’는 응답이 14.5%로 나타났으며, 25~29세에서는 ‘몇 개 정도만 안다’는 응답이 60.5%로 가장 높게 조사됨. 반면 35~39세는 ‘전혀 알지 못한다’는 응답이 35.5%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성별) 여성은 ‘대략적으로 알고 있다’(17.1%)와 ‘전반적으로 자세히 알고 있다’(1.2%) 응답 비율이 남성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정책 인지 수준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 (혼인별) 미혼 청년은 ‘전혀 알지 못한다’는 응답이 28.1%로 기혼(36.7%)보다 낮았으며, ‘대략적으로 알고 있다’ 비율은 미혼 17.1%, 기혼 14.9%로 나타남

표 4-98 남양주시 청년지원사업 인지도

(단위: %)

구분		전혀 알지 못함	몇 개 정도만 알	대략적으로 알	자세히 알
전체		30.4	52.1	16.5	1
거주 지역	신도심	30.7	55.1	13	1.2
	구도심	31	50.4	17.7	0.9
	기타	24.7	51.9	22.2	1.2
연령	18~24세	33.6	51.9	14.5	-
	25~29세	20.3	60.5	17.2	2
	30~34세	32.6	50	15.9	1.6
	35~39세	35.5	45.8	18.3	0.4
성별	남성	29.3	52.3	17.6	1
	여성	31.5	51.9	15.4	1.2
혼인	미혼	28.1	53.6	17.1	1.2
	기혼	36.7	48	14.9	0.5

□ 남양주시 청년지원사업 참여 경험

- 최근 1~2년 내 남양주시 청년지원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년은 21.3%로 나타났으며, 전체의 78.7%는 참여 경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됨. 따라서 청년지원사업 참여 경험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일부 연령 및 직업군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참여율이 확인됨
- (거주지역별) 신도심의 참여 경험 비율은 23.5%로 구도심(20.3%) 및 기타 지역(19.8%)보다 높게 나타남. 세부 지역에서는 금곡동(39.0%), 수동면(40.0%), 별내동(32.0%) 등의 참여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됨
- (연령별) 25~29세의 참여 경험 비율은 33.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8~24세는 20.0%, 30~34세는 19.8%, 35~39세는 11.6%로 조사됨. 상대적으로 청년 중기 연령층의 정책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성별) 여성의 참여 경험 비율은 22.4%로 남성(20.2%)보다 소폭 높게 조사됨
- (혼인별) 미혼 청년의 참여 경험 비율은 23.8%로 기혼(13.1%)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기혼 청년은 정책 참여 경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임

표 4-99 남양주시 청년지원사업 참여 경험

(단위: %)

구분		예	아니오
전체		21.3	78.7
거주 지역	신도심	23.5	76.5
	구도심	20.3	79.7
	기타	19.8	80.2
연령	18~24세	20	80
	25~29세	33.6	66.4
	30~34세	19.8	80.2
	35~39세	11.6	88.4
성별	남성	20.2	79.8
	여성	22.4	77.6
혼인	미혼	23.8	76.2
	기혼	13.1	86.9

□ 남양주시 청년지원사업 만족도

- 최근 1~2년 내 남양주시 청년지원사업을 경험한 청년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한다’(61.0%)와 ‘매우 만족한다’(4.2%)를 포함한 긍정 응답은 65.3%로 나타났으며, 평균 점수는 5점 만점 기준 3.7점으로 조사됨. 반면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2.8%에 그침
- (거주지역별) 신도심의 긍정 응답 비율(TOP2)은 65.4%, 구도심은 64.7%, 기타 지역은 68.8%로 나타나 지역 간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됨. 세부 지역에서는 진건읍(100.0%), 조안면(100.0%), 금곡동(93.8%) 등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 (연령별) 25~29세의 긍정 응답 비율은 70.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8~24세는 70.2%, 30~34세는 58.8%, 35~39세는 51.7%로 조사됨. 상대적으로 20대 후반 청년층의 만족도가 높은 경향을 보임
- (성별) 남성의 긍정 응답 비율은 73.5%로 여성(57.7%)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 점수 또한 남성(3.7점)이 여성(3.6점)보다 다소 높게 조사됨
- (혼인별) 미혼 청년의 긍정 응답 비율은 65.0%로 기혼(58.3%)보다 높게 나타남

표 4-100 남양주시 청년지원사업 만족도

(단위: %)

구분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긍정(TOP2)	평균
전체		2.8	31.9	61	4.2	65.3	3.7
거주 지역	신도심	3.8	30.8	64.1	1.3	65.4	3.6
	구도심	2.5	32.8	58	6.7	64.7	3.7
	기타	-	31.3	68.8	-	68.8	3.7
연령	18~24세	3.4	29.8	70.2	-	70.2	3.7
	25~29세	2.3	25.6	67.4	3.5	70.9	3.7
	30~34세	3.8	37.3	49	9.8	58.8	3.6
	35~39세	2	44.8	48.3	3.4	51.7	3.5
성별	남성	2.4	24.5	70.6	2.9	73.5	3.7
	여성	3.3	38.7	52.3	5.4	57.7	3.6
혼인	미혼	2.2	32.8	61.2	3.8	65	3.7
	기혼	6.9	27.6	58.6	6.9	65.5	3.7

□ 남양주시 청년지원사업 불만족 이유

- 최근 1~2년 내 남양주시 청년지원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년은 21.3%로 나타났으며, 전체의 78.7%는 참여 경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됨. 즉 청년지원사업 참여 경험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일부 연령 및 직업군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참여율이 확인됨
- (거주지역별) 신도심의 참여 경험 비율은 23.5%로 구도심(20.3%) 및 기타 지역(19.8%)보다 높게 나타남. 세부 지역에서는 금곡동(39.0%), 수동면(40.0%), 별내동(32.0%) 등의 참여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됨
- (연령별) 25~29세의 참여 경험 비율은 33.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8~24세는 20.0%, 30~34세는 19.8%, 35~39세는 11.6%로 조사됨. 상대적으로 청년 중기 연령층의 정책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성별) 여성의 참여 경험 비율은 22.4%로 남성(20.2%)보다 소폭 높게 조사됨
- (혼인별) 미혼 청년의 참여 경험 비율은 23.8%로 기혼(13.1%)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기혼 청년은 정책 참여 경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임

표 4-101 남양주시 청년지원사업 불만족 이유

(단위: %)

구분		까다로운 신청 조건 및 높은 진입장벽	실무와 동떨어진 단발성·현금성 지원	홍보 부족 및 복잡한 정보 접근성
전체		50	33.3	16.7
거주 지역	신도심	-	66.7	33.3
	구도심	100	-	-
	기타	66.7	-	33.3
연령	25~29세	50	50	-
	30~34세	-	100	-
	35~39세	-	100	-
성별	남성	75	-	25
	여성	50	25	25
혼인	미혼	50	50	-
	기혼	36.7	48	14.9

□ 남양주시 청년지원사업 미경험 이유

- 최근 1~2년 내 남양주시 청년지원사업을 경험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홍보 부족(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때 접하지 못함)’이 31.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까다로운 자격 요건(소득 기준, 나이 제한, 거주 기간 등)’(24.4%), ‘시간 부족(학업, 직장 업무, 취업 준비 등)’(24.0%), ‘복잡한 신청 절차’(15.1%) 순으로 조사됨. 반면 ‘접근성 불편’은 4.2%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거주지역별) 신도심과 구도심 모두 ‘홍보 부족’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각각 31.1%, 32.9%), 기타 지역에서는 ‘시간 부족’(27.7%)과 ‘까다로운 자격 요건’(26.2%)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됨
- (연령별) 25~29세에서는 ‘홍보 부족’(30.9%)과 ‘시간 부족’(32.4%) 응답이 높게 나타났고, 35~39세에서는 ‘까다로운 자격 요건’(34.7%)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조사됨
- (성별) 남성은 ‘홍보 부족’(26.1%)보다 ‘시간 부족’(26.1%)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여성은 ‘홍보 부족’(36.5%)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 (혼인별) 미혼 청년은 ‘홍보 부족’(30.3%)과 ‘시간 부족’(25.5%)을 주요 이유로 응답하였고, 기혼 청년은 ‘까다로운 자격 요건’(37.1%)에 대한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4-102 남양주시 청년지원사업 미경험 이유

(단위: %)

구분		홍보 부족	까다로운 자격 요건	시간 부족	복잡한 신청 절차	접근성 불편	기타
전체		31.1	24.4	24	15.1	4.2	1.1
거주 지역	신도심	31.1	27.2	23.2	13.4	3.5	1.6
	구도심	32.9	22.6	23.9	15.8	3.8	0.9
	기타	18.5	26.2	27.7	16.9	9.2	1.5
연령	25~29세	30.9	11.7	32.4	18.1	5.3	1.6
	30~34세	29.4	24.7	25.9	14.1	4.1	1.8
	35~39세	34.7	34.7	18.5	13.5	3.6	1.4
성별	남성	26.1	24.6	26.1	17.6	4.7	1
	여성	36.5	24.2	21.9	12.5	3.6	1.3
혼인	미혼	30.3	22.1	25.5	15.7	5.1	1.4
	기혼	35.5	37.1	12.9	14.5	-	-

□ 청년지원사업 필요성 인식

- 남양주시 청년지원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필요하다’는 응답이 60.0%,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24.8%로 나타나 전체의 84.8%가 청년지원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됨. 반면 ‘필요하지 않다’와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각각 0.9%, 0.2%로 매우 낮게 나타남. 전체 평균은 5점 만점 기준 4.1점으로 조사됨
- (거주지역별) 신도심의 필요 인식(TOP2)은 87.7%로 구도심(82.8%)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 지역도 87.7%로 높은 수준을 보임. 세부 지역에서는 다산1동(98.4%), 조안면(100.0%), 수동면(92.0%) 등에서 매우 높게 나타남
- (연령별) 모든 연령층에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80% 이상으로 조사된 가운데, 30~34세(86.7%)와 20대 전체(85.3%)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임
- (성별) 여성의 필요 인식(TOP2)은 86.1%로 남성(83.6%)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매우 필요하다’ 응답 역시 여성(30.3%)이 남성(19.4%)보다 높게 조사됨
- (혼인별) 미혼 청년의 필요 인식(TOP2)은 85.3%, 기혼 청년은 82.4%로 나타났으며, 기혼 유자녀 가구의 경우 ‘필요하다’ 응답 비율이 60.8%로 조사됨

표 4-103 청년지원사업 필요성 인식

(단위: %)

구분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TOP2	평균
전체		0.2	0.9	14.1	60	24.8	84.8	4.1
거주 지역	신도심	-	1.5	10.8	64.8	22.9	87.7	4.1
	구도심	0.3	0.5	16.4	57.1	25.7	82.8	4.1
	기타	-	1.2	11.1	61.7	25.9	87.7	4.1
연령	25~29세	-	1.2	16.2	56.2	27.7	83.8	4.1
	30~34세	0.4	1.2	12.1	63.3	23.4	86.7	4.1
	35~39세	-	2	13.2	58.5	27.1	85.7	4.1
성별	남성	0.2	1.2	15.4	64.2	19.4	83.6	4
	여성	0.2	0.4	12.7	55.8	30.3	86.1	4.1
혼인	미혼	0.1	1.1	13.9	59.2	25.9	85.3	4.1
	기혼	0.5	1.7	14.9	62	20.8	82.8	4

□ 청년지원사업 제공 방식에 대한 의견

- 남양주시 청년지원사업의 제공 방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 ‘특정한 우선순위 또는 선정기준 없이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69.2%로 나타났으며,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우선순위(소득 및 재산 기준)의 청년들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응답은 30.8%로 조사됨. 전반적으로 보편적 지원 방식에 대한 선호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남
- (거주지역별) 구도심은 ‘누구나 지원’ 응답이 71.2%로 신도심(67.2%)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 지역은 63.0%로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됨
- (연령별) 30~34세에서 ‘누구나 지원’ 응답이 72.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5~39세(70.9%), 25~29세(69.4%) 순으로 조사됨
- (성별) 남성은 ‘누구나 지원’ 응답이 69.3%, 여성은 69.1%로 성별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 (혼인별) 미혼 청년의 ‘누구나 지원’ 응답은 70.1%로 기혼 청년(66.1%)보다 높게 나타남

표 4-104 청년지원사업 제공 방식에 대한 의견

(단위: %)

구분		특정한 우선순위 또는 선정기준 없이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우선순위 (소득 및 재산 기준)의 청년들에게 제공
전체		69.2	30.8
거주 지역	신도심	67.2	32.8
	구도심	71.2	28.8
	기타	63	37
연령	25~29세	69.4	30.6
	30~34세	72.3	27.7
	35~39세	70.9	29.1
성별	남성	69.3	30.7
	여성	69.1	30.9
혼인	미혼	70.1	29.9
	기혼	66.1	33.9

□ 향후 우선 강화가 필요한 청년지원사업 분야(1순위)

○ 남양주시 청년들이 향후 우선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지원 분야는 ‘주거 지원(임대 주택 공급, 주거비 부담 완화)’이 34.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고용(취업·창업) 지원’ 17.0%, ‘자기탐색 지원 사업(진로·취업·교육·훈련 지원)’ 12.3%, ‘소득 지원(생활비 등)’ 10.8% 순으로 조사됨. 전반적으로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 기반에 대한 정책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거주지역별) ‘주거 지원’ 응답은 구도심(34.4%)과 신도심(34.6%)에서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기타 지역은 33.3%로 조사됨. 반면 ‘고용 지원’은 신도심(20.2%)이 구도심(15.5%)보다 높게 나타남

- (연령별) 35~39세는 ‘주거 지원’ 응답이 40.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0~34세(44.2%)에서도 높은 수준을 보임. 반면 20대는 ‘자기탐색 지원 사업’에 대한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25~29세 18.7%)

- (성별) 여성은 ‘주거 지원’ 응답이 35.6%로 남성(33.3%)보다 높았으며, 남성은 ‘자기탐색 지원 사업’(15.2%) 응답이 여성(9.3%)보다 높게 조사됨

- (혼인별) 기혼 청년은 ‘주거 지원’ 응답이 43.4%로 미혼(31.8%)보다 높게 나타나, 안정적인 주거 기반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

표 4-105 향후 우선 강화가 필요한 청년지원사업 분야(1순위)

(단위: %)

구분		주거 지원	고용 지원	자기탐색 지원	소득 지원
전체		34.4	17	12.3	10.8
거주 지역	신도심	34.6	20.2	13	9.6
	구도심	34.4	15.5	12.4	10.4
	기타	33.3	14.8	8.6	18.5
연령	25~29세	28.1	18.4	14.8	12.5
	30~34세	44.2	14.3	8.1	9.7
	35~39세	40.6	16.7	8	10
성별	남성	33.3	13.3	15.2	9.7
	여성	35.6	20.8	9.3	11.9
혼인	미혼	31.8	16.8	13.7	12.5
	기혼	0.5	1.7	14.9	62

제2절 남양주시 청년 심층면접조사

1 남양주시 청년 심층면접조사 개요

□ 심층면접조사 목적 및 대상

○ 조사 목적

- 청년 실태조사 설문조사 결과(양적 데이터)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남양주시 청년들의 실제 생활 경험, 인식, 어려움을 심층적으로 이해
- 청년정책 수요 발굴 및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 도출을 위한 질적 근거 확보

○ 조사 대상

- 대상: 남양주시 거주 청년(18~39세)
- 구성: 총 5개 그룹, 20명
 - 일반 청년(취업 준비, 직장인, 자영업자 등) 3개 그룹
 - 청년정책협의체 임원 2개 그룹

표 4-106 남양주시 청년 심층면접조사 참여자 특성

구분		성별	연령	비고(직업, 자녀수 등)
그룹 1	일반 청년 (1인가구, 취업준비생, 직장인)	여	24세	취업준비생
		남	26세	취업준비생
		여	26세	직장인
		남	27세	취업준비생
		여	35세	직장인
그룹 2	일반 청년 (직장인)	남	26세	직장인
		남	34세	직장인
		여	29세	직장인
		여	31세	직장인
		남	36세	공기업
그룹 3	일반 청년 (기혼, 자녀유)	여	38세	2명
		여	37세	1명
		남	33세	1명
		여	39세	1명
		남	36세	2명
그룹 4	청년정책협의체	여	34세	임원진
		여	34세	

그룹 5	청년정책협의체	여	25세
		여	30세
		남	30세

○ 조사 방법 및 기간

- 조사 방법: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Focus Group Interview, 대면 면접)

- 조사 기간

- 일반 청년(1~3 그룹): 2026년 4월 7일(화)
- 청년정책협의체 임원(4~5 그룹): 2026년 3월 25일(수) ~ 26일(목)

○ 조사 장소

- 남양주시청연구원 다목적실

○ 조사 항목

- 심층면접조사 항목은 남양주시 청년들의 삶 전반을 이해하기 위해 9개 영역으로 구성
- 크게 생활 기반(거주·주거·경제), 사회 참여(일자리·문화여가), 복지·건강, 생애 계획(결혼·출산), 정책 인식으로 나눌 수 있으며, 단순한 만족·불만족 수준을 넘어 청년들이 실제로 겪는 어려움의 원인과 맥락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둠
- 특히 남양주시의 지역적 특성인 교통 불편, 일자리 부족, 권역 간 격차 등이 청년들의 정주 의향·경제 활동·문화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설계함

표 4-107 남양주시 청년 심층면접조사 항목

영역	주요 조사 항목
이주 경험·소속감	• 남양주 거주 기간 및 이주 계기, 지역 정주 의향 및 이탈 의향, 지역 소속감·만족도
일자리·취업교육	• 취업·창업 준비 과정의 어려움, 남양주 내 일자리 현황 인식, 청년 일자리 정책 인지도 및 이용 경험
주거	• 주거 형태(자가·전세·월세·부모 동거), 독립 의향 및 장애 요인, 주거 지원 정책 인지 및 수요
경제·자산형성	• 월 생활비 수준 및 주요 지출 항목, 경제적 만족도, 부채 현황
건강/복지	• 신체·정신 건강 상태, 스트레스 원인 및 해소 방법, 사회적 고립감 경험, 복지 정책 인지 및 이용 경험
참여·소통	• 사회봉사활동 경험, 청년 참여 정책 인지 및 참여 경험
문화·여가	• 문화·여가 생활의 중요도, 주요 여가 활동 및 이용 장소, 남양주 문화 인프라 만족도
결혼·출산	• 결혼·출산 의향, 망설이는 이유(경제적 부담, 주거 불안, 돌봄 환경 등), 육아 지원 수요
청년정책	• 남양주시 청년정책 인지 경로 및 인지 현황, 정책 이용 경험 및 체감도, 개선 수요 및 요청 사항

□ 이주 경험·소속감

- 청약·직장 등 외부 요인으로 남양주에 유입된 청년이 많으며, 순수 자발적 이주는 드물며, 토박이 청년도 취업·결혼 등 인생 전환점에서 타지 이주를 고려하는 경향이 있음
- 남양주 내 지역별(별내·다산·덕소·진건 등) 정주 만족도 차이가 뚜렷하며, 자가용 유무가 남양주 정착 만족도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로 나타남
- 즉 청약·직장 연계 유입 청년의 정착을 지원하는 지역 정착 프로그램과, 교통 여건 개선 없이는 인구 유출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남양주 내 권역별 맞춤형 정주 지원 정책 필요

청년 K) 일단 청약이 돼서 청약 때문에 왔고요. 별내 살 때는 불만이 좀 많다가 다산으로 돌아오니깐 그나마 근처에 있고 해서 나아졌죠. 집값이 오르면 팔고 나가고 싶어요. 다산이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기에 적합한 신도시 같은데, 저는 아이를 키울 생각이 없어서 굳이 이 동네에 있어야 되나 싶어요.

청년 L) 회사가 이 근처라서 남양주 다산동에 오피스텔에 혼자 살고 있어요. 동네 기반으로는 인적 네트워크가 없고, 회사 기반으로 네트워크가 생겼습니다. 지금은 식당도 많이 생기고 마트도 많이 생겨서 혼자 살기에는 다산동이 되게 좋긴 합니다.

청년 B) 서울에서 낳고 자라서, 결혼까지 서울에서 했어요. 한 30년 간 서울에 살다가 구리 청약이 돼서 살다 보니까... 경기도로 나오면서 대중교통이 불편하고 예를 들어 어린이집 그런 환경적인 부분이 기존에 이용하는 거랑 많이 차이가 났고, 집값 격차가 계속 벌어지니까 미래를 예상하고 가는 기분이 좋지 않았고요.

청년 F) 남양주를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맨날 해요. 지역에서 활동을 너무 하니까 약간 애증인 것 같아요. 알고 싶지 않은 것까지 알게 되고, 그런데 상쇄시켜주는 사람들이 또 생겨서 삭여지는 것 같아요.

□ 일자리·취업교육

- 남양주 내 양질의 일자리가 절대 부족하고, 대부분 서울·외곽으로 출퇴근하고 있으며, 취업 지원 서비스(면접 수당·정장 대여 등)는 존재하나 실수혜자 범위가 협소하고, 조기 종료의 문제가 있음
- 창업 교육이 스타트업 중심으로 편중되고, 소규모 자영업·소상공인 맞춤형 정보가 부재하며, 내일배움카드 적용 학원이 부족하고 교육 인프라가 구리시 대비 열위에 있음

- 따라서 일자리 정책은 단순 취업 지원을 넘어, 남양주 내 창업 생태계 조성·소상공인 지원 체계 강화로 확대되어야 하며, 직종별 실질적 교육 기관 유치와 내일배움카드 적용 확대 필요

청년 A) 절대적인 일자리 수가 부족한 게 문제예요. 신입들이 들어가기에 좀 힘든, 경력 있는 신입을 원해서요. 면접 볼 때 헤어 커트 서비스를 이용해 본 적 있어요. 사회 초년생 대상으로 재무 관리 교육 같은 것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E) 집 근처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 여기 근처에는 회사가 없어서 서울로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취업 성공 패키지를 통해 자소서 첨삭, 관련 직종 소개를 받아서 도움이 됐어요.

청년 F) 청년 창업 스쿨을 들었는데 스타트업을 위한 것들만 있지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건 아니더라고요. 사업자 등록부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고 업종을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도 알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청년 C) 경기도 내일배움카드를 받아서 쓰려고 해도 바로 옆 동네 구리시에는 컴퓨터 학원이고 영어 학원이고 다 잘 돼 있는데 남양주엔 없더라고요. 남양주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남양주시에서 학원이나 이렇게 다녀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정도의 레벨이 됐으면 좋겠어요.

□ 주거

- 대부분 부모님과 동거 중인데, 독립은 경제적 이유로 최대한 연기하고 있으며, 월세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 초과로 실수혜는 제한적임
- 청년 임대주택이 1.5룸과 원룸 중심이므로, 결혼 후 타지 이탈을 유발하고 있으며, 청약 당첨 후 정책금융 변경으로 대출 조건 악화되어 혼인신고 지연이라는 역설적 현상 발생
- 따라서 청년주거 지원은 단순 1인 가구 원룸을 넘어 신혼부부 및 소가족 규모(2~3룸)까지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청약 및 대출 정책 연계 개선과 함께, 주거 지원 사각지대(소득 중간층)를 위한 보완 정책 필요

청년 G) 독립하고 싶어도 월세가 비싸니까 얹혀 사는 게 있더라도 좀 아껴야 되지 않을까요. 최대한 늦게 하고 싶긴 해요. 왜냐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청년 H) LH 공고가 나도 보면 다 1.5룸, 원룸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원룸에서 살다가 결혼하면 남양주를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다 간단 말이에요. 청년을 위한 최소 투룸 이상으로 해서 신혼부부들이 살 수 있고, 그거에 맞는 인프라가 발전되면 세수는 자연스럽게 올라갈 거고요.

청년 I) 부모님이라 살면서 경제적 이득이 있어요. 용돈을 좀 드리거나 생활비를 드리더라도 혼자 사는 것보다

훨씬 낫죠. 타지 생활을 오래 해봐서 나가는 돈이 얼마나 큰지 너무 잘 알아서요.

청년 J) 청약도 생각하고 있는데 다산이나 별내는 금전적으로 너무 힘들고, 분양가를 보니 6억 이상이라구요. 혼인 신고를 안 한 상태에서 대출을 받고 5년 뒤 혼인 신고를 할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 경제·자산 형성

- 월세나 대출 상환이 생활비의 최대 지출 항목이고, 식비가 그 다음이라고 볼 수 있으며, 청년 저축 및 자산 형성 정책의 소득 기준이 낮아서 중간 소득층의 사각지대가 존재함
- 투잡 혹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청년 비율은 높으며, 물가 상승 체감이 높으며 저축 여력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많음
- 따라서 자산 형성 지원 정책의 소득 기준을 현실화하고, 근로 청년 전반을 아우르는 저축 지원 상품이 필요함. 또한 단순 복지 지급보다는 자립 역량 강화형 자산 형성 프로그램을 우선 검토 필요

청년 K) 고정 지출이 60%나 나가요. 투잡을 10년 넘게 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이라 겸업이 안 되니까 세금 신고 없이 서빙 알바를 하고 있어요. 그래도 페이가 많지 않아요. 급여가 좀 올라야 만족할 것 같은데, 이루어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영원히 4점이지 않을까요.

청년 G) 돈이 안 모이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벌어도 벌어도 학원비도 나가고 대출도 나가다 보니까 모이지 않는 느낌이에요. 서울역에서 일하다 보니까 물가 상승률이 느껴져요. 밥 먹을 때 1만 3천 원, 1만 4천 원 넘어가고요.

청년 L) 청년 내일 저축 계좌나 청년 도약 계좌 같은 것들이 소득 기준이 타이트해서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주식을 하면서 소득을 보충하는 편입니다.

청년 M) 집을 일찍 샀습니다. 그때는 금리도 괜찮아서 아직도 저금리로 대출 상환하고 있습니다. 돈에 얽매이지 않는 생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중간 정도라고 했어요.

□ 건강·복지

- 과로와 수면 부족으로 신체 건강이 악화되는 청년이 다수이며, 정신건강 서비스(마음건강센터)의 상담 횟수 제한으로 지속적 케어가 불가능함
- 사회적 고립감(40% 수준)을 느끼는 청년 비율이 높으나 지원 연결이 미흡하고, 자영업 및

창업 청년의 경우 정신적 스트레스가 직장인보다 더 높게 나타남

- 따라서 청년 정신건강 서비스의 상담 횟수 제한 완화와 접근성 향상이 필요하며, 사회적 고립 청년을 발굴 및 연결하는 체계적 플랫폼 구축과 함께, 과로 예방을 위한 일·생활 균형 지원이 요청됨

청년 K) 1점일 때는 아침 7시 반에 출근해서 퇴근 후 바로 뛰어나가서 5시부터 아르바이트해서 12시까지 일하고, 이걸 몇 년을 한 거예요.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없던 알레르기도 생기고. 지금은 알바를 잠깐 쉬고 있어서 살짝 나아진 정도예요.

청년 N) 전직 회사를 그만두고 1년 반 정도 거의 잘 안 나가고 친구도 잘 안 만나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정신적으로 약간 우울한 것도 많이 느끼는 편이라서요. 크로스핏을 하고 있지만 스트레스는 책을 읽거나 글을 쓰거나 혼자 여행을 가는 방식으로 풀어요.

청년 O) 마음 건강 센터도 한 번 가봤는데 횟수 제한이 있었어요. 5번으로 기억하고, 2주에 한 번씩 상담을 받았는데 크게 느낀 게 별로 없었어요.

청년 H) 수면 때문입니다. 하루에 3~4시간 정도 자면서 생활하는 것 같습니다. 사고 날까봐 차를 두고 대중교통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 참여·소통

- 청년정책 참여는 기존 참여자 중심으로 순환되고 있고, 신규 진입 장벽이 높다고 볼 수 있으며, 정책 제안 채널은 있으나 실효성 신뢰 부족으로 청년 참여 저조
- 지역 커뮤니티 폐쇄성으로 정보 격차가 발생하고, 느슨한 연대 방식이 오히려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으며, 청년정책협의체 활동 청년은 지역 소속감이 높아지는 반면 일반 청년은 소속감이 낮음
- 따라서 청년 참여 구조를 기존 참여자 중심에서 신규 유입형으로 전환하고, 낮은 허들로 시작할 수 있는 느슨한 연대 기반 참여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하며, 제안 피드백 시스템 강화로 신뢰 회복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청년 K) 시청에다 뭐 제안해 봤자 해도 안 될 것 같아서 생각만 하고 시행은 하지 않았어요. 버스 노선 관련해서 문자로 제안하면 좀 이렇게 바뀌지거나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청년 F) 공동체의 폐쇄성이 너무 짙어서 정보가 자기들끼리는 교류가 되는데 타인한테까지 공유가 잘 안

되더라고요. 청년 사업들만 봐도 하시는 분들만 계속 하시고, 신청하시는 분만 계속 신청하세요. 신규 진입이 어려운 구조예요.

청년 I) 남양주에 화가 안 나는 거 보니 소속감이 그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아니야, 남양주 좋아졌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점진적으로 변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청년 C) 저희가 같은 분과별로 한 곳에 집요하게 공통 의견을 내면 10년 걸릴 게 9년 걸리고 이렇게 조금씩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문화·여가

- 문화 및 예술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대형 공연 및 전시는 모두 서울에 의존하고 있으며, 경기도 문화 패스 및 컬처 패스 예산은 조기 소진으로 청년의 수혜 기회가 박탈됨
- 다산아트홀은 소규모로 한계가 있으며, 공연장 등 중규모 문화 인프라 신설이 필요하고, 다만 문화 소모임 활동비 지원(청년 커뮤니티 사업)은 호평을 받음
- 따라서 청년 문화 패스 예산을 연중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남양주 내 중규모 공연 및 전시 공간을 신설할 필요가 있으며, 접근성 있는 위치에 복합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소모임 활동비 지원을 지속 및 확대 필요

청년 K) 공연장이 생기면 좋겠어요. 다산 아트홀은 진짜 작고, 대형 콘서트를 하기에는 소규모 공연들만 가능해요. 아이돌 공연을 보러 지방에도 다 가는데,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경기장이 없어요.

청년 N) 전시라든지 뮤지컬 이런 것들 무조건 서울로 나가야 해서 조금 아쉬워요.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으로 모임 활동비를 지원받았는데, 한 30만 원 정도 받고 책 구입하고 성과 발표회도 하고 좋았어요.

청년 D) 남양주시에서 남양주시로 가는 것보다 남양주시에서 서울 가는 교통이 훨씬 편해요.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좀 적고, 시에서 관리하는 갤러리가 없어요. 하나 있는 갤러리는 조안면에 있어서 운길산역에서 버스 1시간 기다렸어요.

청년 P) 서울 같은 경우는 청소년 축제도 하고 청소년들끼리 대외 활동을 많이 하도록 정부가 나서는데, 경기도는 그런 걸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직접 가르치는 아이들이 그런 거에 알고 있지도 않더라고요

□ 결혼·출산

- 미혼 청년의 결혼 의향이 저조한데, 경제적 부담(주거·사교육비)이 핵심 장벽이라고 볼 수

있으며, 기혼 청년은 돌봄 인프라 부족으로 둘째 출산 포기 사례가 다수 발생함

- 대출 및 청약 혜택 소멸의 우려로 인해 혼인신고 지연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비혼 및 비출산 의향 청년이 증가하고 자녀 사교육비 부담이 출산 기피의 직접 원인이 되고 있음
- 돌봄 서비스 접근성 개선(권역별 시니어 보조 돌봄 등)과 초등 전환기 돌봄 공백 해소가 시급하며, 결혼 및 출산 관련 대출과 청약 제도의 역설적 결과를 바로잡는 중앙 정책의 개선도 필요함

청년 A) 태어나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구에게 미안할 행동을 하지 않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 목숨 하나 구제하기도 바쁜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청년 T) 둘째를 너무 낳고 싶었어요. 근데 저희는 둘이서만 아이 케어를 하다 보니까 손을 빌릴 데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 포기했어요.

청년 R) 출산 장려를 할 수 없는 분위기고요. 자식이 두 명인데 첫째 학원비만 100만 원 나가요. 자식이 크면서 비용이 계속 올라가요. 정신적으로 많이 피폐해진 것 같아요.

청년 J) 결혼을 준비하면서 혼인 신고를 안 하는 것도 생각해 봤습니다. 합산되면 대출 금액이 확 줄어드니까요. 애한테도 미안하고 와이프한테도 미안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선이 결혼까지인 것 같습니다.

□ 청년정책

- 일부 청년은 정책의 존재 자체는 인지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이나 활용 방법까지 알고 있는 경우는 드물거나, 실제 체감되지 않는 ‘비가시적 정책’으로 인식되고 있음
- 남양주 관내 기업에 근무하거나 거주를 유지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정착 장려금, 주거비 가산 지원 등)을 제공하거나, 청년들의 ‘라이프스타일’ 전반을 지원하는 바우처 형태의 정책 고려
- 따라서 청년들이 체감하는 실생활 밀착형 아이디어를 정책화하는 프로세스 마련이 필요하며, 경력 단절 여성, 관내 중소기업 취업 청년 등 세분화된 정책 검토 필요

청년 A) 청년 정책이 있는지는 들어본 적은 있지만, 정확히 어떤 건지 잘 모릅니다. 사회 초년생 대상으로 재무 관리 교육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스피싱에 당해 가지고 노력해서 번 돈을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사례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학교에서 경제 관련 교육을 별로 받아본 적이 없어서요.

청년 R) 홍보는 하는 것 같은데, 저한테까지 와닿지는 않는 느낌이에요.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이를 케어하면서 할 수 있는 시간이 짧고 쉽게 접근해 볼 수 있는 일자리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청년 A) 청년들이 ^{남양주}남양주에서 계속 살게 하려면 결국 '돈' 문제인데, 남양주 소재 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는 교통비나 월세를 추가로 지원해주는 '남양주 정착 장려금' 같은 제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로 안 가고 우리 지역 기업을 선택할 확실한 인센티브가 되는 거죠.

청년 F) 요즘 청년들은 자기 계발에 진심이잖아요. '남양주 청년 배움 카드'를 만들어서 꼭 자격증 공부만 아니더라도 운동, 악기, 요리 같은 취미 생활이나 원데이 클래스를 들을 수 있게 지원해주면 삶의 질이 훨씬 높아질 것 같아요.

1 결과 요약

- 「남양주시 청년 실태조사」는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18~39세 청년 1,000명, 「남양주시 청년 심층면접조사」는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청년 20명을 대상으로 삶 전반에 대한 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수행함
 - 조사 결과, 남양주시 청년은 주거·일자리·교통·문화여가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복합적인 생활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첫째, 청년의 거주 특성과 생활권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남
 - 신도심 지역에는 30대와 기혼 청년층의 거주 비중이 높았으며, 구도심과 기타 지역은 장기 거주 중심의 정착형 특성이 강하게 나타났음
 - 특히 기혼 청년은 다산동·별내동 등 신도심 중심으로 거주하는 경향이 두드러졌으며, 이는 주거환경과 생활 인프라를 고려한 이동 특성으로 해석됨
- 둘째, 청년의 거주 및 이주 요인에서는 경제적·생활환경적 요인이 핵심적으로 작용함
 - 현재 남양주에 거주하는 이유로는 “고향이라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기혼 청년층은 “주거비가 저렴해서”와 “육아 때문”이라는 응답 비중이 높았음
 - 반면 향후 이주를 고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로 나타났으며, 특히 청년층 전반에서 절반 이상이 일자리 문제를 주요 이주 요인으로 응답함
 - 이는 남양주시가 생활 기반 도시의 성격은 강하지만 양질의 청년 일자리 기반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줌
- 셋째, 청년의 문화·여가 생활은 휴식과 취미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제 활동 과정에서는 교통 불편과 시설 부족 문제가 크게 나타남
 - 여가활동 참여는 휴식 활동과 취미·오락 활동 비중이 매우 높았으며, 여성은 문화예술·관광 활동 참여가 높고 남성은 스포츠 활동 참여 비중이 높은 특징을 보임

- 그러나 문화·여가 활동 시 가장 큰 어려움으로 교통 불편, 공간 및 시설 부족, 비용 부담 등이 제시되었으며, 특히 여성 청년층은 교통 불편을 크게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넷째, 문화·여가 정책 수요에서는 교통 접근성 확보와 활동비 지원 요구가 높게 나타남
 - 전체적으로 “교통 접근성 확보” 요구가 가장 높았고, 이어 “문화·여가 활동비 지원”,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 제공” 순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18~24세 청년층에서 활동비 지원 수요가 가장 높았으며, 30대 이상은 생활권 내 활동공간 및 콘텐츠 확충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종합적으로 볼 때 남양주시 청년은 안정적인 주거환경과 생활 인프라에 대한 만족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문화·여가 접근성 문제를 동시에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또한 청년 내부에서도 연령, 혼인 여부, 지역 특성에 따라 정책 수요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획일적 정책보다는 대상별·생활권별 맞춤형 정책 접근이 필요한 상황임

2 시사점

- 청년정책의 핵심은 “정주여건 강화”와 “지역 내 일자리 기반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는 방향으로 설정 고려
 - 현재 남양주시는 주거비와 생활환경 측면에서 청년 유입 요인이 존재하지만, 장기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필수적임
 - 특히 청년층의 향후 이주 사유 중 일자리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 만큼, 산업·창업·기업유치 정책과 청년정책의 연계 강화가 요구됨
- 신도심과 구도심 간 정책 접근의 차별화
 - 신도심은 청년부부와 기혼가구 중심의 정주 수요가 높아 주거·육아·생활SOC 중심 정책이 중요하며, 구도심은 교통 접근성과 문화·여가시설 확충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따라서 생활권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설계가 필요함

- 청년 문화·여가 정책은 단순 프로그램 제공을 넘어 생활권 기반 접근성 개선 중심으로 전환 고려
 - 조사 결과 교통 불편과 공간 부족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시된 만큼, 청년들이 쉽게 접근 가능한 생활문화센터, 소규모 커뮤니티 공간, 복합문화공간 등을 권역별로 확충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대중교통과 문화시설 접근성을 연계한 정책 설계가 중요함

- 청년정책의 대상 세분화
 - 조사 결과 미혼 청년은 활동비·교통 지원 요구가 높았고, 기혼 청년은 육아·교육환경 및 생활권 중심 공간 수요가 높게 나타남. 또한 20대 초반은 경제적 지원 수요가 높고, 30대는 정주안정과 가족 중심 정책 수요가 높게 나타남
 - 따라서 연령·생애주기·혼인 여부 등을 고려한 정책 체계 구축이 필요함

- 청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단일 분야 정책이 아니라 주거·교통·문화·일자리·돌봄 등을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종합 정책 체계 검토
 - 청년 문제는 특정 영역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우며, 정주환경과 경제활동, 여가와 사회관계망이 서로 연결되어 나타나고 있음
 - 이에 따라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시 분야 간 연계성과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05

결론

제1절 연구요약

1 연구요약

- 본 연구는 남양주시 청년의 삶의 실태와 정책 수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청년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
 - 최근 청년 문제는 단순한 취업 문제를 넘어 주거, 경제, 문화·여가, 복지, 사회관계 등 다양한 영역과 복합적으로 연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특히 남양주시는 신도시 개발과 청년 인구 증가가 동시에 진행되는 지역으로, 청년의 정주환경 개선과 지역 정착 기반 마련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
- 연구는 문헌조사, 중앙정부 및 경기도 정책사례 분석, 청년 실태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중심으로 진행
 -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청년정책을 분석한 결과, 최근 청년정책은 단순한 현금 지원 중심에서 벗어나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과 삶의 질 향상, 사회안전망 강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중앙정부는 교육·주거·금융·생활복지·참여 분야를 중심으로 국가장학금, 청년도약계좌, 공공 임대주택, 고립은둔청년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2030)」을 통해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복지·문화, 참여·권리 분야의

종합 정책체계를 강화하고 있음

- 특히 AI·반도체 등 미래산업 인재양성, 청년창업 지원, 전세사기 예방, 청년 참여 확대 등 지역 특화형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으로 분석됨

□ 남양주시 청년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지역 내 일자리 부족과 생활권 기반 정책 수요가 핵심 문제로 나타남

- 청년들은 남양주시의 주거환경과 생활 인프라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으나, 향후 타 지역으로 이주하고 싶은 가장 큰 이유로 '일자리'를 제시함. 이는 남양주시가 주거 중심 도시 기능은 강하지만 자족형 산업 및 청년 일자리 기반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줌
- 또한 문화·여가 분야에서는 교통 불편과 시설 부족 문제가 주요 어려움으로 나타났으며, 생활권 내 문화공간과 청년 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아울러 청년 내부에서도 연령, 혼인 여부, 생활권에 따라 정책 수요 차이가 크게 나타남. 미혼 청년은 활동비 및 취업지원 요구가 높았으며, 기혼 청년은 주거 안정과 육아·교육환경 요구가 높게 나타남
- 신도심은 가족 중심 정주 수요가 높은 반면, 구도심은 문화·교통 접근성 개선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됨. 이에 따라 청년정책은 획일적인 지원이 아니라 생애주기와 생활권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으로 전환될 필요성이 제기됨

□ 따라서 본 연구는 남양주시 청년정책이 단순 복지지원 중심에서 벗어나 일자리, 주거, 문화, 복지, 참여를 연계한 통합형 정책체제로 전환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음

- 또한 중앙정부 및 경기도 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정책 효과성과 재정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청년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2 연구 의의와 한계

□ 본 연구는 남양주시 청년의 삶의 실태와 정책 수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지역 맞춤형 청년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특히 주거, 일자리, 문화·여가, 복지, 참여 등 청년 삶 전반을 통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기존의

단편적 정책 접근을 넘어 종합적인 정책 기반을 마련함

- 또한 중앙정부 및 경기도 청년정책 사례를 함께 분석하여 남양주시 정책과의 연계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 향후 공모사업 및 재정 연계 추진의 기초자료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음
- 아울러 청년 내부에서도 연령, 혼인 여부, 생활권에 따라 정책 수요 차이가 나타난다는 점을 확인함으로써, 획일적 지원이 아닌 생애주기 및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청년정책 필요성을 제시함
- 특히 청년 문제를 단순한 취업 문제가 아니라 주거, 사회관계, 문화·여가, 삶의 질 등과 연결된 구조적 문제로 접근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남양주시 청년정책의 방향성과 정책체계 구축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다만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음

- 첫째, 청년층 내부의 세부 집단에 대한 심층 분석은 제한적이었음
 - 청년 1인가구,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경계선 지능 청년 등 다양한 청년 유형에 대한 분석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향후에는 노동 형태와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세분화 연구가 추가로 필요함
- 둘째, 설문조사 중심 연구라는 점에서 청년의 심리적 경험과 사회적 관계 문제를 충분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
 - 최근 청년층에서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고립, 정신건강 문제, 관계 단절 문제 등에 대해서는 질적 연구와 심층 인터뷰가 보완될 필요가 있음
- 셋째, 정책 효과성 분석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한계로 볼 수 있음
 - 본 연구는 정책 현황과 수요 분석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존 정책의 체감도와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지는 못하였음. 향후에는 정책 만족도 조사와 정책 성과평가 체계를 연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함
- 마지막으로 AI 산업 변화, 노동시장 재편, 인구구조 변화 등 미래 환경 변화에 대한 중장기 시나리오 분석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함
 - 향후 남양주시 청년정책은 도시계획, 산업정책, 교육정책과 연계한 미래 대응형 정책 연구로 확대될 필요가 있음

1 지역 특화 산업 연계형 청년 일자리 및 미래산업 인재 양성 강화

- 청년정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분야 중 하나는 안정적인 일자리와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기반 마련임. 본 연구에서도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청년정책이 단순 취업지원에서 벗어나 미래산업 대응형 인재 양성과 지역 산업 연계형 정책으로 확대되고 있음
 - 그러나 남양주시는 서울 접근성이 높아 외부 통근 청년 비율이 높은 반면, 지역 내 청년 일자리 기반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임. 이는 청년의 지역 정착률 저하와 지역경제 활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청년 인구 유출 문제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음
 - 이에 따라 남양주시는 청년 일자리 정책을 단순한 공공일자리나 단기 일자리 지원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 산업과 연계한 실무형·미래산업형 일자리 생태계 구축 필요
- 남양주시 전략산업 및 미래산업과 연계한 ‘남양주형 청년 취업지원 플랫폼’ 구축
 - 남양주시의 전략산업 및 미래 성장산업인 AI·디지털·바이오·콘텐츠 분야를 중심으로 기업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청년들이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역량을 갖추고 지역 내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기반 마련
 - 지역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현장실습과 인턴십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 있음. 청년들이 재학 중 또는 취업 준비 과정에서 실무 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동시장 진입 장벽 완화
 - 산업별 현직자와 전문인력을 활용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진로설계와 취업 준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청년들이 산업 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취업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
 - 예시: 「청년 미래산업 아카데미」
 - 내용: AI·데이터분석·디지털마케팅·콘텐츠 제작 교육 운영, 교육 수료 후 지역기업 인턴십 연계, 현직자 멘토링 및 취업컨설팅 제공
 - 대상: 18~39세 미취업 청년
 - 협력기관: 경복대학교,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지역기업 등

□ 청년 구직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 완화

- 취업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면접 교통비, 정장 구입·대여비, 자격시험 응시료, 취업 관련 교육비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 필요. 이를 통해 경제적 여건에 따른 취업 준비 격차를 완화하고 보다 공정한 취업 기회를 제공
- 단순한 비용 지원에 그치지 않고 취업상담, 이력서 컨설팅, 모의면접 등을 포함하는 종합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 이를 통해 청년들이 구직 과정 전반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 강화
- 취업준비 청년들이 자유롭게 학습하고 정보를 교류할 수 있도록 청년 전용 학습공간과 공유오피스를 확대 필요. 특히 스터디 활동과 취업 프로그램이 연계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 취업 준비 효과 향상
- 예시: 「청년 취업준비 패키지 지원」
 - 내용: 면접정장 무료 대여, 자격증 응시료 최대 20만 원 지원, 면접 교통비 및 사진촬영비 지원, AI 모의면접 및 이력서 컨설팅 제공 등
 - 유사사례: 서울시 청년수당, 경기도 면접수당

□ 청년 창업 활성화 지원

- 청년창업센터의 기능을 단순 입주공간 제공 중심에서 벗어나 투자유치, 경영컨설팅, 판로개척 등 성장지원 기능까지 확대 필요. 이를 통해 창업 초기 기업의 생존율 향상 및 지속가능한 창업 생태계 구축
- 창업 분야별 전문가와 선배 창업가를 활용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창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행착오를 줄일 필요가 있음. 또한 법률·세무·노무 분야의 전문 자문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기업 운영 지원
- 지역 소상공인 및 사회적경제 조직과 협력하여 지역문제 해결형 로컬창업 모델 발굴 필요. 이를 통해 청년 창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 구조 마련
- 예시: 「남양주 로컬창업 랩(Lab)」
 - 내용: 창업공간 제공, 창업 초기자금(500~1,000만 원) 지원, 세무·법률·노무 컨설팅, 선배 창업가 멘토링, 판로개척 및 투자설명회 개최 등

□ 남양주시 청년 일자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 지역 기업의 인력 수요와 청년 구직자의 역량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청년 일자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필요. 이를 통해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일자리 매칭 서비스 제공 가능

- 청년의 학력, 자격증, 직무 경험, 희망 직종 등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개인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필요. 이를 통해 구직자의 취업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기업의 채용 만족도도 향상 가능
-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산업별 인력 수요 변화와 청년 고용 현황을 분석할 필요 있음. 이를 통해 중장기적인 청년 일자리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정책 효과성 제고
- 예시: 「청년일자리 빅데이터 시스템」
 - 내용: 지역기업 채용정보 통합관리, 청년 역량·자격증·희망직무 등록, AI 기반 맞춤형 일자리 추천, 산업별 인력수요 분석 보고서 발간 등

2 주거 점유형태 다변화에 대응하는 청년 주거 안전망 구축 및 지원

- 남양주시 청년 가구의 주거 점유형태를 보면 월세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청년 주택소유자 비중은 감소하여 주거 불안정성과 경제적 부담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청년층의 높은 주거비 부담은 저출산과 지역 이탈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는 만큼, 청년들의 소득수준과 주거 형태를 고려한 다층적인 주거 안정정책이 시급히 추진될 필요 있음
 - 이에 따라 청년들의 소득수준과 생애주기별 특성을 정밀하게 반영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직접 지원 제도와 주거취약성을 보완하는 제도적 안전망을 동시에 촘촘하게 가동할 필요 있음
- 역세권과 생활권 중심으로 청년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소형 주택 공급 강화
 - 남양주시는 서울로 출퇴근하는 청년 비율이 높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GTX, 지하철역 등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을 중심으로 청년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 필요. 이를 통해 청년들의 주거 안정성과 통근 편의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증가하고 있는 청년 1인 가구의 수요를 반영하여 소형 평형 위주의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할 필요 있음. 특히 초기 사회진입 청년이 부담 가능한 임대료 수준의 주택을 확보함으로써

주거비 부담 완화

- 신규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청년 주택 물량을 일정 비율 이상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필요. 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청년 주거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예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 내용: 평내호평역·별내역·다산역 인근 공급, 1인 가구형 소형주택 위주 조성, 청년·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 등
 - 유사사례: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 남양주형 청년 월세 특별지원 자격 완화 및 확대

- 중앙정부 월세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을 초과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남양주시 자체 지원사업 마련 필요. 이를 통해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청년의 실제 주거비 수준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지원금액과 지원기간을 확대 필요. 단기 지원 중심에서 벗어나 일정 기간 안정적인 주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 개선 필요
-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비정규직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우선 지원체계 마련. 이를 통해 경제적 불안정성이 높은 청년층의 주거 안정성 향상 가능
- 예시: 「청년 월세 안심지원」
 - 내용: 월 최대 20만 원 지원, 최대 24개월 지원 등
 - 대상: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취업준비생·비정규직 우선 지원)

□ 청년 주거 안심 보증 체계 마련

- 청년들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 확대. 이를 통해 청년들이 보다 안전하게 주거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부동산 거래 경험이 부족한 청년을 대상으로 계약 체결 전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 주거 코디네이터’ 제도 운영. 이를 통해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
- 전세사기 예방 교육과 주거법률 상담을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청년들의 주거 관련 권리 보호 역량을 강화 필요. 특히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필요

○ 예시: 「청년 주거안심센터」

- 내용: 전세사기 예방 상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임대차계약 무료 법률상담, 주거 코디네이터 운영 등

- 유사사례: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및 주택금융 연계 확대

○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지역 내 공공주택 공급계획과 연계하여 안정적인 주거기반 마련 필요. 이를 통해 결혼과 출산을 준비하는 청년층의 주거 부담 감소 가능

○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의 지원 한도와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금융비용 부담 완화 필요. 특히 장기 거주를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주택정보 제공, 금융상담, 주거복지서비스를 연계한 통합 주거지원체계 구축 필요. 이를 통해 청년들이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 있음

○ 예시: 「청년 전세대출 이자지원」

- 내용: 전세자금대출 이자의 일부 지원, 연 최대 200만 원 지원, 장기거주 청년 우대 등

3 생활권별 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청년 복합문화인프라 구축

□ 남양주시는 신도심과 구도심, 농촌 지역이 공존하는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지역별 청년들의 문화·여가인프라 접근성 격차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남

○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들은 안정적인 정주 환경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면서도, "생활권 내에서 향유할 수 있는 문화·여가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음

○ 특히 문화인프라의 다수가 특정 신도심에 집중되어 있어, 동부권이나 구도심 거주 청년들의 이동 거리와 시간적 비용이 정책 체감도를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분석됨

○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중심지에 편중된 청년공간 운영 방식을 탈피하여, 청년들의 실제 생활 동선과 연령별 요구 사항을 반영한 '생활권역별 위성 청년 복합문화공간'의 단계적 건립 고려

□ 권역별 복합 거점 공간(Youth Hub) 단계적 구축

- 청년 인구와 생활권 특성을 고려하여 권역별 복합 거점공간을 단계적으로 조성 필요. 이를 통해 지역 간 문화·정보 접근성 격차 완화
- 유희 공공시설과 도시재생 거점시설을 활용하여 청년 전용 공간을 확충 필요. 예산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효율적인 공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청년들의 학습, 창업, 문화활동이 동시에 가능한 복합 기능 공간으로 조성하여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청년활동의 중심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예시: 「동·서·남·북 생활권 청년센터 조성」
 - 권역: 다산권역, 별내권역, 진접·오남권역, 화도·수동권역
 - 운영기능: 공유오피스, 스터디룸, 문화공간, 창업공간, 상담실 등

□ 연령별 요구 사항의 차별적 반영

- 30대 청년의 수요를 반영하여 공유오피스와 직무역량 강화 프로그램 확대 필요. 이는 경력개발과 재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음
- 육아와 사회활동을 병행하는 청년층의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영유아를 동반한 청년 부모를 위한 가족친화형 공간을 조성 필요
- 청년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연령별 정책 수요에 대응 필요. 이를 통해 정책 만족도를 높이고 이용률 향상
- 예시: 「청년 생애주기 프로그램」
 - 20대: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 30대: 재취업·경력전환 교육
 - 청년부모: 육아 커뮤니티, 가족친화 프로그램 등

□ 문화 소외지역 연계 인프라 보완

- 지역 간 문화서비스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청년공간 조성이 어려운 외곽 지역은 기존 복지관과 문화시설을 활용한 소규모 청년거점 운영 필요
- 교통 취약지역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동형 문화프로그램과 순회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년 문화서비스 접근성 제고
- 청년들이 주요 거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 연계체계를 개선하고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 필요. 이를 통해 시설 이용 활성화 도모

○ 예시: 「찾아가는 청년문화버스」

- 내용: 이동형 공연, 영화상영, 원데이 클래스, 취업특강 등

- 대상 지역: 화도·수동, 조안, 외부 외곽지역

4 청년정책 접근성 강화 및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 남양주시는 청년 기본계획과 청년정책 조례를 기반으로 다양한 청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 청년들이 정책을 체감하는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을 가능성이 존재함

○ 이는 청년정책 정보가 부서별·기관별로 분산되어 있고, 청년 개인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정책을 한 번에 찾기 어렵기 때문임

○ 특히 청년들은 취업, 주거, 금융, 정신건강, 문화활동 등 다양한 문제를 동시에 경험하고 있으나, 현재 정책체계는 개별 사업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통합적 접근이 부족한 한계가 있음

○ 연구에서도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 전달체계와 접근성 강화가 중요하다고 제시하고 있으며, 단순 정책 확대보다는 청년이 실제로 정책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음

□ 분산된 청년정책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남양주 청년정책 통합플랫폼’ 구축 검토

○ 현재 청년들은 중앙정부, 경기도, 남양주시의 정책 정보를 각각 다른 사이트에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음. 따라서 다양한 청년정책을 한 곳에서 검색하고 신청할 수 있는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여 정책 접근성과 활용도 제고 필요

○ 청년 개인의 연령, 소득, 직업, 학력, 거주지역 등의 정보를 기반으로 맞춤형 정책을 추천하는 서비스 도입 필요. 이를 통해 정책 정보를 찾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고 정책 수혜율 향상 가능

○ 온라인 신청, 자격 확인, 진행상황 조회, 결과 통보까지 가능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구축. 이를 통해 청년들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정책 이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예시: 「청년ON 플랫폼」

- 내용: 중앙정부·경기도·남양주시 정책 통합 조회, 맞춤형 정책 추천, 온라인 신청, 진행상황 확인,

챗봇 상담 등

- 유사사례: 경기청년포털

□ 청년정책 홍보 방식을 청년 친화적으로 개선

- 기존 행정 홈페이지 중심 홍보에서 벗어나 인스타그램·유튜브·카카오톡 채널·숏폼 콘텐츠 등 청년 이용률이 높은 플랫폼 중심으로 홍보체계 개편
- 정책 설명 중심의 홍보에서 벗어나 실제 정책 수혜자의 경험과 사례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필요. 청년들이 정책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례 중심 홍보는 정책 참여를 유도하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됨
- 청년 서포터즈 및 청년 크리에이터를 활용한 참여형 홍보체계 구축 필요. 청년이 직접 정책을 소개하고 홍보하는 과정에서 또래 집단 간 신뢰도와 정보 전달 효과 향상 가능
- 예시: 「청년 서포터즈 및 크리에이터 운영」
 - 내용: 인스타그램 릴스 제작, 유튜브 숏폼 제작, 정책 체험 콘텐츠 제작, 정책 홍보 기자단 운영 등

□ 청년지원센터 기능 강화

- 청년지원센터를 취업, 주거, 복지, 금융, 심리상담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원스톱 지원기관으로 확대 운영 필요. 이를 통해 청년들이 여러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필요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전문 상담인력을 확충하여 청년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상담과 사례관리 제공 필요. 특히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는 지속적인 관리와 서비스 연계가 중요함
- 공공기관, 민간기관, 대학, 기업 등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여 청년지원센터의 서비스 범위를 확대 필요. 이를 통해 청년들이 보다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역 기반 협력체계 구축
- 예시: 「청년 원스톱 상담센터」
 - 내용: 취업, 주거, 금융, 심리, 복지 등
 - 운영 방식: 전문상담사 배치, 사례관리, 유관기관 연계 서비스 제공 등

5 청년 참여 기반 정책 거버넌스 강화

-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년을 단순 정책 수혜자가 아니라 정책 수립·집행·평가 전 과정에서 청년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할 필요 있음
 - 단순 의견수렴 수준을 넘어 청년을 정책의 실질적 파트너로 참여시키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핵심
- 청년정책협의체 기능 강화
 - 청년정책협의체가 단순한 자문기구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정책 발굴, 사업 추진, 성과평가 과정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 필요. 이를 통해 청년의 의견이 실제 정책에 반영되는 실효성 있는 참여체계 구축 가능
 - 청년위원 비율을 확대하고 정례회의를 활성화하여 다양한 청년층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필요 있음. 특히 지역, 연령, 직업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표성을 강화 필요
 -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서 청년 의견 반영 결과를 공개하는 환류체계 마련 필요. 이를 통해 청년들의 정책 참여 동기를 높이고 행정에 대한 신뢰 확보 가능
 - 예시: 「청년정책협의체」
 - 내용: 청년위원 비율 50% 이상, 분기별 정례회의, 정책 제안 및 평가 참여, 정책 반영 결과 공개 등
- 생활권별·대상별 청년 의견수렴 체계 구축
 - 다양한 청년 계층의 정책 수요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대학생, 취업준비생, 직장인, 창업가, 1인 가구 청년 등 청년 집단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의견수렴 체계 운영
 - 생활권별 청년 간담회와 권역별 원탁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지역별 특성과 문제점을 반영한 정책 발굴 추진 필요. 이는 지역 간 정책 격차를 해소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음
 - 온라인 설문조사와 정책제안 플랫폼을 활용하여 청년들이 언제든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상시 참여체계를 구축 필요. 이를 통해 정책 수립 과정의 개방성과 참여성 제고
 - 예시: 「찾아가는 청년 원탁회의」
 - 내용: 권역별 간담회 개최, 대학생·직장인·창업가 그룹별 FGI 운영, 온라인 정책제안 게시판 운영 등

□ 청년참여예산제 운영

- 청년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참여예산제 운영. 이를 통해 청년이 정책 수혜자를 넘어 정책 결정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생활밀착형 사업과 지역문제 해결사업을 중심으로 청년 제안사업 공모를 정례화. 이를 통해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선정된 사업의 추진 과정에도 청년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모니터링 및 운영 참여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정책의 책임성과 실효성 향상
- 예시: 「청년이 만드는 예산학교」
 - 내용: 예산교육 실시, 정책 아이디어 공모, 주민참여예산 연계, 청년 제안사업 직접 선정 등
 - 유사 사례: 서울시 청년참여예산

□ 청년 리더 양성 프로그램 운영

- 청년의 정책 참여 역량과 시민성 향상을 위해 청년정책학교와 정책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청년들이 지방행정과 정책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역사회 문제를 직접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프로젝트형 교육과정 운영. 이를 통해 청년들이 지역사회 문제 해결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우수 참여 청년을 대상으로 네트워크 구축과 리더십 교육을 지원하여 지역 청년 리더를 체계적으로 육성. 이는 장기적으로 청년 중심의 지역 거버넌스 활성화에도 기여
- 예시: 「남양주 청년정책학교」
 - 내용: 지방행정 이해, 정책기획, 예산 과정, 공론장 운영 등
 - 우수 수료생: 청년위원회 및 각종 위원회 참여, 정책 모니터링단 활동 등

□ 청년정책 성과평가 과정에도 청년 참여 제도화

- 정책 만족도 조사와 정책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청년이 직접 정책 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화. 이를 통해 정책 수혜자의 관점이 정책 개선 과정에 반영
- 청년이 참여하는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요 사업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도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 있음. 이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기여
- 정책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는 환류체계 구축. 이를 통해 청년정책의 지속적인 개선과 정책 효과성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 예시: 「청년정책 모니터링단」

- 내용: 정책 만족도 조사, 현장점검, 개선사항 제안, 다음 연도 사업계획 반영 등

6 사회적 고립 및 정신건강 지원체계 고도화

- 최근 고용 한파와 경쟁 심화로 인해 사회적 관계를 단절하고 고립·은둔을 선택하는 청년층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연구에서도 청년들이 취업 스트레스, 인간관계 단절, 미래 불안 등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따라 남양주시 역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음. 그러나, 이들은 스스로 지원 정책을 찾아 청년공간이나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는 특성이 있어, 기존의 신청주의 기반 전달체계로는 실질적인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뚜렷함
 - 이에 따라 단순한 사후 약방문식 복지지원을 넘어, 지역사회와 민간 네트워크와 공공 보건 복지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다각적이고 선제적인 '청년 안전망 큐레이션 및 치유 시스템'을 가동할 필요 있음
- '남양주시청년마음건강센터'의 역할 강화
 - 청년마음건강센터를 중심으로 심리상담, 정신건강 검사,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 필요. 이를 통해 청년들이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취업준비 청년, 장기 미취업 청년, 1인 가구 청년 등 정신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 특히 우울감과 불안감이 높은 청년층에 대한 집중 관리 필요
 - 전문 상담인력과 정신건강 전문가를 확충하여 상담 서비스의 질 제고. 이를 통해 청년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신건강 지원체계 구축
 - 예시: 「마음건강 종합케어 프로그램」
 - 내용: 우울·불안 검사, 전문 심리상담, 스트레스 관리 교육, 집단상담 프로그램 등
- 청년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한 커뮤니티 정책 강화
 - 청년공간과 청년마음건강센터를 연계하여 취미·문화·학습 중심의 소모임 활동을 활성화 필요.

이를 통해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 청년 동아리와 자조모임에 대한 운영비 및 공간 지원을 확대하여 자발적인 커뮤니티 활동을 장려 필요. 이는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 예방에도 기여 가능
- 상담 이후 지역사회 활동으로 연계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속적인 사회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단발성 지원을 넘어 장기적인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 예시: 「청년 관계회복 프로젝트」
 - 내용: 독서모임, 운동모임, 문화동아리, 자조모임 운영비 지원 등(상담 → 모임 참여 → 지역활동으로 연계)

□ 고립·은둔 청년의 통합적 지원 체계 구축

- 청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편의점, 약국, 배달 서비스 및 가스·수도검침원 등과 연계하여 고립 징후가 의심되는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청년 게이트키퍼’ 네트워크 가동
- 고립·은둔 청년을 대상으로 단순 상담 수준을 넘어 사례관리, 가족 연계, 사회복귀 프로그램, 일상 회복 프로그램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 구축
- 기존 「남양주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와 연계하여 복지·고용·주거 지원까지 연결되는 부서 간 협업체계 마련
- 예시: 「청년 안심동행 사업」
 - 내용: 고립청년 발굴, 사례관리, 가족상담, 사회복귀 프로그램, 취업 및 주거 지원 연계 등
 - 협력기관: 남양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남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남양주시청년창업센터, 복지관 등

□ 정신건강 정책의 접근성 확대

- 온라인 심리상담 플랫폼을 구축하여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 있음. 특히 비대면 상담을 선호하는 청년들의 이용 편의성 제고
- 야간 및 주말 상담 서비스를 확대하여 직장인 청년들도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이를 통해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의 접근성 향상
- 찾아가는 이동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상대적으로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청년층에게 상담 기회 제공 필요. 이를 통해 정신건강 사각지대 최소화
- 예시: 「찾아가는 마음건강 서비스」

- 내용: 비대면 심리상담 플랫폼 운영, 야간·주말 상담, 이동상담 차량 운영, 대학·청년공간 방문 상담

국문자료

- 경기도. (2026). 경기도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6~'30) 2026년 시행계획. 경기도.
- 광주광역시 북구. (2024). 「2025~2029 광주광역시 북구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 광주광역시 북구.
-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이혼편」.
- 국가데이터처 「인구총조사」.
- 국가데이터처 「주택소유통계」.
- 국가데이터처 「지역별고용조사」 (2025년 하반기).
- 국무조정실. (2021).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
- 국무조정실. (2026).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2030).
- 권오균. (2024). 화성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화성시연구원.
- 경기도. (2026).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2030) 시행계획. 경기도.
- 김규혜·이승윤·박성준. (2020). '취업'과 '실업'의 사이에서: 청년이직에 대한 질적연구. 「한국사회정책」, 27(4): 49-85.
- 남양주시. (2018). 2018년 남양주시 사회조사. 남양주시.
- 남양주시. (2019). 2019년 남양주시 사회조사. 남양주시.
- 남양주시. (2020). 2020년 남양주시 사회조사. 남양주시.
- 남양주시. (2021). 2021년 남양주시 사회조사. 남양주시.
- 남양주시. (2022). 2022년 남양주시 사회조사. 남양주시.
- 남양주시. (2023). 2023년 남양주시 사회조사. 남양주시.
- 남양주시. (2024). 2024년 남양주시 사회조사. 남양주시.
- 남양주시. (2025). 2025년 남양주시 사회조사. 남양주시.
- 남양주시. (2026). 내부자료. 남양주시.
- 안성수·정세영. (2025). 지역 청년 유출 억제에 위한 정책 방향: 경남 청년 삶 인식 분석. 「한국지방행정학보」, 22(3): 199-228.
- 오정민·이상협. (2025). 지역 정주환경 인식이 청년의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 김해시 청년의 지역사회유대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39(4): 217-244.
- 온통청년. <https://www.youthcenter.go.kr/main>.
- 이영안·강민경·장유미. (2025). 남양주시정연구원 비전 2050 실천계획. 남양주시정연구원.

이영안·박수진·한연오. (2025). 남양주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도시 이미지 구축 방안 연구. 남양주시정연구원.

최지연·심지은. (2022). 수원 청년정책 발전방향 연구. 수원시정연구원.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영문자료

Federal Ministry for Family Affairs, Senior Citizens, Women and Youth (BMFSFJ). (2020). Youth Strategy of the Federal Government (Jugendstrategie der Bundesregierung).

BMFSFJ. (2020). National Action Plan for Child and Youth Participation (NAP).

European Commission. (2021). EU Youth Strategy 2019–2027.

Finnish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2020). National Youth Work and Policy Programme.

Cabinet Office of Japan. (2020). Youth Policy and Regional Revitalization Policies.

Government of Singapore. (2020). SkillsFuture and Youth Development Policies.

<https://saposute-net.mhlw.go.jp/>.

<https://www.hellowork.mhlw.go.jp/>.

<https://www.mhlw.go.jp/shingi/2005/03/s0303-11d.html>.

부록

이 조사에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3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ID

-

2026년 남양주시 청년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조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설문조사는 남양주시 청년(18세~39세)들의 삶을 파악하여 청년 정책 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남양주시 청년에게 적합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 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하여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됩니다.

SQ. 응답자 기본 사항

SQ1. 현재 거주하고 계신 지역은 어디입니까? [1개 선택]

[1개 선택] [PROG : QOUTA CHECK]

- | | | | | |
|--------|-------|-------|--------|--------|
| ① 와부읍 | ② 진접읍 | ③ 화도읍 | ④ 진건읍 | ⑤ 오남읍 |
| ⑥ 퇴계원읍 | ⑦ 별내면 | ⑧ 수동면 | ⑨ 조안면 | ⑩ 호평동 |
| ⑪ 평내동 | ⑫ 금곡동 | ⑬ 양정동 | ⑭ 다산1동 | ⑮ 다산2동 |
| ⑯ 별내동 | | | | |

SQ2. 귀하의 연령은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출생연도:) [PROG : QOUTA CHECK]

- ① 17세 이하 [→ 조사중단]
 ② 18~24세 ③ 25~29세 ④ 30~34세 ⑤ 35~39세
 ⑥ 40세 이상 [→ 조사중단]

SQ3.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1개 선택] [PROG : QOUTA CHECK]

- ① 남성 ② 여성

SQ4.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1개 선택]

- | | |
|-------------------------|------------------|
| ① 고교 중퇴 이하 | ② 고등학교 졸업 |
| ③ 전문대 재학(휴학 포함) | ④ 전문대학 중퇴 |
| ⑤ 전문대학 졸업 | ⑥ 대학교(4년제 이상) 중퇴 |
| ⑦ 대학교(4년제 이상) 재학(휴학 포함) | ⑧ 대학교(4년제 이상) 졸업 |
| ⑨ 대학원 재학(휴학 포함) | ⑩ 대학원 중퇴 |
| ⑪ 대학원 졸업/수료 | |

Q5. 귀하의 직업은 어떻게 되십니까? [1개 선택]

- | | | |
|------------------|-------------|-------------|
| ① 학생 | ② 자영업 | ③ 사무직 |
| ④ 서비스(점원, 세일즈 등) | ⑤ 전문/관리/경영직 | ⑥ 농업/임업/수산업 |
| ⑦ 기능/현장업 | ⑧ 군인/교사/공무원 | ⑨ 가정주부 |
| ⑩ 무직 | ⑪ 취업준비 중 | ⑫ 기타() |

Q6. 귀하의 혼인상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1개 선택]

- ① 미혼 ② 기혼(자녀없음) ③ 기혼(자녀있음: __명) ④ 이혼, 별거, 사별 등

I. 일반 현황

Q1. 귀하는 남양주시에서 어느 정도 거주하십니까? [1개 선택]

- ① 1년 미만 ② 1년 이상~5년 미만 ③ 5년 이상~10년 미만
④ 10년 이상~20년 미만 ⑤ 20년 이상~30년 미만 ⑥ 30년 이상

Q1-1. 귀하께서 남양주시에 거주(이주)하게 되신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개 선택]

- | | |
|--------------------|--------------------|
| ① 직장(발령, 이직, 취직) | ② 주거비가 저렴해서 |
| ③ 육아 때문에(친정, 시댁) | ④ 고향이라서(복귀, 계속 거주) |
| ⑤ 정책 등 복지가 좋아서 | ⑥ 학업 때문에 |
| ⑦ 자연환경이 좋아서 | ⑧ 레저 등 삶의 균형을 위해 |
| ⑨ 통근/통학 등 교통이 편리해서 | ⑩ 기타() |

Q2. 향후에도 남양주시에 계속 살고 싶다면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1개 선택]

- | | | |
|-------------------|-----------|----------------|
| ① 일자리 | ② 문화여가 | ③ 주거(부동산 가격 등) |
| ④ 본인의 학업 | ⑤ 인적교류 | ⑥ 혼인 등 가족사항 |
| ⑦ 자녀 육아 및 자녀 교육환경 | ⑧ 교통의 편의성 | ⑨ 복지 등 지원 정책 |
| ⑩ 기타() | | |

Q3. 향후 귀하께서 남양주시를 떠나게 된다면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개 선택]

- | | | |
|-------------------|-----------|----------------|
| ① 일자리 | ② 문화여가 | ③ 주거(부동산 가격 등) |
| ④ 본인의 학업 | ⑤ 인적교류 | ⑥ 혼인 등 가족사항 |
| ⑦ 자녀 육아 및 자녀 교육환경 | ⑧ 교통의 편의성 | ⑨ 복지 등 지원 정책 |
| ⑩ 기타() | | |

II. 문화·여가

Q4. 귀하는 여가 생활이 삶에서 차지하는 중요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1개 선택]

전혀 중요하지 않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어느 정도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Q5. 귀하께서 지난 1년간 참여한 여가활동은 무엇입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모두 선택]

- ① 문화예술 활동 : 전시회, 박물관, 연주회, 공연, 연극, 무용, 영화 등 관람 및 참여
- ② 스포츠 활동 : 스포츠 경기(축구야구농구배구 등) 관람 및 직접 참여
- ③ 관광 활동 : 문화유적 방문, 야외 소풍, 캠핑, 놀이공원, 동물원, 지역축제, 해외여행 등
- ④ 취미/오락 활동 : 인터넷 검색 게임 독서 원예 쇼핑 요리 반려동물 돌봄 등산 낚시 학원 노래방 등
- ⑤ 휴식 활동 : 산책, 낮잠, 사우나, TV/유튜브 시청, 아무것도 안 하기 등
- ⑥ 사회 및 기타 활동 : 사회봉사, 종교활동, 사교모임, 친구 만남, 동호회 모임 등
- ⑦ 기타()

Q5-1. 귀하께서 여가활동별로 참여하는 비중이 어떻게 되십니까? 각각의 여가활동별로 몇 % 정도 인지 총합이 100%가 되도록 숫자를 입력해 주십시오. [직접입력]

① 문화예술 활동	② 스포츠 활동	③ 관광 활동	④ 취미/오락 활동	⑤ 휴식 활동	⑥ 사회 및 기타 활동	⑦ 기타	총합
()	()	()	()	()	()	()	100

Q6. 귀하께서는 문화·여가활동 관련 비용으로 한달 평균 어느 정도 지출하십니까? [1개 선택]

- ① 10만 원 미만
- ② 10만 원 이상~20만 원 미만
- ③ 20만 원 이상~30만 원 미만
- ④ 30만 원 이상~50만 원 미만
- ⑤ 50만 원 이상

Q7. 귀하께서는 남양주시에서 여가활동을 하시면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귀하가 겪으신 가장 주된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1개 선택]

- ① 프로그램/콘텐츠 부족
- ② 시간대가 맞지 않을
- ③ 교통 불편
- ④ 정보 부족
- ⑤ 시간 부족
- ⑥ 비용 부담
- ⑦ 같이 할 사람이 없을
- ⑧ 피곤/무관심
- ⑨ 원하는 공간 및 시설 부족
- ⑩ 기타()
- ⑪ 어려움 없음

Q8. 귀하는 남양주시에서 문화/여가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해 어떤 정책이 우선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개 선택]

- ① 전용 공연장 등 문화시설의 확충 ② 다양한 문화예술/취미생활 콘텐츠 보급
- ③ 마을 축제 등 생활권 중심 활동 지원 ④ 생활문화센터 등 활동공간 및 단체 조성
- ⑤ 청년의 문화 여가 활동비 지원 ⑥ 교통 접근성 확보
- ⑦ 기타(_____)

III. 건강

Q9. 귀하는 본인의 건강(정신·신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개 선택]

전혀 건강하지 않다	건강하지 않다	보통이다	건강하다	매우 건강하다
①	②	③	④	⑤

Q9-1. 자신이 건강(정신·신체)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개 선택]

- ① 미래 및 진로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취업준비, 경제적 불안정 등)
- ② 대인 관계 및 사회적 고립감(타인과의 비교(SNS 등), 고립감, 인간관계의 피로도)
- ③ 불규칙한 생활습관(게임, 야근 등 수면부족)
- ④ 신체활동 저하 및 만성피로(운동 부족, 장시간 좌식생활로 인한 체력저하)
- ⑤ 신체적 불편(장애, 사고로 인한 부상 등)
- ⑥ 정신적 문제(공황 등의 치료가 필요한 상황)
- ⑦ 기타(_____)

Q9-2. 귀하께서는 주로 어떤 방법으로 본인의 건강(정신·신체)을 관리하십니까? [1개 선택]

- ① 운동 및 식단 관리 ② 사회적 교류(친목 등)
- ③ 의료기관(건강검진, 상담) ④ 적절한 휴식 또는 취미활동
- ⑤ 기타(_____)
- ⑥ 별도로 관리하지 않음

Q9-3. 평소에 규칙적으로 운동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개 선택] [Q9-2=①응답자]

- ① 운동할 시간을 내기가 어려워서
- ② 장소(체육시설 등)가 없어서
- ③ 비용이 부담돼서
- ④ 나에게 맞는 운동 프로그램이 없어서
- ⑤ 건강이 좋지 않아서
- ⑥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 ⑦ 기타(_____)

Q10. 귀하는 스스로가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개 선택]

- ① 예
- ② 아니오

Q10-1. 귀하는 현재 생활(사회적 고립/은둔)이 지속되면서 삶의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점이 가장 크게 변화되었습니까? [1개 선택] [Q10-1=①응답자]

- ① 친구나 이웃 등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힘들다
- ② 취업 후 업무를 잘 수행할 자신이 없다
- ③ 스스로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떨어진다
- ④ 자꾸 화가 나고 불안한 마음이 든다
- ⑤ 사소한 일로 가족과 다투는 경우가 많아졌다
- ⑥ 특별히 변화된 삶의 변화는 없다
- ⑦ 기타(_____)

Q10-2. 귀하는 평소에 외출을 자주 하십니까? [1개 선택] [Q10-1=①응답자]

- ① 직장이나 학교로 평일은 매일 외출한다
- ② 직장이나 학교로 일주일에 3~4일 외출한다
- ③ 여가생활을 위해 자주 외출한다
- ④ 사람을 만나기 위해 가끔 외출한다
- ⑤ 보통은 집에 있지만, 자신의 취미생활만을 위해 외출한다
- ⑥ 대부분 집에 있지만, 집 근처 편의점/마트 등에 외출한다
- ⑦ 때때로 집 밖으로 나가지만,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고 혼자 시간을 보낸다
- ⑧ 자기 방에서 나오지만, 집 밖으로는 나가지 않는다
- ⑨ 자기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다
- ⑩ 기타(_____)

Q10-3. 현재와 같은 생활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주요 계기 순서대로 최대 2개를 선택해 주세요. [Q10-2=④~⑨응답자]

- ① (고/중등)학업 중단으로
- ② 대학입학의 실패로
- ③ 취(창)업이 잘 안 되서
- ④ 학교나 직장 등에서 인간관계가 잘 되지 않아서
- ⑤ 임신·출산 때문에
- ⑥ 장애가 있거나 신체적 건강이 좋지 않아서
- ⑦ 정신적/심리적 건강이 좋지 않아서
- ⑧ 사회생활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어서
- ⑨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서
- ⑩ 기타(_____)

Q10-4. 귀하의 일상생활은 어떠합니까? [1개 선택]

전혀 규칙적이지 않다	별로 규칙적이지 않다	보통이다	어느정도 규칙적이다	매우 규칙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Q11. 귀하는 남양주시가 청년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정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모두 선택]

- ① 심리상담 프로그램 확대 ② 진료 등 의료비용 지원
 ③ 정기적인 검진 프로그램 도입 ④ 건강 관련 캠페인 등 인식 개선 프로그램 운영
 ⑤ 생활체육 등 활성화 지원 ⑥ 기타(_____)

IV. 결혼·출산

Q12. 귀하께서는 향후 결혼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1개 선택] [SQ6=①or④ 응답자만]

- ①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다 [→ Q13-1로 이동]
 ②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결혼을 하고싶다[→ Q13-1로 이동]
 ③ 결혼 계획이 없다 [→ Q12-1로 이동]

Q12-1. 귀하께서 결혼 계획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개 선택] [Q12=③ 응답자만]

- ①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②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③ 고용 상태가 불안정해서
 ④ 연애 중인 상대가 없어서/결혼 상대를 만나지 못해서
 ⑤ 출산·양육이 부담 되어서
 ⑥ 자유로운 삶을 포기할 수 없어서
 ⑦ 기타(_____)

→ 응답 후 Q13로 이동

Q13. 귀하께서는 결혼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두 응답]

- ① 자신의 자녀와 가족을 가질 수 있다 ② 정신적 안식처가 생긴다
 ③ 부모나 주위의 기대에 부응한다 ④ 사랑하는 사람과 살 수 있다
 ⑤ 사회적인 신용을 얻을 수 있다 ⑥ 경제적 여유가 생긴다
 ⑦ 가사분담 등 생활이 편리해진다 ⑧ 부모로부터 독립할 수 있다
 ⑨ 기타(_____)

⑩ 좋은 점이 없다

Q13-1. 귀하께서는 결혼하지 않는 것이 어떤 면에서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두 응답]

- | | |
|------------------------|----------------------------|
| ① 행동과 삶이 자유롭다 | ② 가족부양의 책임이 없다 |
| ③ 금전적 여유가 있다 | ④ 넓은 대인관계를 가질 수 있다 |
| ⑤ 이성교제의 자유가 있다 | ⑥ 주거 환경 선택의 폭이 넓다 |
| ⑦ 현재 가족과 관계를 유지 할 수 있다 | ⑧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일에 몰두할 수 있다 |
| ⑨ 기타(_____) | ⑩ 좋은 점이 없다 |

Q14. 귀하께서는 결혼하는데 있어 사회·제도적으로 가장 큰 장애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개 선택]

- | | |
|----------------------------|--------------------------|
| ① 주택마련문제 | ② 집을 제외한 결혼자금의 부족 |
| ③ 부모와 동거 및 부양 문제 | ④ 사회통념 상 적령기가 아니어서 |
| ⑤ 일자리 불안정(실업, 비정규직 등) | ⑥ 학업 중이어서 |
| ⑦ 출산육아로 인한 직장 불이익 및 지속 어려움 | ⑧ 가족관계에서 오는 각종 의무와 역할 분담 |
| ⑨ 생활비 등을 충당하기에 소득 불충분 | ⑩ 기타(_____) |
| ⑪ 결혼 의사 없음 | |

→ Q12=③결혼계획이 없다 응답자는 응답후 Q17로 이동

Q15. 귀하께서는 자녀 계획이 있습니까? [1개 선택]

- ① 아직 자녀 계획은 없으나 언젠가는 계획할 것이다 [→ Q15-1로 이동]
- ② 현재 임신 준비 중 [→ Q15-1로 이동]
- ③ 구체적인 계획은 있다 [→ Q15-1로 이동]
- ④ 딘크(자녀계획은 전혀 없다) [→ Q15-1로 이동]

Q15-1. 귀하께서 출산에 대해 고민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개 선택]

- ① 경제적 여건 불안정
- ② 자녀 양육에 많은 비용이 들어서(교육비 포함)
- ③ 좋은 부모(인성부모로서의 덕목)가 될 자신이 없어서
- ④ 자아 성취 및 여가, 기존 인간관계에 집중하고 싶어서
- ⑤ 자녀 양육과 일 병행이 어려워서
- ⑥ 본인의 사회계층이 대물림 될 것 같아서
- ⑦ 경쟁위주의 사회라서
- ⑧ 안전하지 못한 사회라서
- ⑨ 건강상의 이유
- ⑩ 기타(_____)

Q16. 귀하께서는 자녀를 가지기 위해 어떤 조건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두 응답]

- | | |
|---------------------|--------------------------|
| ① 본인의 안정된 직장 | ② 배우자의 안정된 직장 |
| ③ 본인의 육아 휴직과 복직의 보장 | ④ 배우자의 육아 휴직과 복직의 보장 |
| ⑤ 안정된 주거지 확보 | ⑥ 아이를 키울 만큼의 충분한 소득 |
| ⑦ 규칙적이고 예상 가능한 근로시간 | ⑧ 아이를 언제든 맡길 수 있는 돌봄 서비스 |
| ⑨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가능 | ⑩ 기타() |
| ⑪ 전제조건 없음 | |

Q16-1. 귀하께서는 자녀 몇 명을 계획하십니까?

-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 ⑤ 기타()

V. 경제

Q17. 귀하의 월 평균 소득은 어느 정도입니까? 근로소득, 용돈 등을 모두 포함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1개 선택]

- | | |
|-----------------------|-----------------------|
| ① 100만 원 미만 | ② 100만 원 이상~200만 원 미만 |
| ③ 20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 | ④ 300만 원 이상~400만 원 미만 |
| ⑤ 400만 원 이상~500만 원 미만 | ⑥ 500만 원 이상 |

Q17-1. 귀하의 월 평균 소득을 유형별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각각의 유형별로 몇 % 정도 인지 총합이 100%가 되도록 숫자를 입력해 주십시오. [직접입력]

① 근로소득 (월급)	② 사업소득 (자영업자)	③ 금융소득 (주식, 이자)	④ 임대소득 (부동산)	⑤ 가상자산 (코인, 매매)	⑥ 고용보험 등 정부보조금	⑦ 용돈	⑧ 기타 (대출 등)	총합
()	()	()	()	()	()	()	()	100

Q18. 귀하의 가정에서 1인 기준 한 달 평균 생활비는 어느 정도입니까? [직접입력]

* 주거비용(월세, 대출 상환금, 대출 이자 등)은 제외하고 적어주십시오.

_____ 만원

Q19. 귀하께서 사용하는 생활비의 가장 주된 지출항목은 무엇입니까?

* 주거비용(월세, 대출 상환금, 대출 이자 등)은 제외하고 선택해주십시오. [1개 선택]

- | | | |
|-----------|------------------|-------------|
| ① 식비 | ② 부채 상환비(주거비 제외) | ③ (대중)교통비 |
| ④ 차량유지비 | ⑤ 의류/미용비 | ⑥ 교육/자기계발비 |
| ⑦ 여가활동비 | ⑧ 보험/의료비 | ⑨ 자녀 육아/교육비 |
| ⑩ 부모님 생활비 | ⑪ 기타() | |

Q20. 귀하께서는 부채가 있으십니까? 부채가 있는 경우 보유한 부채(빚)의 주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1개 선택]

- | | | |
|----------------|-----------------|-------------|
| ① 생활비 | ② 주택 매입 보증금 전세금 | ③ 주거 월세 관리비 |
| ④ 차량 구입비 | ⑤ 학자금 등 교육비용 | ⑥ 자기관리비 |
| ⑦ 문화비용(여행비용 등) | ⑧ 사업(창업) 자금 | ⑨ 의료비 |
| ⑩ 결혼비용(주거 제외) | ⑪ 기타(_____) | ⑫ 부채 없음 |

Q21. 귀하는 남양주시가 청년의 금융경제 상황과 관련하여 어떤 정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개 선택]

- | | |
|--------------------------|-----------------------------|
| ① 학자금 대출금 일부 지원 | ② 금융(재무)설계 교육/컨설팅 |
| ③ 청년 대상 긴급 생활안정 저리 대출 지원 | ④ 목돈 마련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 적금상품 |
| ⑤ 청년 수당 등 생활 소득 지원 | ⑥ 기타(_____) |

VI. 일자리

Q22. 귀하의 경제활동 상태는 다음의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1개 선택]

- ① 미취업자(학생, 주부, 구직자 등) [→ Q23으로]
 ② 근로자(전일제 직장인, 파트타임 및 아르바이트 등) [→ Q29로]
 ③ 경영자(창업, 소상공인, 농·어업, 자영업 등 포함), 개인사업 등 [→ Q32로]

학생·구직자

Q23. 귀하는 구직활동 및 취업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1개 선택]

- ① 예 [→ Q23-1로] ② 아니오 [→ Q23-2로]

Q23-1. 귀하께서 구직활동 및 취업준비를 한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1개 선택]

- ① 1개월 미만 ② 1~6개월 미만 ③ 6~12개월 미만
 ④ 1년 이상

Q23-2. 귀하께서 구직활동 및 취업준비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개 선택]

- | | | |
|------------|-------------|------------------|
| ① 학업에 집중 | ② 군입대 대기 | ③ 육아/임신 |
| ④ 가사 | ⑤ 건강상의 이유 | ⑥ 당분간 휴식 |
| ⑦ 공시/고시 준비 | ⑧ 기타(_____) | [→ 응답 후 Q35로 이동] |

Q24. 귀하는 어떤 직장에 취업하기를 희망하십니까? [1개 선택]

- ① 대기업 ② 중소기업 ③ 공공기관 및 공기업
 ④ 정부(중앙 및 지방 공무원) ⑤ 비영리기관 및 사회적 기업 ⑥ 스타트업
 ⑦ 개인사업(창업 또는 승계 등) ⑧ 기타(_____)

Q25. 귀하는 어떤 직종에 취업하기를 희망하십니까? [1개 선택]

- ① 경영, 사무, 금융, 보험직 ②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③ 교육, 법률, 사회복지, 경찰, 소방직 ④ 보건, 의료직
 ⑤ 예술, 디자인, 방송, 스포츠직 ⑥ 미용, 여행, 숙박, 음식, 경비, 청소직
 ⑦ 영업, 판매, 운전, 운송직 ⑧ 건설, 채굴직
 ⑨ 설치, 정비, 생산직 ⑩ 농림, 어업직
 ⑪ 기타(_____)

Q26. 귀하께서 희망하는 근로 형태는 무엇입니까? [1개 선택]

- ① 정규직 ② 비정규직 ③ 파트타임(아르바이트 등)
 ④ 프리랜서 ⑤ 자영업 등 고용주 ⑥ 기타(_____)

Q27. 귀하께서 일자리 선택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모두응답]

- ① 임금수준 ② 고용 안정성 ③ 사회적 인정
 ④ 직업의 전망 ⑤ 개인경력 발전 가능성 ⑥ 업무의 자율성
 ⑦ 전공 또는 기술 적합성 ⑧ 근로 환경 및 복리후생 ⑨ 출퇴근 소요 시간
 ⑩ 노동강도 ⑪ 워라벨(work-life balance) ⑫ 기타(_____)

Q28. 귀하가 구직활동 중 느끼는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모두응답]

- ① 일자리 부족 ② 취업준비 비용 마련
 ③ 진로 선택의 어려움 ④ 경력 쌓기의 어려움
 ⑤ 적절한 근로조건에 직장 부재 ⑥ 취업 정보 부족
 ⑦ 외모, 학력, 성별 등의 차별 ⑧ 전공, 기술 자격요건 부적합
 ⑨ 취업 희망 산업, 기업의 부재 ⑩ 기타(_____)

→ 응답 후 Q35로 이동

근로자

Q29. 귀하의 현재 직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1개 선택]

- ① 남양주 ② 서울 ③ 구리
 ④ 기타(_____)

Q29-1. 귀하의 고용 형태는 다음의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1개 선택]

- ① 정규직 ② 비정규직 ③ 파트타임(아르바이트 등)
④ 프리랜서 ⑤ 기타(_____)

Q30. 귀하는 현 직장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 [1개 선택]

매우 불만족한다	불만족한다	보통이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Q31. 귀하께서는 현재 직장에서 이직을 검토하거나 계획한 적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개 선택]

- ① 임금 ② 승진 가능성 ③ 정년까지 근무 가능성
④ 장기적 진로설계 ⑤ 회사 성장 전망 ⑥ 정규직 여부
⑦ 사내 분위기 ⑧ 복지제도 ⑨ 직무 만족도
⑩ 통근시간 ⑪ 기타(_____) ⑫ 이직 의사 없음

[→ 응답 후 Q35로 이동]

경영자

Q32. 귀하의 창업(사업) 장소는 어디입니까? [1개 선택]

- ① 남양주 ② 서울 ③ 구리
④ 기타(_____)

Q32-1. 귀하가 창업 또는 개인사업을 결심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개 선택]

- ①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② 사회적으로 성공하기 위해
③ 아이디어를 사업으로 실현하기 위해 ④ 나의 전문영역/적성을 활용하기 위해
⑤ 취업이 어려워서 ⑥ 지인이 같이 창업하자고 권유해서
⑦ 가업의 승계를 위해 ⑧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쓰기 위해
⑨ 기타(_____)

Q33. 귀하가 사업을 경영하며 겪고 있는 가장 큰 애로는 무엇입니까? [모두응답]

- ① 원활하지 않은 자금 흐름 ② 판로 및 물량 문제(소비자 감소 포함)
③ R&D 역량 등 부족 ④ 근로자 수급 문제
⑤ 경영 관리 경험 부족 ⑥ 도급위탁 기업의 불공정거래 또는 갑질
⑦ 규제 법령 및 제도 ⑧ 정부, 남양주시의 제도적 지원 부족
⑨ 기타(_____)

Q34. 귀하께서는 사업을 경영하며 근로자 수급(직원 채용)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근로자 수급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1개 선택]

- ① 전문 기술 근로자 부족 ② 보수 등 근로조건의 불일치
 ③ 근로자 고령화 추세 ④ 경력 근로자 부족
 ⑤ 기타() ⑥ 어려움 없음

공통

Q35. 귀하는 남양주시에 청년을 위한 일자리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개 선택]

- ① 일자리가 충분함
 ②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음

Q35-1. 귀하는 남양주시에 있는 기업에 취업하시겠습니까? 혹은 이직할 의향이 있습니까? [1개 선택]

전혀 그럴 생각이 없다	별로 그럴 생각이 없다	반반이다	어느 정도 그럴 생각이다	매우 그럴 생각이다
①	②	③	④	⑤

Q35-2. 그렇다면, 남양주 내 기업에 취업(이직)을 원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개 선택]

- ① 워라밸이 충족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② 임금 수준이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③ 문화, 여가생활 등 인프라 수준이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④ 지식집약산업(4차산업), 첨단산업(6T산업) 등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⑤ 대기업이나 공기업이 없고 중소기업뿐이라서
 ⑥ 기타()

Q36. 남양주시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고용 및 일자리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개 선택]

- ① 구직을 위한 활동비 지원 ② 진로 탐색 및 체험 프로그램
 ③ 일자리 정보제공 ④ 기업 투자 유치 활성화
 ⑤ 청년 창업가 공간 지원 및 컨설팅 ⑥ 일자리 매칭(청년과 기업을 서로 매칭)
 ⑦ 공공일자리 창출 ⑧ 일자리 박람회
 ⑨ 기타()

Q36-1. 남양주시 청년 일자리 정책에 부족한 면이 있다면, 귀하는 그것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심각한 한 가지만 체크해 주세요. [1개 선택]

- ① 정책 홍보가 부족하여, 청년 일자리 정책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
 ② 지원 조건이 까다로워, 청년과 기업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③ 지원 규모가 크지 않아서, 정책에 참여하고픈 욕구를 느끼지 않는다
 ④ 여러 정책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는 거의 없다
 ⑤ 기타()

Q36-2. 남양주시 일자리 환경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개 선택]

- | | |
|---------------------|-------------|
| ① 근로자 권리 보호 | ② 기업 투자 유치 |
| ③ 전문인력 양성 | ④ 산업단지 조성 |
| ⑤ 중소기업 지원 | ⑥ 창업 컨설팅 |
| ⑦ 교통, 인프라 등 물류환경 개선 | ⑧ 기타(_____) |

VII. 주거

Q37. 귀하의 가구 구성 형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1개 선택]

- | | |
|-------------------------|-----------------------------|
| ① 1인 가구 | ② 가족과 동거(부모, 형제, 배우자, 자녀 등) |
| ③ 비가족과 동거(친구, 연인, 동료 등) | ④ 기타 |

Q37-1. 귀하의 주거 계약 형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1개 선택]

- | | | |
|-------------|-------------|------------|
| ① 자가 | ② 전세(일반) | ③ 전세(공공주택) |
| ④ 보증금 있는 월세 | ⑤ 일세 | ⑥ 무상 |
| ⑦ 기숙사, 관사 | ⑧ 기타(_____) | |

Q37-2. 귀하의 주거 형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1개 선택]

- | | | |
|-----------|-------------|-----------------------|
| ① 원룸 | ② 고시원 | ③ 오피스텔 |
| ④ 아파트 | ⑤ 단독주택 | ⑥ 다가구주택(빌라 등 여러세대 거주) |
| ⑦ 기숙사, 관사 | ⑧ 기타(_____) | |

Q37-3. 귀하의 월평균 주거비용(월세, 대출금 및 대출이자, 관리비 등)은 어느 정도입니까? [1개 선택]

- | | |
|-----------------------|-----------------------|
| ① 50만 원 미만 | ② 50만 원 이상~100만 원 미만 |
| ③ 100만 원 이상~150만 원 미만 | ④ 150만 원 이상~200만 원 미만 |
| ⑤ 20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 | ⑥ 300만 원 이상 |
| ⑦ 없음 | |

Q38. 귀하께서 거주지를 선택하는 가장 주요한 요인은 무엇입니까? [1개 선택]

- | | |
|--------------------|-------------|
| ① 가격(매매, 전세, 월세 등) | ② 교육환경 |
| ③ 직장 접근 | ④ 자녀육아 및 양육 |
| ⑤ 거주 안정성 및 주변 치안 | ⑥ 재테크 수단 |
| ⑦ 교통 여건 | ⑧ 편의/위락시설 |
| ⑨ 해당 지역의 이미지 | ⑩ 주거 형태 |
| ⑪ 기타(_____) | |

Q39. 귀하께서는 현재 거주하시는 집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1개 선택]

매우 불만족한다	불만족한다	보통이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PROG : Q39=① or ② or ③만 응답]

Q39-1. 만약 만족하지 못한다면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개 선택]

- ① 시설낙후 또는 면적 협소 ② 교통 불편
- ③ 비위생적이거나 유해한 환경 ④ 높은 주거비
- ⑤ 주차시설 부족 ⑥ 채광, 통풍, 소음 등 문제
- ⑦ 불안한 치안 ⑧ 상업시설 부족
- ⑨ 문화/여가시설 부족 ⑩ 공원 녹지 부족
- ⑪ 기타()

Q40. 귀하께서는 부모님(보호자)과 따로 살아본 적이 있거나, 현재 분가 중입니까? [1개 선택]

- ① 부모님(보호자)과 따로 살고 있다(현재 분가 중) [→ Q40-1로]
- ② 부모님(보호자)과 따로 살아본 경험은 있지만, 현재는 같이 살고 있다 [→ Q40-1로]
- ③ 부모님(보호자)과 함께 살고 있으며, 따로 살아본 적이 없다 [→ Q42로]

Q40-1. 귀하께서 분가를 하게 된(했었던) 계기는 무엇입니까? [1개 선택]

- ① 학업을 위해(고등학교, 대학교/대학원 등)
- ② 취업 준비를 하기 위해(자격증/시험 공부 등)
- ③ 직장생활의 시작 혹은 이직 때문에(직장 위치 등)
- ④ 이성친구와의 동거
- ⑤ 결혼
- ⑥ 자발적 선택
- ⑦ 부모님(보호자)과의 갈등
- ⑧ 기타()

Q41. 귀하께서 분가하면서 발생한 주거비용은 누가 충당했습니까? [1개 선택]

- ① 본인(대출 포함)
- ② 부모(보호자)
- ③ 본인-부모(보호자)함께
- ④ 기타(장학금, 국가 보조금 등)

Q41-1. 현재 귀하께서는 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 경제적 독립을 하셨습니까? [1개 선택]

- ① 예(모든 경제권을 본인이 스스로 해결, 부모/가족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전혀 받지 않음)
- ② 아니오

[→ 응답 후 Q44로 이동]

Q42. 귀하께서는 현재 부모님(보호자)과 따로 살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개 선택]

- 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 ②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서
- ③ 부모님(보호자)과 사는 게 좋아서
- ④ 부모님(보호자)이 반대해서
- ⑤ 기타(_____)

Q43. 귀하께서는 향후 부모님(보호자)과 따로 살 계획이 있습니까? [1개 선택]

- ① 예
- ② 아니오

Q44. 귀하께서는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주거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개 선택]

- ①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위한 청년주택 공급
- ② 범죄예방환경설계(안전가로등, 우범지역 골목길 도색 등)
- ③ 주거 정보제공
- ④ 임차인 권리 보호 및 상담
- ⑤ 대출 등 주거비용 지원
- ⑥ 기타(_____)

VIII. 참여·권리

Q45.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남양주시의 정책 결정, 입법 과정 등에서의 청년 참여 활동에서의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1개 선택]

- ① 시간 부족
- ② 비용 부담
- ③ 청년 공간/인프라 부족
- ④ 교통 불편
- ⑤ 지역 내 다양한 모임이 없음
- ⑥ 참여자가 점점 줄어들
- ⑦ 취업 준비 등 심리적 압박
- ⑧ 청년의 약한 발언권
- ⑨ 기타(_____)
- ⑩ 애로사항 없음

Q46. 귀하는 남양주시의 청년교류 활성화가 가장 필요한 대상 분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개 선택]

- ① 농업·임업·어업
- ② 미래산업(6차·첨단산업 등)
- ③ 일자리
- ④ 문화예술·스포츠
- ⑤ 관광
- ⑥ 평생교육
- ⑦ 자원봉사
- ⑧ 청년권리 등 단체 활동
- ⑨ 친목 및 정보공유
- ⑩ 지역(마을) 역량 강화 및 애함심 제고
- ⑪ 기타(_____)

Q47. 귀하는 청년들의 의견을 대변하기 위해서 어떤 조직 또는 통로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개 선택]

- ① 주민자치 조직 ② 시민사회 조직 ③ 청년 정책 위원회
 ④ 청년 정책 네트워크 ⑤ 간담회, 토론회, 공청회 ⑥ 남양주시청 홈페이지
 ⑦ 남양주시 청년 소셜미디어(SNS) ⑧ 남양주시 청년관련 전담부서 ⑨ 청년 오프라인 공간
 ⑩ 남양주시 청년 종합 플랫폼(온라인) ⑪ 기타()

Q47-1. 귀하는 남양주시의 청년대상 공간을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모두선택]

- ① 남양주시청청년창업센터(청년꽃간)
 ② 우리동네 청년꽃간
 ③ 모두 이용한 적 없음
 ④ 기타()

Q47-2. 귀하는 남양주시가 청년대상으로 어떤 공간을 만들어주면 이용할 의향이 있습니까? [직접입력]

IX. 교육·훈련

Q48. 귀하께서는 취업 준비를 위해 다음 중 무엇을 했습니까? [모두응답]

- ① 공모전 등 대외활동 ② 대학원 진학 ③ 어학 관련 교육 및 시험
 ④ 어학연수/해외연수 ⑤ 인턴/현장실습 ⑥ 자격증 취득 및 교육
 ⑦ 직무적성검사 준비 및 교육 ⑧ 직업훈련 ⑨ 취업 동아리
 ⑩ 취업 컨설팅 ⑪ 기타()

Q49. 공식교육(학교)을 제외하고, 귀하가 취업을 위해 준비한 기간(준비하고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1개 선택]

- ① 6개월 미만 ② 6개월 이상~1년 미만 ③ 1년 이상~2년 미만
 ④ 2년 이상~3년 미만 ⑤ 3년 이상

Q50. 귀하는 취업과 관련한 각종 정보 및 교육을 어떤 경로로 얻었습니까? [모두응답]

- ① 학교 취업정보실 ② 인터넷(취업사이트/카페 등)
 ③ 교수님(학과사무실 포함) ④ 부모 또는 친척
 ⑤ 친구, 선후배 등 지인 ⑥ 생활정보지
 ⑦ 공공취업알선기관(고용센터 등) ⑧ 사설취업알선기관
 ⑨ 직업 및 취업 박람회 ⑩ 학원
 ⑪ 현장실습/인턴십 ⑫ 기타()

Q50-1. 취업과 관련한 각종 정보 및 교육 중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1개 선택]

- ① 학교 취업정보실 ② 인터넷(취업사이트/카페 등)
③ 교수님(학과사무실 포함) ④ 부모 또는 친척
⑤ 친구, 선후배 등 지인 ⑥ 생활정보지
⑦ 공공취업알선기관(고용센터 등) ⑧ 사설취업알선기관
⑨ 직업 및 취업 박람회 ⑩ 학원
⑪ 현장실습/인턴십 ⑫ 기타()

Q51. 귀하께서는 청년들이 진로·적성을 파악하는데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개 선택]

- ① 다양한 진로체험을 위한 인턴십 ② 진로 상담 및 정보 취득을 위한 멘토
- ③ 적성파악을 위한 상담 및 심리검사 ④ 다양한 분야의 무료 강의 및 교육프로그램
- ⑤ 진로탐방 및 견학 ⑥ 진로 분야별 소모임 및 동아리 활동
- ⑦ 기타()

Q51-1. 귀하께서는 어떤 영역의 교육이나 훈련을 받고 싶습니까? 순서대로 2 개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교육상담서비스(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 모의면접 등)
- ② 특정 직종과 관련된 직업훈련
- ③ 창업 교육
- ④ 어학 교육
- ⑤ 취업준비를 위한 비용 지원
- ⑥ 모두 필요없음
- ⑦ 기타()

Q52. 귀하는 청년 능력개발(교육) 분야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개 선택]

- ① 교육내용이 취업현장에 바로 접목되지 않음
- ②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음
- ③ 교육비(등록금, 교재비 등)가 많이 듦
- ④ 교육 이외 주거비용부대비용이 많이 듦
- ⑤ 생활권 인근에서 원하는 수준의 교육을 받기 어려움
- ⑥ 생활권 인근에서 원하는 분야의 교육을 받기 어려움
- ⑦ 기타()

X. 생활여건

Q53. 귀하는 지난 한 해(2025년) 동안 경제적인 이유로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있다	없다	비해당
1) 돈이 없어서 공교육비(대학등록금 포함)를 한 달 이상 내지 못한 적이 있다	1	2	3
2) 돈이 없어서 본인이나 가족이 병원에 갈 수 없었던 적이 있다	1	2	3
3) 본인 또는 가족 중 신용유이자(금융채무불이행자, 신용불량자)인 사람이 있다	1	2	3
4) 경제적으로 어려워 임대료, 대출금, 관리비 등을 지불하지 못한 적이 있다	1	2	3
5)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집의 냉·난방을 유지하지 못한 적이 있다	1	2	3

Q54. 지난 한 해(2025년) 동안 귀하의 생활비가 부족한 적이 있었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셨습니까? 가장 주된 방법부터 순서대로 최대 2개까지 선택해 주십시오.

- ① 부모에게 빌리거나 무상으로 지원 받음
- ② 친척이나 친지에게 빌림
- ③ 친구나 이웃에게 빌림
- ④ 제1금융권 대출 이용(은행 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 현금서비스 등 이용)
- ⑤ 제2금융권 대출 이용 및 사채 이용
- ⑥ 저축이나 예금, 적금 등 해약
- ⑦ 부동산매각, 전세나 월세의 규모를 줄임
- ⑧ 주식이나 채권을 비롯한 금융자산 매각(파생금융상품(CD, MMF 등) 포함)
- ⑨ 자동차나 내구재 또는 금, 은 등의 귀중품 매각
- ⑩ 기타()
- ⑪ 해결하지 못함

Q55. 지난 한 해(2025년) 동안 귀하의 생활에 가장 부담이 되었던 항목은 무엇입니까? 가장 부담이 되었던 항목을 순서대로 최대 2개까지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식비
- ② 의료비
- ③ 공교육비
- ④ 사교육비, 자기계발비
- ⑤ 주거비(월세, 관리비 등)
- ⑥ 각종 빚(채무)의 원리금 상환
- ⑦ 교통비(대중교통 이용, 자동차 유지비용)
- ⑧ 경조사비
- ⑨ 통신비(휴대폰, 인터넷)
- ⑩ 사회보험료, 세금, 공과금 등

- ㉑ 가족이나 친지 보조(같이 살고 있지 않은 부모님, 가족을 위해 지출한 비용)
 ㉒ 문화사고비
 ㉓ 기타()
 ㉔ 부담되는 경우가 없다

Q56. 귀하는 요즘 귀하의 삶에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 [1개 선택]

매우 불만족한다	불만족한다	보통이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XI. 남양주시 정책평가

Q57. 귀하께서 현재 포기하고 있거나 향후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모두선택]

- ① 연애 ② 결혼 ③ 출산 ④ 내 집 마련
 ⑤ 대인관계 ⑥ 취업 ⑦ 학업 ⑧ 기타()
 ⑨ 없음

Q58. 귀하께서는 남양주시 청년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개 선택]

- ① 청년 일자리 부족 ② 청년 부채 관리 ③ 주거 빈곤
 ④ 문화 빈곤 ⑤ 교류 부족 ⑥ 청년 정신건강
 ⑦ 부당한 근로여건 ⑧ 기타()

Q59. 현재 귀하가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1개 선택]

- ① 취업 ② 주거비용 조달 ③ 생활비 등 돈마련
 ④ 문화 활동 참여 ⑤ 교육(본인 외 교육) ⑥ 각종 차별(외모, 학력, 성별 등)
 ⑦ 결혼에 대한 압박 ⑧ 연애 ⑨ 출산, 육아
 ⑩ 기타()

Q60.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남양주시 청년 문제의 각 항목별 중요도를 선택해 주십시오.

항목	전혀 중요하지 않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어느 정도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1) 생활지원(여가, 건강, 결혼·출산, 경제)	1	2	3	4	5
2) 일자리	1	2	3	4	5
3) 주거	1	2	3	4	5
4) 참여 및 권리	1	2	3	4	5
5) 능력개발(교육)	1	2	3	4	5

※ 다음은 남양주시의 청년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VISION

청년이 뜬다! 남양주가 뜬다! 함께 성장하는 남양주

청년담당관 + 17개 부서 +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일자리 19개 사업 (1,936백만원) · 청년창업센터 운영 · 청년도전지원 사업 · 청년인증기업 지원 · 청년인재 일자리연계 플랫폼 · 청년 해외연수단 · 농특산물전시판매전 · 일자리카페, 취업박람회	안전한 자립지원 주거 6개 사업 (2,609백만원)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 자립준비청년 자립자금 지원 · 청년 주거급여 지원 · 청년월세 지원사업 · 청년이사비 지원(신규) · 남양주청년월세 지원(신규)	청년 삶의 life-up 복지 19개 사업 (35,539백만원) · 청년기본소득 · 청년내일저축계좌 · 청년농업인 기회소득 지원 · 고립청년지원사업 · 청년마음건강센터 운영 · K-패스,기후통행카드 · 경기청년역량강화 기회지원	행복한 일상지원 문화 5개 사업 (333백만원) · 청년꽃간 문화프로그램 · 청년공간 활성화사업 · 청년야학당(참여) 프로그램 · 청년문화예술패스
청년 정책참여 & 소통 참여	8개 사업 (477백만원) · 청년정책협의체·위원회 운영 · 청년 커뮤니티(소모임) 활성화 · 청년행정체험 연수 · 예비청년 지원	· 청년소통 SNS 운영 · 청년축제 · 대학생플래너즈 운영 · 청년참여정책 발굴 운영	

Q61. 귀하는 남양주시 청년 지원사업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1개 선택]

- ① 전혀 알지 못한다(관심도 없다)
② 지원사업 몇 개 정도만 아는 수준이다
③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
④ 전반적으로 자세히 알고 있다

Q62. 귀하는 최근 1~2년 내에 남양주시 청년 지원사업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1개 선택]

- ① 예 [→ Q62-1로] ② 아니오 [→ Q63으로]

Q62-1. 귀하가 최근 1~2년 내에 경험하신 남양주시의 청년 지원사업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인 명칭이 생각나지 않으시면 대략적인 내용을 적어주십시오. **[직접입력]**

Q62-2. 귀하가 최근 1~2년 사이에 남양주시의 청년 지원사업을 경험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입력]

Q62-2. 귀하께서는 남양주시 청년 지원사업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1개 선택]

매우 불만족한다	불만족한다	보통이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Q62-3. 귀하께서는 남양주시 청년 지원사업에 대해 불만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개 선택][PROG : Q62-2=①or② 응답자만]

- ① 까다로운 신청 조건 및 높은 진입장벽
- ② 홍보 부족 및 복잡한 정보 접근성
- ③ 실무와 동떨어진 단발성·현금성 지원
- ④ 지역 간 정책 격차 (인프라 불균형)
- ⑤ 복잡한 서류 절차와 행정 편의주의
- ⑥ 기타()

Q62-4. 귀하가 청년 지원사업을 경험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시간 부족(학업, 직장 업무, 취업 준비 등)
- ② 복잡한 신청 절차(서류 준비 및 온라인 시스템 이용의 어려움)
- ③ 까다로운 자격 요건(소득 기준, 나이 제한, 거주 기간 등)
- ④ 홍보 부족(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때 접하지 못함)
- ⑤ 접근성 불편(행사장이나 운영 공간이 너무 멀거나 교통이 불편함)
- ⑥ 기타()

Q63. 귀하께서는 청년 지원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개 선택]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Q64. 귀하께서는 남양주시 청년을 위한 지원사업이 다음 중 어떠한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개 선택]

- ① 특정한 우선순위 또는 선정기준 없이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
- ②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우선순위(소득 및 재산 기준)의 청년들에게 제공

Q65. 귀하께서는 앞으로 남양주시가 청년 지원사업에서 우선적으로 강화해야 할 영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으로 3개까지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먹거리 지원(건강한 식재료 지원, 쿠킹클래스 운영, 식비 부담 완화)
- ② 주거 지원(임대주택 공급, 주거비 부담 완화)
- ③ 자기탐색 지원 사업(e.g. 진로, 취업, 교육, 훈련 지원)
- ④ 고용(취업, 창업) 지원
- ⑤ 소득 지원(생활비 등)
- ⑥ 자산 지원(자산형성통장, 내일채움공제 등)
- ⑦ 건강관리(신체, 정신) 지원
- ⑧ 학자금 지원
- ⑨ 신용회복 지원
- ⑩ 여가/문화 지원
- ⑪ 법률 지원
- ⑫ 참여 보장 및 권리 강화
- ⑬ 커뮤니티 지원(취미 및 정보 공유)
- ⑭ 교통수단 관련 지원(교통비 할인, 교통수단 대여 등)
- ⑮ 기타(_____)

Q66. 마지막으로, 남양주시 청년 정책에 관한 추가 제안이 있으면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연구책임자 이영안 (남양주시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참여연구원 이 선 (남양주시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윤구 (남양주시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장유미 (남양주시정연구원 부연구위원)

NRI-전략-2026-01

남양주시 청년 실태조사와 정책 방향 연구

A Study on the Youth Survey and Policy Directions in Namyangju City

발행인 강제상

발행처 남양주시정연구원

남양주시 다산순환로 20, A동 1035~39호 남양주시정연구원
(우편번호) 12248

인 쇄 2026년 6월 30일

발 행 2026년 6월 30일

© 2026 남양주시정연구원

이 보고서를 인용 및 활용 시 아래와 같이 출처 표시해 주십시오.

이영안 외. 2026. 「남양주시 청년 실태조사와 정책 방향 연구」. 남양주시정연구원.

비매품



재단법인 남양주시정연구원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순환로20 현대프리미어캠퍼스 A동 10층

홈페이지: <https://www.nyj.re.kr/>